# 경기도의 민속예술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 경기도의 민속예술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0년사(제2집)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발 간 사

# 민속예술 계승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



도민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전승 보존되어 온 「경기도의 민속예술」이 날이 갈수록 우리고장이 유서깊은 전통문화예술의 중심권이라는 자긍심을 더욱 높혀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싯점에서 그에 대한 기록보존의 일환으로 「경기도의 민속예술」( 제2집)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다가오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창출하는데 초석이 되는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고장의 전통민속예술을 새롭게 조명하고 발굴 · 계승하는 각고의 노력이야말로 민속문화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문화향수와 애향심을 한층 더 고취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외래문화를 지향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유구한 역사와 독창적인 문화의 소중함을 모르고 남의 문화만을 추구한다면 결국은 문화식민지라는 부끄러운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를 범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하고 계승 · 발전 시키는 것이 곧 향토와 나라를 사랑하는 근본이 되며 나아가 우수한 문화민족으로서 세계문화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경기도민과 각계의 전통민속예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참다운 향토 사랑의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며 본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자료수집에 협조해 주신 각 시 · 군 문화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 12.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송 승 영

# 여 백

# 목차


**발간사** 5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수원시** 13
• 못골 호신당제(虎神堂祭)

**성남시** 27
• 쌍용거줄다리기

**안양시** 31
• 만안답교놀이 • 수촌마을 도당제 • 석수동 쌍산신제
• 채석장 노동요 • 날미 농악

**부천시** 71
• 오정농악

**동두천시** 77
• 하봉암리 도당굿 사냥거리

**고양시** 95
• 싱아대(말장박는)소리 • 십이지신 불한당 몰이 놀이
• 쌍그네 놀이 • 십이채 두레잽이 놀이 • 멩개안 사(巳)줄다리기

# 목차


115 **구리시**
• 풍물놀이 • 정월 대보름 놀이

125 **남양주시**
• 퇴계원 산대놀이

135 **오산시**
• 길놀이

139 **시흥시**
• 월미농악 • 전하 봉영놀이

145 **군포시**
• 당말 풍물놀이 • 시화연풍

153 **하남시**
• 거북놀이 • 장치기 • 동리 농악

177 **용인시**
• 윗다리 풍물 • 할미성 대동굿

# 목차


**파주시** 191
• 술이홀 태평12지놀이 • 회다지소리

**이천시** 221
• 단드래 줄다리기

**양주군** 231
• 소놀이굿 • 고전농악

**여주군** 267
• 마래리 거북놀이 • 장채놀이 • 여주농악

**화성군** 297
• 구장터 면생이 • 원리 줄다리기

**광주군** 311
• 남한산성 위령제

**연천군** 317
• 아미산 울어리 • 미산 성주걸이

# 목차


327 **가평군**
• 회다지 소리 • 황포 돛배놀이

343 **양평군**
• 풍년기원 놀이 • 쌍겨리 놀이 • 산신제 축원굿

355 **안성군**
• 극적루

365 **김포군**
• 농상패 논 김매기 노래 • 통진 두레놀이

381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경기도 수상현황**

382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수상현황**

383 **편집후기**

# 일러두기

1 이 책자에 수록된 전통민속예술은 경기도 지방에서 전래되고 있는 작품들이다.

2 수록된 작품들은 제 1회 (1982년)부터 10회에 걸쳐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재현된 민속예술 작품들이다.

3 수록된 작품들은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및 각 시 · 군 문화원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각계의 고증을 거쳐 현지 주민에 의하여 재현된 작품을 우선적으로 수록하였다.

4 수록된 작품중 김포군의 통진두레놀이는 1집에 수록되었으나 내용을 더 보강하여 2집에 재수록 하였다.
(제38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작품)

5 작품의 수록순서는 경기도의 시 · 군 순서 규정에 준하였다.

6 작품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원형보존 상태로 수록하였으며 표기는 현대국어 표기법을 따랐다.

7 수록된 민속예술 작품은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에서 자료를 수집, 보강하여 편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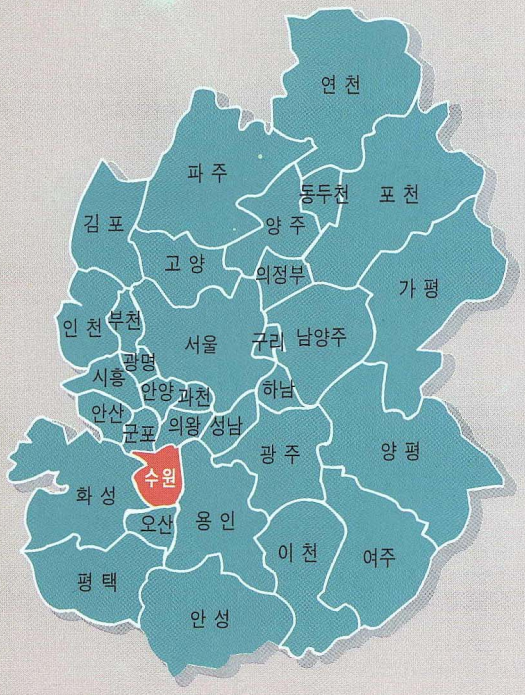
8 보는 이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경기도 행정지도 상에 해당 시 · 군 위치를 표기하였다.

9 작품의 내용설명은 전승지, 유래, 해설, 특징, 구성, 내용 등의 순서로 통일하였다.



# 수 원 시

## 못골 호신당제(虎神堂祭)



# 여 백

민속놀이

# 못골 호신당제(虎神堂祭)

## 1. 전승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池洞)

## 2. 유래 및 해설

### 1) 해설

못골 호신당은 한마디로 마을 제당이다.

마을 제당은 마을 사람들이 일정한 날에 모여 마을의 안녕과 풍년등을 기원하는 마을제를 지내는 제당으로서 각지역과 마을에 따라 산제당, 산신당, 성황당(서낭당), 도당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곳에서 마을사람들이 지내오고 있는 마을제는 무속, 가정신앙들과 같이 한국 민간신앙의 한 핵심이며 대표적인 지연공동체의 신앙이다. 이러한 민간신앙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원초 이래로 민중생활의 필요에 의



해서 자연발생해 온 것이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마한의 천신제등은 자연발생해온 지연 공동체 신앙의 역사에서 초기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제천의식들은 제정일치 사회에서는 종교요, 정치이며 종합예술이기도 했다는 것은 이미 잘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마을제의 유구한 역사의 원류라는 것도 지금은 한국민속학의 공통된 견해다.

마을제는 신성기간을 설정하고 화합단결을 다진다. 또 지금도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정치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와함께 농악대, 굿놀이, 가면극, 줄다리기 등을 곁들여서하는 축제기능과 예술 전승의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종교의례로는 혈연중심의 유교적인 조상제사가 있고 지연 중심의 마을제가 양립하고 있었는데 마을제는 보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본질적으로 대동단합의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하, 해방후 외래문화의 범람,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제당들은 하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 마을제로 인한 민족의 단합을 막기 위한 일본의 탄압과 미신이라는 교육, 급속한 개발로 인한 제당의 파괴 등이 그 원인이었다.

못골 호신당은 80년대초 개발의 와중에서 사라졌다.

### 2) 유래

못골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池洞)의 원 지명으로 지금도 이곳 주민들은 지동으로 부르기 보다는 못골이란 지명을 더 애용하고 있다.

못골은 정조대왕의 명으로 수원성(원명은 화성 : 華城)을 쌓을 때 성의 사방에 못을 하나씩 파도록 해 이곳에도 연못이 생겨났는데 못골이란 지명은 이때부터 생겼다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오래전부터 커다란 연못이 존재했었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조선말기에 발행된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에는 축만제(祝萬堤), 만석거(萬石渠), 남제(南堤), 남지(南池), 북지(北池), 용연(龍淵), 곤신제(坤申堤), 만년제(萬年堤) 등 수원과 인근의 연못. 저수지 등이 소개되고 있으나 못골 쪽의 저수지나 연못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못골은 수원시내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이 아니면서도 최근까지 시내 다른 곳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곳이다.

이 마을이 개발의 물결을 타게 된 것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 초까지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과 경수산업도로 개설 이후부터다.

그후 이곳은 일부 지역을 빼곤 몰라볼 정도로 많은 변모를 했다.

현재의 산업도로 변에 있던 못골 호신당도 이때 사라지게 됐다. 이곳의 위치는 산업도로의 창룡문(동문) 네거리와 동수원네거리 방향 담배고개의 중간지점 오목한 곳으로 예전에는 얕으막한 산이었던 곳이다. 82년 3월경 호신당은 헐리고 이 자리엔 농협지점이 있는 건물이 들어섰다.

마을 사람들은 호신당을 헐고 그 대지를 매각해 지난 85년 길 건너편에 있는 못골 새마을회관을 건립했다.

호신당은 산신당(山神堂), 또는 그냥 당집이라고도 불린다.



유래는 정확하지 않으며 건립시기도 확실치 않다. 마을 고로들은 그저 1백년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호신당은 처음 일반 마을 제당처럼 산신에게 마을의 평안과 액막음, 풍농 등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졌다.

당집의 크기는 5~6평 가량으로 당초는 초가였다. 이곳에 큰 시루 2개와 제기를 놓아두고 제를 지낼때마다 사용했다.

제를 지내는 것은 3년에 한번씩으로 제를 지내기 전에는 지붕과 벽을 둘렀던 짚이엉을 뜯어내고 항상 새로 입혔다.

그러다가 40여전전부터 주민 공동으로 짚이엉 대신 벽체는 블럭벽돌, 지붕은 기와를 울려 반영구적인 당집을 건축하고 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이 당집이 호신당으로 불리게 된 시기는 잘 알수 없다. 전기한 것처럼 지금도 산신당, 당집으로 함께 불려지고 있듯이 주민들 간에도 확실한 호칭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이곳에서 아주 오래 살아오신 마을 주민들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호랑이 얘기가 등장해 호랑이와 관련된 당집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밤에 방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아 글쎄 화등잔만한 시뻘건

불이 보이지 않아? 그게 호랑이 눈이었지. 너무 놀랬는데 부친께서 나오셔서 그걸 보시더니 그쪽으로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비시는 거예요. '신령님, 신령님, 이곳엔 무엇하러 내려 오셨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오셨습니까? 치성을 드리테니 노여워마시고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야 …….."

못골은 지금과 달라서 당시만해도 산림이 우거진 산골과 같았다. 못골의 동쪽과 북쪽은 광교산 자락이 흘러 내려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 지역 고로(古老)들의 말이다.

특히 못골~동수원네거리 산업도로 중간에 있는 고개를 담배고개라고 하는데 옛날엔 이곳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해 행인들이 지나 가기가 무척 힘들었다.

어쨌거나 이런 사실로 미루어 못골은 호랑이와 연관이 깊은 곳으로 생각된다.

호랑이는 우리에게 전래돼 오는 민화(民畵), 민담(民談), 전설(傳說)등을 통해 볼때 민중들과 무척 친근한 동물이면서도 산중에서, 또는 민가에 내려와 사람과 가축을 해치는 무서운 동물이기도 했다.

그래서 호랑이는 「산중의 왕」으로 불렸으며 민간신앙의 대상으로서 산신으로 숭배되기까지 했다.

호랑이의 출현으로 마을 사람들은 밤잠을 설칠수 밖에 없었고 날이 밝자마자 긴급 마을회의가 소집됐다.

마을사람들은 의논끝에 산신령을 달래는 마을 고사를 지낼 것을 결의하고 당집에서 정성껏 제를 올렸다. 그후 호랑이는 내려오지 않았다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있다.

지난 67년도에 조사된 마을제당 설문지 자료 중 당시 연무초등학교 교사 김춘환씨가 조사한 기록을 보면 「동네에 호랑이가 내려와(민해는 없었음) 주민이 공포에 떨던중 문복(門卜)한 결과 제당을 짓고 산신을 위하면 괜찮다는 말에 동네서 각출, 제당을 짓고 산신을 모심. 그후부턴 없었다는 것이고 3년만큼 제를 지내는데 제를 안지내고 지나가게 되면 산신(호랑이)이 내려와 그 자리에서 밤에(눈에)불을 켜고 있다 함」이라고 되어 있다.

또 같은 시기에 조사된 당시 지동초등학교 교사 김덕성씨의 설문지에 따르면 「60년전(당시)에는 앞뒤 산에 산림이 우거져 밤이면 호랑이가 많

이 내려와 마을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불안하게?)했다고 함. 그래서 마을 노인들은 호랑이가 내려오지 않게 당집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함. 그 습관이 오늘까지 전하여 왔는데 지금은 3년에 한번씩 음력 10월 초순중 좋은 날을 택해 제사를 지낸다고 함.」이라고 하고 있다.

이 두가지 자료는 호신당이 헐리기 훨씬 전인 1967년도에 (당시)문교부 소속 문화재 관리국에서 시행한 「전국 부락제당 조사설문」을 수록한 국립민속박물관 발행 「한국의 마을제당—제1권 서울 · 경기도편」 (1995년)에서 발췌한 것이다.

김춘환씨와 김덕성씨는 동일한 당집일 것으로 생각되는 호신당을 각각 다른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이를테면 김춘환씨는 「당집의 명칭은 산신당(山神堂)으로서 부락 동북간 못골산중턱 서남향」에 위치하고 있다고 기록했으며 김덕성씨는 「당집명이 호신당(虎神堂)으로 부락 북쪽」에 있다고 하고 있다.

제일(祭日)은 모두 3년에 한번이며 산신당제가 음력 10월 1~2일 (형편에 따라 택일) 오후 6시, 호신당제가 음력 10월 초순중 좋은 날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관 선출 방법은 연령 제한 없이 복덕을 가려 해당되는 연령, 성명에 마을에서 지명하거나(산신제) 부정없는 40세 이상의 남자를 마을 사람들이 선출한다.

두 행사 모두 제사전 마을 주민들이 엄격한 근신을 하는 것이 눈에 띈다. 「목욕 · 금주 · 금욕은 물론 부정한 것 안보고 접근치 않음 · 임신 · 해산한 여자는 불참」(산신당제) 「마을 사람 전체가 근신 · 외박금지」(호신당제)

제가 끝난뒤엔 마을사람들이 술과 음식을 모두 나눠먹는다는 것도 같다. 제수 상차림도 같은데 돼지를 잡고 떡 · 감주 · 삼색과실을 장만한다.

이 두 당제가 확연히 틀리다고 기록돼 있는 부분은 신격(神格)과 신목(神木), 당집외형 및 당집 내부이다.

신격은 산신당이 삼신(三神), 호신당이 호신(虎神)이며, 신목은 삼신당이 높이 20m 내외, 1.5m굵기의 괴목(槐木 : 홰나무)이 있는 반면 호신당은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다. 당집외형은 산신당이 건평 2평 내외의 초가, 호신당이 기와집 한칸으로 되어 있으며, 당집 내부는 산신당이 아무것도 없이 제상 1개, 제기 10개, 시루 1개가 보관돼 있고, 호신당은 제단

과 호랑이 그림, 제기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못골 마을 고로들은 당집이 분명 하나밖에 없었다고 못박고 있다. 당집모습도 앞에 설명한 것처럼 처음엔 3년마다 짚이엉으로 벽과 지붕을 했으나 40년전에 시멘트블럭별돌과 기와를 이용, 새로 지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보고자의 설문지에서 당집 외형이 틀린 것은 여기에서 연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못골의 당집이 이들의 설문지에 나타난 것처럼 두개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할것이다. 아마도 두사람의 보고자중 한사람은 현장 조사 없이 주변사람의 막연한 말만 듣고 기록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있다.

못골의 당집이 하나라는 추측은 두곳이 모두 △호랑이와 관련됐다는 점 △3년에 한번 치러진다는 점 △마을에서 동북간으로 1백m 정도 떨어진 못골산 중턱 서남향(산신당), 지동초등학교에서 1.8km 북향 못골 북쪽산 기슭(호신당)에 위치해 있어 비슷한 지점이라는 점 △제관선출 방법이 같다는 점 △제수상차림 및 제전 · 후 의식이 같다는 점이다.

아무튼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당집이 존재하고 있을 당시의 기록인데다 오랜 세월이 흐른 탓으로 지금 생존해 있는 원로들의 기억속에서 지워진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 김춘환, 김덕성씨의 설문조사 자료를 여기에 수록한다.

**• 김춘환씨(당시 37세, 연무초등학교 교사)의 조사기록 자료** (원문에 있는 「부락」이란 표기는 모두 「마을」로 고침)

1. 당 이름 — 산신당(山神堂)
2. 당 위치 — 마을 동북간 못골산 중턱 서남향
3. 당 형태 — 외형 : 초가, 건평 2평 내외
   — 당집 내부 : 내부엔 아무것도 없고 제상 1개, 제기 10개, 시루 1개 보관 돼 있음.
   — 신목(神木) : 괴목(槐木) 높이 20m내외 고목, 굵기 1.5m
4. 제신(祭神) — 신격(神格) : 없음
   — 효험 · 전설 : 마을수호
5. 제관(祭官) — 명칭 : 일명 당주(堂主)

— 선출방법 : 연령제한 없이 삼지복덕을 가려 해당되는 연령 성명에 부락에서 지명

— 기타 참석자 : 연령 제한없이 마을주민 전체

6. 제의(祭儀)절차 — 제전(祭前) : 목욕, 금욕, 금주, 부정한 것 안보고 접근치 않음. 임신, 해산 여인은 불참.

— 제의 절차 : 제당 → 삼신당

— 제후(祭後) : 음복(飮福), 음식 나눠먹기(마을 호당 전체)

7. 제일(祭日)일시 — 음력 10월 1~2일(그때 그때 택일) 오후 정각 6시

8. 제수(祭需)상차림 — 떡, 감주, 돼지 잡고, 삼색과실

9. 제비(祭費) — 각 호당 갹출, 경비 2만원 정도(당시)

10. 기타 특기 사항 — 위치 : 마을에서 1백m정도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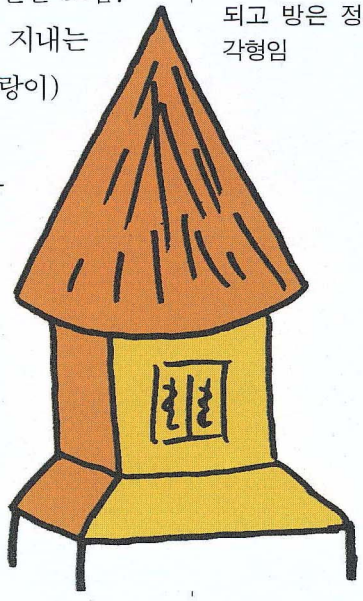
—호수 : 1백호

— 역사 : 약 70년 정도 됨

— 경비 : 1년에 1회씩 회의를 가짐. 현재 쌀 20가마 있음(당시).

**※ 부대 기입란**

- 지금부터 약 10년전(?) 동네에 호랑이가 내려와(민해는 없었음) 마을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던 중 문복(門卜)한 결과 제당을 짓고 산신을 위하면 괜찮다는 말에 동네서 갹출, 제당을 짓고 산신을 모심. 그후부터는 없었다는 전설이고 3년 만큼 제를 지내는데 지내는 날이 되어도 지내지 않고(그냥)지나면 지금도 산신(호랑이)이 내려와 그 자리에서 밤에(눈에)불을 켜고 있다 함.
- 이 제당은 천주교, 불교, 신교 등 할 것 없이 마을민은 다같이 위한다고 함.
- 괴목은 아무런 전설이 없으나 다치지 못한다고 한다. 다치면 탈(몸이 아프거나 몸에 이상이 생긴다)이 난다고 함.
- 제후 3일 이내에 부부 동침하여 낳은 아기는 불구아를 낳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부모님들은 젊은 부부들에게 주의를 많이 주고 있다.



**산신당**

지붕은 원추로 되고 방은 정4각형임

• **김덕성씨(당시 48세, 지동초등학교 교사)의 조사기록 자료**(원문의 「부락」은 모두「마을」로 표기)

1. 당이름 — 호신당(虎神堂)
2. 당 위치 — 마을 북쪽
3. 당형태 — 당집외형 : 기와집 1칸
   — 당집 내부 : 제단, 호랑이 그림, 제기
4. 祭神 — 신격 : 호신(虎神)
5. 제관 — 명칭 : 제주(祭主)
   — 선출 방법 : 부정 없는 40세 이상의 남자를 마을민이 선출함
   — 기타 참여자 : 부정이 없는 30세 이상의 남자중 희망자 전원
6. 제의절차 — 제전(祭前)마을민 전체가 근신, 외박금지
   — 제의 절차 : 제물을 차려 놓고 절을 함.
   — 제후(祭後) : 마을민 전체가 회식 함.
7. 제일(祭日) 시간 — 3년에 한번씩 음력 10월 초순중 좋은 날을 택함.
8. 제수(祭需)상차림 — 떡, 술, 돼지고기, 삼색의 과일
9. 제비(祭費) — 마을 자체 자금



호신당

**※부대 기입란**

• 못골 마을은 전후(前後)로 산등이 남북으로 길게 뻗혀 있는 가운데에 자리잡은 동네임. 60년전(1967년 당시)에는 앞뒤 산에 산림이 우거져 밤이면 호랑이가 내려와 마을사람들의 마음을 설레이게(불안하게) 했었다 함. 그래서 마을 노인들이 호랑이가 내려오지 않게 당집을 거둬놓고(지어놓고) 제사를 지냈다 함. 그 습관이 오늘까지 전해져 왔는데 지금은 3년에 한번씩 음력 10월 초순중 좋은 날을 택해 제사를 지낸다고 함.

## 3. 구성 및 내용

### 1). 제당(祭堂)

당집의 이름은 「호신당」「당집」「산신당」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유래는 앞에서 기록한 것처럼 확실한 내용을 아는 이가 없이 그저 지금으로부터 1백여년전 쯤으로 추측하고 있다.

당집은 5~6평 규모로서 처음엔 초가였다. 지붕과 벽을 모두 짚이엉으로 엮은 다소 허술한 것으로서 3년에 한번 제를 올리기전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일을 반복했다. 물론 그 작업은 마을사람 모두가 공동으로 했다.

이엉을 엮고 당집을 지을때 술과 음식, 그리고 흥겨운 농악이 있는 축제분위기 였음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40여년전쯤 호신당은 세멘블럭과 기와를 사용해 지은 반영구적인 당집으로 바뀌게 된다. 그 이유는 짚으로 만든 당집이 보기에 초라할 뿐 아니라 3년마다 이엉을 엮고 당집을 만드는 일이 번잡스럽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당집 내부엔 아무것도 없고 다만 큰 시루 2개, 제기만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생존해 있는 노인들의 기억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호랑이 그림 등 다른 것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다. 이는 위에서 김덕성씨가 조사한 자료에 호랑이 그림이 모셔져 있다고 한것으로 미루어 더욱 그렇다.

또 두 자료 모두 호랑이의 출몰로 인해 당집이 생기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호랑이와의 연관성은 아주 깊어진다.

당시엔 당집이 존재해 있었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두 자료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은 주목해 볼만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생존해 있는 몇몇 노인들이 알지 못했거나 기억속에서 사라졌던 부분을 보완해주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 2) 제의 절차

못골 호신당제는 마을의 번성과 풍농을 기원하고 질병과 흉사가 깃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낸다. 또 호랑이의 출몰을 산신령의 노하심으로 보고 산신령을 받들어 모시기 위함에서다.

당제는 3년에 한번씩 음력 10월 상달 중 좋은 날을 잡아 지낸다.

신격은 산신(山神)과 우리 고유 신앙인 삼신(三神)을 모두 모시는 것으로 봐야한다.

제를 지내기 전에 먼저 제주(祭主)를 선발한다.

제주는 마을 사람 가운데 복덕(福德)을 가려 지명되는데 가족중 젊은 여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젊은 여인은 생리를 하기 때문이며 성생활을 참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 제의 기간중 성행위와 생리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우리 민속의 단면을 여기서도 엿볼수 있다.

따라서 대개 젊은 여인이 없는 노인층이 사는 집에서 선발되곤 했다.

제주로 지명된 사람은 그날부터 정결한 생활을 하게 된다.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가하면 부부생활을 중단하고 일체의 부정한 것에 접근치 않는다. 부정한 생각 조차도 금물이다. 또 제를 지내기 1주일부터 집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고 근신한다. 집 주변에는 금줄이 쳐진다.

이때는 제주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도 비린 음식을 먹지 않고 외부 출타를 자제하는 등 마을 전체가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당제를 지내는 날을 기다린다.

제사 음식은 제주로 선발된 집에서 마련하며 마을 공동기금을 보탠다.

이때 준비하는 음식은 돼지를 잡고 떡, 술(막걸리), 삼색과일 등이다.

제사 내용은 일반 당제와 같다.

당제가 끝난뒤엔 당제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대동계 회원)이름을 적은 한지를 태워 올리면서 (燒紙 )복덕을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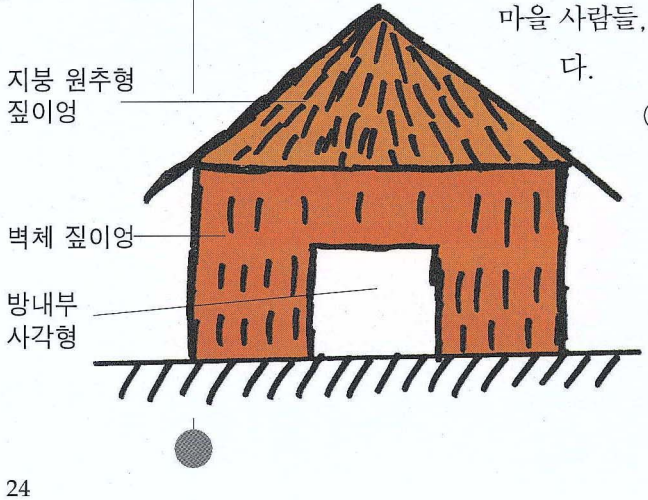
또 음복을 하고 제사때 준비한 돼지고기, 떡 등을 마을 주민전체가 나눈다.

### 3) 연희 과정

① 두레패가 나와 흥겨운 풍물을 시작한다. 이는 추수가 끝나고 결실의 풍요속에서 주민들이 축제를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낮의 흥겨운 놀이판이 끝나고 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 평안한 잠에 빠져든다.

③ 정적속에서 호랑이가 출현. 놀라서 어쩔줄 모르는 마을 사람들, 갈팡질팡하다가 마을 회의를 소집한다.




④ 무당 등장, 푸닥거리를 하고 점을 친다. 점괘는 호랑이(산신)을 모시기 위한 당집을 지으라는 것이다.

⑤ 당집을 짓는 마을 사람들. 당집이 지어지고 그안에 제단, 시루, 제기와 함께 호랑이 그림이

모셔진다.

⑥ 제물을 차려놓고 당제를 올리는 마을 사람들.

⑦ 당제가 끝나고 소지(燒紙)를 한뒤 음복을 하며, 남은 음식을 나누는 모습.

⑧ 농악이 펼쳐지며 흥겨운 뒤풀이가 진행된다.

**4)연희방법**

• 풍물놀이

마을의 모든주민들이 모여 징, 장구, 북, 쾡과리의 장단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며 흥겨운 놀이판을 벌인다.

이때에 호랑이가 출현하여 전체 마을 주민들이 혼란에 빠진다.

마을의 촌노들이 모여 호신당굿을 하여 호랑이에게 정성을 들여 마을에 안녕을 기원한다.

• 시루굿

호신당앞에 시루를 놓고 터주와 지신께 제일 먼저 안정을 시키는 거리

• 부정

굿에 참석한 못골주민들이 마을에 떠다니는 잡귀와 뜬귀를 물리치며 조상님을 모시는 거리

• 당제

주민들이 정성을 다해 제물을 준비한 후 호신께 마을의 안녕을 고하고 올 한해도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하며 마을 주민들이 제를 올린다.

• 산신도당

명산 신령을 다모시고 못골지역 광교산의 호신과 화합을 시켜드리는 거리

• 산신도당대감

역대 위인들의 위업을 생각하며 못골지역의 지신, 토신, 산신, 용신이 화합하여 마을의 태평함을 기원하는 거리

• 서낭거리

마을의 고개를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왕래를 하더라도 거리의 액을 막아달라고 지성을 드리는 거리

• 뒷전

모든 굿과 제가 끝난후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전 주민들이 모여 흥겨운 뒷풀이를 한다.

## 4. 특징

수원 못골의 호신당은 경기도에서 이곳에만 있는 특이한 마을제당이다.

지난 1967년도 당시 문교부 문화재관리국에서 설문조사한뒤 회수된 질문지를 토대로 발행한 「한국의 마을제당-제1권 서울 · 경기도편」(1995년, 국립민속박물관)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모두 4백54개의 마을당이 수록돼 있는데 산신당, 산제당, 군웅당, 도당, 삼신당, 상당, 서낭당, 하당, 신당, 당, 금성당, 용당, 영산당, 여왕당 등의 이름은 눈에 띠지만 호신당이라는 명칭은 못골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신당은 여러곳에서 발견되고 호랑이와 연관된 전설도 더러 눈에 띄지만 호랑이를 모시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확실하진 않지만 호신당의 경우는 호랑이만을 모시지 않고 전래의 숭배 대상인 삼신을 함께 모시고 있었던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의 흐름 때문인지 마을사람 각자의 말이 약간씩 다르다.

한편 제를 지내는 주기도 타 마을제에 비해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마을제는 보통 1년에 한번씩이지만 못골 호신당제는 3년에 한번씩 지냈다.

## 5. 고증및 지도연출

• 고증 : 김우영(시인 · 수원시사편찬위원, 경기사학회원)
박천우(장안전문대학교 교양과 교수)

• 지도 : 소병구

• 출연 : 무속인 및 못골 주민

# 성 남 시

## 쌍용거줄다리기


연천
파주
동두천
포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가평
인천
부천
서울
구리
남양주
광명
시흥
안양
과천
하남
안산
군포
의왕
성남
광주
양평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이천
여주
평택
안성

# 여 백

민속놀이

# 쌍용거줄다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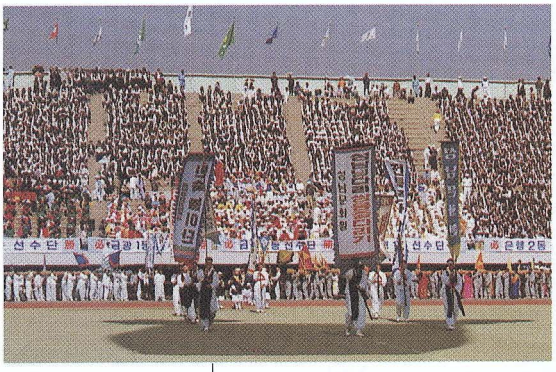
## 1. 전승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방

## 2. 유래 및 해설

우리나라는 전국 곳곳에 정월 대보름날 줄다리기 놀이가 있었다. 줄다리기는 색전이라고 하는 단체경기로서 산간지방, 해안도서지방에서는 주로 외줄이 사용되고 넓은 놀이장소가 있는 평야지대에서는 쌍줄을 사용한다. 쌍줄은 용두(龍頭)라고 하는 줄머리에 원형고리를 만들어 암줄과 숫줄 두 종류로 전위행사가 끝나면 나중에 끼워서 비녀를 꽂게되어 있다. 줄을 끼우기전에 암줄은 피해 다니고 숫줄은 끼우려고 하는 해학적인 용돌림놀이를 한다. 지방에 따라 줄다리기전에 농악을 앞세우고 줄을 메고 마을을 돌면서 서낭제(城隍祭), 대동 우물고사, 강고사 등 놀이를 하기도 한다. 승패는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있어 암줄이 이기게 되는데 줄다리기를 하고나면 강물에 띄워 보내거나 태우는 액송의식(厄送意識)을 한다.





## 3. 구성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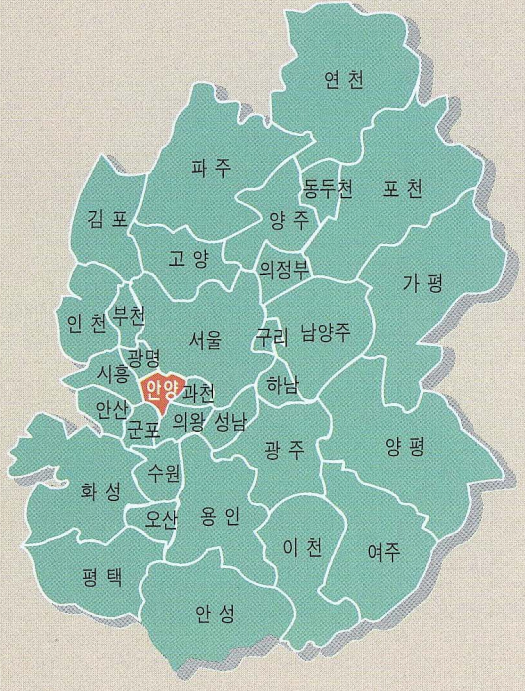
쌍용거줄다리기는 지금으로부터 약300여년전 성남시의 유익한 전통민속놀이로 매년 정월대보름날 부락민 전체가 참여하여 황룡은 처녀, 총각, 부녀자가 편을 이루고 청룡은 기혼남자가 편을 이루어 줄을 메어 동네를 돌다가 보름달이 중천에 뜨면 3번 겨루는데 황룡이 이겨야 풍년이 들고 마을 전체가 재난이 없고 평온하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전설에 따라 매년 황룡이 이기고 있다.

## 4. 고증 및 지도 연출

- 고증 : 박영기(중요무형문화재 19호 이수자)
- 출연 : 남 : 150명 여 : 100명

# 안 양 시

- 만안 답교놀이
- 수촌마을 도당제
- 석수동 쌍산신제
- 채석장 노동요
- 날미 농악



# 여 백

민속놀이

# 만안 답교놀이

## 1. 전승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2동

## 2. 유래 및 해설

호계지역이나 만안교지역 모두 정월초닷새부터 열엿새까지 주로 부자집을 대상으로 답교놀이를 집마당에서 벌이고 술과 떡국대접을 받아 노는 마을 축제였다.

다리밟기는 정월대보름날에 호계지역은 옛 귀인동 · 갈미동 · 호계동 등의 마을에서 호계동 「열네칸 다리」로 모여 다리를 왕복하는 다리밟기를 하였고 만안교는 인근 지역주민이 많지 않았지만 성황을 이루었다.

다리밟기를 하면 풍년이 들고 농사일에 허리와 다리가 아프지 않는다는 풍속에 의해 행해졌으며 16일 날에는 「귀신당날」이라 하여 하루 더 놀았으며 이날까지 놀아야만 나무가 죽지 않아 땔나무도 많이 할 수 있다.

만안교 답교놀이의 명 연희자로써는 권년화(100세 이상, 호덕과 선소리), 강태순(88세, 별감무동역), 서한용(여무동), 이용성(소승무동)등이 있었다고 조재봉옹은 당시를 기억하고 있다.

만안교 답교놀이는 1920년 경까지 놀았으나 그 후로는 사라졌으며, 호계교 답교놀이는 1930년대에 사라졌다.

사라진 이유로써는 일제시대 식민착취가 시작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점차 없어지고 인심도 각박해져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풍습이 점차 시들어가면서 사라진 것으로 증언한다.

답교놀이의 악사는 「짠지패」가 주동이 되었으나 차츰 「두레패」 일명 「뚱뚱패」들이 담당하게 되었고, 배역은 호계지역과 만안교지역이 다소차이가 있다. 무동은 소승1인, 소무2인, 별감1인, 팥복1인 등 5명의 무동이

며 기타 왜장녀, 곱추, 양반(샌님)등과 선소리꾼들이 등장한다. 만안교에서는 왜장녀외에 곱추역이 따로 있었으며 탈을 썼다.

## 3. 구성 및 내용

### (1) 놀이 배역 및 복장

① 무동 — 15세 내외의 동네사내애들로 댕기머리가 있었다.(5명)

- 小僧 — 하얀장삼, 붉은가사, 흰고깔(꽃달린)
- 小巫 — 노랑저고리, 붉은치마, 남색전복, 남바우
- 별감 — 붉은도포, 관대, 꿩털달린 노란초립, 합죽선
- 팥복 — 옥색도포, 벙거지, 남색전복

② 밑무동 — 동네 장정들로 고이적삼에 조끼를 입는다.(5명)

③ 왜장녀 — 연지곤지, 입술에 붉은화장, 쪽머리에 수건쓴다. (1명)
남자가 치마저고리를 입되 허리살이 드러나게 입는다.

④ 잽이 — 쌍호적, 제금, 장고, 북, 징, 꿩과리를 들고 고깔쓴다. (7~10명)

⑤ 선소리꾼 — 고이적삼 · 조끼입고 고깔쓰고 소고를 든다. (5~8명)

⑥ 기수 — 「꿩에 장목」이 있는 대기와 영기 2개를 든다. (3인)
대기는 호계지역은 「農者天下之大本」, 만안교지역은 「孝黨竭力 忠則盡命」이란 글을 새겼다.

⑦ 양반(샌님) — 옥색도포에 정자관을 쓴다. (1인)

### (2) 놀이구성과 춤

① 길놀이

대기(농기), 영기, 악사, 무동(소승, 소무, 별감, 팥복순으로), 양반, 왜장녀, 선소리, 동네사람 순으로 1열이 되어 진행한다.

정초 마을놀이때에는 집에서 다른집으로 이동할때 길놀이를 하고, 보름날에는 다리로 향하여 가면서 길꾼 안에 맞춰 1열로 춤추며 진행한다.

② 마당놀이

무동춤 놀이가 중심이 되는데 소승이 양 소무를 장삼자락으로 어깨에 얹어 자리바꿈을 하면서 춤을 추고 다시 별감과 팥복이 양소무와 함께 어울린다.

왜장녀와 양반은 장내를 돌면서 춤을 춘다. 무동들은 자라춤, 왜장녀는

궁둥이춤, 양반은 거드름춤을 춘다.

③ 선소리꾼 놀이

선소리꾼들이 앞산타령, 뒷산타령, 자진산타령을 부르면 배역들이 나와 함께 춤춘다.

④ 대동놀이

구경하던 동네사람들까지 함께 어울려 막판놀이를 펼친다.

⑤ 다리밟기

대보름날 저녁에 길놀이를 하며 진행하고 다리를 왕복한다.

⑥ 줄다리기

대보름낮에 이웃마을과 줄다리기를 한다. 만안교는 대적할 이웃마을이 없어 시흥다리에 가서 줄다리기를 했다.

⑦ 짚불놀이

짚뭉치를 나이수대로 엮어 불을 붙여 들고 대보름날 달이 떠오르면 달을 향해 절을 하면서 「다님 절합니다」라고 소원을 빈다.

※ 臺本 構成의 方向

1. 안양지역의 호계답교놀이와 만안답교놀이는 배역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뿐 대동소이 함으로 복합적인 놀이 방식을 채택한다.

2. 출연인원이 빈약함으로 만안답교놀이와 호계답교놀이 두팀이 함께 어우러지도록하여 인원수를 50여명으로 한다. (예전에도 호계교에는 인근 마을 답교놀이패가 대보름날에 모여들어 함께 놀았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만안교를 중심으로 호계답교와 만안답교가 어우러짐이 좋겠음.)

3. 악사는 「짠지패」구성이 제금중심으로 빈약함으로 「두레패」 구성으로 꽹과리주도의 농악대 반주를 하여야 음향도 크고 확실하다.

4. 배역은 기수7명(대기, 만안기, 호계기, 영기4), 무동 10명(소승2, 소무4, 별감2, 팥복 2), 양반, 샌님, 왜장녀, 곱추 각 1명, 악사 12명(호적, 꽹과리, 장고, 북, 징 각2명씩), 선소리꾼 6~8명, 동네사람 6~8명, 밑무동 10명 등 50~60명으로 한다.

5. 놀이구성은 길놀이 →다리밟기놀이→무동춤놀이→선소리놀이→대동놀이로 구성하여 시간은 40~60분 정도로 한다.

6. 줄다리기는 안양시 축제놀이로 할 경우는 살릴수 있으나 답교놀이 공연만을 할 경우는 생략한다.

7. 반주 장단은 주로 길군악(굿거리장단), 산대놀음장단(타령장단), 자진 모리장단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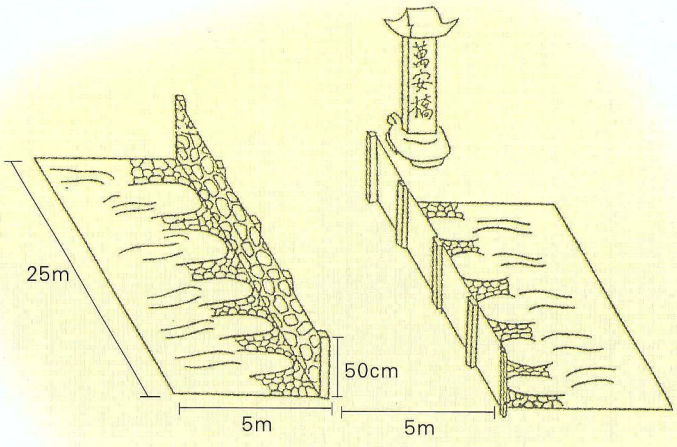
8. 선소리는 안양지역 특유의 선소리가 없을 시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기민요와 선소리 산타령에 준한다.

9. 춤사위는 경기지방의 허튼춤과 산대놀이 깨끼춤에 준하며 소무의 자라춤, 왜장녀의 궁둥이춤, 곱추의 병신춤, 별감, 팥복, 양반의 거드름춤을 춘다.

10. 등장방식은 호계답교놀이패와 만안답표놀이패가 길놀이에서 양편으로 갈라져 따로 행진하여 다리밟기로 따로 하며 마당 무동놀이도 각기 펼치다가 선소리꾼놀이부터 어울리고 대동놀이에서 한마당을 이룬다.

### (3) 萬安 踏橋놀이 臺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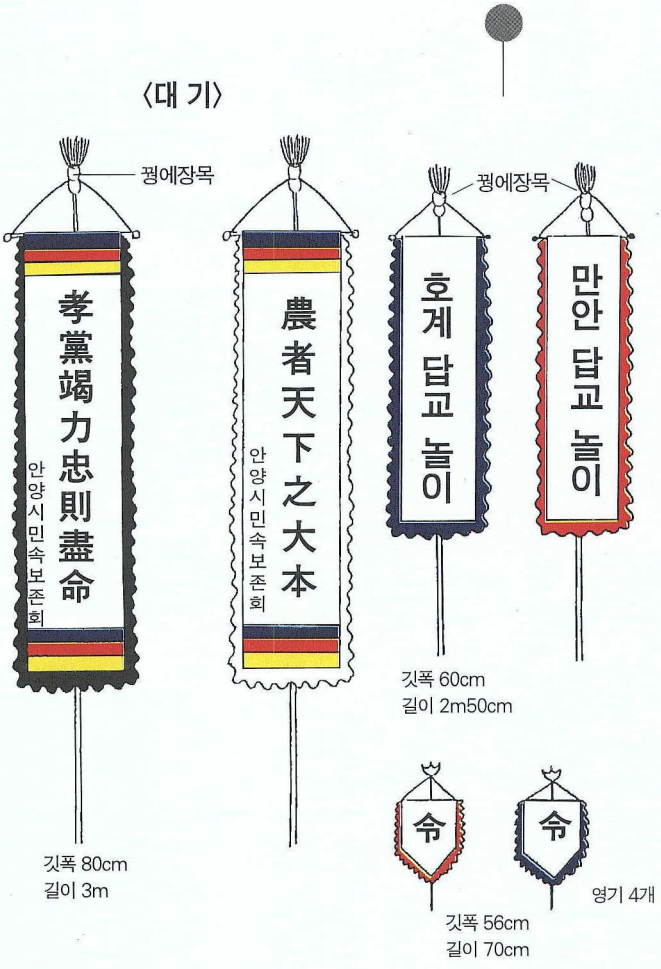
① 다리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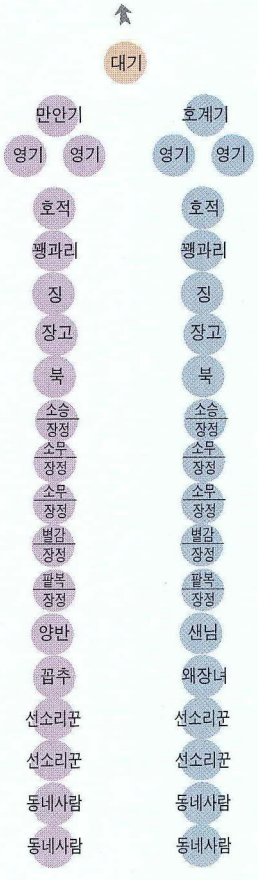



- 교각모양은 넓은천(25m, 5m)에 만안교 모양을 채색하고 냇물을 칠한다.
- 난간부분만 막대로 50cm정도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땅바닥에 펼친다.
- 교각모양은 아취형으로 7개의 교각을 그린다.
- 만안교, 거북비각을 만든다(합판으로)
- 난간은 말뚝처럼 만들어 땅에 박았다 빼낼 수 있도록 만든다.

② 깃발 모형도

〈대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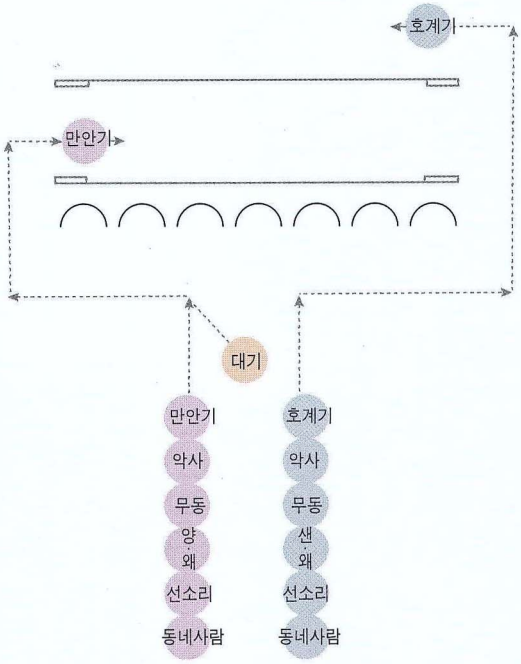




③ 길놀이 대형

- 만안답교놀이 1열과 호계교 답교놀이 1열로 2열이 된다.
- 기수 · 악사 · 무동 · 양반 · 왜장녀 · 선소리꾼 · 동네사람 순으로 선다.
- 대기가 선두중앙에 서서 인도한다.
- 인원은 악사 · 선소리꾼 · 동네사람이 증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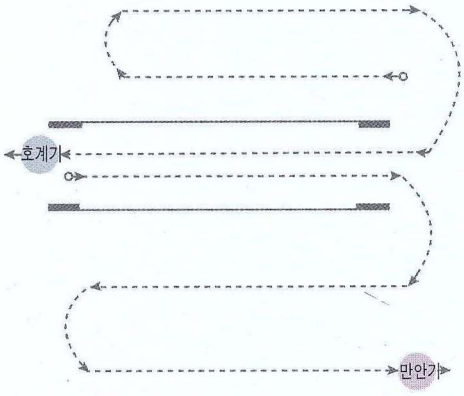
인원49~55명

④ 길놀이 진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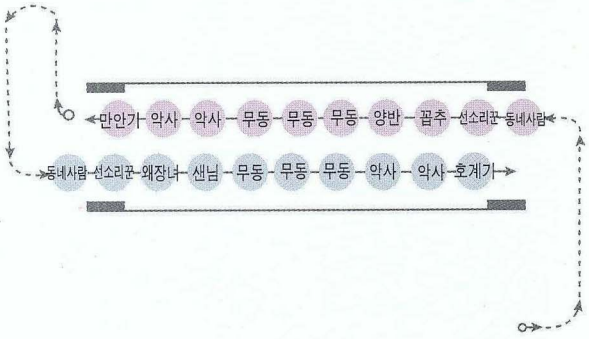

- 만안교 뒤편에서 2열로 등장한다. (본부석은 다리 앞쪽임)
- 다리 가까이 오면 양편으로 갈라진다. (각기 1열로)
- 대기는 만안답교놀이패쪽으로 앞선다.
- 길군악 가락에 모두춤추며 등장한다.
- 무동은 장정이 어깨위에 세우고 등장한다.

⑤ 다리밟기 진행도(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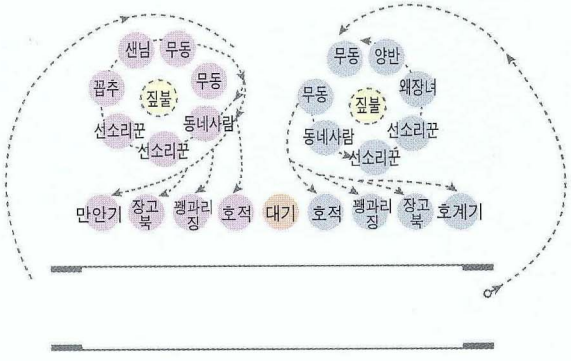

- 먼저 만안답교놀이패가 다리밟기를 하면서 다리를 지나간다.
- 다리밟기를 할때는 무동도 내려 걸어 간다.
- 호계답교놀이패는 일단 다리옆을 지나 본부석 쪽으로 한바퀴 돈다.
- 다리밟기가 끝나면 무동은 일단 목마를 태우고 진행한다.
- 가락은 계속해서 길군악(굿거리)장단으로 하여 허튼춤을 춘다.
  - · 무동은 양손을 번갈아 얼굴앞에서 손바닥을 젖히는 자라춤.
  - · 양반 · 샌님은 팔자 걸음의 거드름 춤.
  - · 선소리패는 소고를 치고 양팔들어 흔드는 춤
  - · 왜장녀는 궁둥이춤, 곱추는 곱추춤
  - · 동네사람들은 허튼춤

⑥ 다리밟기 진행도(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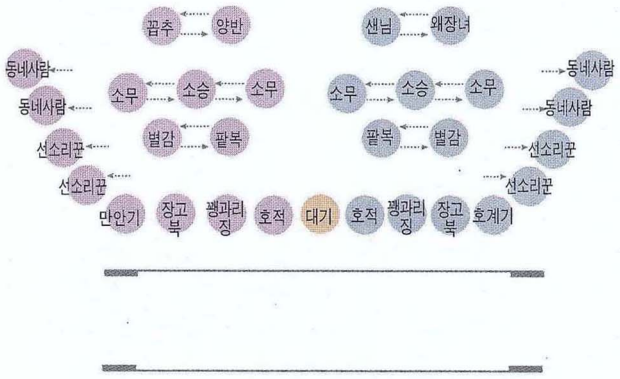

- 호계답교놀이패는 다리밟기를 하고 본부석방향으로 한바퀴돌고 만안답교놀이패는 뒤편에서 한바퀴돌아 양편이 다리위에서 만난다.
- 다리위 중앙에서 양편이 만나면 형기(만안기)에서 아우기(호계기)가 「기세배」로 기를 숙여 절을 한다.
- 형기(만안기)를 높이 들었다 내리면서 절을 받는다.
- 계속 어긋나게 진행하여 2열로 다리위에 모두 선다. 이때는 목마에서 무동으로 세워 다리놀이를 펼친다.
- 다리위에 나란히 2열이 되면 모두 양편 난간 쪽으로 등지고 서서 합장재배동작으로 절을 하면서 「고시래」로 음식을 물에 띄워 보내고 「다님절합니다」하면서 소원풀이 의식을 한다.
- 동네사람들은 짚에 불을 붙여 휘두르고 「다님절」을 큰절로 한다.
- 동네사람들이 짚에 불을 붙여 무동 · 선소리꾼 등에 짚불을 나누어 준다.
- 제자리에서 산대놀음장단(타령)과 자진모리장단(당악)으로 어울려 춤춘다.

⑦ 무동춤판(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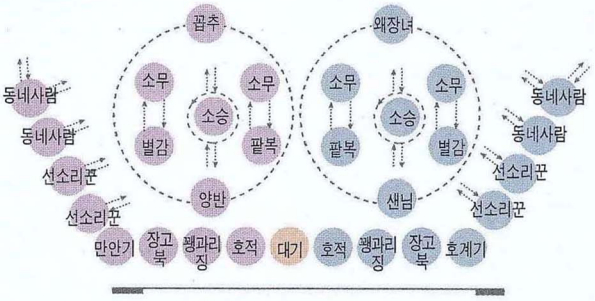

- 자진모리장단(당악)에 양편모두 다리에서 나와 본부석 앞마당으로 한바퀴 돌아 기수와 악사는 오른쪽 그림과같이 다리앞에서 본부석을 향해 1열로 늘어선다.
- 대기는 중앙에 서고 만안기와 호계기는 양끝에 서고 호적부터 가운데에서 나뉘어 선다.
- 무동 · 양반 · 왜장녀 · 곱추 · 선소리꾼 · 동네사람들은 양편으로 나뉘어 1열 원이 되어 돌면서 춤을 춘다.
- 마당춤판으로 나올때 동네사람들은 짚불을 모두 걷어 모아 마당원의 중앙에 모아 태운다.
- 무동은 목마태운상태로 진행한다.

⑧ 무동춤판(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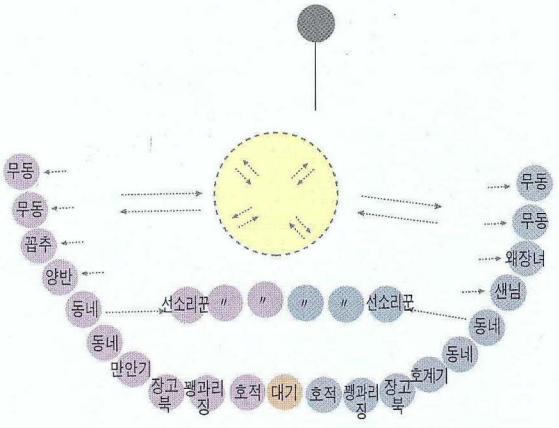

- 장단이 굿거리로 바뀌면 소무가 소승의 양옆으로 나뉘어서고 그 뒷쪽에 별감과 팥복이, 앞쪽에 왜장녀, 곱추와 양반이 마주서서 춤춘다.
- 선소리꾼과 동네사람들은 악사와 기수옆으로 빠져나가 둥그렇게 늘어선다.
- 이 때는 목마타기에서 무동타기로 모두서서 춤을 춘다.
- 소승이 바깥쪽 소무쪽으로 춤추며 나가 장삼자락을 소무 어깨에 얹어 뒷걸음으로 물러나면 소무가 그대로 따라와 안쪽소무와 나란이 선다.
- 소승이 다시 안쪽소무 어깨에 장삼자락을 얹어 바깥쪽으로 인도한다.
- 또다시 안쪽에 서있는 바깥쪽 소무를 인도하여 바깥으로 나와 이번에는 양쪽소무를 한꺼번에 장삼자락을 양쪽소무 어깨에 나누어 얹어 두 소무를 인도하여 한바퀴돌아 제자리로 보낸다.

⑨ 무동춤판(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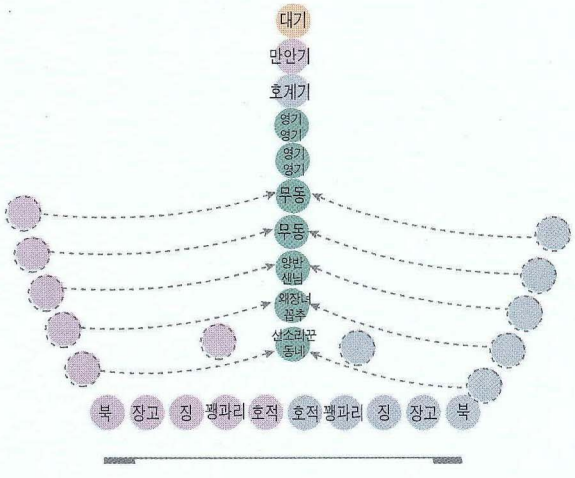



- 소승이 양소무를 제자리로 보내면 장단이 타령장단으로 바뀐다.
- 소승은 중앙에서 춤추고 양옆에서 소무와 별감, 소무와 팥복이 대무한다.
- 곱추와 양반은 그 주위를 돌면서 춤춘다.
- 동네사람과 선소리꾼은 그 둘레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춤춘다.
- 춤사위는 산대 깨끼춤류에 준한다.
- 장정들은 타령장단에 깨끼걸음(hopping)으로 동작한다. (밑무동)
- 소무와 별감, 팥복의 대무는 자리바꾸기, 마주돌기 등으로 춤추고, 소승은 제자리에서 돌기, 전진 후진 춤을 춘다.

⑩ 선소리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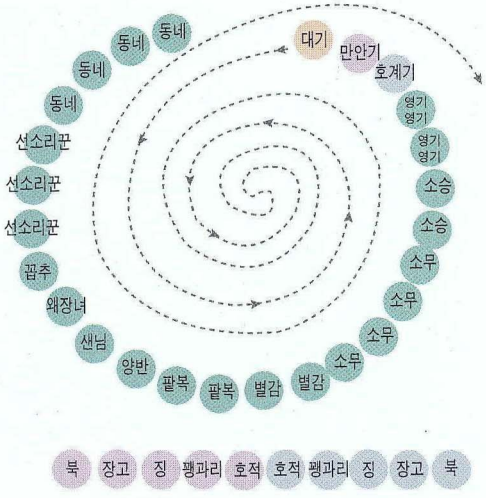

- 타령춤이 끝나면(소무 · 별감 · 팥복 · 대무) 자진모리 장단이 나오고 흥겹게 춤추면서 휘돌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동 · 왜장녀 · 양반이 기수와 악사 · 동네사람 옆으로 둘러서고, 선소리꾼은 중앙으로 나온다.
- 악사들의 장단이 끝나면 선소리꾼의 장고가락에 맞춰 앞산타령, 뒷산타령, 자진산타령 순으로 노래부른다.
- 선소리를 하는 동안에 선소리꾼 앞 중앙에 배역별로 등장하여 어울려 춤추고 제자리로 물러난다.
- 무동들이 장정(밑무동)에게서 내려 무동들만 모두모여 둥글게 돌면서 춤춘다.
- 곱추 · 왜장녀 · 양반 · 샌님이 중앙에 나와 춤추고 들어간다.
- 동네사람들이 나와서 춤추고 들어 간다.
- 장정들이 무동을 세우고 등장하여 춤추고 물러난다.
- 기수들만 나와서 흔들고 물러난다.




⑪ 대동놀이판(Ⅰ)

- 선소리가 끝나면 다시 악사들의 자진모리 가락이 나온다.
- 대기를 선두로 하여 무동 · 양반 · 왜장녀 · 선소리꾼 · 동네사람 순으로 양편이 합쳐 1열로 진행한다.
- 등장순서대로 하되 1열이 되고 악사만 그대로 제자리에 남는다.
- 본부석쪽으로 길게 늘어져 나온다음 원으로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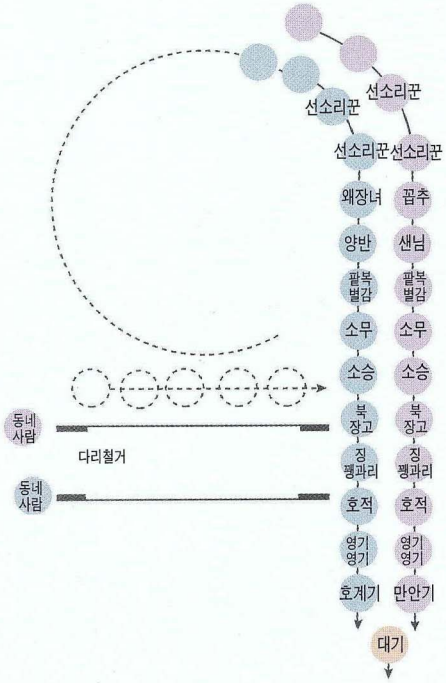
### ⑫ 대동놀이판(Ⅱ)




- 기수 · 무동 · 양반 · 왜장녀 · 선소리꾼 · 동네사람 순으로 「또아리」를 틀어 들어갔다가 풀어 나온다.
- 자진모리 장단에 빠르게 뛰는 걸음으로 흥겹게 대동놀이판을 벌인다.
- 무동은 모두 목마태우기로 하고 선소리꾼은 소고춤을 추고 나머지는 양팔을 좌우로 흔들면서 뛰어 돈다.
- 되돌아나와 다시 큰 원 상태가 되면 기수들이 앞쪽에 위치한 자리에 모두서서 제자리춤을 추다가 인사굿으로 원밖을 향해 절을 한다.

### ⑬ 퇴장

- 인사굿이 끝나면 다시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등장때와 같이 2열 대형으로 진행하면서 퇴장한다.
- 동네사람들은 다리를 접어 철거하여 뒤따른다.
- 기수가 앞서나오면 악사들이 그 뒤를 따르고 무동이 목마탄채로 그 뒤를 잇는다.



민속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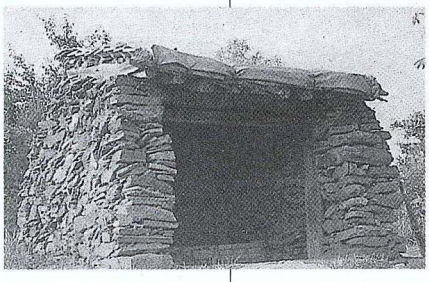
# 수촌마을 도당제

## 1. 전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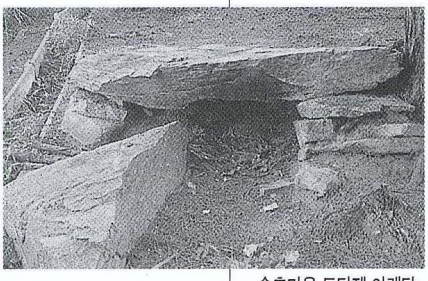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2. 유래 및 해설

수촌마을은 행정구역상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이며 자연부락의 명칭은 뺌말(秀村)이다. 옛부터 뺑대쑥(엉커시과의 다년초)이 많이 자생하는 곳이라 하여 뺌말이라고 불리워 지던것이 구전되다 보니 뺌말이라 부르게 되고 빼어날 수(秀), 마을촌(村)을 합쳐 수촌이 되었다.



수촌마을 도당제 웃당



수촌마을 도당제 아랫당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540여년전 삼남지방의 김해김씨 유생이 서울에서 과거를 보고 귀향하던 중에 우연이 이곳에 들려 관악산 밑의 산세와 비옥한 토질에 마음이 끌려 이곳에서 터를 잡아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후 상주 김씨와 연안 차씨가 들어오면서 수촌 삼성(秀村三姓)을 이루게 되었는데 당시 김해김씨 유생이 마을 입구에 심은나무가 현재 수촌마을 신목으로 추앙받는 느티나무라고 원로들은 말하며 수령은 540여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마을의 형성 연대와 당나무의 수령 등으로 볼때 마을 형성후 대략 1,500년 이후부터 도당제를 지낸 것으로 추측되며 산에 대한 신성감과 호환에 대한 두려움 등이 도당제를 지내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짐작되어진다.

## 3. 구성 및 내용

### 가. 위치와 형태

마을 뒷편으로 관악산 줄기인 큰골산 방향 1.5km거리에 당집이 있다.

전에는 규모가 크고 초가지붕에 돌담으로 지은 전형적인 경기도의 당집이 있었으나 6 · 25전쟁 후 돌담과 초가지붕은 없어지고 기와로 보수된 당집만이 남아있다. 내부에는 시멘트로 바른 단만이 있고 과거에는 얼룩진 큰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웃당(상당)이라 부르며 마을 바로 뒷편에 아랫당(하당)이라 불리우는 너비 1m 30cm에 폭 70cm크기의 탁자형 제단석이 소나무와 함께 있으며 단의 일부는 금이가 쪼개져 있다.

또한 동네중앙에 성황님, 당나무, 수목정자나무로 불리우는 수령 540년으로 추측되는 신목이 있다.

### 나. 제신

도당제의 주요신은 관악산 산신령이며 웃당에 호랑이 그림이 있던것으로 추측해 마을사람들은 호랑이를 산신의 화신이라 믿고 있으며, 제를 지낼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호환을 당했다고 하는 마을의 신격화된 호랑이 전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다. 제의목적** : 마을의 안녕과 평안(재액초복 : 액을 막고 복을 부름)

**라. 제일** : 음력 시월 초이틀에 지내며 매년 정해진 날짜이다.

### 마. 제관

보통 당제 1주일전에 마을 원로들이 회의를 하여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을 선출한다. 제관은 2명을 선출하는데 안당주와 바깥당주(또는 선당주, 앉은당주라고도 함)를 선출한다. 안당주는 제물을 만들며 바깥당주는 제물을 구입한다.

일단 선출된 당주는 부정한 일이나 금기사항은 철저히 지키며 집앞에는 황토흙을 뿌리고 왼새끼줄을 꼬아 문에 매달음으로서 성스러운 지역을 알려 외인의 출입을 삼가시키고 잡귀를 막는다. 또한 목욕 재계후 신

에게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는 자로서 일절 말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성스런 제물에 행여 불결한 침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 바. 제물

마을 공동으로 추렴하며 바깥당주가 걷는다. 과거에는 평균 소두 3되를 62세대에서 거두었으며 세든 사람보다도 집주인은 더 많이 내었다. 소는 안양 남부시장이나 수원에서 사오며 지정된 샘물(원주민 김득춘옹의 집 앞에 샘물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로 음식을 만들었다.

제물중 시루떡은 웃당과 아랫당은 별도로 만들며 웃당의 경우 떡 3말 3되 5홉을 만들었다.

### 사. 제의순서

제사전날 아랫당 소나무밑에 터주가리 짚을 세우고 조라술을 묻었다 쓴다.

제의순서는 웃당→아랫당→성황나무의 순서로 지내며 단앞에는 자리를 깔고 촛불을 밝힌 후 초헌, 아헌, 종헌, 독축, 소지, 음복의 순이다. (전에는 축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과거에는 밤 11 : 00~12 : 00경에 시작하여 새벽 1 : 00쯤 제를 마치고, 후에는 제물을 바구니나 종이에 싸서 골고루 나누어 먹었다.

지금은 사정에 따라 낮 12 : 00나 오후 5 : 00에 지내기도 하며 참여하는 주민도 대략 원주민 60가구 정도가 참여하고 중, 장년층이 주로 주관하고 있다.

### 아. 기타

도시화의 과정에서 현재는 외지인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수촌마을 원로들은 아직도 당제의 영험을 믿어 과거 6 · 25때의 무피해나 호환의 구제 등을 이야기하며 반드시 당제를 모셔야 된다고 믿고 있다.

도당제와 관련한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① 과거에 당주가 부정한 짓을 하여 커다란 호랑이가 당주집에 모래를 뿌리는 경고를 하고 올라갔다. (참고 : 애향지 관양 p54)

② 6 · 25 전쟁때 피해자가 없었다. (제보자 : 황정수)

③ 20년전 초상때 염한 사람이 당주를 맡아 당제후에 즉사를 함. (제보자 : 황기성)

④ 제사를 잘못지낸날 저녁, 제관이 집에 돌아와보니 큰호랑이가 수수깡 담장넘어 앉아 있길래 즉시 목욕한 후 생수를 떠놓고 "미천한 소인이 제를 잘못지냈다"고 한참을 빈 후에 쳐다보니 호랑이가 사라지고 그후 다시 날을 잡아 제를 올렸음. (제보자 : 김득춘)

⑤ 또한 성황나무라 불리는 당나무에는 삭정이를 줏어다 쓰면 화를 입는다고 전해지며, 군입대시에도 인사를 드리고 떠남. (참고 : 애향지 관양 p52)

## 4. 도당제의 의의

도당이라 함은 신의 거룩한 공간이며 종교적 의례가 집행되는 예배의 장소이다. 곧 신과 인간이 만나는 공간이자, 인간의 의지가 신에게로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도당의 형태는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수있는 형태로서 개인적인 기복을 염원하는 굿과 달리 마을공동의 안녕과 무병, 평안을 기원하는 부락전체의 굿이 도당제인 것이다.

수촌마을 도당제는 앞서 유래에서 보듯이 마을의 형성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마을굿의 형태로서 전주민이 함께하는 축제이자 부락민 모두의 공동체의식에 과시이기도 하였다.

수촌마을 도당제는 여러가지 역사의 굴절속에도 계속 이어져 오다가 1960년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급격히 그내용이 소멸, 축소되었으며 현재에는 외지인이 상당수를 차지하여 과거 수촌, 중말, 마분 3개 부락의 큰 도당제의 형태에서 수촌부락만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로들에 의하면 40여년 전까지만해도 과천 찬우물에서 용한 단골무당을 불러 큰굿을 벌렸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민속놀이

# 석수동 쌍산신제

## 1. 전승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 2. 유래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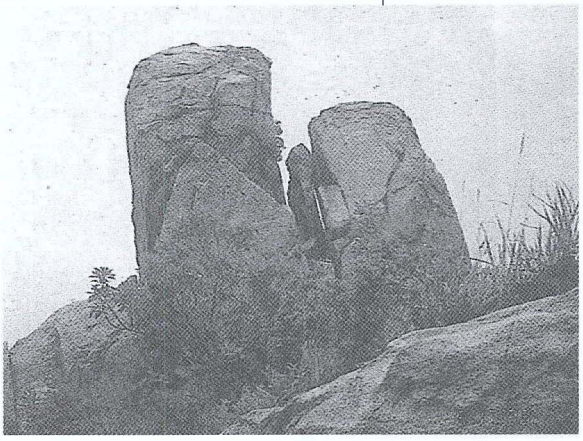
석수1동 소재 삼성산에서 발원한 삼성천이 안양유원지를 경우 석수다리 밑을 지나 안양대교에서 안양천과 합류가 되는데 삼성천을 중심으로 북쪽은 삼성산이 위치하고 동북쪽으로는 관악산이 위치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삼성천을 경계로 석수1동과 안양2동으로 구분되는 이곳은 맑은 물과 수려한 경관으로 자연스럽게 유원지가 형성, 많은 행락객이 사시사철 붐비는 곳이며 전에는 안양유원지로 명명되었다가 현재는 비산공원(비산유원지)으로 지명되어 있다.

석수동 쌍산신제는 이곳을 좌우로 감싸고 있는 석수1동의 할아버지산과 안양2동의 할머니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서 쌍산신제라 불리우게 된 동기는 산의 명칭에서 보듯이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성적구분을 풍수지리적해석과 지형지물에 대한 시각적, 관념적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산의 위치가 마을에서 볼때 남좌여우를 하고 있으며

(2) 삼성산은 남성의 산이고 관악산은 여성산이라 관악산에서는 낙상을 해도 크게 다치거나 죽는일이 없다고 한다.

(3) 숫물은 건하고 암물은 습하다(실제로 할아버지산에서는 샘이 한곳밖에 없으며 그나마 물이 탁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났다는 쌍칼바위

그러나 할머니산에는 제단을 중심으로 확인된 약수터만해도 십여군데 이상이 된다)

(4) 할아버지산에는 감투바위(안양사 북쪽으로 1km)및 할아버지 바위로 불리는 바위와 할머니산에는 쪽털(족두리)바위와 산신제단위로 여성을 상징하는 듯한 여근석이 증언에 의해 확인되었다. 감투바위와 쪽털바위는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할머니산 중턱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났다고 하는 쌍칼바위가 우뚝서있다.

현지 원로에 의하면 약 2~3백년전부터 산제를 올렸다 하나 확인할 길이 없고 다만 산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깊은 애착과 관심이 산을 신령시하고, 산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하는 의식의 표현이 쌍산신제로,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내오고 있는 것이다.

## 3. 구성 및 내용

### (1) 위치와 형태

석수1동 유유산업 뒷편으로 할아버지산이 있으며 산의 초입엔 우물이 있다. 산신제단은 전에 큰기둥 모양의 바위와 함께 잘 손질된 송림이었으나 어느 해인가 제단이 산아래로 굴러 땅속에 묻힌후 지금은 새로 제단을 쌓아 놓았다.

할머니산은 경수산업도로 옆에 있는 별장가든의 뒷산으로 산신제단은 일붕사절에서 산정상쪽으로 100M 위치에 고사샘과 같이 위치하고 잇으며 1950년대 이전까지만해도 큰 아름드리 소나무와 함께 제단이 있었으나 6 · 25전쟁때 폭격으로 소실되었다. 그후 10여년 전에 현재의 위치에서 좌측방향에 오석으로 산신제단을 만든적인 있었으나 상석 뒷면에 제단을 만들기 위한 후원회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간 관계로 불경스럽다 하여 원래의 자리인 현위치로 산신제단이 세워지게 되었다.

**(2) 제신** : 산신, 산신령, 할아버지, 할머니신

**(3) 제의목적** : 마을의 풍요와 번영, 다산신앙

### (4) 제일

과거에는 음력 시월초하루에 마을회의를 통해 제일을 결정하였으나 지

금은 매년 음력 10월 초사흘에 하고 있다.

### (5) 제관

할아버지산과 할머니산이 동시에 제를 지내는 관계로 전체적으로는 2명의 안당주와 2명의 선당주가 선출되는 샘이다. 당주는 양쪽 공히 그해의 운수와 집안에, 초상이나 불결한 일이 없었던 자를 선출하여 각각의 맡은일을 하며, 현재에도 산제를 지내기 위한 동네 추렴시 여관, 병원등은 불결하다고 하여 추렴을 금하고 있다. (마을 체육행사나 관광 등의 경우에는 추렴을 한다.)

### (6) 제물

추렴한 돈으로 선당주가 물건을 구입하는데 할아버지산 마을에서는 40~50년대에 70여가구가 평균 소두 1되를 걷었고, 할머니산 마을의 경우 50~60년대에는 평균 50호 정도가 추렴하였으나 지금은 형편되는 대로 현금으로 걷고 있으며, 91년의 경우 떡을 12말이나 준비하였다.

특히 쌀알이 맑고 완전한 모양을 갖춘 쌀을 골라 멧밥(제단에 올리는 찐밥)을 중탕으로 만들경우 안당주가 정성이 가득하면 맷밥위에 새나 짐승의 발자국 문양이 나지만 정성이 없으면 표시가 나지않아 안당주는 재물준비에 무척 공을 들인다.

과거에는 일몰후에 제를 지내지만(평균 저녁 7~8시)지금은 밤 10시경 할아버지산 동리에서 산에 오르는걸 확인후 할머니산 마을도 제물을 들고 출발한다. (1970년대까지도 할아버지산에 오르는 모습을 할머니산에서 볼 수 있어 횃불의 이동과 양동리간에 소리를 어이 ~ 하고 지르면 들렸다고 하나 현재는 고층건물과 함께 소음등으로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다.)

각각의 산신제단에 도착하면 전날 묻었다가 걸러낸 조라술을 따르고 산신제를 거행한다. 3번 읍하고 축문 낭독후 3번 읍한다. 고시래를 한후에 대동소지(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건강을 위해)를 하고 마을에 내려와 집에서 가져온 소쿠리등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 할아버지산 축문**

유 세차 ○○ 십월 ○○ 삭 초삼일 ○○ 유학치성

공적 처처칙량 감소고우
관악산 신령 조림강재 인간신통 자재후토 승왕
오악제군 직전외사 팔대산왕 십방법계 유령지성
신기보유 만방지결 소초초적 근이주과 지천세사
복유존영 지세중생 만병통치 안과길성
구액보결 복록무궁 천세발원 대발원
維 歲次 ○○ 十月 ○○ 朔 初三日 ○○ 幼學致誠
功績 處處則量 敢昭告于
冠岳山 神靈 照臨降載 人間神通 玆在后土 承王
五岳諸君 直典外事 八大山王 十方法界 幽靈至誠
神其保佑 萬方之結 簫草초적 謹以酒果 祗薦歲事
伏惟尊靈 濟世衆生 萬病通治 安過吉星
舊厄補缺 福綠無窮 千歲發源 大發源

※ 할머니산 축문

유 세차 ○○ 년 ○○ 월 정축일 복일행지
봉동거민 선속유학 ○○○ 감소고우
관악산 토지지신 복유 존신대천 선화진아
일방비민 유조사안 이유신지 사사표미난유
신지우도 민지덕가 민혜택고 수심미거매
신공일리동속 은탕기궁 보사금진유 월지정성주
수박시출 이성유 신강격서 감우해망 수극유시종
동민안거 재앙무탈 안정리거 소망축원 상향

### (8) 기타

석수동 쌍산신제는 제에관한 여러종류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① 6 · 25이후에 차례전에 동네사람이 음식을 집어먹어 입이 부르텄다. (제보자 : 남상차량)

② 32년전 친구중에 정씨가 할머니산 제단근처의 소나무를 잘라서 1년내내 병을 앓았다. (제보자 : 김종범)

③ 12살때 보면 여우나 특대가 몹시울다가도 산제를 지내고 나면 꼭 없어진다. (제보자 : 강만주)

④ 1950년 전후에 최홍보라는 사람이 산제사 2~3일전에 제수를 집어 먹고 벙어리가 됐다가 무당굿을 한후 말이 트였다(제보자 : 유기홍, 이종완)

## 4. 산신제의 의의

산신은 지역 수호신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곧 민간신앙에 있어서 산신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강한 숭배의 대상, 산 그자체였다. 이러한 신앙의 외적표현은 흔히 진산으로 불리우는 마을의 산에 산악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인격화된 자연신이 존재하며, 산신제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 가족의 번성, 무병장수, 다산신앙등이 포함되어 있다.

석수동 쌍산신제는 이러한 과거의 형태에서 단순한 답습이 아닌 현재에도 마을의 생업(유원지인 관계로 상업종사자가 다수임)에 번영을 주는 성스럽고 고마운 신으로 주민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 ●석수동 쌍산신제

석수동 쌍산신제는 타지역에 비해 마을주민이 비교적 단결이 잘 되는 편이다. 중, 장년층 원주민의 말에 의하면 추렴액이 92년의 경우 약 200여만원이며 기금도 200여만원이나 된다고 자랑하고 있다.

마을주민중 원로인 이희후 할머니는 "요즘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산신령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며, 신령님 기운이 옛날같지 않다."라고 말해 민속신앙에 대한 구세대인들의 애착심과 그리움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제사시 낭독하는 축문의 형태가 한글로 바뀐 한자음의 상태로 남아 있어, 한학자에게 내용의 원문을 알기위한 해석을 의뢰한 결과 축문의 내용이 기본적인 격식과 내용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쌍신제를 조사하던중 유기홍옹의 증언에 의하면 6 · 25전쟁 전까지 3년마다 티없는 검정 통돼지를 잡아 제사후 이틀씩 큰무당굿을 하였으며 무당은 꽃챙이골(현 석수2동 화창마을)이나 벌터에서 왔다고 하여 관심을 갖고, 꽃챙이마을을 찾아 수소문 하던중에 서씨만신(손순자)을 만나게 되었다. 서씨만신은 현재 가족들과 며느리의 만류로 무업에서 손을뗀지 꽤 오래되었으나 주변에선 아직도 용한 무당으로 화창마을의 원로들

중 기억하는 사람이 많았고 본인은 주위에 자기신분이 노출되는게 싫어서인지 만나기를 꺼려해 가족모르게 만났으나 일체의 본인에 대한 대화나 자세한 내용을 회피하고 있었다.

서씨만신에 의하면 30살전후해서 본인이 가서 그곳 무당굿을 본적이 있으며 당시 벌터(현재의 똥골)에 큰만신이 있어 큰만신이 굿을 하였다고 증언한다.

큰 만신은 오래전에 운명했으며 주로 열두거리에 조상굿은 하지 않고 한밤중엔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잤다고 한다. 큰 굿판의 자리는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산이 잘보이는 유유산업 앞에 밭이었다고 증언하는데 이 부분은 유기홍 노인의 증언과 일치하고 있어 아직도 과거 큰산신제 형태를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석수동 쌍산신제에 대한 방향을 가늠해본다.

민속놀이

# 채석장 노동요

## 1. 전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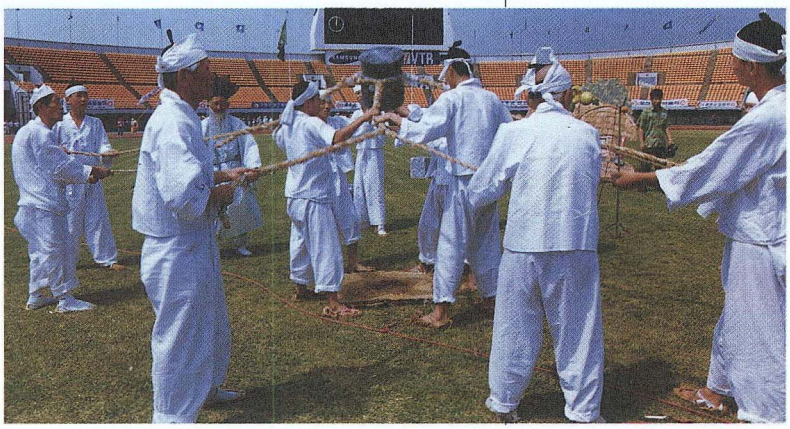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 2. 유래 및 해설

석수동 채석장(석산)의 위치는 현 행정구역상 석수동 산11-1번지 일대이며 삼막골 입구에서 삼막사 방향으로 1Km쯤 올라간다.

지금은 거대한 석산으로서 현대, 대림, 삼부, 동인산업등이 79년부터 허가를 받아 채석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지 확인 결과 곳곳에서 과거 채석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현재의 대림산업 채석터중 일부가 과거 화강암을 캐던 장소이며 맞은편 석수1동 71번지 주변이 구들장터로 확인이 되었다. 지금은 가정의 주연료가 가스와 석유이지만 전에 장작 또는 연탄을 사용하는 시절에는 구들돌의 소비가 많아 지금도 구들돌을 캐어내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최봉수옹의 기억으로는 일제시대 훨씬 전부터 석산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석산의 주인은 시흥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급료는 (6.25이후) 하루 300원이었다고 한다.(급료의 계산은 1자 파는데 45원씩이고 하루 18자~20자까지 3명이 파므로 평균 900원을 받아 세명이 나누어 가졌는데 당시 쌀한가마니가 2,000원이었고 곡물이 귀하던 시절임을 생각하면 꽤 큰 벌이 였다.)



석수1동 71번지 주변은 예로부터 존재하던 채석장(석산)으로 석수동이라는 지명이 말하듯 채석장(석산) 종사자와 석공이 많았다. (1905년 한일합방의 원흉 이등박문에게 돌을 던져 온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든 안양1동 출신의 원태우의사 또한 석공이었다.)

채석장(석산)의 작업은 석산에서 큰 돌을 떼어내는 일과 떼어낸 돌을 용도에 따라 다듬는 일로 구분을 한다. 최봉수옹은 석산에서 큰 돌을 캐어내거나 떼어 내는 일을 하였는데 당시(1940~1970년 중반)에는 석산에 3인 1조로 구성된 9~12명의 돌구멍 파는 사람과 돌을 운반하는 목도꾼 대여섯명, 돌을 다듬는 열서너명의 사람들이 작업장 인원의 전부였다고 말한다.

## 3. 석수동 채석장 노동요의 의의

노동요는 일을 하며 부르는 자연스러운 흥얼거림이다.

농부에겐 농요가 있고, 어부에겐 풍어가가 있다. 그들에겐 세련된 멋이나 기교가 없이 그저 질박하게 흥겹게 코가 막히면 막히는데로 입이 텁텁하면 텁텁한대로 그들만의 소리를 내고 흥겨워한다. 그래서 우리민족의 작업현장에는 항시 소리가 따른다. 생활의 일부분인 소리가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마다 틀리고 노동의 성격에 따라 자연스럽고도 나름대로 기능적인 자기표현을 하게 된다.

채석 노동요는 채석장(석산) 작업중에 정을 쇠매로 때리며 부르는 노래로 장단과 작업의 손놀림이 일치해야 하는 힘들고 고된 작업속에는 흥으로 대신하는 작업의 능률과 멋스러움을 함께 간직하고 있다.

## 4. 구성 및 내용

### 1) 작업순서

먼저 3인이 1조로 구성되어 한사람은 바위에 두자짜리 정을대고(최옹은 정을 너미라고 부름) 두사람이 교대로 메질을 하는데 돌아가며 순서를 바꾼다. 정은 2자에서 24자까지 있고 3근반짜리 쇠메로 정을 때리는데 무척 힘이들어 과장된 표현으로 삼천번 쳐야 자반이 들어갈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돌의 크기에 따라 정을 바꿔가며 구멍을 뚫는데 평균 10자 이후에는 돌구멍 속에 돌앙금이 끼므로 귀후비개라고 불리는 대나무막대에 구멍을 뚫고, 돌구멍에 물을 부어 집어 넣으면 앙금이 물과 함께 대나

무 구멍으로 들어와 건져 올려진다. 후에는 후비개 끝에 검불이나 천으로 싸매어 남은 앙금등을 묻혀서 닦아 낸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후에야 비로소 돌을 떼내는 데 근대식 방법으로는 남포심지를 불에 붙여 화약의 힘으로 돌을 떼네는 방법과 재래식으로는 암벽구멍에 단단한 박달나무 또는 참나무등을 한자반 깊이로 끼워 물을 적시면 나무의 팽창되는 힘으로 바위가 깨어지는 방법등이 있다. 이외에도 결이 좋고 석질이 약하며 떼어내야 할 돌의 모양이 크지않을땐 호야라고 하는 삼각형 모양의 쇠를 대고 쇠메로 툭툭치어 쪼개기도 한다.

### 2) 채석장 노동요 해설

채석장 노동요는 산에서 돌을 캐어내는 과정과 캐어낸 돌을 옮기는 과정, 옮겨진 돌을 용도에 따라 다듬어 축대석 및 주춧돌로 쓰여지는 과정을 엮어, 돌과 관련한 노동요를 흥겹게 부르며 연출된 민속놀이이다.

순서는 돌을 캐어내기 전 산에 대한 문안과 일꾼들의 무사고를 비는 무녀의 산신굿을 시작으로 →채석과정→대꼬질과정→목도과정→지경닺이과정→석공들의 작업들이 어우러짐속에 진행된다.

① 채석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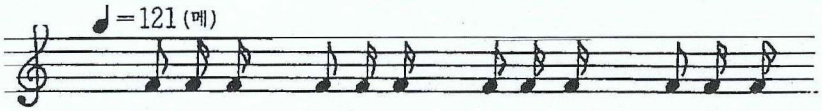


· 채석을 하기 위하여 쇠메로 정을 치며 쇠소리와 함께 "산이야"소리를 한다.
· 돌에 구멍이 뚫리면 귀후비개라고 불리는 대나무 막대로 돌구멍속에 앙금을 꺼낸다.
· 돌구멍에 나무말뚝을 자반깊이로 끼워 물을 부으면 나무팽창의 힘에 의해 돌이 떼어진다.
· 석질이 약하고 결이 좋은 바위는 호야라고 하는 삼각형의 작은 쇠로 박아서 떼어낸다.

# 채 석 요

(쇠메로 정을 때리며 부르는 소리)

창 : 최봉수 · 서재순
녹음 : 안양문화원
채보 : 이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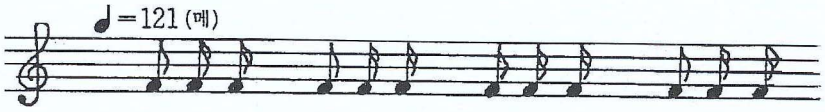



| | | | |
|---|---|---|---|
| 산이야 | 산이야 | 산이야 | 산이야 |
| 아산도 | 산이지 | 산이야 | |
| 산지~ | 조종은 | 곤륭산 | 이 ~ 요 |
| 수지~ | 조종은 | 황 ~ 해 | 수 ~ 라 |

(메김)

산이야 / 산이지 / 황해도 / 봉산은
인심이 / 좋아서 / 노란돈 / 서푼에 / 큰아기
열들일세 / 산이야/산이지
제주도로 / 가봅시다 / 제주에는 / 한라산이요
제주에는 / 해녀도 / 많고 / 조랑말도
많지만 / 조각돌도/많다하네
전북으로 / 가봅시다 / 전북에는 / 지리산 / 그리고는
연자봉 / 그중에는 / 내장산 / 그다음으로 / 주왕산
산이야 / 산이지
전남으로 / 가봅시다 / 전남에는 / 월출산
천왕봉에는 / 무등산 / 산이야 / 산이지
경북으로 / 가봅시다 / 경북에는 / 덕운산이요
팔공산도 / 있고 / 소백산도 / 있지요
경남으로 / 가봅시다 / 경남에는 / 가야산이요
해인사도 / 있답니다
충청도로 / 가봅시다 / 충청도엔 / 계룡산
월악산도 / 있지만 / 속리산도 / 있답니다
강원도로 / 가봅시다 / 강원도엔 / 오대산이고
설악산도 / 있고요 / 치악산도 / 있지만
금강산도 / 있답니다

산이야 / 산이지
경기도로 / 가봅시다 / 경기도엔 / 관악산이오
수리산도 / 있지요
한양으로 / 가봅시다/한양에는 / 인왕산요
북한산도 / 있지만 / 삼각산 / 남산도 / 있답니다
산이야 / 산이야
수원으로 / 가봅시다 / 수원에는 / 팔달산이 / 있답니다
강화도로 / 가봅시다 / 강화에는 / 마니산
황해도로 / 가봅시다 / 황해도엔 / 구월산도 / 있지만
극락산도 / 있고요 / 불태산도 / 있답니다
산이야 / 산이야 / 산이지
평안으로 / 가봅시다 / 평안에는 / 묘향산이 / 있구요
함경도엔 / 백두산이 /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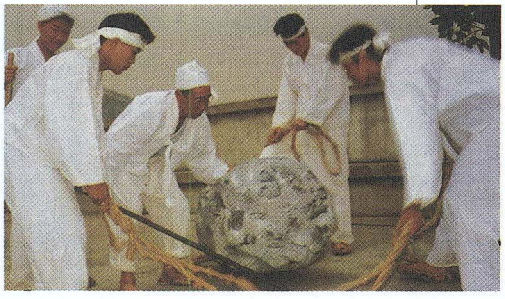

(받음) 산 이 야 산 이 야 산 이 야 산 이 야

※참고

1. (메) : 메김소리
2. (받) : 받음소리
3. 받는 소리는 음의 높낮이에 있어
   - 산이야는 악보에 표기된 음보다 조금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 산이지는 악보에 표기된 음보다 조금 내려가는 편이며
   - 산이다는 악보에 표기된 음과 같이 진행하려 한다.
4. ♭♩ : 악보에 표기된 음보다 미묘하게 조금 낮음.
   ♭♩ : 악보에 표기된 음보다 미며하게 조금 높음.

② 대꼬질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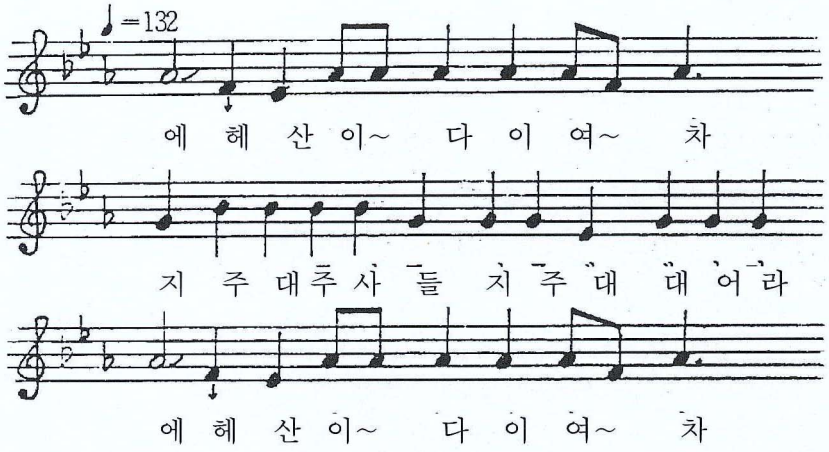
· 대꼬질은 떼어낸 돌을 목도에 묶기 위하여 받치거나, 돌을 움직이는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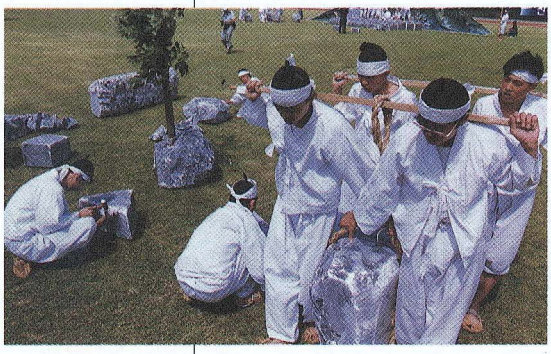


## 대 꼬 질 소 리

(큰 돌덩이를 지주대로 받칠때 소리)

창 : 심성봉



③ 목도일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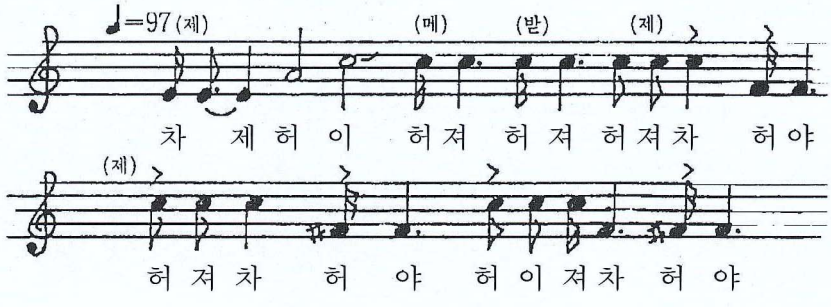
· 목도일은 돌크기에 따라 두목, 네목, 육목, 팔목까지도 있으며 떼어낸 돌을 운반하거나 기타 무거운 물건을 옮기기도 한다.

· 앞소리꾼을 상목이라고 부르며 목도일이 끝날때는 신세타령조의 소리를 하기도 한다.

## 목 도 소 리

(무거운 물건을 옮기며 부르는 소리)

창 : 유정용, 이필성






(방향을 바꿀때)

허져차 허야 올라간다 허야

허져차 허야 턱이있다 허야

허져차 허야 우로돌고 허야

허져차 허야 외로돌고 허야

(목도일 끝날때)

허져차 허야 허이져차 허야

가만가만 허이자 목도소리가 끝이나면

목도꾼신세 망하리라 허이져차 허야

※ 참고

1. 앞소리중 차제 허이 ( )는 음이 끌어올려지며
2. 끝소리후 놓고( )는 음의 끝이 내려간다.
3. 앞소리 차제~는 어이져 하고 부르기도 한다.

④ 지경닦이 과정

· 지경닦이는 20여명까지도 지경줄을 잡고 집터를 다지는 일로 집터를 다진 후엔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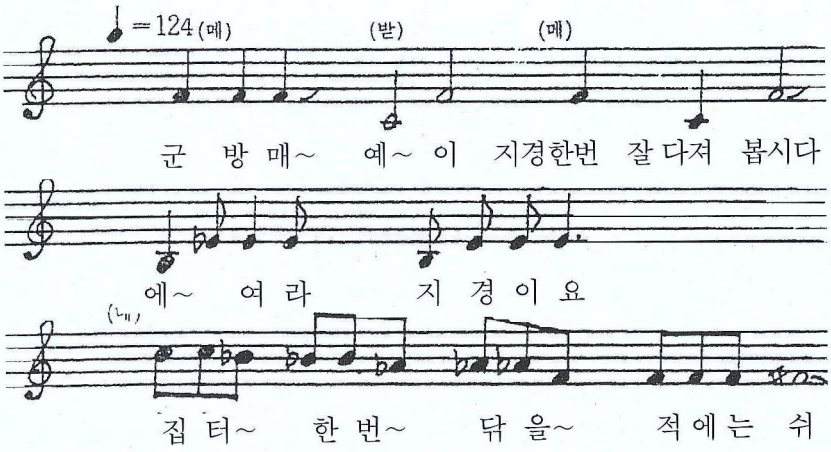
· 지경닦이는 북을 맨 고수가 장단에 맞추어 소리를 매기면 나머지 사람은 "에~여라 지경이요"라고 받으며 돌을 번쩍 들어 집터를 다진다.



# 지 경 닦 이

(집터다지는 소리)

창 : 장석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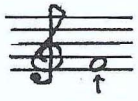



(메)

삼봉허리를 궁글러가며/고추상투를 흔들어가며/
지경돌에 발다치리라/번쩍들어서 쾅쾅노세/
봉학산 복을받아좌우청룡 오백호에/노적봉에 박혔으니/
부자한번 되리로다/소산에올라 소목내고/대산에올라 대목내고
한머리에 서른세명/어기여차 갖다놓고/
어떤목수를 들였는가/선자편수 김목수/
왼갖목수를 대려다놓고/잦은나무 굽다듬고/
굽은나무 잦다듬고/등글목으로 집져봅시다/
이집한번 지어놓고/고사한번 지내봅시다
없는정성 있는정성/적어도 정성이요/
커도 정성이요/소래를 대래로받고/
대래를 소래로받고/이집한번 지어놓고/
안채는 삼십칸이요/행랑채는 이십칸이요/
오십칸을 더렁지어놓고/왼갖입춘을 써붙히자
어떤입춘을 써붙혔나/안채는 복복자요/
행랑채는 용용자요/이집짓고 이터전/

이마당에 늘어주고/불어주고 먹고남고/
쓰고남게 도와주고/삼년내에 거부장자 되리라/
이집짓고 대주님네는/동쪽으로가면 동쪽장군님이 복을주시고/
남쪽으로가면 남쪽장군님이 복을주시고/집으로 들어오시면/
족재비업은 물어주시고/인업은 안아들이고/잔업은 뭉쳐들고/
개고리업은 뛰어들고/원갖복은 다들어온다
이집한번 짓고나면/있는 애기는 수명장수/없는애기 발원할때/
따님에기 점지할때/복도많이 점지하시요
아들애기 점지할때는/명도많이 점지하시오/
이집한번 지어놓고/옥동같이 귀염애기/
정히점지 할때에는 나라에는 충신동이/부모에겐 효자동이/
동네일신 우애하고/일가친척 화목동이/
만첩산중 보배동이/동네방네 귀염등이/
호박같이 둥근동이/오색비단에 청색등이/
은자동아 금자동아/옥동같이 귀연애기
애지중지 키웠다가/공부나한번 가르쳐보자/~쉬~

※참고

1) 끝부분의 쉬~는  보다 조금 높고  보다 조금낮다.

## ※ 전문가가 본 채석장 노동요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 이소라)

석수동 채석 노동요는 모두 네 종류로서 그 중 채석요와 대꼬질소리는 매우 드문 형태의 노동요로 볼 수 있으며, 종류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채석요 : 멕. 받음의 형식이며 받음구가 "산이야"이다. 메김가사의 내용이 山(산)을 소재로 하고 있고 산에서의 채석작업인 점을 감안할 때 받음구의 산은 山을 의미한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받음구는 청원군 · ("에헤 산이야 호") · 삼척군 · 울진군 · 홍천군 일대의 운자소리(산에서 벤 나무들을 산 아래로 끌어내릴 때 부르는 노동요)와 연관되어 보인다. 채석요는 매우 드문 노동요이다.

멕임소리꾼(갑)은 멕일 때마다, 받음소리꾼(을)은 받을 때마다 쇠메를 내려치는데 각각 쇠메를 1회 돌려 내려치며 소요시간은 2초 내외걸린다.

메김구는 1음보씩이며 2~5자 구성이다. 1매김구와 1받음구가 합하여 6/8박에 선율 1마디를 이룬다.

대꼬질소리 : 큰돌덩이를 지릿대로 들어올릴 때의 소리로 "에-산이다, 이여사"가 반복구로 쓰이고 있다.

이 반복구가 선율 3분박4박1마디를 차지한다. 이는 매우 드문 노동요이다.

목도소리 : 채석한 무거운 돌을 길다란 몽둥이(목도)에 옭아묶고 여러사람이 두 사람씩 짝을 맞춘후에 목도를 어깨에 메고 걸어나갈 때의 발맞춤 소리인 목도소리는, 전국적으로 비슷하여 통민요(通民謠)에 속한다.

이는 ABC 3부분으로 구성된다. A는 처음의 준비동작이고, B는 발맞추어 걸어나갈때의 소리이며, C는 목적지에 도달하거나 잠시 쉬어가기 위해 목도를 내려놓는 부분이다.

지경닦이 : 터다짐소리는 그 받음구에 따라 차류(경상도), 상사류(전라도), 지경류(경기도), 지점류(충북), 지정류(황해도), 기타(달괴, 망깨, 외래형 등)로 분류된다.

경기도 일지라도 남부경기도 충북소리인 지점류가 공존하기도 하지만 안양의 노동요는 남부경기도권을 막 벗어나서 중부경기도권에 소속하고 있음을 뚜렷이 주장하는고로, 지경류로 집터를 다진다.

그 받음구는 "에헤여라 지경이요"이며 (메)와 (받)이 3분박 4박 1마디씩이다.

본격적인 메받음소리 앞에 선 소리꾼이 "군방메-"하고, 지경꾼들을 불러 가지런히 작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킨다.

## 5. 채석장 노동요 실태조사

**(1)실태조사** : 1993.3.2~1993.6.30

**(2)조사대상** : 석수동 채석장 노동요

**(3)조사** : 안양문화원

**(4)조사방법**

현지 주민중 채석장(석산)일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내용을 아는 자를 대상으로 면담 및 녹음에 의하여 구술, 채록 하였으며 증언내용을 확인

하기 위하여 문헌의 참고와 관계자, 현장확인을 우선으로한 배경등을 참고함.

**(5)대담자**

- 최봉수(72세) 석수2동 313-22
  황해도 연백 고향으로 30세 전후 안양에 정착후 석수동 채석장에서 일을 배움.
  작업과정에 대한 고증과 노동요를 소상히 기억하고 있음.
- 서재순(69세) 석수2동 305
  원주민, 채석장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최봉수 노인과 가까운 친구로 채석장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증언.
- 김정현(80세) 석수1동 110
  원주민, 최봉수 노인이 일하던 석산 구둘장 터 옆에 지금도 사슴목장을 하고 있음. 60년대에 석산 작업시 돌파편이 튀어 집안 식구 한명이 사망하였다고 증언
- 유정용(85세) 석수1동 211-1
  본인까지 8대의 원주민이며, 젊어서 석산의 목도일과 경부선 철도 침목 놓는일을 했다고 증언함.
- 이필성(75세) 석수1동 26-1
  원주민. 쇠를 잘쳐서 마을 농악의 상쇠이며 젊어서 삼막사 오르는 길에 전신주와 축대석 옮기는 일을 했었으며 목청이 좋아 상목도 했다고 함.
- 장석봉(77세) 원주민, 안양 농악의 기능보유자 임.
  전에 구성지게 소리를 잘해 수원까지 큰집 지을때면 지경소리를 하러 원정을 다녔으며 지경소리와 함께 집터다지는 과정을 증언함.

### ● 조사후

석수동 채석 노동요는 최봉수(72세)옹과 서재순(69세)옹, 김정현옹 외에 몇몇 노인에 의하여 그 내용과 형태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었다.

또한 원래 조사 대상에선 없었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무거운 돌이나 물건을 옮길때 부르는 목도소리와, 큰돌덩이에 줄을 매기 위하여 지주대를 끼우며 부르는 대꼬질 소리등이 채록되었다.

대꼬질은 목도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데 소리를 녹음한 심성봉(77세)

옹은 안양에서도 대꼬질 소리는 딴 지역과 같다고 하나, 이필성(75세)옹과 유정용(85세)옹에 의하면 "어이여차, 어이여차"할 뿐 별도의 소리는 없었다고 한다. 목도 소리는 물건의 크기에 따라 두목, 네목, 육목, 팔목 그 이상까지도 힘을 합치며 부르는 노래로 경쾌하고, 서로간에 발이 맞아야 함으로 소리의 장단과 강약이 뚜렷하다.

또한 돌을 다듬는 중에 부르는 소리를 찾으려고 했으나 그러한 소리는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잘 알려진 집터 다지는 소리(지경닺이)를 장석봉(77세)옹에 의하여 녹음 할 수 있었다.

## 6. 고증 및 지도

- 안양시『채석장노동요』민속보존회
- 한세권(명예위원장 안양시장)
- 김행웅(위원장문화원장)
- 이소라(고증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
- 김지석(지도 문화원사무국장)

민속놀이

# 날미농악

## 1. 전승지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 2. 유래및 해설

날미를 한자로는 (飛山)이라고 쓴다.

오늘날의 비산동을 지칭하는 말이다. 본래 날미는 현 안양종합운동장 남문 부근에 있던 구리 고개에서 북쪽 능선을 따라 동쪽 지역을 안날미(內飛山)라 칭하고, 그 서쪽지역을 박날미(外飛山)라 칭했다.

날미는 지형적으로 명산 관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쌓여 있고, 마을 앞은 넓은 농경지가 펼쳐진 천혜의 삶의 터전이다.

마을 앞의 다라니들은 일명 만마지기 들 이라고 칭할 만큼 광활한 농경지였다. 현재는 평촌 신도시 구역에 편입되어 아파트군을 이루고 있지만, 예전에는 안양을 대표하는 곡창지였다. 날미농악이 언제 부터 시작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알수가 없지만 적어도 조선후기에는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고종 2년(1865) 경복궁 중건 때 부역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덜어 주고자 참가 하였는데, 전국 각처에서 모인 농악대 가운데 날미농악대의 기량이 단연 으뜸이었다. 이후부터 장원농악 이란 별명이 붙여져 인근에서는 농악하면 날미농악대를 떠오르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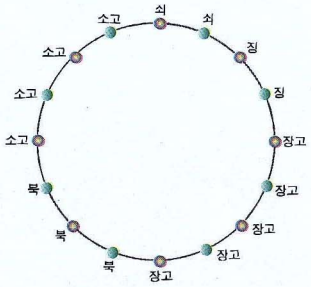


하였다. 특히 융희 2년 (1908)순종황제로 부터 하사받은 농기(農旗)를 마을 사람들은 큰 자랑으로 여겼다. 이 농기는 70×50cm정도의 적색천에 중앙에는 다시 50×30cm정도의 흰색천을 붙이고, 중앙에는 종서로 (農商工部)라 쓰여 있고, 그 우측 상단에는(隆熙二年)이라고 썼으며, 그 좌측에는(京畿道 果川郡 上西面 飛山里)라 쓰여 있었다.

이 농기는 신임이 두터운 마을의 인사가 소중히 간직했다가 마을의 행사가 있거나, 농번기에 농악놀이가 거행되면 주민들은 농기 앞을 함부로 왕래하지 않고 큰 절을 하는 등 외경시 하였다. 더욱이 6,7월경 다라니들에서 김맬때 흥을 돋우고, 피로를 덜기 위하여 칠때와 김매기가 끝난 후 농신(農神 · 농기)을 모시고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가 벌어질 때에는 마을 주민들은 물론 인근의 주민들까지 합세하여 신명나는 한마당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듯 명성을 날렸던 날미농악도 일제가 강점한 후 1920년대에 이르러 일제의 탄압으로 주민간의 단합을 한다는 이유로 농기가 회수되고 농악대를 강제로 해산시키자 이후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그동안 안양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날미농악의 복원을 위해 부단한 노력 끝에 결실을 보게 되었고, 안양 고유의 문화특성을 되살리고 나아가 안양의 옛 놀이문화를 재현함에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 3. 구성 및 내용




**• 원 인사굿**

원을 만들면 잦은일채 인사굿(제자리에서)

※1번이 끝나면 덩덕쿵이로2번을 만든다

덩덕쿵이 허튼상

잦은가락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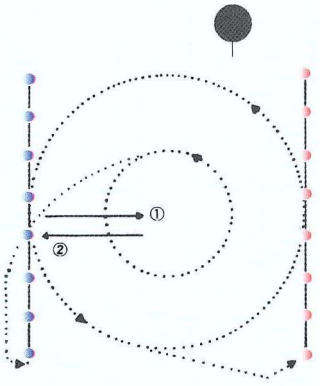
**• 당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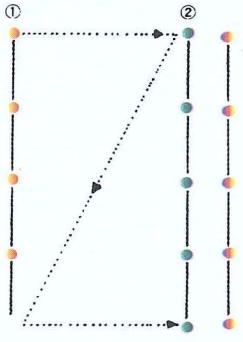
점선이 실선으로 된다.

천천히 { 당 당 당 닥 (상쇠)
당 당 당 당 (전체)

잦은 가락을 상쇠 혼자 한장단을 치고 전체가 한장단을 제자리에서

소고가 ①앞으로 나오며 두장단(빠르게) 나와서서 잦은 일채를 친다. 맺고 난타 ②원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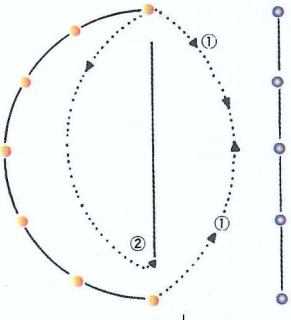

**• 태극을잦은**

덩덕쿵이 { 1에서 2로 움직인다
점선이 끝나는 부분부터
외돌사위로 들어가 제자리에
서면 잦은가락에 양상을 친다
난타에 소고 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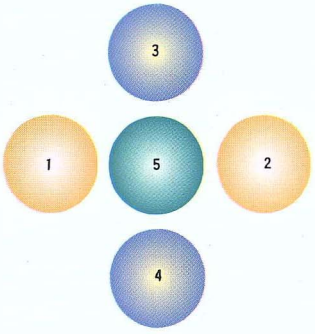
**• 돌림벅구**

상쇠가 혼자 놀다가 다시 가락을 내면 점선을 ①따라 안으로 들어와 원을 만들어 돌림 벅구를 친다.

②을 따라 실선으로 들어오면 양상 찍음 두장단에서 4번을 한다 그 다음에 솟음 벅구을 해서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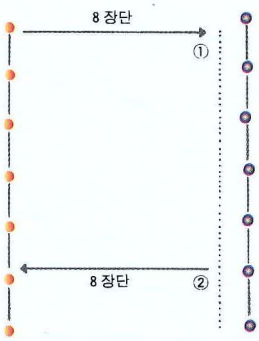

**• 오방진(칠채)**




순서대로 진을 감는다.

5번 진이 말아지면 잦은 일채로 넘어간다.

잦은 일채에 엎으로 뛰다 돌사위 맺는 동시에 잦은 이채로 풀어 난타




**• 당산(좌우뛰기)고사리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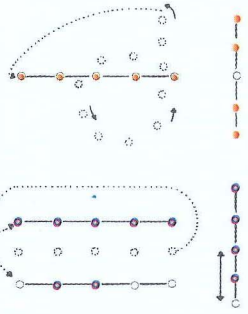
반대로 원을 만들어 좌우 뛰기 정상 풀어 외절구 · 양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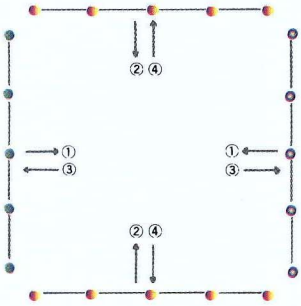
※고사리 꺾기는 ①으로 가서 4장단씩 상쇠가 끊으면 동작시작

**• 외절구 · 양절구**

4장단 마다 맺으면 앉고 서고 교대 2번

※양절구에서 소고가 벌어지면 악기 절반은 소고 뒤를 따라 가서 반대편에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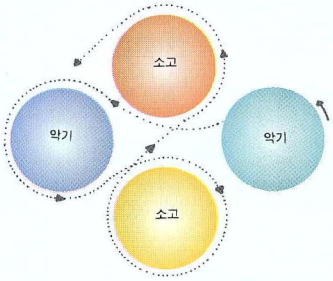

**• 가세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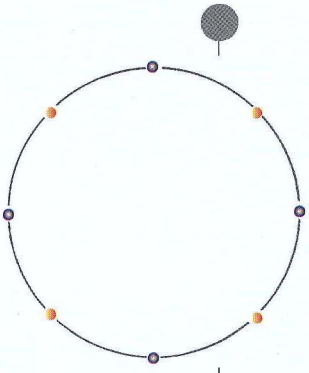
악기가 먼저 엇갈리면 다음 소고 악기 소고 다음은 4원으로 만든다.

**• 사통백이**

돌사위를 하면서 원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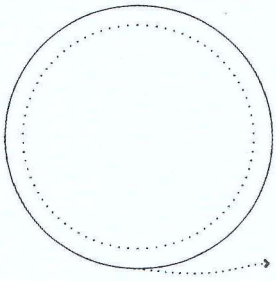
4원에서 근원으로 만든다.





• **좌우치기**

원으로 만들면 덩덕쿵이를 맺고 잦은일채 잦은일채 맺고 좌우치기 좌우전후) 맺고 난타



• **대대치기**

원을 그려서 잦은 일채가락 인사굿. 퇴장

## 4. 지도 및 연출

- 김창진(안양국악연구원 원장)
- 박선봉(평촌정보산업고 교사)




제10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길마재 줄

# 부 천 시

## 오정농악


연 천
파 주
동두천
포 천
김 포
양 주
고 양
의정부
가 평
인 천
부천
서울
구리
남양주
광명
시흥
안양
과천
하남
안산
군포
의왕
성남
광 주
양 평
수원
화 성
오산
용 인
이 천
여주
평 택
안 성

# 여 백

민속놀이

# 오정농악

## 1. 전승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 2. 유래 및 해설

부천시 오정농악은 예로부터 여흥민씨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씨족마을 오정동에서 오래도록 전승되어 오던 놀이이다.

오정동은 굴포천을 중심으로 오랜기간 동안 농업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온 곳이다. 이리하여 농악가락도 다채롭다.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도당굿을 지내면서 뒷풀이 형식으로 진행되다가, 고씨, 박씨등 여러 씨족이 형성되면서 마을 전체 대동굿 형태의 지신밟기, 단오, 칠석 등 대동놀이 때 다채롭게 펼쳐졌다.

6.25동란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외부인이 이주해와 급격히 발전되었고, 여러번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위 생활환경이 바뀌었어도 주민들은, 옛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민족의 맥을 이어왔다. 이번 "제1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를 기점으로 오정농악을 재구성하였으며, 잊혀져 가는 우리의 민속예술을 되살리는 데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3. 특징

인원의 제한은 없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놀이에 참가하나 한 가구에 한명 이상씩 놀

이패에 가담했다고 한다.

머리에는 꽃을 달거나 상모, 고깔 등을 쓰며 어깨에는 삼색띠를 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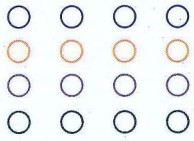
잡색으로 양반과 포수 등이 있다.

특징으로는 쇠가락이 힘차고 섬세하며 쇠의 주고받음이 있고 판제가 다양하다. 특히 절정의 놀음이므로 전체적으로 경쾌하고 빠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4. 판제 구성

### ① 울림굿

판굿시작을 위해 준비하는 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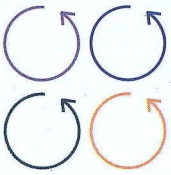
### ② 인사굿

판굿 시작을 위해 준비되었음을 알리고 인사하는 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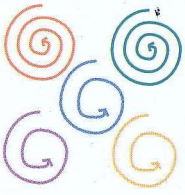
### ③ 사통백이

사방으로 네개의 원을 만들어 노는 놀이로서 휘몰이 가락을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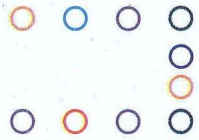
### ④ 오방진

동서남북 중앙 다섯마당으로 펼쳐지는 놀이 멍석말이 형태이며 칠채가락을 친다.



⑤ 당산벌림

사물, 소고가, 각기서며, 간단한 상쇠놀이가 이어진다.



⑥ 개인놀이

판굿이 끝나고 쇠 · 장고 · 벅구 등이 나와서 장기자랑을 하며 12발 상모가 마지막 흥을 돋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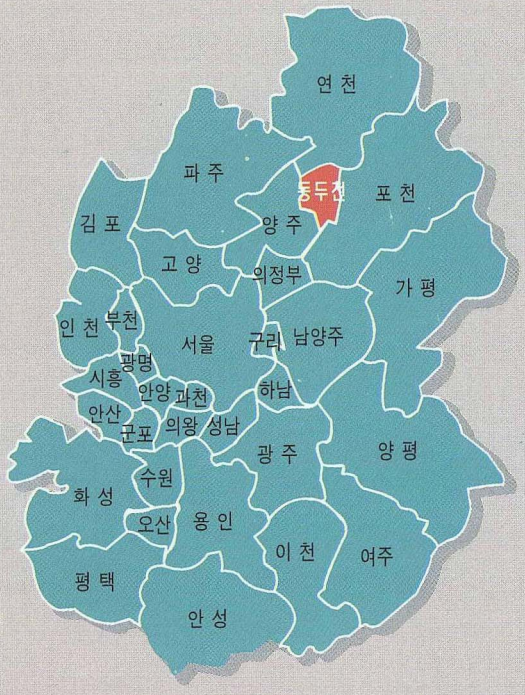
## 5. 고증 및 지도 연출

- 총지휘 : 덕산중학교 교장 김병익
- 지휘 : 덕산중학교 교감 최정명
- 고증 : 부천역사연구소장 최현수
- 지도 : 박원철
- 연출 : 덕산중학교 교사 송애란
- 출연
  - 기수 : 윤석, 이현영, 양승희, 김재영, 전원석, 김명일, 송용하, 문정호, 박승환
  - 호적수 : 김형규
  - 상쇠 : 강신애, 유성은, 이효현, 박근영, 이선형
  - 징수 : 김진웅, 양승환
  - 장고 : 김선혜, 구태연, 장미리, 김미선, 이혜정
  - 북수 : 송소영, 나채랑, 김송이, 이연주, 박미희, 구혜미
  - 벅구 : 소봉수, 홍성현
  - 잡색 : 이승운, 백정훈, 백승열, 조영민, 최광명, 김현우



# 동두천시

## 하봉암리
## 도당굿 사냥거리



# 여 백

민속놀이

# 하봉암리 도당굿 사냥거리

## 1. 전승지

동두천시 하봉암리, 신산리 일대

## 2. 유래 및 해설

### 1) 해설

경기도 북동부의 무의식(巫儀式)에서는 강신무들이 굿을 한다.

세습무와 강신무들이 연희하는 방식은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이 지방 역시 강신무지역이라서 경기도의 북동부 지역에서 하는 무의식을 하고 있다.

본래 이 지역이 양주목이 있어서 한강 이북 특히 연천, 포천, 파주 등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인구가 번다하고 한강 이북에서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국방의 요충지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따라서 한탄강 넘어에 있는 장단, 개성의 지역과도 교류가 있어서 인구 이동이 빈번하고 물자교환 교역이 활발해서 무의식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쳤다고는 보지만 그렇게 심하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무의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북 지역인 황해도 내륙 지방의 것과 기능 성격면에서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리라 본다.

무의식이나 음악적인 구성, 제의(祭儀)절차 등은 다른 경기도의 강신무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순서가 조금 다를 뿐이고 예전에는 거의 그런 연희 방식이 있었겠지만 세월이 변하고 사회적인 변화가 부침을 거듭하면서 없어졌을 무의식이 어느정도 남아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강신무들이 대개 그러하듯 신어머니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어느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 지역 무의식을 하는 이들도 역시 다른 지방의 경기도 강신무와 같이 그 양상이 비슷하다.

### 2) 유래

동두천시는 본래 고구려의 買省郡(一名 : 昌化郡)이었고, 신라 代에는 경덕왕이 來蘇라 고쳤다.

고려 初에는 승격하여 見州라 하였고 현종 9년에는 楊州에 예속되었으며, 조선조에는 태종 13년에 도호부로 하였다가 세조 12년에 승격시켜 牧으로 만들고 조선1시대 지방의 국방 방위 조직인 진관을 설치 하였다.

행정구역은 양주군 이담면(伊淡面)이라고 하였고 송정리(松亭里)의 九個里로 되었으며 해방전에는 송정리가 동두천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냇가가 머리를 동쪽에 두고 흐른다고 해서 東頭川이라고 하였다가 東豆川으로 변하였다.

상봉암리는 양주군 이담면(현 동두천시)의 지역으로 봉바위 위쪽에 있으며 윗봉바위, 웃새바위, 웃사야 위 또는 상봉이라 일컬었는데 하봉암리, 동막동, 안흥리, 창리 일부가 상봉암리가 되었다.

하봉암리는 상봉암리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 안골이라고도 불리운다.

소요산과 예전 포천현의 해룡산과 왕방산(王房山)이 있는데 영평현의 금동산(金銅山)의 줄기이다.

이 하봉암리에는 崔氏, 洪氏, 康氏 등이 살고 있는데 마을냇가 옆에는 나무 나이가 무려 사백 오십년이나 되며 높이가 무려 20m가 되는 시나무 세그루가 있는데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당굿을 하였으며 마을에 불상사가 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날을 잡아서 굿을 하거나 치성을 들이기도 하였다.

음력 10월 상달에 날을 가려서 하는데 마을에 초상이 났거나 부정한 일이 있으면 날을 다시 잡기도 하였다.

하봉암리는 3년마다 해 오다가 10여년 전부터 토박이들이 세상을 뜨거나 이주하고 또는 마을 굿을 치루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면에서 부유해지다보니 굳이 토착신앙에 대한 정성이 예전처럼 지극하지도 않고해서 점차지내지 않게 되었으며 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무슨 불상사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부군 나무에 가서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서 비는 정도이다.

이 시나무는 6 · 25 전쟁시에도 아무런 피해도 안 입었고 역시 마을 사람도 해를 입지 않았으며 전쟁 후에도 서너번 하다가 4~5년 정도 실시했으며 마을에 궂은 일이 생기면 회의를 열어서 하였다.

## 3. 내용

### 1)행추 물림(황토 물림)

굿청이나 집굿인 경우에도 왼새끼 꼬아서 굿청입구나 집인 경우 대문앞에 두르고 황토를 점점이 깐다.

부정한 것을 막고 잡귀신, 잡인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금기 사항이 있는데 굿에서도 일상 생활에서 금기시 여기는 것보다 더 가짓수가 많고 그 위하는 마음이 진지하다.

이 용어는 옛 양주군, 고양군, 파주군 일대에는 다 쓰이는데 집굿이나 마을 굿에서는 반드시 하는 의식이다.

지금도 양주군 일대에서는 행해지는 무의식이다.

무당이 빗갓 쓰고 홍천릭을 입고 마당에서 간단한 진설상을 차리고 열두거리를 잠깐씩 쳐들어서 굿을 한다. 이때는 굿을 하는 무당, 집 식구, 동리 주민, 악사 등 누구든지 예외가 없을 정도로 굿청이나 집으로 못 들어간다.

이것이 끝나면 무당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 일행이 들어가고 안방에 가

서는 다시 주당을 물리고 초부정을 친다. 이것이 옛 방식이다.

지금은 집굿일 경우 이런 의식을 하는 집이 아직도 남아있다.

### 2) 초부정(선부정)

앉아서 장구를 치고 무가를 구송하면서 하는 것이 초부정인데 이 지역은 서서 부정을 친다고 해서 "선부정"이라고 한다.

무당이 굿청을 정화하고 신을 모셔 오기 위한 절차로서 하는 것인데 맑은 물에다 잿물을 담은 것을 가지고 둘러내고 소지로써 부정을 가시느라고 굿청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끝낸다.

이러한 동안 마을 사람들은 굿당을 맨다. 부군 나무를 엮어서 굿당을 매는데 주로 남자들이 한다.

### 3) 대내림

대잡는 이는 마을주민들인데 대를 잡으면 대가 흔들려서 그 대가 붙으면 무당이 빌면서 좌정을 하라고 한다. 대를 참나무를 쓰며 성주굿일 경우에만 소나무를 쓰고 진오귀 굿에는 밤나무를 쓴다.

만신이 축원을 하면서 앉아서 징을 치는데 대가 빨리 내리기를 바라는데 대가 잘 안 내리면 그 동네에서 대를 잘 내리는 이가 잡기도 한다.

### 4) 돌돌이(家家巡訪 : 가가순방)

무당이 빗갓에 홍천릭을 입고서 방울, 부채를 들고서 나서고 그 뒤에 또 장고를 든 조무들이 뒤따르며 나머지는 악사들이 해금, 피리, 젓대, 징, 제금 등이 따른다.

마을 남자들은 긴 수수깡 끝에다 흰 문창호지를 꿰고서 이들의 일행을 따라 다닌다. 먼저 상  화주(化主)집에 도착하는데 길을 갈 때에는 여섯마루를 치는 길군악을 치면서 간다. 한자로는 "유가(遊家)를 돈다"고 하지만 순 우리말은 집집마다 돈다고 해서 "돌돌이"라고 한다. 그 집에 도착하면 간단한 술상을 보아 오는데 그 집주인(대주하고 한다)이나 기주(그 집의 부인)가 나와서 빌기도 하고 한 해에 아무런 사고 없이 안과태평 해 달라고 무당이 덕담을 한다.

그 집에서는 쌀 한 말에 술 3잔, 삼색 과일, 나물을 차리고 시루떡을 해서 진설하고 간단한 굿거리 장단으로 대청에서 한 거리를 논다.

이렇게 하기를 집집마다 한다.

### 5) 당맞이

서낭 나무(神木)를 모시는데 이를 "산 쓴다"고 한다.

신목 앞에는 삼색 과일, 나물을 진설하고 나무에는 실을 먼저 걸고 오색천을 거는데 이를 예단을 바친다고 한다.

실제로 예전에는 값 비싼 비단을 거는 수도 있었으나 세월이 변하면서 오색천으로 대신 하였다. 다음에는 문창호지를 건다. 이어서 상 화주가 맨 먼저 향을 사르고 헌작하고 재배하고 다음에 중,하 화주순으로 하고 나무를 왼쪽으로 돌아서 무당이 빗갓에 홍천릭을 입고서 산신께 빌고 화주들한테 "이 정성을 들이느라고 힘 많이 쓰고 애 많이 썼다. 아무쪼록 정성을 들여라." 하며 축원을 하고서 화주들 한테 신수를 보면서 조심하고 수가 나쁘니 경계하라는 식의 덕담을 하고서 술잔(명잔이라고도 한다)을 건네주고서 무당이 잠시 춤을 추고 공수를 잠시 주고서 사방에다 술잔을 끼얹고 잡귀 잡신을 물리친다고 해서 통북어를 그대로 나무에다 묶어 놓고서 신목(神木)을 왼쪽으로 돌아서 내려온다.

예전에는 흰 창호지를 "함"이라고 해서 무당을 제외한 이들이 입에다 물고서 올라가서 하였으나 지금은 그런 습속이 없어져 가고 있다.

이는 부정을 타지 말라고 입에다 문창호지를 무는데 이는 여느 지방에나 있는 의식 행위이다.

일행은 굿청에 모셔 놓고서 조상을 모셔온다.

지금까지는 신산리의 경우이고 하봉암리의 경우는 서낭당맞이를 조금 다르게 하는데 부군나무(一名 : 시나무라고도 한다)옆에 있는 주저리에 가서(마을 사람들은 이를 안 부군님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방의 도당 할머니를 말한다)안 부군님을 모셔와서 부군님(도당 할아버지)과 合意시키는 것이다.

광암동 장림의 도당굿은 조금 무의식이 하봉암리, 신산리와 다른 데 크게 다르지는 않고 신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당맞이, 서낭맞이를 하는 등 무식의식만이 다를 뿐이다.

장림의 경우에는 서낭목의 순서대로 모신 다음 본향산신과 합의하여 굿청에 좌정시켜서 하지만 하봉암리의 경우는 먼저 부군 할아버지를 모시고 주저리로 가서 안부군님을 모셔와서 굿청에다 합의 좌정시키는 의식을 말한다.

### 6) 조상 모셔 오기

일반적인 서울, 경기도의 열두 거리의 무의식가운데 조상거리가 있는데 여기서의 조상거리는 처음 받아오는 조상을 말한다.

초부정이 끝나고서 이어서 빗갓 쓰고 홍천릭 입고서 무복을 갈아 입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한다.

### 7) 푸살

이어서 푸살을 하는데 이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낭목에서 불씨를 담아와서 굿청에다 모시는 의식인데 양주군 일대에서는 보기드문 의식이다.



### 8) 조상내모심

위의 조상은 모셔오는 절차이지만 지금의 것은 조상을 내다 모시는 의식이다.

### 9) 초대감

빗갓에 홍천릭을 입고서 초대감을 노는데 앞서 언급한 열두 거리 가운데 대감놀이를 노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이것은 경기도의 남부, 서부등지에는 없는 의식이고 북동부 지역인 연천, 파주 등지에만 전하는 특이한 의식이다.

여기까지가 넓은 의미의 초부정이다. 다른 지방의 초부정이라면 앉은부정, 선부정 정도로 구분하는데 거리부정 역시 선부정에 속하는 것이며 강신무 의식인가 세습무 의식인가 아니면 집굿인가 마을굿인가에 따라서 조금 무의식이 다른데 이 지역에서처럼 넓은 의미에서 지니는 초부정을 가지고 여러 갈래로 나누는 의식은 다른 지방에도 있기는 하나 드문 의식이다.

### 10) 산 칠성(제석거리)

흰 고깔 쓰고 홍가사를 두르고 염주를 드리우고 흰 장삼을 입고 장고잽이와 만수 받이를 하는데 삼신 제왕님께 빌어서 아들 딸 점지하고 수명

장수 하기를 비는 무의식이다.

### 11) 말명거리

무당의 조상을 이른바 말명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의 다른 지역 남부, 서부 지역은 이런 의식이 없지만 경기도 장단, 개성이 가까워서 황해도에서 연희하고 있는 도산말명거리가 비슷하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 황해도의 의식이 전파 경로가 여기까지 미침을 알 수가 있다.

이 의식은 이 지역의 선대나 유지들 정성이 지극해서 마을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마을굿에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이나 오래된 단골 또는 그 마을을 주재하던 무당의 선배들을 쳐들어서 마을굿을 하니 오셔서 예전같이 즐겁게 노시라고 공수와 축원, 덕담을 하고 나중에는 가장 우리다운 연극을 꾸미는 데 재담과 음담패설 등이 나와서 과연 이런 것이 전통적인 우리의 연극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하여 주는 의식이다.

### 12) 산거리

본향산거리라고도 하는 데 이는 오늘 이 대동굿을 하니 본향산신은 그리 알라고 보고 하는 그런 의식이다. 예를 들자면 감악산 빗돌 대왕 마차산, 천보산, 칠봉산, 주악산, 화악산, 월악산, 군자봉, 삼각산 등을 쳐들어서 마을 굿을 한다고 하는 것이다.

집굿에서는 마당에서 "본향산을 헤치"고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강신무계통 즉 중부 지방에서는 반드시 집굿이든 마을굿이든지 "본향산 거리"를 한다.

### 13) 별상거리(別上)

별상은 무의식에서는 강남에서 마마신이 들어와서 인간에게 천연두를 앓게하여 해를 끼치는 데 이 호구(胡口)신을 물리치고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굿이다.

### 14) 장군 거리

장군이 신격화한 것을 무의식을 통해서 보여 주는 것인데 실제 인물이 인격화 되어서 연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영 장군, 임경업 장군, 평산의 신장군(신말평)등인데 여느 지역이나

있으며 복색, 의식 절차, 반주 음악, 사설만 다를 뿐 그 성격은 같다.

### 15) 성주(城主)거리

집을 관장하는 신격인 성주신인데 집굿에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마을 굿에서도 어느 지역은 그 마을 주민들의 사주를 들춰가며 소지를 올리면서 모두 축원할 만큼 농경 문화인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여긴다.

하늘은 남자이며 땅은 여자이므로 성주가 탈이 나면 큰 일 난다고해서 예전에 가세가 넉넉한 집에서는 성주 거리는 꽤 걸직하고 규모가 컸다.

집을 새로 짓고서 하는 새 성주굿 등은 지금은 집이 양옥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는 보기 드문 의식이 되어 버렸다.

### 16) 사냥 거리

먼저 소복만 빼고 무당과 장고 잽이다 만수받이를 하는데 서울, 경기 이북, 황해도의 강신무 계통에서는 반드시 맨 처음에 하는 의식이다.

이 만수받이를 하는 동안 주저리를 짚으로 엮고 틀어서 7개 만들고 다른 조무들은 남쾌자만을 입고 사냥할 차비를 차린다. 선거리를 하는 무당은 두루마기 비슷한 빨간 옷을 입고 머리에는 주립(朱笠 : 빗갓)을 쓰고 만수받이를 한다.

사냥을 가기 위해서는 각기 맡은 역이 있는데 포수(1명), 본향산 막둥이(1명), 사신 막둥이(1명), 원님(1명), 오그랑 망태를 짊어진 사람(1명), 강아지역(1명 : 젊은 무당이 허리에 방울을 한 개 차고 남쾌자 입고 벙거지를 쓴 차림), 활 사냥꾼(1명), 동네 머슴(약간명), 몰이꾼(약간명) 등이 나무 가지에다 동, 서, 남, 북을 상징하는 기를 꽂고서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은 미리 굿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주저리를 튼 것을 놓고서 산 닭이나 돼지머리를 숨겨 놓고서 시작한다.

굿당에는 원님이 앉아 있고 굿청 밖에는 사신(使臣)이 앉아 있다.

먼저 서 있는 만신이 "사냥가세, 사냥가세/ 노루사슴 사냥가세/ 팔도명산으로 사냥가세/ 일자 포수 대령했소/ 일자 사냥개 대령했소/ 하며 만수 받이를 한다.

이것이 끝나면 무당이 앞서고 그 뒤에 동리 주민등 각기 역을 맡은 이

가 굿청을 왼쪽 ⟶ 오른쪽으로 돌아서 주저리 있는 곳으로 사냥하기 위해서 나선다.

가면서도 무당은 "사냥 가세 ~~"하며 사냥 노랫가락을 계속 부르고 간다.

장고 잽이는 이 사설을 받아서 그대로 구송(口誦)하고 옆의 징잽이 역시 긴 장고에 맞춰 반주한다.

굿청을 돌고 나서는 주저리를 향해서 주민들이 넓혔다 점차 좁혔다 하면서 사냥을 하러 간다.

주저리를 향해서는 오른쪽 ⟶ 왼쪽으로 돈다.

이 도는 방향은 특히 무속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바른쪽 ⟶ 왼쪽으로 도는 방향이 특이하다.

또한 굿청에는 고을 원님이 좌정하고 있고 마을에서 말마디나 하는 이가 그냥 평복 차림으로 앉고 그 옆에는 조무(助巫)가 앉아서 고을 원님 부인 역을 맡고 있다.

주저리 튼 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우 여~~」하며 사냥 몰이를 하는 데 맨 처음에는 주저리 속에다 숨겨 놓은 산 닭을 찾지 못하기도 하고 일부러 빈 주저리 속을 찾기도 한다.

건성건성 찾는 척 한다고 해서 걸사냥이라고 한다.

그러면 똥개가 와서 사냥도 못한다고 타박을 하고 몽둥이를 들고서 사냥개를 때리기도 한다.

"우 여 ~~ 우 여"하면서 드디어 사냥감을 잡아 가지고 굿청으로 가져오면 사냥감을 잡았다고 좋아라고 한바탕 떠들썩하게 논다.

사냥감을 잡으면 이때부터 밖에 앉아 있던 사신과 굿청에 앉아 있던 고을 원님을 사이에 두고서 본향 막둥이와 사신 막둥이가 서로 말을 전갈하며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사신이 "원님이 고을 정치를 잘 못해서 편하지 못하니 얼른 짚둥아리에 태워라"하면 동네 머슴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원님을 태우려고 한다.

그러면 원님은 짚둥아리를 타고서 가고 포개고 앉은 두 다리 사이에 태징을 올려놓는다.

이때 서로 원님과 사신의 위치가 바뀐다.

밖에서 사신된 이가 원님 자리로 돌아와 "뭘 잡아왔느냐" 물으면 동네 머슴이 "산돼지를 잡아 왔습니다" 대답하고 "잘 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무당이 태징에다 술을 따르고 안주를 드린다.

이어서 백호 산신령을 논다.

이는 독립된 것이 아니고 연결된 의식이다.

먼저 장삼을 입고 앉아 있고 주위에는 띄엄띄엄 조무들이 쾌자를 입고 서 있다.

상화주가 나와서 청수 한 그릇을 떠 놓고 "산신령님께 비옵니다. 이렇게 산돼지를 바쳤으니 대동 일판에 안과태평 하게하여 주십시오." 하고 빌면서 잘 가시라고 한다.

그래도 백호 산신이 마음에 안든다거나 흡족치 않으면 다른 사냥감을 더 잡으려고 느닷없이 벌떡 일어서서 주위에 서 있는 조무들을 잡으러 간다. 그러면 조무들은 안 잡히려고 쫓고 쫓기는 의식이 펼쳐진다.

이렇게 하기를 세 번 한다.

세 번째는 상화주가 정한수 떠 놓고서 빌며 "이 정성을 바치오니 대동 일판에 안과태평하게 해주시옵고 편안하고 수명 장수 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이 원님은 사냥감을 보고 앉아서 냄새를 운감하고(맡아보고)나서 기분이 좋고 만족하면 슬며시 일어서서 춤을 추고서 산 쪽으로 간다.

다음에는 무당이 "옛 법 버리지 말고 새 법 내지말고 삼년 세력 잘 치루고 몸수 건강하고 태평 성대하게 빌어 주고 도와주마" 하면 상화주가 "예" 하면서 답을 하고 복잔을 받는다. 그리고 무당이 장삼벗고 평복 차림으로 수비 영산을 물리치고 굿청밖에다 수비잔 물리고 끝을 여민다.

### 17)쌍대감놀이(일명 : 왕당 대감놀이)

만수받이를 하고서 쾌자와 전립을 쓰고서 이 잡는 모습, 안고 지고 넘어지는 모습, 음식을 빼앗아 먹는 모습, 입도 맞추기도 하면서 오랜만에 만났으니 한 바탕 흐드러지게 노는 의식인데 아마도 대감놀이가 이 지역의 古形인지도 모르며 상당히 연희성이 짙은 거리이다.

### 18) 영산풀이(靈山 풀이)

글자 그대로 잡귀 잡신을 마지막으로 대접하고 보내는 의식이다. 다른 지역의 뒷전이며, 용어만 다를 뿐 그 의식은 같다고 볼 수 있다.

## 4. 구성

### 1)인원편성

- 포수(사냥꾼)(1명)

  작대기를 들고서 하지만 모조 사냥총을 든다. 복색은 사냥복색

- 막둥이 (2명)

  남쾌자나 흑쾌자를 입고서 사신과 원님사이의 말을 전하는 역.

- 원님 (1명)

  마을 노인중 말을 유식하게 하는 사람을 선정함. 두루마기 바지저고리차림. 굿청에 앉아서 사냥감을 가져오면 사냥을 잘했다고 치하는 내용의 대사를 함

- 사신 (1명)

  굿청밖에 앉아 있는데 사냥감을 잡아 오면 원님이 치정을 잘못하였다고 꾸짖고 대신 원님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사냥감을 맛보고 기마늘 타고서 끝을 맺음. 복색은 평상복이며 마을 사람 가운데 선정함

- 강아지역 (1명-무당1명)

  남쾌자를 입고 허리에는 방울하나를 단다. 주저리 뜬곳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사냥개처럼 사냥감을 찾는 역.

- 오쟁이꾼역 (1명)

  사냥감을 짊어지고서 굿청으로 들어오고 사신을 기마태우는 역. 동네주민들

- 사냥꾼(2) 활쏘는 사람 (1명)

  활과 화살을 들고서 주저리에 있는 사냥감을 잡는 역. 일반적인 사냥꾼 복색.

- 깃대든 사람 (5명)

  동쪽 : 청제장군 서쪽 : 백제장군 중앙 : 황제장군 남쪽 : 적제장군 북쪽 : 흑제장군 이런 오방장군기를 들고서 다닌다.

- 동네주민(42명)

  사냥물이꾼이다.

- 무당(6명)

  백호산신령 놀적에 주위에 서있는 역. 복색은 남쾌자를 입는다.

### 2) 소도구 및 소품

• 주저리(7개)

짚으로 엮어서 굿청밖에 여기저기 놓는다. 이속에는 임의로 산닭을 발을 묶어서 놓는다. 대신 모의용으로 돼지머리를 놓는 수도 있으나 옛방식대로 산닭을 놓는다.

• 깔개(1개)

사신이 굿청밖에서 앉도록 만든 것이다. 짚으로 엮어 만든다.

• 활과 화살 (1촉1시)

실제로 활과 화살이 아니더라도 대용으로 할 수 있다.

• 오쟁이 (1개(大))

사냥감을 담을 것인데 여기서는 짚으로 망태기라 하는데 오그랑 망태기라 한다. 사람이 등에 짊어 질수 있도록 한다.

• 깃대 (5개)

광목천에 만든다.

동쪽 : 청색 이런식으로 만든다.

깃대높이는 사람키보다 높게 만들고 깃폭역시 이에 준한다.

• 기타

술 : 청주 한병

안주 : 약간

술상 : 일반적인 상

방석 : 다수

징 : 무당이 소유하고 있는 징

도포 : 백호산신령 놀적에 착용(무녀 소장)

남쾌자 방울 : 무녀소장

초부정상 : 일반적인 굿을 할적에 차리는 진설상을 준비하면 된다.

## 5. 특색 및 의의

하봉암리에서 행한 마을 굿의 방식은 한강 이북의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일반적인 열두거리를 하는데 여느 지방과 같이 같은 경기도 지역이라도 그 무의식이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

어느 무의식은 이북 지역인 황해도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현재 황해도의 무의식과 연관이 있는 것도 있다.

이 지방에 살면서 하봉암리 마을굿을 주재한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먼저 제관 집사를 선출하고 무당이 그 해의 간지와 생기복덕에 맞는 성인 남자를 뽑는데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는 사람은 뽑지 않는다.

선출된 이들은 상화주, 중화주, 하화주, 소임이 있으며 예전에는 유사가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그대로 4명만 뽑는다.

상화주로 뽑힌 이는 그 집 앞에 인줄을 매고 집 대문 앞에는 황토를 깔며 화주는 뽑힌 날로부터 목욕재계하고 바깥 출입도 못하며 청수를 떠 놓고서 재배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 심지어 부부 합방도 안되며 초상이 나거나 부인이 경도가 있어도 선출되지 못하며 축생을(가축) 도살하지 못하며 온갖 정성을 들인다. 마을 사람들은 가운데 중화주는 대동굿에 쓰일 조라술을 만드는데 전날 만든다. 대동계가 있는 마을이라면 동리의 공동기금을 가지고 운용하겠지만 그런 향촌계가 조직되지 않은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곡식이나 돈을 정성껏 내놓는다.

이때는 사당패가 없어서 걸립 같은 것은 없고 마을의 두레 풍장꾼들이 있어서 굿을 하기전에 걷는 수도 있다.

어느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경작하는 전답이 있어서 그 소출을 가지고서 마을의 일을 공동으로 하지만 그런 제도가 끊긴 지는 해방 전까지였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 마을도 그런 조직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굿을 하게되면 동리 사람들이 마을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마을에 일단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굿이 끝날 때까지 나가지 못했다.

상화주는 굿을 하기 하루 전 날에 부군 나무(이 동네 사람은 이렇게 부른다) 맞은 편 밭에 있는 상석(上石)에 삼색 과실, 삼색 나물, 술 3잔, 노그메 세탕기를 놓고서 유교식의 제사를 지낸다.

축문을 읽고 나중에 태워 버린다.

예전에는 홀기, 독축관, 찬인, 유사, 중, 하 화주 등이 모두 올라가서 하였으나 해방 이후로는 인원도 줄어들고 간략하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내(川)를 건너도 산을 하나 넘어도 말과 풍습이 많이 다르듯 인접지역인 양주군 남면과 파주 적성, 연천, 전곡, 의정부, 포천과도 조금씩 무의식이 다르다.

같은 이담면에 속해 있었던 낙락골이나 장림등지의 마을 굿도 하봉암리와 신산리와는 또 다른 면이 있어서 옛 이담면의 마을 굿은 조금 독특하다 하겠으며 열두거리라고 하지만 대체로 그런 무의식이 그렇다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더 많은 무의식이 있으며 또한 특기할 만한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냥놀이는 황해도나 경상도 영덕군 강사리, 영일군 남계면 구계리, 경기도 고양시 송포동 대화리 도당굿, 서울의 우이동 도당굿,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당동리 호서낭굿에서 하고 있지만 이 하봉암리의 무의식은 위에서 열거한 지방의 무의식과도 다른 점이 많이 있다.

다만 황해도의 사냥놀이는 하봉암리의 것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의식이나 복색 등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마을을 도는 유가는 안반고시레(장림의 경우) 그리고 초부정을 치고서 초대감을 놀고 조상을 모시고 보내고 하는 무의식은 인접 지역 연천 전곡 파주 장단의 의식이 습합하여 내려 온 것인지 좀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이 많이 있다.

## 6. 고증및 지도 연출

- 고증 : 민속학자 이보형 문화재 관리국 전문위원
  향토사가 조규진
  하봉암리 도당굿 무녀 김봉순 옹
  하봉암리 도당굿 전수자 최두한 옹
  하봉암리 도당굿 전수자 장농희 옹
- 연출 : 동두천 문화원 사무국장 이계홍
  향토 굿연구가 이자균
- 지도 : 동두천여상 민속반 지도교사 김흥래
  민속반 강사 송귀철
- 소품 : 동두천문화원 사물반 강사 윤태중
- 출연
  - 화주 : 이자균
  - 군웅 : 조덕진
  - 원님 : 최영순, 이옥래
  - 사신 : 양애숙
  - 본향막둥이 : 남선우
  - 사신막둥이 : 김옥순
  - 사냥꾼(1) : 유귀분
  - 사냥꾼(2) : 심명선

• 악사 : 방인근, 이한복, 문종호, 최승려
• 강아지 : 임수진
• 기잽이 : 유지희, 박은수, 박길호, 정미숙, 김효선, 조언주, 홍미진, 박혜원, 서성주, 박순자, 김서희, 이승미, 조정임, 김민정, 홍성순, 박선화, 박미령, 이혜진, 한수희, 권현장, 김정선, 정동식, 최동수
• 주민 : 조성희, 이주현, 홍미애, 박현희, 서성애, 이경미, 홍성현, 윤태형, 서정현, 조민석, 강인모, 김성진, 이태엽
• 태평소 : 유재옥, 최관순, 심순옥, 정미선
• 쇠 : 김지숙, 최정자, 박현숙, 한소희
• 징 : 지미애, 오설희
• 장고 : 노영미, 심경순, 황옥순, 홍연순, 안영자
• 북 : 김정인, 김옥순, 변유경, 차홍순, 지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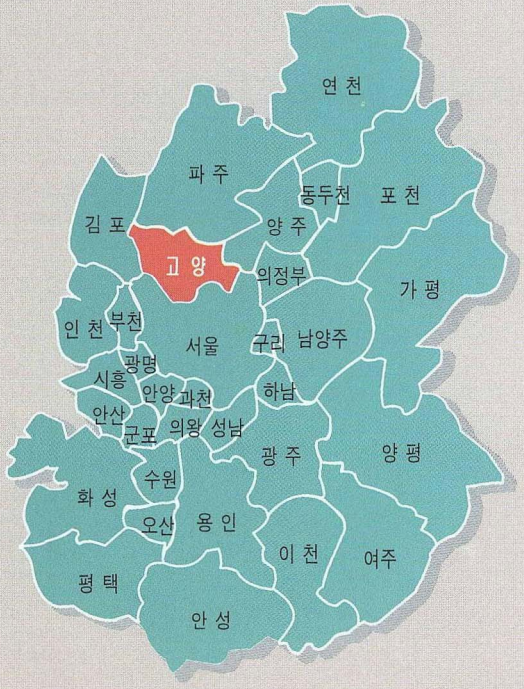
## ※ 제보자

• 정일순(여)
현 : 67세. 동두천시 광암동
• 김영자(여)
현 : 69세 동두천시 생연동
• 서산대사(본명 : 미상)(여) 동두천시 생연동
• 양애숙(여)
현 : 56세 동두천시 생연동 거주
• 최영순(여)
현 : 62세 동두천시 생연동
• 김봉순(여)
현 : 77세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 장농희(여)
현 : 73세 연천군 미산읍 읍내리
• 최두환(남)
현 : 74세 동두천시 하봉암리 소요6통



# 고 양 시

- 싱아대(말장박는)소리
- 십이지신 불한당 몰이 놀이
- 쌍그네 놀이
- 십이채 두레잽이 놀이
- 멩개안 사(巳)줄다리기



# 여 백

민속놀이

# 싱아대(말장박는)소리

## 1. 전승지

경기도 고양시 일대

## 2. 유래 및 해설

싱아대(말장박기) 소리는 고양시 전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일 노래의 하나이다. 이 소리는 주로 보막이(큰 강의 보를 막는 일)나 동막이(논 개울의 동)를 할때, 그리고 큰 건물을 중건할 때 등장한다. 이러한 말장을 박는 것은 땅의 지반이 무른 곳곳에 박아 넣어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큰 말장을 박을 때 부르는 소리이다.

민속놀이, 노동소리 중 이와 비슷한 경우의 하나로 집터를 다질 때 부른 지경 소리가 전국 어디서나 전승되고 있다. 이 소리는 1932년 한



강의 대보뚝 수문공사 때 마지막으로 행해져 65년만에 처음으로 재현된 것이다.

싱아대질(말장박기)은 매우 힘들고 지루한 단순노동이 길게 반복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지혜가 이용된다. 특히 소리와 춤은 힘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움을 잊기 위하여 소리에 맞춰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소리의 순서는 구멍이 뚫린 쇠뭉치를 싱아대(말장)에 꽂아넣고 동아줄로 당긴 줄들 중에서 길게 늘인 것을 여러 사람이 모가비(메기는 소리) 소리에 맞추어 당겼다 놓았다 하며 말장을 박는 노동요(소리)이다.

## 3. 구성 및 내용

### (1) 구성

- 모가비(선소리를 메기는 이) : 1명
- 뒷소리를 받는 이 : 80명
- 줄꾼(한줄에 20명×4줄) : 80명(뒷소리 받는 이와 중복)
- 지게꾼 : 10명
- 여덟목 가래(쪽가래)꾼 : 16명(틀 두개)
- 세목가래 : 12명(틀 세개×4명)
- 종가래(삽) : 10명
- 싱아대(말장박기) : 윗틀 2, 밑받침 4명
- 농기깃대잡이 : 1명
- 만신(무당) : 1명

### (2) 내용

싱아대질 소리는 크게 말뚝박기, 가래질로 흙 모으기, 지게꾼 흙 모으기, 고사 지내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경연의 입장은 처음 농깃대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2줄로 나누어선다. 오른쪽 줄(밖)은 잽이가 나란히 서는데 그 순서는 괭과리, 제금, 징, 장구, 북, 호적이 차례로 선다, 왼쪽(안) 줄에는 줄꾼(맨손잡이), 종가래, 큰가래(쪽가래), 지게꾼 순으로 입장한다.

입장이 무사히 이루어지면 잽이의 장단에 맞추어 각자 자신이 맡은 역

할과 소품 앞에 위치하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이때의 위치는 줄꾼들이 +자 모양으로 동서남북으로 선다. 대형은 일반적인 줄다리기를 하듯이 좌우로 엇갈리게 서며 모가비의 선소리에 따라 줄을 당기고 놓는다. 이때 불려지는 농요는 다음과 같다.

## 여라차(여차)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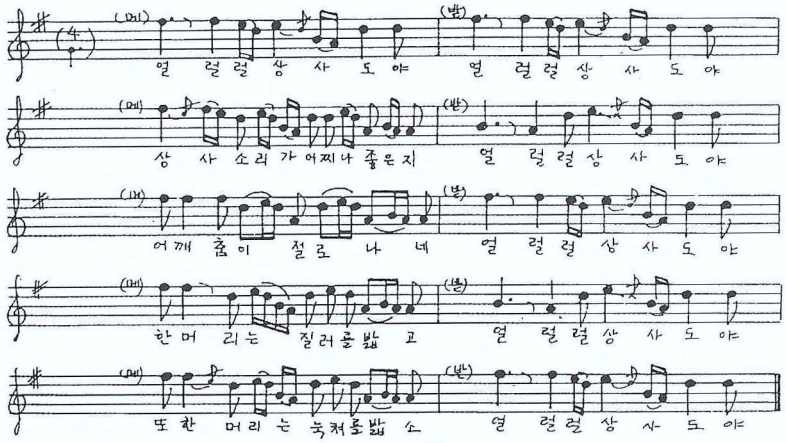
| | |
|---|---|
| 에여라차아 | 에여라차아 |
| 팔도로돌아라 | 에여라차아 |
| 유산객이요 | 에여라차아 |
| 여덜도명산이 | 에여라차아 |
| 삼각산이라 | 에여라차아 |
| 삼간산에서 | 에여라차아 |
| 나린줄기 | 에여라차아 |
| 비봉안을 | 에여라차아 |
| 얼른돌아 | 에여라차아 |
| 고봉숨악 | 에여라차아 |
| 생겨나니 | 에여라차아 |
| 고봉숨악 | 에여라차아 |
| 고양평야가 | 에여라차아 |
| 생겼구나 | 에여라차아 |
| 이 고양산에 | 에여라차아 |
| 제일가는 | 에여라차아 |
| 보막이역사를 | 에여라차아 |
| 하여를보세 | 에여라차아 |

## 말박이(말목) 소리

| | |
|---|---|
| 에헤여라 말목요 | 에헤여라 말목요 |
| 전후좌우 금방님에 | 에헤여라 말목요 |
| 천근들이 쇠뭉치를 | 에헤여라 말목요 |
| 머리위로 번적번적 | 에헤여라 말목요 |
| 아주나 쾅쾅박아만주오 | 에헤여라 말목요 |

삼동허리를 굽실굽실 에헤여라 말목요
보는사람은 춤이나게 에헤여라 말목요
듣는사람 신이나게 에헤여라 말목요
천년말목에 만년말목 에헤여라 말목요
여천지 무궁하게 에헤여라 말목요
이 역사를 마무리지면 에헤여라 말목요
세세년년이 풍년이오네 에헤여라 말목요
천하지대본이 농사로구나 에헤여라 말목요
농사밖에 또 있는가 에헤여라 말목요
화수분과 수현씨는 에헤여라 말목요
불과 물을 마련하고 에헤여라 말목요
태호 복희씨는 에헤여라 말목요
동서남북을 마련하고 에헤여라 말목요
염제 신농씨는 에헤여라 말목요
농사법을 마련하고 에헤여라 말목요
황제헌우씨는 에헤여라 말목요
배직씨를 마련하고 에헤여라 말목요
신농씨의 본을 받아 에헤여라 말목요
물이말라 건답에는 에헤여라 말목요
마냥네기를 심어놓고 에헤여라 말목요
물이출엉 수답에는 에헤여라 말목요
조양네기를 심어놓고 에헤여라 말목요
동네근처 부랑답에는 에헤여라 말목요
청정벼를 심어 놓고 에헤여라 말목요
가을추수를 기다릴제 에헤여라 말목요
갈은 우마를 부려보세 에헤여라 말목요
안족치기냐 바쪽치기냐 에헤여라 말목요
욱억뿔이냐 작박뿔이냐 에헤여라 말목요
천지각이냐 별백이냐 에헤여라 말목요
쌍쌍얼러 사족발이요 에헤여라 말목요
가을추수를 하여를 보세 에헤여라 말목요

## 상사도야




이외에도 놀노리, 방아타령, 훨훠리, 떳다, 양산도 등이 불리워진다.

이 소리에 맞추어 줄을 줄꾼이 당기게 되면 들채에 매달려 있는 쇠뭉치는 쿵쿵 소리를 내면서 말장(뚝)을 박게 된다.

이때 줄꾼의 좌우 뒷편에 위치한 지게꾼, 가래꾼 등은 수시로 대보뚝을 오고가며 쉼없이 흙을 담아 운반하게 된다. 소리와 작업에 참석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대보뚝이 완성되면 그 중앙에 다리가 이어져 연결된다. 다리가 완성되고 수문이 됨으로 해서 완성된 대보뚝에서는 인근의 유명한 무당과 축원고사를 지낸다.

이 고사는 무당이 맨 앞에 서서 주문과 춤을 기원하고 대보뚝을 쌓는데 동원된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 뒤에 꿇어앉아 대보뚝이 무너지지 않고 홍수가 나지 않도록 축원하게 된다. 축원 고사가 무사히 이루어지면 대보뚝과 나무다리를 건너 퇴장하며 싱아대(말장박기) 소리는 끝나게 된다.

## 4. 특징과 의의

이 소리는 고양시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불리워지던 우리 고유의 소리이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에 의해 큰 피해를 겪은 고양 지역에서는 그 후 그 주변지역에 대대적인 제방 신축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보수공사작업이 1932년에 마무리 되어진다. 그후 65년만에 재현되는 싱아대(말장박기)소리는 그렇기에 보다 큰 의의를 가진다 할

것이다.

이외에 이 소리는 다른 지역에 없는 순수한 고양의 소리라는 점, 총 8가락의 소리가 등장하는 다양한 점, 그리고 경기도 소리의 특징인 경쾌하고 흥이 나며 산뜻하다는 점 등이 그 특징이라 할 것이다.

## 5. 고증 및 지도 연출

- 고증 및 자문 : 심우성
- 발굴 및 지도 : 동관 김현규
- 출연
    - 모가비 : 김현규
    - 길잡이 : 이승범
    - 영기잡이 : 이미자, 이병희
    - 풍물꾼 : 최장규 외 58명
    - 줄꾼 : 윤순복 외 60명
    - 지게꾼 : 우순영 외 23명
    - 가래질꾼 : 김순희 외 19명
    - 참준비 : 김영숙 외 14명

민속놀이

# 십이지신 불한당 몰이 놀이

## 1. 전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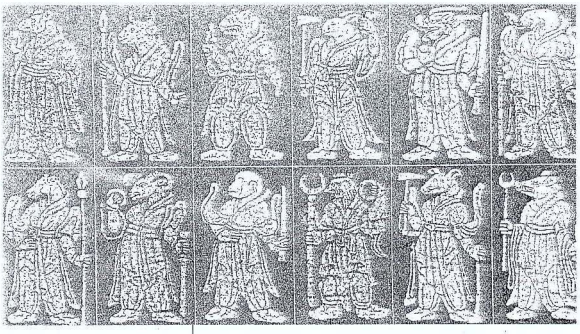
경기도 고양시 한강 연안 일대

## 2. 유래 및 해설

십이지신 불한당 몰이 놀이는 옛 경기도 고양군 한강 연안 일대 마을에서 행해지던 마을 공동체 민속놀이이다. 이곳 한강 연안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데, 지금의 현천동, 덕은동, 행주내 · 외동, 신평동, 토당동, 장항동, 백석동, 대화동, 구산동, 법곶동 등이 이 구역내에 포함된다. 이곳은 강 주변에 있어 기름진 평야 덕택으로 비교적 넉넉한 살림을 할 수 있었다. 그 중의 한 가문인 오씨 집안은 수대에 걸쳐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자손들과 재물을 가진 부자가문으로 마을을 지켜왔다. 현재도 일산 신시가지 부근 마을에서 자손들이 살고 있다.

오씨네 집안을 포함해서 마을 사람들은 착하게 열심히 마을을 지키다 보니 재물이 많이 늘어 생계에 큰 도움을 주는 배들도 많이 갖게 되었다. 그런데 한강 연안의 동령말(지금의 함정고개)에는 힘센 불한당 패거리들이 자주 출몰하여 마을 사람들과 한강을 오가는 상인들을 괴롭혔다. 이들 불한당 패거리들은 웃대인 한양 마포에서 강화 선돌목에 이르기까





지를 자신들의 주무대로 삼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다.

이 불한당 패거리들은 마을로 들어오기 열흘전부터 곳곳에 방표를 붙여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어귀로 재물을 가져오라고 경고하였는데 지금의 협박장과 비슷한 것이다. 시간이 지난 후 이방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밤중에 패거리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노적가리에 불을 지르고 집집마다 들어가 식량, 돈 등을 약탈하곤 하였다. 이들 중 유명한 최후의 두목으로는 '정소권'이라는 자로서 힘이 어찌나 센지 한 손으로 토막을 쪼개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부두목인 '안덕삼'이는 정두목보다도 힘이 더 세었다고 한다.

이곳 한강연안의 불한당 출현 지역 주민들은 이 무시무시한 불한당을 몰아내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마을의 전 장정을 동원하여 초겨울부터 이듬해 정월까지를 불한당 몰이 기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는 십이지신(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으로 하여금 불한당의 접근을 막게 하였다. 십이지신의 힘으로 이들 불한당을 혼내주고 쫓아내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큰잔치를 벌이는데 사용되는 음식은 마을의 대갓집에서 내는 것이다.

이러한 불한당 몰이 놀이는 김성권씨 대까지 행하여졌으나 그 후 가세도 기울고 일제하 통제 등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 3. 구성 및 내용

불한당 몰이 놀이 시기가 정해지면 온 마을사람들은 십이지신 탈과 십이지신기, 오방기를 준비하게 된다. 이렇게 준비한 십이지신기와 오방기를 노적가리 주위에 설치해 놓고 동아줄로 연결하여 돈대(움막)위에다 막을 짓게 된다. 사람들은 주위를 살피다가 불한당 패거리가 나타나면 줄을 당겨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불한당이 쳐들어왔음을 알리게 된다. 이때에 장정들은 북과 징을 두들기며 마을 전체를 소란스럽게 해 불한당 패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마을 장정들은 몽둥이질 잘하는 매꾼, 패대기를 잘하는 씨름꾼, 발길질 잘하는 택견꾼, 손 잘쓰는 수벽꾼 모두가 모여서 불한당을 혼내주고 힘을 합쳐 한강쪽으로 이들을 쫓아낸다. 쫓겨난 불한

당 패거리들은 후일을 기약하며 물러나는데 이들이 마을 어귀를 절룩거리며 벗어나게 되면 불한당 몰이는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럴때 마을의 큰 부잣집에서는 몰이 놀이에 참가한 마을 사람들에게 이듬해 정월달 중에 길일을 잡아서 술과 떡, 고기 등을 대접하며 하루를 즐겼던 것이다. 이 놀이는 십이지신을 등장시켜 마을의 부정한 것을 물리치고 불한당을 몰아내는 경기 북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놀이이다.

## 4. 고증 및 지도 연출

- 연출 : 동관 김현규(경기민요학원 원장)
- 고증 : 심우성(민속학자, 문화재 전문위원)
- 인원 : 60명 이상~100명
- 소요시간 : 총30분
- 놀이의 구성 : 십이지신 깃발꾼, 대갓집 선비, 십이지신 탈꾼, 택견꾼, 농악놀이패, 씨름꾼, 불한당, 망꾼, 오방기수
- 소품 : 대갓집 1채, 동아줄 50m, 불한당 의상, 선비복, 십이지신기 및 탈, 택견꾼 의상, 노적가리 2채, 잔칫상, 돈대 움막 1채, 오방기, 씨름꾼 의상

# 쌍그네 놀이

## 1. 전승지

경기도 고양시 일대

## 2. 유래 및 해설

쌍그네 놀이는 고양시(옛 고양군) 전지역에서 행항여졌던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농사를 주로 하였기에 농경 문화가 많이 발달하였는데 농경 문화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공동체 의식의 하나로 줄다리기, 줄타기(그네뛰기) 놀이가 성행하였다.

줄타기 놀이는 원래 난장판(이곳에서는 놀이판이라고 함)에서 행하여지는 것인데 난장판은 활쏘기(광대), 줄타기(그네), 줄타기 척사, 씨름, 풍물, 음률 등이 합쳐진 종합적인 놀이이므로 경제적인 뒷받침 때문에 몇 년에 1회씩(풍작이 있을 때) 행하였다.



이곳의 쌍그네 놀이는 주로 마을 뒷동산의 도당대나 마을 앞의 축동 같은 곳, 또는 큰 정자나무 가지에 동아줄을 길게 매고 뛰었다. 그네를 타고 즐기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나와 소리지르고 풍물을 치며 하루를 보내곤 하였다. 언제부터인가 높은 데 그네를 매고 놀면 부녀자들이 덜 좋

아한다는 이유로 동네 넓은 공터에다 그네를 매고 뛰고 놀게 하였다.

## 3. 구성 및 내용

### (1) 줄꼬기

먼저 4월 초8일 무렵이 되면 마을 청년들로 하여금 집집마다 짚을 추렴하여 마을 공터 그네줄 세울 자리에서 동아줄을 꼬아 줄을 드리며 준비를 하게 된다.

### (2)그네틀 옷입히기

그네틀 옷입히기는 줄을 드리는 작업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시작되는데 먼저 그네틀을 맨 다음 무명을 왼쪽으로 감아서 나무가 보이지 않도록 올려감는 작업이다.

### (3) 그네틀 세우기

옷입히기가 끝나면 그네틀을 세우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그네틀 세울 자리에 깊이 땅을 파서 아래채를 땅속에 넣는다. 양쪽 앞뒤에 줄을 매고 청년들로 하여금 소리를 메겨가며 일으켜서 흙을 메우고 줄을 당기어 말목을 박아 고정시키게 한다.

### (4) 그네줄 매기

그네틀이 세워지면 동아줄로 드린 그네줄을 조정하여서 안전하게 매어 놓고 줄이 다 보일 때까지 여러 사람이 매달려서 그네를 탄다. 줄이 다 드러난 뒤에는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마무리한다.

### (5) 그네놀이

그네가 완성되면 마을 사람들을 매일 그네 연습에 참여하게 한다.

그네 연습이 끝나면 오월 단오를 이틀 앞두고 장원을 뽑게 되는데 먼저 여자 장원을 뽑은 다음, 다음날 남자 장원을 뽑게 된다.

남녀 장원이 가려지면 쌍그네 놀이가 시작되는데 이때 여러 마을 전체의 축제가 이루어지며 그네 뛰기가 절정에 다다른다.

### (6) 덩타기 놀이

덩타기 놀이란, 남녀 장원 쌍그네 놀이가 끝나면 그테틀을 헐어서 가마

를 만들어 남자를 앞세우고 여자는 위에 세워서 마을을 몇 마퀴 돈 다음 대갓집 마당에서 마당돌기를 하고 끝나는 한마당 놀이이다.

쌍그네 뛰는 것은 다른 지방에서는 두 명이 한 쌍이 되어서 뛰는데 고양 땅에서는 남녀가 한 쌍이 되어서 뛰며 여자 그네, 남자 그네 구별과 남녀 장원을 뽑아서 한 쌍을 만들어 쌍그네 놀이를 한다. 쌍그네 놀이가 끝나면 그네틀에다 그해 장원한 남녀 한 쌍을 태우고 마을 동리를 도며 개갓집에서 집놀이를 하는 것이다.

## 4. 고증 및 지도 연출

**(1) 고증** : 심우성

**(2) 지도** : 동관 김현규

**(3) 출연인원** : 80명 이상 ~100명

**(4) 소요시간** : 30분

**(5) 준비물**

· 그네틀 : 직경 20cm 길이7cm 4개
직경 15cm 길이2.5cm 4개

· 그네줄 : 광목 5필, 무명 10필, 다오다 100m, 농쟁기 3벌, 의상(평복)60벌, 깃대 23개(소 20개, 대3개), 풍물복(고깔, 가다, 신발, 의상) 40벌, 기와집1채, 술상(동이, 그릇, 다소), 기타

**(6) 놀이패의 구성**

- 농기 : 정재수, 이승범, 홍석
- 농기, 줄잡이 : 김원배, 이종권, 김정현
- 영기 : 이현숙, 홍귀현, 김연희
- 오방기 : 한성원, 김진아, 김상협, 하진수, 이연수, 공병철, 노미선, 이영준, 조항옥, 심상범, 강만봉, 김금석, 천상천, 이강훈, 김지영
- 상쇠 : 김정희
- 부쇠 : 박봉덕, 김순옥
- 재금 : 최안숙, 이광근, 최상학
- 징 : 이선경, 엄희자, 황마리아
- 장구 : 최윤선, 신성은, 김정례, 정미숙, 윤종례, 박춘자, 정상희, 김순희

• 북 : 서막동, 이경숙, 방병우, 김명옥
• 호적 : 박용봉, 권영주
• 상범고 : 홍보람
• 범고 : 하은혜, 유지희, 김화영, 김덕향, 김정혜, 정기용, 전옥자, 이명심, 김민주, 허숙, 박종분, 박종숙, 이정노, 김달현, 이동신, 신영철, 장효선, 신춘자, 김성순
• 대가집주인 : 유춘자, 양재문, 최형식, 박옥연, 김난용, 공노심
• 그네장원 : 최창규, 김정선
• 채꾼 : 김부용, 장우재, 김옥진, 김향림, 이수재, 유월준, 이경숙, 이병운, 이병덕, 이병선, 박정권, 김두임, 송낙종, 송수옥, 최경옥, 지상분, 김정화, 장혜원, 이상현, 양인혜, 장경모, 문준철, 이정희, 정세실리아, 전이남, 박희숙, 정옥순, 김은진, 김지원
• 척째꾼 : 한명수, 김수용
• 마을아낙 : 이유림, 박정예, 남화옥, 김복실, 임명희, 허정숙, 홍수현, 윤영미, 최덕심, 유심숙, 황건자, 황경자, 엄정화, 신지아, 양지혜, 정수진, 박영석



# 십이채 두레잽이 놀이

## 1. 전승지

경기도 고양시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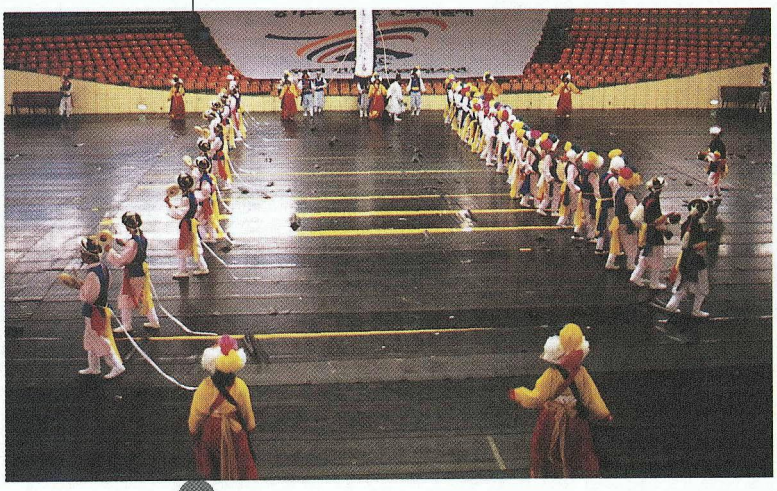
## 2. 유래 및 해설

경기도 지방의 농악은 취군농악과 두레농악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이 곳 두레농악은 농사일에 치는 농악이다. 이러한 두레농악은 취군농악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놀이패는 농사에서 하는 놀이이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농사를 짓는 농부들로 구성되었고, 둘째로는 이 지역에서만 전승되는 가락과 복색이라는 것이다. 이곳 농악은 군사진법을 따르며 입는 복장 역시 옛날 군사들의 복장이다.

이곳의 판굿과 잽이가락은 다른 지방의 짜여진 진굿과는 달리 상쇠와 상북구가 나름대로의 놀이를 이끌어간다.

농사 뒷풀이에는 가래질, 논갈기, 썰리기, 다루기, 볍씨뿌리기, 애벌 논갈기, 두번논갈기, 써래질, 모찌기, 모내기, 콩심기 등의 다양한 놀이가 있다.



## 3. 구성 및 내용

### (1) 구성

- 쇠(꽹과리) 5명
- 장구 12명
- 북 14명

• 징 5명
• 소고 20명

**(2). 잽이가락의 순서**

종북, 종쇠, 잦은일채, 일채, 잦은이채, 이채, 잦은삼채, 삼채, 잦은사채, 사채, 초채, 육채, 칠채, 팔채, 구채, 열채, 십일채, 십이채, 길군악칠채, 길놀이사채, 거성 오채로 이루어진다.

## 4. 특징

① 이 놀이패는 타지역의 농악 놀이패의 가락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고양지역 고유의 가락 · 음율을 유지하고 있는 소중한 놀이패이다.

② 일산 신도시의 개발 과정에서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놀이패라는 점이다.

③ 복장, 잽이 등이 정확한 고증을 통하여 이 지역 고유의 것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5. 고증 및 지도 연출

• 고증 : 심우성(문화재 전문위원, 민속학자)
• 지도 : 김현규(경기민요학원 원장)
• 지도교사 : 신동영(고양여종고 교사)
• 출연진
  • 쇠 : 이지영, 김영미, 장은이, 김은희, 최진경
  • 장구 : 박경희, 김선아, 조수정, 김미영, 김희정, 장영애, 음정미, 이수정, 박세한, 권경민, 원정순, 공미정
  • 북 : 김미선, 조주현, 김상희, 민미진, 김미숙, 서은형, 박윤진, 장연주, 김은희, 김혜란, 이은진, 박수경, 박현정, 최윤정, 전순희, 정영수, 김설희, 국원주, 안진희
  • 소고 : 박선미, 김미연, 이미애, 이경미, 박미순, 박미선, 권연숙, 김세나, 장옥희, 안은경, 김나라, 정연옥, 이선미, 이영옥, 김지현, 강민영, 장명순, 김경순, 김설희

민속놀이

# 멩개안 사(뱀 : 巳)줄다리기

## 1. 전승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가좌동

## 2. 유래 및 해설

멩개안 사줄다리기는 현재의 대화동과 가좌동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멩게 개울(고리포동)에서 행해지는 민속놀이이다. 멩개안 사줄다리기라는 놀이의 명치도 멩개안 개울에서 뱀 모양의 긴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를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놀이는 매년 멩개안 개울에서 음력 12월 그믐에 시작하여 이듬해 정월 엿새날 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놀이의 목적은 마을 전체의 평안함과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놀이가 펼쳐지는 멩개 개울은 한강 하류에서 올라오는 조수가 드나드는 곳으로 겨울에도 소금물 때문에 물이 얼지 않는 곳이다.

이곳은 대화동의 뱀개 마을 사람과 가좌동의 배미 마을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막고 동둑을 만들었는데 이곳이 놀이가 이루어지는 고리포동이다.

## 3. 구성 및 내용

**• 다리목 베기**

베릿게 동다리를 만들기 위하여 뱀개 마을과 배미 마을 사람들이 다리에 사용될 나무를 베어 오는 것이다. 다리목을 베는 날짜는 반드시 섣달

그믐날을 택하며 나무를 베어 고리포동으로 옮겨 놓는다.

**• 마당놀이**

마당놀이는 정월 초나흘이 뱀날이라 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풍물을 치는 놀이이다. 가면을 쓴 풍물패를 맞은 집에서는 술과 음식을 내놓으며 대접한다. 그리고 왼동아줄과 명주로 된 의복을 내놓게 된다.

**• 사줄 꼬기**

사줄 꼬기는 여러 집에서 내놓은 왼동아줄을 각 줄마다 머리 끝에 대주의 의복을 잡아 매고는 줄을 꼬는 것이다. 뱀개 마을에서는 사두라 하여 외줄로 줄을 만들어서 남사신(男巳神)의 모양으로 하고, 배미 마을에서는 여사신(女巳神)이라 하여 줄을 쌍줄로 하여 두 줄로 만든다.

**• 사줄 옮기기**

사줄 옮기기는 정월 열엿새날을 귀신날이라 하여 풍물꾼이 앞서고 그 뒤를 사줄 맨 사람들이 따르며 사줄을 옮기는 것이다. 이때 동네 부녀자들은 해묵은 부지깽이와 수수빗자루로 사줄을 두드리며 '곽깨비야, 곽깨비야' 하며 고사진원을 한다.

**• 다리목 세우기**

다리목 세우기는 양쪽 마을을 향하여 다리목을 삼각대식으로 세워 놓고 한 사람씩 그 위에 올라 앉아서 줄을 당겨 하장목을 올려 놓는 것이다.

**• 사줄다리기(합사,合巳)**

합사는 양쪽의 사줄을 연결하여 한 줄로 만드는 놀이이다. 남사신이 외줄을 여사신의 두 줄 사이로 옮기면서 줄을 꼬는 것이다. 합사를 끝마치면 사줄다리기가 시작되는데 뱀개 마을과 배미 마을 사람들이 편을 나누어 줄을 당기게 된다.

**• 액 불사르기**

액 불사르기는 합사와 사줄다리기가 끝나면 사줄을 하장목 위에 올려 놓고 횃불로 불을 붙여 명주의 액의를 태워 버리는 것이다. 모든 액이 재로 변하여 멩개안 개울로 흘러내리면 일년의 평안과 풍년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풍물꾼들은 풍물을 치면서 다리목을 돌며 밤새도록 즐긴 후 각기 마을을 향해 떠나게 된다. 그러면 놀이는 끝이 나는 것이다.

이 놀이는 마을의 공동 축제이면서 기원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민속놀이라 할 수 있다. 각 줄거리별로 다양한 율동, 소품이 등장하여 힘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중요한 민속놀이라 할 수 있다.



# 구 리 시

- 풍물놀이
- 정월 대보름 놀이



# 여 백

민속놀이

# 풍물놀이

## 1. 전승지

경기도 구리시 일대

## 2. 유래 및 해설

오늘날 농악이라는 말은 본래 풍장, 메구, 굿, 걸립, 걸궁, 풍악 등으로 불리어 오다가 일제시대 이후부터 농악이라는 말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농악은 크게 웃다리 농악, 전라우도농악, 전라좌도농악, 영남농악, 영동농악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구리농악은 웃다리농악에 포함된다. 웃다리농악은 대체로 빠르고 힘이 있고 가락이 분명하며 비교적 쇠가락이 발전되어 있다.

구리농악은 한강유역을 배경으로 한 농경문화의 발전에 따라 추수감사에 대한 형식이 발달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매년 시월 상당 초이튿날에 지내는 마을의 동제인 산치성과 우물제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도 추수감사에 대한 농악형식이 발달하였다.

구리지역은 앞으로는 한강과, 좌우로는 아차산과 망우산이 자리하고 있어 전쟁의 요충지로 전투성있는 농악의 형태 즉 진법이 발달하여 영기와 오방기가 등장하는 진법의 형식이 많다. 또한 웃다리 농악의 특징인 잡색놀이도 구리농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 3. 구성 및 내용

대체적으로 앞놀이와 판굿으로 진행된다.

### (1) 앞놀이

앞놀이 또는 길놀이라고도 하며 판굿이 시작되기전 마을 어귀나 성황

당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놀이가 시작되기를 알리며 놀이판의 지신을 눌러주어 놀이판의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하며 놀이가 시작될 장소까지 관객을 이끌고 등장하여 주의의 반각에서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 (2) 판굿

• 인사굿

놀이가 시작되기전 덩덕쿵 장단을 치며 둥글개 원을 만들고 서서 관객에게 인사를 한다. 이때 대형은 꽹가리, 징, 장구, 북, 소구쟁이가 원을 만들고 잡색들은 중앙에 선다.

• 돌림벅구

덩덕쿵 장단을 치며 원으로 진행하다가 풍물쟁이가 밖으로 원을 만들면 소고쟁이가 안으로 원을 만들어 덩덕쿵 장단에 맞추어 소고잽이가 벅구를 치며 옆상뛰기, 허공잡이를 하며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 당산벌림1

ㄷ자 형태로 풍물잽이, 소구잽이, 잡색 무동을 세워놓고 지른가락을 치며 상쇠가 중앙에서 상쇠놀이를 하고 소구잽이가 전후로 움직이며 양상치기와 허튼상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 오방진(五方陣)

놀이판의 4개 방향 즉 동서남북과 중앙에 진을 쌓으며 진풀이를 한다. 여기서 풍물잽이가 앞으로 뛰며 진을 쌓으면 잡색, 무동은 반대방향으로 돌아간다.

오방진은 음향오행설에 근거로한 방위신을 오방으로 배치하여 진을 쌓고 풀기를 반복하여 악귀를 쫓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한다.

• 당산벌림2

오방진을 끝내고 다시 ㄷ자형을 만들어 상서놀이를 한다음 상쇠는 여장을 중앙으로 인도하여 원을 만들어 모심기 모양과 비슷하게 춤을 추는 동작을 반복한다음 한줄과 두줄을 만들어 춤을 추게한다.

여장놀이가 끝나면 벅구잽이가 등장하여 원을 만들어 옆상치기와 허튼상 놀이를 한다. 여기서 두줄을 만들어 절구벅구놀이를 한다. 절구벅구놀이는 곡식을 찧는 것을 연상케하는데 한줄이 앉으면 한줄은 서고해서 이 동작을 반복한다음 다시 원을 만들어 옆상치기를 한다.

• 사통백이

풍물잽이, 벅구잽이가 각자 ㅁ자 형태를 만들어 전진 후퇴하며 서로가 교차를 반복한다음 동서남북 방향에 4개의 원을 만들어 각자의 형태로 역동적이고 전투적인 놀이를 한다음 상쇠의 신호에 따라 동서남북의 순서로 원을 풀어 전체의 대형으로 완성한다.

• 돌림 좌우치기

전체가 원의 형태로 서서 전후 좌우 3보씩 움직이며 놀이를 하는동안 잡색 무동은 밖에서 잡색놀음을 한다.

• 열 좌우치기

풍물잽이 벅구잽이 순서로 3,4,5열 종대로 정열한 다음 전후좌우로 자즌가락에 맞추어 3보씩 움직이는 놀이를 하며 이때 소구잽이는 양상치기를 한다.

• 쩍쩍이

풍물잽이 전체가 원형을 만들면 잡색, 무동은 안으로 들어가 쩍쩍이 장단에 맞추어 놀이를 하는 데 한 번은 안으로 대형을 이루며 단 밖으로 대형을 이루며 춤을 추기도 한다. 또한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와 동작은 풍년을 기원하고 축원하는 것으로 대풍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소리굿

상쇠의 선소리에 따라 "일러루 상사디야"하면 풍물잽이가 다같이 "일러루 상사디야"를 2~3회 반복하면서 춤을 추며 흥겨운 놀이를 한다. 소리굿은 대체적으로 모내기를 하고 아시 맬 때 부르는 농요로 여기서 풍물놀이가 농경생활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놀이와 같다.

• 가새치기

풍물잽이, 벅구잽이, 잡색이 두줄을 만들어 영기가 가새 모양을 만들면 상쇠의 신호에 사이사이 교차하는 형태를 만들기도 하며 잡색은 주변을 돌면서 제미있는 놀이를 하여 반객을 즐겁게 한다.

• 무릉놀이

단무동, 맞무동, 삼무동, 오무동, 칠무동 놀이가 있는데 단무동은 주로 벅구잽이가 무동을 어깨위에 얻고 돌아가며 무동춤을 춘다. 맞무동은 어깨와 허리에 무동을 얻고 재주를 부리며 무동춤을 추는 것이다. 삼무동은 어른이 두무동을 어깨에 얻고 그 위에 다시 무동을 올려서 3층을 만들어

재주를 부린다. 오무동은 삼무동과 같이 만든다음 앞뒤에 무동을 태워 놀이를 한다. 칠무동은 삼무동과 같이 형태를 만든 다음 좌우에 무동을 얻어서 놀이를 하는데 무동놀이에는 동니밟기, 던질사위, 곡마단, 농고리, 앞 뒤 곤두놀이를 하며 재주를 부린다. 무동놀이는 다산을 기원하는데서 비롯되었다한다.

• 개인놀이

이렇게해서 판굿이 모두 끝나면 상쇠가 상쇠놀이를 한바탕 한 다음 장구, 징, 북, 소구잽이를 이끌고 나와서 한바탕씩 재주를 부린다. 이때 12발 상모 돌리기로 전체적인 놀이의 흥을 고조시킨다.

이렇게 판굿과 개인놀이가 끝나면 상쇠의 신호에 따라 처음의 형태로 원을 만들어 인사굿을 한다음 퇴장한다.

## 4. 고증 및 지도

- 고증 및 연출 : 이용신(서일전문대교수)
- 지도 : 이용신, 목영철

민속놀이

# 정월 대보름 놀이

## 1. 전승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일대

## 2. 유래 및 해설

전승지인 토평동 일대에서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벌말다리 밟기와 함께 행하여진 민속놀이로서 고(한유성) 송파산대 예능보유자님의 벌말다리밟기의 고증과 지역주민들의 고증을 토대로 정리 연출 되었으며 농악악기와 더불어 재금을 함께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 3. 구성 및 내용

길놀이와 당산굿, 마당놀이, 우물굿과 걸립형식의 지신밟기, 다리밟기, 석전 및 뒷풀이 등 크게 다섯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의 대열은 농기를 앞세우고 용기2, 영기2, 오방기5 등 기를 앞세우고 태평소를 시작으로 악사들이 2열로 등장한다. 상쇠와 부쇠, 징, 재금, 장고, 북, 소고 순으로 이어서 등룡, 곤나쟁이, 양반, 별감, 노장, 포도대장, 무동, 소무 등 잡색들이 뒤를 따른다.




### 〈제1마당〉 길놀이

굿거리 장단을 치며 각 가정마다 안녕을 빌며 재앙을 물리치는 뜻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아 당산에 고사하고

본마당(놀이로 설정된 곳)으로 한 줄로 입장하여 원형으로 선 다음 구경꾼에 인사한다.

**〈제2마당〉 마당놀이**

인사를 마치고 상쇠의 지휘에 따라 두 줄로 마당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 때에는 자진모리 장단을 치며 악사는 대열을 나와 깃발 앞에 두 줄로 서서 장단을 친다. 등룡을 비롯한 잡색들은 두 줄로 마주보며 장단에 맞추어 왔다갔다 자리를 바꾸어 가며 춤을 춘다.



**〈제3마당〉 우물굿과 지신풀이**

우물에 둘러 서서 자진모리와 휘모리를 치며 춤을 추다가 장단을 멈추고 상쇠가 "뚤어주 뚤어주 샘구멍 뚤어주" 하며 주문을 외우고 함께 고사하고 자진모리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이집저집 돌며 걸립형식의 고사반과 지신밟기를 해주고 다리로 이동한다.

**〈제4마당〉 다리밟기**

다리 위에 두 줄로 마주보고서면 선소리꾼이 북을 힘차게 울리며 다리를 잘 밟아 보자며 크게 소리 지르고 선소리를 메기면 모든 꾼들은 후렴을 하며 춤을 추면서 좌우로 움직인다. 선소리와 후렴 : 어이여라 밟고…… 삼각산의 정기 내려 아차산이 솟아나고, 태백산의 정기 흘러 한강수가 되었구나. 왕숙천의 맑은 물을 벌말들로 돌려되어, 금년농사 풍년농사 우리모두 잘 지어 보세.

다리밟기가 끝나면 소리꾼들은 다리에 남고 나머지 꾼들은 마당으로 돌아와 춤을 춘다. 소리꾼들은 방아타령, 자즌방아타령 등 경기 민요를 불러가며 더욱 흥을 돋운다.

**〈제5마당〉 식전 및 뒷풀이**

다리밟기와 소리가 끝나면 자진모리 장단에 맞추어 마당 양편에 두 줄로 편을 갈라 길게 늘어 선다. (석전 준비) 돌을 집어든다. 이 때 악사중

연장자가 북을 치며 지휘한다. 양편이 한 번씩 공격을 주고 받으면 힘찬 북소리와 함께 동시에 공격하고 흩어지면서 네 개의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이 때 악사들은 휘모리와 칠채를 치며 원하나 하나를 휘감아 돌면서 이어져 나온다. 네 곳의 원을 다감아 나오면 마당 중심으로 달팽이 모양의 대열에서 장단이 멎는다. 그런 다음 인사하고 자진모리 장단으로 풀어 나가며 끝을 맺는다.

이 놀이는 1994년 제9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놀이다.

## 4. 고증 및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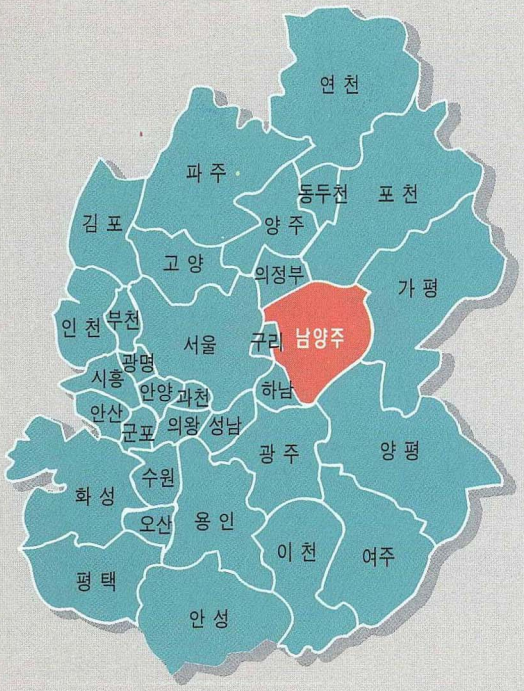
- 고증 : 고 한유성님(송파산대 예능보유자)
- 연출 · 지도 : 한철수, 목영철
- 내용정리 : 목영철(구리 민속놀이 보존회)



문수산신놀이
용한군동화놀이
해동화 놀이

# 남양주시

## 퇴계원 산대놀이



# 여 백

민속놀이

# 퇴계원 산대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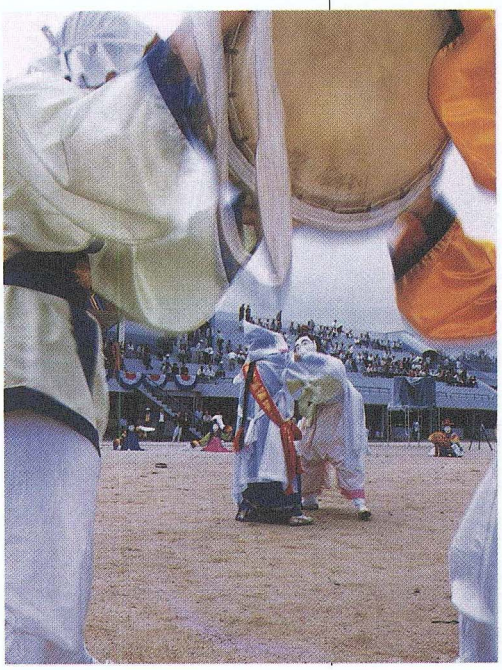
## 1. 전승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 2. 유래 및 해설

신라 진흥왕때부터 궁중에서는 연등회 팔관회라는 이름으로 가 · 무 · 악 · 극의 제전을 벌여왔다. 고려시대에도 불교적 제전인 연등회와 토속신에게 제사드리는 팔관회를 산대라 불리는 가설무대에서 벌였다. 여기서 연희되는 놀이를 '산대놀이'라 불렀다. 이 산대는 산처럼 높은 무대라는 말로써 나무로 단을 엮어 높이 쌓아 올린 후 장식을 한 무대로 채산, 채붕, 산붕, 오산 등의 범칭으로 불리었다.

조선조에도 산대놀이는 계승되어 더욱 성행하였다. 조선조 산대놀이는 궁중의 나례의식때나, 왕의 종묘제사나 각종행차때, 궁중의 잔치와 중국 사신을 맞이 할 때 연희했다. 그리고 놀이는 규식지희와 소학지희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그중 규식지희는 줄타기, 방울받기, 곤두박질, 솟대놀이와 탈춤, 무동춤, 사자춤, 호랑이춤, 만석중춤 등 각종 곡예와 탈춤, 무용이 중심을 이루고 소학지희는 재담이나 화술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보여주는 작은 극형식의 놀음이었다.



이렇게 조선 중기까지 활발하게 연희되던 산대놀이는 풍속을 해치고 경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인조 이후 규모를 줄이고 산대놀

이를 관장하던 산대도감이 인조12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궁중의 공식적 산대놀이는 점차 쇠퇴하여 정조 이후에는 기록이 보이질 않게 된다.

이에 산대, 나례희를 연희하던 재인들은 각자 주거지로 흩어지게 됐고, 그곳에서 놀이패를 모아 놀이를 벌였다. 이들은 보통 경제력이 받침이 되는 장터나 교통의 요충지같은 놀이의 지원이 가능한 마을에서 사월 초파일, 유월 단오, 유월 유두, 칠월 백중, 팔월 추석같은 명절이나, 상인들이 요청한 때에 놀이판을 벌였다. 놀이패간에 왕래가 많아 서로 보양(초청)하거나 놀이꾼들을 교환하여 놀기도 하였다.

이런 놀이패들은 퇴계원 산대를 비롯하여 애오개 산대, 사직골 딱딱이패, 녹번리 산대, 노량진산대, 구파발 등이 있었다. 그중 구파발 산대는 1920년대까지 놀이본의 채록이 가능할 정도로 전승되었고 노량진 산대도 1920년대까지 놀았다 하며 퇴계원 산대놀이 역시 1920년대에도 활발히 놀았다. 하지만 일제시대 문화 말살 정책과 6 · 25, 급격한 인구이동등으로 현재는 전승이 대부분 끊기고 양주 별산대와 송파 산대만이 전승되고 있다.

퇴계원의 원래이름은 퇴조원으로 그 유래는 조선 건국후 태조 이성계가 아들들의 왕위 다툼으로 한양에서나와 퇴계원에 머물며 지냈다. 이에 조정대신들은 아침조례를 퇴계원에 와서 하고 하례를 하였다고 하여 퇴조원이라는 지명이 생겼던 것이다. 예로부터 원이라는 지명은 교통의 중심지로 한양으로 들어가는 주요 교통로에 붙혀진 것이다. 사리원, 조치원 등이 그예이다.

퇴계원은 교통의 중심지로 발달했던 곳이다. 한양을 중심으로 볼 때 안암동을 걸쳐 동대문으로 들어가는 직통의 길이며 한양으로 공급되는 숯, 장작, 건축재, 소, 곡식, 채소, 연초등이 이곳을 거쳐 가며 각주와 역원이 곳곳에 자리잡았고 강원도와 함경도 등 지방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붐비었다. 그리하여 시장상인들과 연초 가공업자의 지원으로 놀이가 벌어지고 전승되었다.

퇴계원 산대놀이는 정월 대보름, 초파일, 단오, 백중, 추석에 주로 놀았는데 퇴계원 산대 놀이꾼 뿐만 아니라 인근의 놀이꾼(주로 송파, 양주패)들도 초빙하여 함께 놀기도 하였다.

놀이는 왕숙천 모래마당에서 벌였는데 한 번 놀이가 벌어지면 거의 일주일을 놀았고 마을주민은 물론 강원도 원주, 성천등지에서도 보러 왔으

며 수천명이 운집하였다고 한다. 퇴계원 산대놀이패는 1920~1930년대에 활발하게 놀이를 벌였다. 특히 주위에 많은 왕릉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놀이를 벌임으로 왕릉을 수호한다고 한다.

그당시 놀이패중 이끄는 사람은 한원근이었는데 탈제작과 취발이 완보, 옴중역을 주로 하며 기량이 뛰어나고 놀이패의 대장격이었다고 한다. 그 밖에도 많은 놀이꾼들이 있었는데 그중 놀이가 뛰어난 이들은 목중역을 잘하고 옴중, 목중과장을 한원근과 잘하였다는 서순집, 신할애비, 샌님 등을 잘하였다는 민흥운, 포도부장 말뚝이를 잘하였다는 한용삼, 노장역을 잘하였다는 임명운, 애사당역을 잘하였다는 한만세, 소무역을 잘하였다는 최은동, 왜장녀 소무 등을 맡은 윤원산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조흥기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기량이 뛰어나고 잘 놀아서 역할을 서로 바꾸어 가며 놀았다. 이들은 주로 연초 가공업에 종사하였으며 상인과 부호들의 지원을 받아 탈제작을 하고 놀이판을 구성하고 놀았다. 하지만 1920년대까지 활발하던 퇴계원 산대놀이는 일제시대를 거쳐 전승이 끊어졌다.

## 3. 퇴계원 산대놀이탈

퇴계원 산대놀이 탈은 현존하는 탈로서는 드물게 나무탈이다. 지금은 하회 별신굿에 쓰이는 탈만이 나무를 사용하는 탈이지만 예전 산대놀이는 나무탈을 사용하였다. "인조 원년(1623년)호조 판서 이서가 아뢰기를 '세시에 나례지낼때에 시민의 쓰는 비용이 심히 많으니 마땅히 피할일 입니다' 하고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나례의 폐단은 종이로 탈을 만드는 데 있어 한건의 비용이 크면 30말이요 적어도 또한 20말에 아니하니 이것을 합하면 400여섬이나 됩니다. 마땅히 관상감과 시관으로 하여금 상량하여 나무탈로 고쳐 제작하여 매해마다 단장만 고쳐쓰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산대탈의 모습이 초기 종이탈에서 나무탈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훗날 산대놀이가 궁중에서 폐지되고 서울, 경기 각지방으로 놀이꾼들이 흩어질 때 민간 풍속과 어울어져 놀이가 변함에 따라 탈 또한 변화했을 것이라 짐작 할 수 있다. 하지만 퇴계원 산대탈은 19세기 후반까지 나무탈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복원된 퇴계원 산대놀이 탈의 모체인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중인 퇴계원 산대탈에는 '양주군 퇴계원리 산대

도감 사용 경복궁 중건시' 라는 명기가 적혀있다.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영건도감을 설치한 것이 1865년이므로 그당시까지 나무탈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당시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퇴계원 산대놀이패 등의 놀이패를 불러들여 산대놀이를 벌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퇴계원 산대탈의 조형적 특징은 사실적이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인물상을 갖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연잎, 눈끔적이등 벽사의식적 탈의 모습을 갖고 있고 입모양등이 해학적이다. 남성탈들은 선이 굵고 코, 입등이 크며 입을 벌리고 있다. 여성 탈들은 선이 섬세하며 사실적이고 입을 다물고 있다.

## 4. 구성 및 내용

퇴계원 산대놀이의 내용은 산대도감 계통과 공통된 내용으로 조선조 서민 문학과 마찬가지로 파계승, 몰락한 양반, 무당, 사당, 하인 및 기타의 노유선민들의 등장을 통하여 현실폭로와 풍자, 호색, 웃음과 탄식 등을 보여주며, 그 주제는 크게 나누어 파계승 놀이와 서민 생활상을 보여주는 놀이라 할 수 있다.

더 세분하면,

1) 고사굿과 벽사의 의식무
2) 파계승에 대한 풍자
3) 양반에 대한 모욕
4) 남녀의 대립과 갈등
5) 서민 생활의 실상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다.

놀이 구성과 내용을 보면,

### (1) 길놀이

공연시작을 알리고 군중을 모아내는 풍물놀이로서, 탈을 머리위에 올려쓰고, 풍물을 치면서 서낭당을 거쳐 공연장으로 온다.

### (2) 서막고사

공연에 앞서 마을에 들은 나쁜액을 몰아내고, 탈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다. 탈을 연장자순으로 배열하고 소머리 또는 돼지머리와 삼색과일, 북어 등을 놓고 제를 지낸다.

### (3) 첫째 마당 — 상좌춤

사방액을 풀어나가는 벽사의식무로서 4인의 상좌가 나와서 사방을 돌면서 춤을 춘다. 대풍류 가락을 쓰며 긴염불, 굿거리, 허튼타령 등이 사용된다.

**(4) 둘째 마당 — 옴중과 상좌**

옴중은 불도를 반상하는 중으로서 역시 파계승중 하나인 상좌와 다투는 마당으로 행상질을 하는 옴중을 상좌가 놀리는 마당이다. 옴중이 상좌를 쫓아내고 추는 옴중춤은 용춤을 형상한 것으로 백미이다. 가락은 긴염불, 굿거리, 허튼타령등이 사용된다.

**(5) 셋째 마당 — 먹중과 옴중**

옴이 오른 옴중을 먹중이 놀리면서 서로 다투는 마당이다.

**(6) 넷째 마당 — 연입과 눈끔적이**

연입과 눈끔적이는 고승중에서도 고승에 속한다. 각기 천상살과 지상살을 가지고 있으며, 눈만 마주쳐도 살을 받아서 죽는다. 파계승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승이다. 파계승들을 계도하고 풍자하는 마당이다.

**(7) 다섯째 마당 — 애사당 북놀이**

파계승들이 사당패를 구성해 왜장녀의 딸인 애사당을 돈을 주고 사서 노는 마당이다. 왜장녀는 긴 장죽을 들고나와 엉덩이를 좌우로 크게 돌리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재미있다. 승무춤을 추는 애사당의 춤도 백미에 속한다.

**(8) 여섯째 마당 — 팔먹중 놀이**

파계승놀이라고도 부르며, 파계한 중들이 인가에 내려와 세속적인 놀이를 하는데, 여기에 노스님인 노장이 내려와 속세의 여인들에 반해 파계를 하게 된다.

**(9) 일곱째 마당 — 노장춤**

노장이 본격적으로 파계하는 마당으로 무언적인 판토마임형식의 춤을 춘다. 대풍류 가락에 긴염불, 굿거리, 허튼타령 등이 사용된다.

**(10) 여덟째 마당 — 신장수 놀이**

신장수가 노장에게 신을 파는 과정에서 원숭이까지 합세하여 미묘한 갈등이 일게되는 마당이다. 유일하게 동물탈이 등장하는 마당이다.

**(11) 아홉째 마당 — 취발이 마당**

취발이는 불목한이로서 과거를 보았으나 낙방하여 한량으로 지내는 사람으로 파계한 노장을 계도하면서도 노장의 소무를 빼앗아 질펀하게 논다.

**(12) 열 번 째 마당 — 포도부장 놀이**

양반을 풍자하고 첩과의 갈등을 풍자한 마당이다. 포도부장의 칼춤이 백미다.

**(13) 열 한 번째 마당 — 신할아비와 미얄할미**

서민들의 삶을 풍자한 마당으로 극명한 삶을 보여준다.

**(14) 열 두 번째 마당 — 진오귀굿**

신할아비의 암상으로 미얄할미가 죽자 무당이 나와서 진오귀굿을 한다. 경기 도당굿에 바탕을 둔 굿을 한다.

이와같이, 퇴계원 산대놀이는 모두 12마당으로 되어있고 여기에는 총 30여명의 연희자들이 출연한다. 등장하는 인물은 상좌 4명, 가먹 3명, 소무 2명, 원먹중, 완보, 옴중, 말뚝이, 연입, 눈끔적이, 왜장녀, 애사당, 노장, 신장수, 원숭이, 취발이, 해산모, 샌님, 포도부장, 신할아비, 미얄할미, 도끼, 도끼누이, 무당 등이다. 여기에 악사(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장고, 북)가 추가된다.

## 5. 고증 및 지도 연출

**(1) 고증 및 지도위원**

- 백황봉(白黃鳳) —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거주, 87세, 퇴계원 산대놀이 기능 보유자, 어릴때 산대춤을 배움.
- 최사윤(崔士允)—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거주, 86세, 퇴계원 산대놀이 연희자 고 崔銀同옹의 동생
- 석종관(石鍾寬) — 양주 별산대놀이 전 전수조교, 30년간 탈춤연희, 탈춤 연구가.
- 김봉준(金奉俊) — 퇴계원 산대놀이 백황봉옹의 전수자, 탈춤 연구가.
- 김기철 — 퇴계원 산대놀이 탈제작자, 탈마당(한국탈 제작) 대표, 17년 경력.
- 안병숙 — 퇴계원 산대놀이 의상제작자, 한복 디자이너, 20년 경력.

**(2) 총지휘**

- 이보인 남양주문화원장

**(3) 지휘**

- 임병규 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 민경조 문화원 전통민속예술연구소장

**(4) 출연자 배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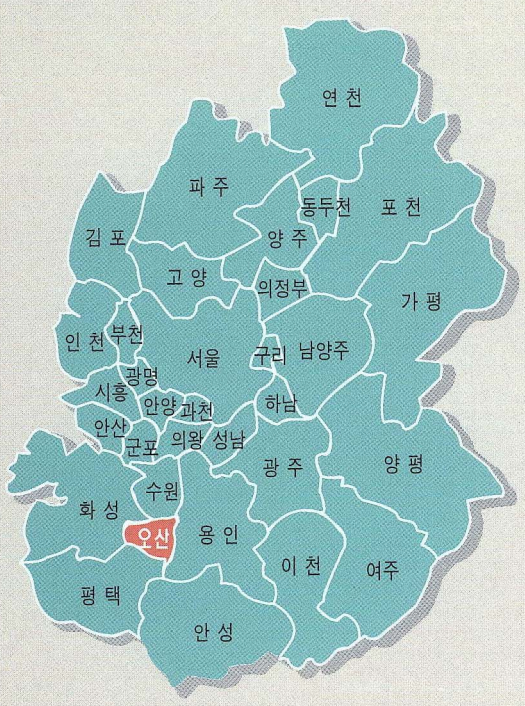
- 연출 — 백황봉, 석종관, 김봉준.
- 악사 — 남양주 교사풍물 연합회 "타래" 김호연외 6명
- 출연자

완보 : 이태주　　왜장녀. : 나승숙　　애사당. : 전난영
말뚝이 : 최광복　　옴중 : 이재훈　　원먹중 : 김형욱
첫째상좌 : 김미정　　둘째상좌 : 박현미　　먹중 : 조현일 , 최종민
퇴계원 초 · 중학교 : 김성록외 15명


下大將軍

# 오 산 시

## 길놀이


연 천
파 주
동두천
포 천
김 포
양 주
고 양
의정부
가 평
인 천
부천
서울
구리
남양주
광명
시흥
안양
과천
하남
안산
군포
의왕
성남
광 주
양 평
수원
화 성
오산
용 인
이 천
여주
평 택
안 성

# 여 백

# 길놀이

## 1. 전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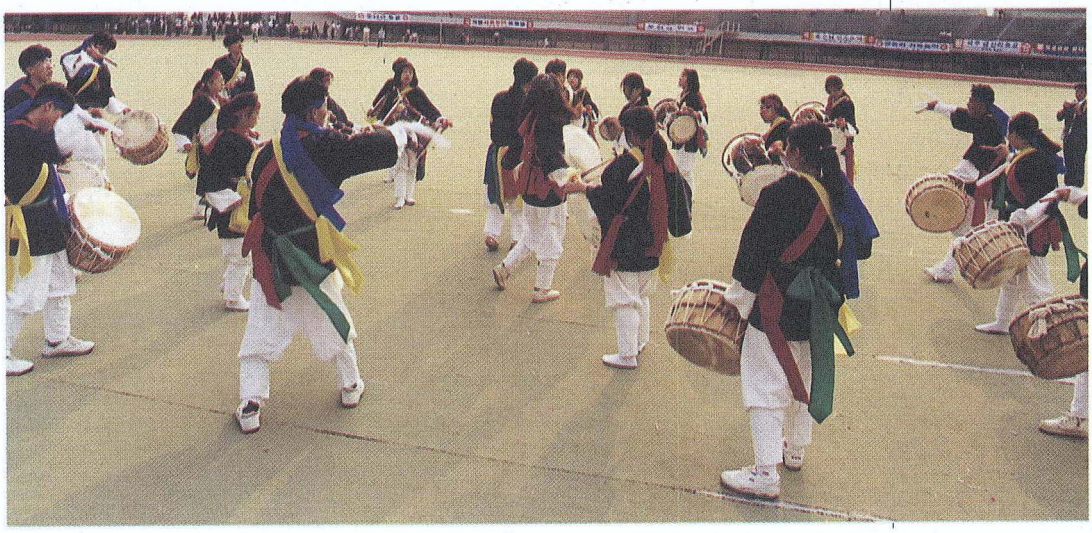
경기도 오산시 일대

## 2. 유래 및 해설

오산시는 권율장군이 왜군 3만여명을 물리쳤던 사적 140호 독산성 세마대와 6 · 25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과 유엔군 사단이 최초로 싸워서 자유를 수호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죽미령이 위치한 군사상 요충지 이다.

오산의 길놀이는 외세의 침략에 대비한 조직적인 군사훈련에서 유래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지역집단의 결속력을 다지는 지휘자의 통솔력을 키우는데 그 특징이 있다.

진행순서를 보면 감아들어 갈 때와 풀어나오는 달팽이 진, 동서남북 중앙의 순으로 감고 풀어내는 오방진, 상쇠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나눔진, 상쇠의 신호에 따라 앞뒤로 이동하는 미지기, 상쇠가 감아



가는 순서대로 가는 달어치기, 통일 · 화합을 나타낼 때 쓰이는 태극건, 문를 통과하듯이 서로를 격려해 주는 문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구성 및 내용

### (1) 놀이시기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대체로 농사철인 5월부터 추수기인 10월사이에 연희된다.

### (2) 구성

일반 풍물놀이와 마찬가지로 농기 또는 영기를 앞세우고 상쇠 · 북 · 장고 · 호적 · 잡색 · 무동 · 대포수 · 각시 · 양반 · 동민 등으로 구성된다.

### (3)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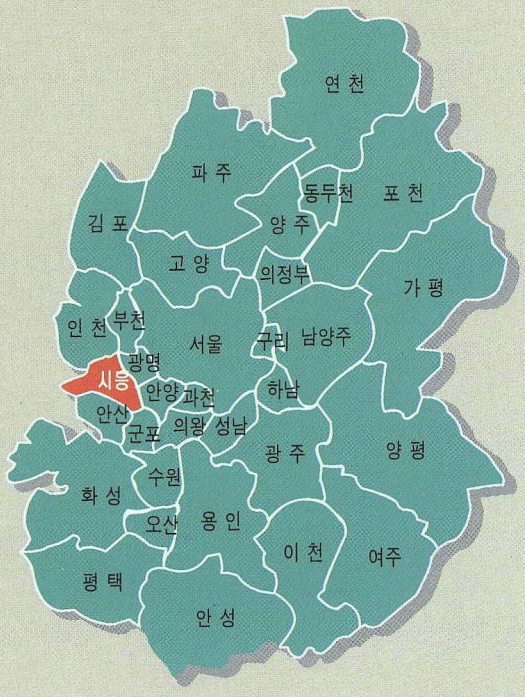
임금의 행차를 축하하는 인사굿을 시작으로 돌림법고 · 당산 · 칠채 · 멍석말이 · 비조리놀림 · 법고놀림 · 사통백이 · 원형좌우치기 · 네줄박이 좌우치기 · 가세진무동 · 열두발상모 등의 각종 풍물놀이가 진행된다.

## 4. 고증 및 지도 연출

- 고증 : 조석구(오산문화원장)
- 지도 : 채일병(오산전문대학 교수)
- 출연
    - 인솔자 : 조대형, 김기원
    - 랄라리 : 이재응
    - 기수 : 한민규
    - 상쇠 : 백경하
    - 징 : 윤영선
    - 장구 : 이숙희, 이영룡, 이경은, 조지선, 홍갑일, 이호근, 김주애, 정숙, 김송이, 유훼리, 정명희, 박명우, 임승희, 백영옥, 서상미, 김은성
    - 북 : 이희정, 조진희, 김근형, 김기열, 공태현, 김태형, 이경택, 이상화, 유석건, 이대진, 이영진, 김대중, 이인영, 박미라
    - 부쇠 : 주은영

# 시흥시

- 월미농악
- 전하 봉영놀이



# 여 백

민속놀이

# 월미농악

## 1. 전승지

경기도 시흥시 일대

## 2. 유래 및 해설

조선시대에 「상직(上職)풍장」이라고 하여 경기지방은 물론 궁중에 까지 널리 알려졌던 월미농악은, 시흥지방에 남아 있는 풍물가운데 가장 짜임새 있는 편제와 예술성을 지녔다.

월미농악은 정월 대보름이면 세초(歲初)에는 벽사진경(辟邪進慶)및 기풍(祈豊)행사의 목적으로 하며 5월 파종 때와 6월 김맬때는 농번기이므로 작업의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하며, 7월에는 일손을 놓고 허리를 펴는 때이므로 호미씻이, 백중놀이라고 해서 하며, 8월에는 농민들의 경사스러운 명절(한가위)이므로 하며, 10월에는 추수를 끝내고 농공(農功)을 축하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동제(洞祭)」를 지낼 때에 놀던 풍물놀이로, 농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을 형성하여 주고 마을의 화목을 촉진시켜 주는 민속축제이다.



이 놀이는 「農者天下之大本,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농기(農旗)와 「令」(영)자라고 쓴 영기(令旗)를 앞세우고 태평소 · 상쇠 · 징 · 북 · 장고 · 벅고 · 잡색(雜色, 무동 · 대포



수 · 각시 · 양반 · 중)으로 편제를 갖춘 다음 먼저 인사굿을 시작으로 돌림법고 · 당산 · 칠채 · 멍석말이 · 비조리놀림 · 법고놀림 등을 거쳐 사통백이 · 원형 좌우치기 · 네줄박이좌우치기 · 가세진 · 무동 · 12발 상모등의 다양한 판굿이 벌어진다.

## 3. 놀이패 구성

- 농기 : 조영재, 김덕수, 민의홍
- 영기 : 방원일, 정대원, 박아론, 서종만
- 상쇠 : 왕진원, 김보미, 이예은, 김혜진, 장규호
- 부쇠 : 신상엽, 김보미, 이예은, 김혜진, 장규호
- 징 : 이택일, 엄명성, 이현우
- 북 : 성순철, 조정우, 김학선, 박혜란, 추진광, 선승일, 김지호
- 장고 : 황지혜, 김민정, 김은희, 김현정, 홍효정, 김명옥, 김미화, 백설희, 박수현, 변진욱, 김미선, 박종애, 김애희, 박소연, 서강희, 이미화
- 태평소 : 최진숙, 김기찬, 김지선
- 12발 : 이병길, 박경진, 전명기, 서정섭, 문인호
- 무동 : 박수현, 이효정, 박진, 고현진, 신선미, 진선미, 이금자, 전부경, 권혁일, 임정일, 이정규, 백현화, 김현정, 정미애, 신명진
- 법고 : 이지연, 김소라, 윤장미, 성언희, 김미정, 김정남, 이하나, 이은진, 이미형, 김은정, 박선미, 박정희, 박병훈, 김대호, 전병인

## 4. 고증 및 지도

- 고증 · 발굴 : 이한기(시흥시 향토사료실)
- 지도 : 김원민(국악협회 시흥시지부)
  김정순(소래중학교 교사)

민속놀이

# 전하봉영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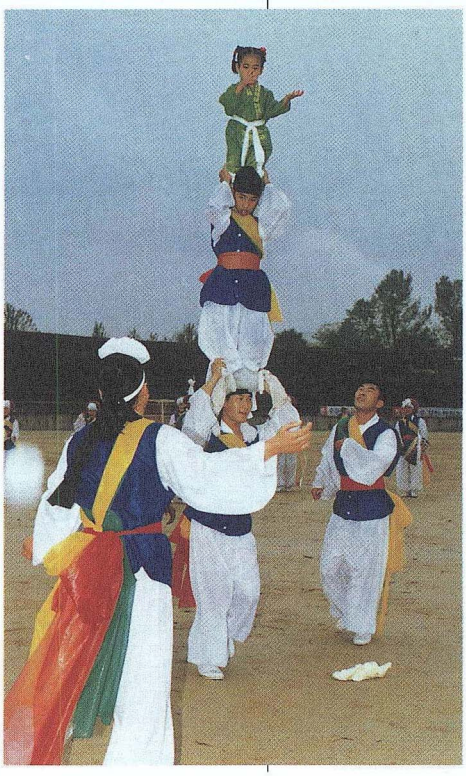
## 1. 전승지

경기도 시흥시 일대

## 2. 유래 및 해설

조선시대 효도대왕으로 불리워질 만큼 효성이 지극했던 정조대왕은 비명에 간 부친 사도세자의 묘를 서울 배봉산으로 수원 화산으로 옮긴 후 전후 11년간 12차에 걸쳐 능행을 하였다.

그런데 정조의 능행에는 「원행정례」에 따르면 6,117명의 인원과 1,400여필의 말이 동원된 실로 거창한 행렬이어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염출이 늘 대두되곤 하였다. 이때 재상 채제공(蔡濟恭)이 간만의 차가 크지 않고 그 폭이 좁아 간척사업으로 최적지인 안산군 초산면 돌장재(현 시흥시 하중동)와 인천부 신현면 포리(현 시흥시 포동 걸뚝)에 걸쳐 막으면 방대한 농경지가 새로 조성되므로 이를 농민들에게 경작케 하고 농민들로 하여금 도지(賭地)를 받아 능행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소를 올리자 정조가 호조(戶曹)로 하여금 공사를 실시케하였다고 한다. 이곳은 현재 시흥시의 미산동 · 은행동 · 매화동 · 도창동 · 포동 · 물왕동 · 광석동 · 하상동 · 하중동 등의 농경지가 대부분 이때 간척공사로 인하여 조성된 농경지인데, 호조에서 막았다하여 '호조벌', '호조들', '호조방죽'이라고 부른다.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1797년



8월, 정조는 김포의 장릉(章陵)전배를 마치고 현융원을 가던 중 이곳에 부역자들을 위무하기 위하여 친히 행차를 하자 이에 감읍한 하중동 출신 백상형(白尙瑩)선생이 임금을 위하여 지은 것이 곧「전하봉영(殿下奉迎)놀이」이다.

## 3. 특색 및 의의

전하보영놀이는 1797년 정조의 시흥 호조벌 행차로 유래된 전하 봉영놀이가 1997년으로 200년이 되고 호조벌이 시흥시의 대표 곡창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부친 사도세자의 능행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간척사업을 실시한 정조의 효심을 내외에 소개함과 동시에 임금을 위로하는 놀이로 장중하면서도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흥겨운 풍물이면서, 주민들간의 우의를 다지고 일체감을 형성하여 주는 민속 축제이다.

## 4. 고증 및 지도 연출

- 고증 : 이한기(시흥시 전통문화보호위원회 상임위원)
  (전국향토사 협의회 전문위원)
  (경기도 향토사연구협의회 학술이사)
  (서울 문화사학회 이사)
  (인천광역시 문화연구회 학술이사)
- 지도 : 김원민(한국국악협회 시흥시지부 사무국장)
- 출연
  - 인원 : 남 19명, 여 43명
  - 명칭 : 전하봉영놀이
  - 소요시간 : 30분
  - 발굴장소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안산군 초산면 돌장재)
    경기도 시흥시 포동걸뚝(인천부 신현면 포리)

# 군포시

- 당말 풍물놀이
- 시화연풍



# 여 백

민속놀이

# 당말 풍물놀이

## 1. 전승지

경기도 군포시 당동

## 2. 유래 및 해설

군포시 당동을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남면 당리라고 불렀다. 당리에는 당넘어, 도랫말, 동막골, 벌말, 새마을, 새텃말, 아구랑, 앞산뿌리, 용호마을, 웃터, 잠상마을, 취락마을 등이 있었는데, 이들 마을을 통칭해 '당말'이라고 칭했다. 당말은 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행정, 상업, 교육, 교통 등 군포의 중심지였을 만큼 군포에서는 가장 번성한 마을이었다.

예전에는 마을 뒷산에 당집이 있었다. 이 당집은 마을의 당제를 지내는 성스러운 곳이어서 당집 근처의 나무는 함부로 자르지도 못했으며, 신성시 했기 때문에 부녀자들은 마음대로 올라오지도 지나치지도 못했다. 당말의 명칭도 이 당집에서 유래되었을 만큼 당집은 주민들의 신앙의 대상이었다. 이들이 당집을 신성시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집안에 모셔진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맡아주고 질병을 전파하는 잡귀를 몰아내 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해마다 음력 정월과 10월에 길일을 택해 당집에서 정성껏 당제를 지낸다. 당제가 끝

난 후에는 풍물을 앞세우고 각 마을을 돌며 함께 어울려 춤을 추며 일하는 즐거움을 통하여 주민간에 우의를 다지고 갖가지 풍물놀이를 하였다.

## 3. 고증 및 지도 연출

- 고증 · 발굴 : 이한기(향토사 연구원)
- 지도 : 전순택(한누리 국악원 대표, 김덕수패 경기도 지부장)
  서주연, 임종오(계명실업고등학교 교사)
- 출연
  - 꽹과리 : 전완수, 김수정
  - 징 : 조정희, 허천영, 이여진, 이범술
  - 장고 : 최수진, 김경희, 이현정, 김은미, 구민선, 김희승, 박주미, 박승미, 김지연, 이경순, 김미순, 김은성,
  - 북 : 이성문, 김병호, 이충현, 최중용, 이효희, 윤인섭, 이미애, 박수정, 정미선, 이명선
  - 상모 : 유미연, 김가영, 전은영, 반재경, 정택희, 박진숙, 한경화, 이현경, 김정란, 이혜진, 이성구, 이호찬, 이종민, 김해성,
  - 기수 : 이주의, 박상천, 한재열, 조경식, 지금용, 한현규, 송훈민, 박광수, 송현근, 이종영, 강민석, 오병현, 전정권, 김태호, 김동찬, 오영민

민속놀이

# 시화연풍

## 1. 전승지

경기도 군포시 대야동

## 2. 유래 및 해설




아득한 옛날 농경시대, 조상이 물려주신 우리의 옥토를 묵묵히 갈고 씨 뿌려 가꾸어가며 고달픈 심신(心身)을 달래온 본 농요(農謠)를 원색 그대로 재연하여 두레마을의 협업정신을 본 받고자 함.

군포시 대양동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인 산촌마을이기에 밭농사가 주를 이루었고 마을 앞 작은 논빼미들 곡창삼아 오손도손 정겹게 농사를 지어왔다. 지금은 모두가 기계화된 영농시대이지만 당시의 영농은 서로 도와 주는 넉넉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이웃이었다. 푸른 벌판에 농기를 세워 놓고 우렁찬 농요가락이 울려퍼질때 마음도 농사도 모두 풍년을 이룬다. 군포시 대야동의 자랑거리인 본 농요는 길이 계승해야 할 주요 문화재임에 틀림없다.

## 3. 특징

농번기가 되면 마을 단위로 품앗이를 짜고 모내기, 못논매기, 못논 훔치기(잡초 제거)를 돌려가며 치루어가는 단결심은 가사내용속에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이 한없이 솟구치고, 품앗이 일꾼 10~20명이 농악을 두드리며 일터로 나가고 논일을 하며 신나는 농요를 함께 부를때 모든 시름과 고달픔은 허공속으로 깨끗이 사라진다. 먼 거리에서 들을수록 더욱 정감이가고 잊었던 향수를 다시 되찾게 된다.

## 4. 구성 및 내용

### (1) 입장

①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대, 농군, 부인, 소동, 지주, 걸인 순으로 춤추며 입장

※ 호적은 본부석 마이크 앞으로

② 본부석 앞에서 잠시 멈추고 인사(상쇠 신호따라 행동)

③ 농기위치에서 잠시 농악연주

④ 상쇠 북소리에 맞춰 손뼉치며 논둑 다지기(앞쪽으로)

⑤ 뒷걸음질며 모내기

⑥ 앞으로 나오며 못논매기

⑦ 뒤로 돌아서 논 훔치기(잡초제거)

⑧ 끝 마무리 "와"하고 함성

⑨ 새참 술 먹기

**(2) 퇴장** : 퇴장 준비

입장 순서대로 중앙선으로 퇴장(질서유지)

※ 준비부서

① 입장전 논 경계 표시 30×20m

② 논둑 다질때 물푸기. 써래질

③ 못침 논에 넣기 (논둑에서 던져넣기)

④ 새참때 준비물 철수

### (3) 농요

**모심는 소리(상사디야)**

**• 받는 소리**

에헬렐 상사디야

**• 메기는 소리**

농사가 그리워서 상사디야 / 농사는 대본이요
천하에 생업이다 / 우리농민 합심하여
농사일에 힘씁시다
여보시요 농군님네 / 이내말씀 들어보소
한일자로 늘어서서 / 입구자로 심어보세
땀흘려서 가꾼농사 / 좋은 쌀을 생산하여
좋은가격 받읍시다
올해로 풍년이요 / 내년에도 풍년일세
세세년년 풍년되어 / 우리농민 행복하고
부귀공명 바라옵고 / 자손영달 해망하세
일락서산 해는지고 / 월출동녘 / 달이솟네
어서빨리 끝어내어 / 집으로 돌아 갑시다.

## 논메는 소리(방아타령)

• 받는 소리

에이여라~ 방아~ 오오

• 메기는 소리

한톨심어 가꾼농사 / 만곡종에 열매맺어
신비로운 이농사는 / 우리들의 일이로다
여보시요 농군님네 / 이내말씀 들어보소
한섬지기 논빼이가 / 반달만큼 남았으니
어서빨리 끝을 내어 / 농악놀이 하여보세
일락서산 해가지니 / 오늘일은 끝이났네

## 논훔치는 소리(긴소리)

에헤 에에 에에 에에 ~ ~
아아 ~ 아아 ~ 아아 ~ 아아 ~ ~
위위 ~ 위위 ~ 위위~ 위위 ~ ~

## 5. 고증 및 지도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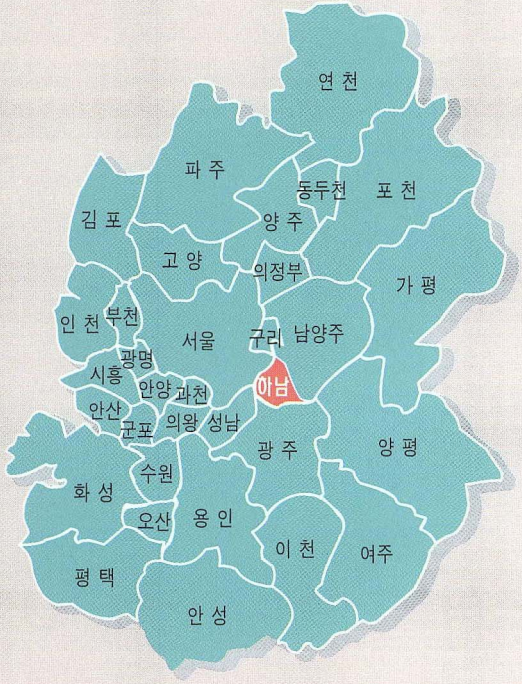
• 고증 : 정충수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 지도 : 심완섭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 출연

- 기수 : 이광규, 배영수
- 상쇠 : 심상곤, 김효동, 강일용
- 징 : 심봉섭, 심중섭, 이한준
- 장구 : 정형수, 김용학, 허장안
- 북 : 심명섭, 이창수, 심성섭
- 호적 : 강성남
- 모지개 : 김광용, 장윤석
- 쓰레 : 정원영
- 가장소 : 심운섭
- 타래박 : 강장남, 문창기 심규명
- 지주 : 주일동
- 걸인 : 임승용
- 부인 : 김영애, 배영애, 고귀녀, 정경애, 윤남식, 원창희
- 아동 : 소년 : 박훈희, 최필혁, 오진석
  소녀 : 심미소, 이동희, 조선영
- 농군 : 심흥섭, 심유섭, 유경호, 임경재, 김선학, 심운섭, 심항섭, 한우석, 심무섭, 박성득, 심규호, 윤제동, 주출동, 박성수, 주창안, 김영식, 김갑순, 최장수, 김홍식, 유경선, 정진호, 심융섭, 고흥오, 송석환, 허원영, 최두성, 김규승, 이봉용, 이창재, 최문웅, 송기환, 최문성, 최무웅, 심재준

# 하 남 시

- 거북놀이
- 장치기
- 동리 농악



# 여 백

# 거북놀이

## 1. 전승지

경기도 하남시 상산곡, 창우동 일대

## 2. 유래 및 해설

八月한가위의 밝은 보름달 아래서 거북이라는 長壽動物을 演戱隊에 構成시켜 질라래비라는 몰이꾼이 함께 몰고 다니며 인간의 壽命長壽와 家內의 招福逐厄(초복축액)을 빌고 豊農을 祈願하던 祈願性民俗인 거북놀이는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한수이남에서 共通的으로 演戱가 된 놀이로서 주로 京畿道의 中南部 地方에서 盛行하였다.

韓國人은 예로부터 이 거북과는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으며 우리의 주위에서 각종 文化財에서 흔히 接할 수 있는데 龜畵(구화)나 碩適(석적), 龜頭碑(귀두비)등 岩刻畵(암각화)와 民話의 十長生圖 등에서 많이 사용했으며 임금의 옥새에 거북을 정교하게 조각한 것은 王權의 장기 집권과 太平聖代의 祈願으로 볼 수가 있다.

거북놀이는 그 놀이가 지니는 內的思考가 거북이에게 致誠을 드림으로써 가뭄과 홍수, 疾病을 막는다는 것으로 部落의 安寧과 家內의 安過泰平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三國志 魏志 東夷傳 마한조에 보면 『五月에 鬼神에게 祭祀를 드리는데 여러 부락의 사람들이 다투듯이 모여들어서 飮酒歌舞하는데 이때는 踏地低昂하고 手足相應하면



서 節奏에 맞추는 것이 鐸舞와 같았으며 十月에 農功畢에도 같다』고 적어서 이미 三韓 以前의 祭天儀式에서 現在와 같은 演戱形態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이러한 하늘에 감사하는 신앙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演戱의 形態로 탈바꿈하면서 歲時的인 놀이로 定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북놀이의 創出由來는 文獻에 確實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京畿道 용인, 광주, 여주, 이천, 안성, 평택과 忠淸道 음성, 청주와 남도의 천원, 아산, 예산, 홍성 그리고 全羅南道의 해남과 慶尙道의 창녕 등에서 演戱된 흔적이 보이며 發生根據는 대개 세가지 說로 集約되는데 첫째는 無爲長壽說로서 新羅20代 文武王때 15歲의 公主가 病이 들어 영추라는 大師의 말에 따라서 15歲의 少年들로 하여금 거북놀이의 탈을 수수잎으로 만들어 쓰게 하고 수수비로 公主의 周圍을 깨끗이 쓸라고 하였던 바 씻은 듯이 病이 나았다고 傳해지는데 이때부터 이 거북놀이는 安康과 豊農을 위해서 演戱되었다고 전해지며 둘째는 豊年祈願說로 高麗 8代 현종때 나라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 도둑이 들끓고 민심이 어지러워지자 王이 친히 여러 고을을 돌아 보던 중 천안부 직산현에 하룻밤을 거하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新羅의 文武王이 나타나 거북이를 8月 한가위에 보낼테니 거북이 形象과 같은 곳에서 수수잎으로 옷을 해 입고 주민들과 어울려 뛰어 놀면 豊年이 들것이라고 해서 깨어 보니 그 고을이 거북이 形象과 같은지라 8月 한가윗날 朝廷의 大臣들을 보내 뛰어 놀게 하였더니 그 이듬해 부터 벼알이 마치 수수알처럼 열어 豊年이 들었다고 전해진다. 셋째는 百濟 의자왕 20年 宮에 鬼神이 나타나 울부짖다 땅속으로 들어가 그 곳을 파 보니 거북이가 나와 그 거북등을 보고 점을 쳐보니 "百濟는 亡하고 新羅는 興한다"는 占卦가 나왔다고 하며 놀이의 進行에서 나타나는 대사중에 압록강을 건너왔다고 되어 있고 中國에서는 六爻占이라는 占法이 있어 中國에서 傳來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創出根據說은 각 고장에 定着하면서 特徵的인 演戱形態로 나타나며 壽命長壽說, 豊年祈願說, 中國傳來說등으로 나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북놀이는 張壽動物인 거북과 질라아비 風物象과 住民들로 構成되는데 이러한 構成은 全國의 民俗演戱의 共通的인 것으로 거북과 질라아비는 特異한 人的構成을 갖는 것이 다르다. 거북의 形態는 地域마다 個性이 있으며 演戱의 形態는 技藝人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內的인 思考

만은 豊農과 安寧 招福으로 나타난다.

## 3. 구성 및 내용

### (1) 演戱 方法

거북놀이의 演戱는 地域에 따른 特徵보다는 引率者인 上釗의 技量에 따라서 많이 變하고 있다. 즉 上釗의 技能如何에 따라서 어떻게 進行하는가에 달렸으며 上釗는 부락의 形態와 家屋의 構造에 따라서 演戱를 設定하기 때문이다.

畿湖地方에서는 한창 거북놀이가 盛行할 때는 八月 한가위의 밝은 달이 떠오르면 洞里마다 風物을 앞세운 演戱隊가 집집마다 다니며 豊農과 安康을 祈願해 주었으며 밤이 이슥하도록 洞里의 住民이 모여 한데 어우러져 춤추고 즐기면서 大同의 힘과 相扶相助의 협동심을 키워 왔던 놀이였으나 1920年代 日帝의 文化抹殺政策 以後에 급격히 衰退하여 20餘年前부터는 少年들의 遊戱로 전락되었고 現在는 그나마 脈이 끊기고 말았다. 이 거북놀이는 1970年代 이후 京畿道 이천, 여주와 忠淸道 음성, 충주, 천원 등에서 再現이 되었으며 여러 곳에서 再現을 서두르고 있다. 河南市에서는 上山谷, 倉隅洞 등 여러 곳에서 거북놀이가 演戱 되었으며 이러한 民俗이 演戱되었던 곳으로 아직도 風物이 성행하고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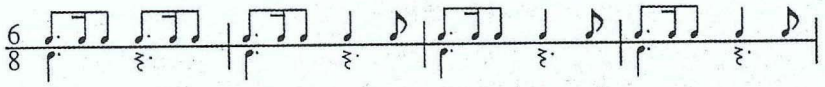
거북놀이의 進行은 地域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상쇠의 인솔에 따라서 달라지며 놀이의 대사중에 나오는 거북의 德談도 地域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천지방은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백석거북아 놀아라. 천석거북아 놀아라 …."하고 다니며 여주에서는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백냥거북아 놀아라 천냥거북아 놀아라 …."하고 뒤쫓는데 비해 용인지방에서는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백색거북아 놀아라 천색거북아 놀아라 …."하고 다닌다. 忠淸道 地方에서는 음성의 경우 "거북아 거북아 백색거북아 마을갖게 받으시고 …."하고 다니고 있으며 천원에서는 "백석거북 들어간다. 천석거북 들어간다."하고 地域마다 辭說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演戱중에 거북이가 쓰러지면 이천등 內陸地方에서는 "이 거북이가 압록강을 건너 왔다"고 하며 당진 등 西海地方에서는 "西海를 건너왔다"고 말하고 있어 地域에 따른 特徵으로 보인다.

거북놀이의 演戱方法은 地神밟기와 同 一 하게 나타나는데 거북과 질라래비가 演戱隊에 編成되는 것이 特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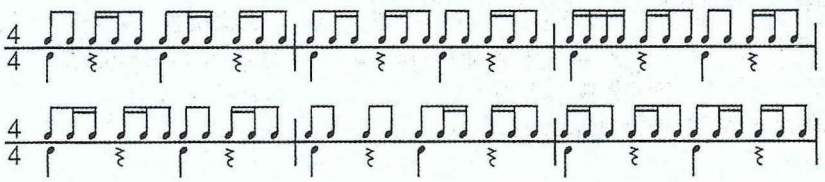
八月 한가위의 달이 떠오르면 거북놀이의 演戱隊 一 行은 낮에 수수잎을 따다가 준비해 놓은 거북의 탈과 질라래비의 服色을 입고 風物과 함께 놀이를 시작한다. 처음 洞里의 入口에서 演戱隊 一 行이 洞里에 進入함을 알리는 鐘鼓로 신호하고 나면 旗와 거북이 앞장서서 洞里로 進入한다.

洞里로 향한 行衆은 中間에 洞里의 공동우물에 當到하면 길군악을 몰아 채서 멈추고 우물 德談을 하는데 대개는 상쇠가 德談풀이를 하게 되나 상쇠가 唱을 못하면 광대나 비나리라고 하는 傳門的 歌唱者가 演戱隊에 編成되어서 德談풀이를 한다. 상쇠가 "東方靑帝 龍王님, 西方白帝 龍王님, 南方赤帝 龍王님, 北方異帝 龍王님, 中央皇帝 龍王님 이물을 먹는 蘇人間 壽命長壽, 今時發福 發願이요"하면 行衆은 잦은가락을 몰아 쳐서 끊고 잦은 삼채를 치면서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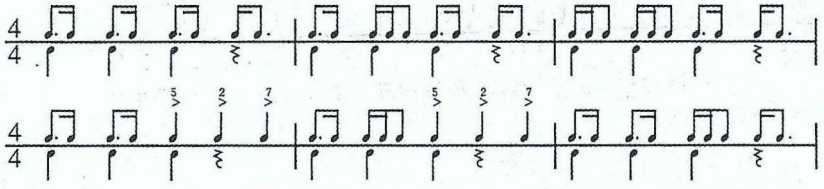
〈길군악〉



〈잦은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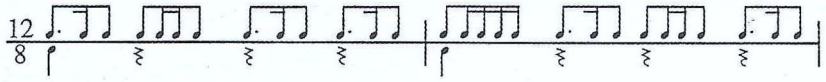
〈잦은삼채〉



우물굿을 마친 行衆은 洞里로 進入하다가 첫집의 門前에 當到하면 문굿풀이를 한다. 가락을 몰아쳐서 그치고 나면 上釗가 "주인주인 문여시오 壽命長壽 들어가오 만인간 萬福이 들어가오"하고 소리친 후에 삼채장단을 치면서 집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집안의 우물(요즈음에는 대개 수도가 있기 때문에 수돗가에 물을 받아 놓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에 가서 우물 德談을 한 후에 집의 담 밑을 다니며 踏地低昻으로 地神

밟기를 하다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조왕굿을 하는데 부엌은 食生活을 管掌하는 곳으로서 부엌에는 火神이 있어서 火神은 不淨을 태우는 뜻이 있어 조왕굿은 큰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집안 식구 중에 遠行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뚜막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거나 주발에 밥을 떠 놓아서 無事함을 빌기도 하며 또는 不淨한 곳에 들렸거나 殺生의 現場등 不淨한 장면을 본 사람은 먼저 부엌에 들렀다가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는 火神에게 不淨을 태우는 뜻을 지니고 있다. 부엌에 들어간 상쇠와 광대들은 조왕덕담을 하는데 上釗가 "누릅세 누릅세 조왕지신을 누릅세"하고 선창하면 뒷잽이들이 함께 "누릅세 누릅세 조왕지신을 누릅세"하고 외치며 땅을 꼭꼭 밟으면 자진 가락을 몰아 그친 후에 잦은 삼채를 치면서 장독대에 마련된 터주가리로 가는데 이때는 터주가리(터주가리가 없을때는 장독대 앞에서 한다) 주위를 돌다가 釗를 그친 후에 터주굿을 한다. 터주를 돌다가 터주가리 앞에 도열한 일행은 上釗가 "누릅세 누릅세 조왕지신을 누릅세"하고 외치면 잦은 가락을 몰아서 그친 후에 삼채를 치면서 담장밑을 밟고 나서 城主神이 座定한 대청으로 간다. 일행이 대청앞에 서면 집주인이 대청마루위에 자리를 펴고 말에 쌀을 가득담고 그위에 수저를 꽂고 실타래를 걸어 놓으면 북어를 놓기도 한다. 이 고사상의 의미는 쌀은 豊農을 수저는 食福의 추구이며 실타래는 壽命長壽를 의미하는 것이며 북어는 豊漁를 의미하나 內陸에서는 豊漁가 아닌 告祀를 의미한다. 상쇠(혹은 광대나 비나리)가 고사상 앞에서 告祀德談을 하면 북잡이는 옆에서 사잇가락을 치게 되며 상쇠는 창의 中間에 쇠가락을 치면서 告祀德談을 하게 된다. 이 告祀唱을 고사반이라고도 하며 흔히 대청굿이라고 부르는데 대청의 대들보 위에는 城主神이 座定하고 있으며 城主神은 家神중의 으뜸으로 모든 家神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重要하게 여기는데 대청굿이라고 하기보다는 城主굿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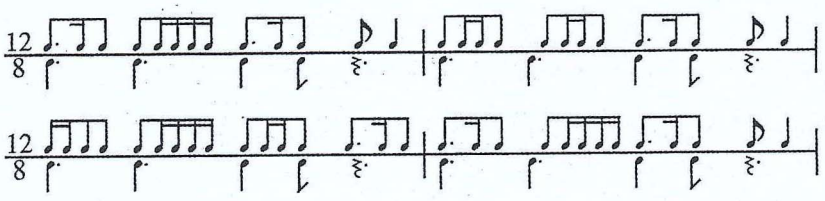
〈사잇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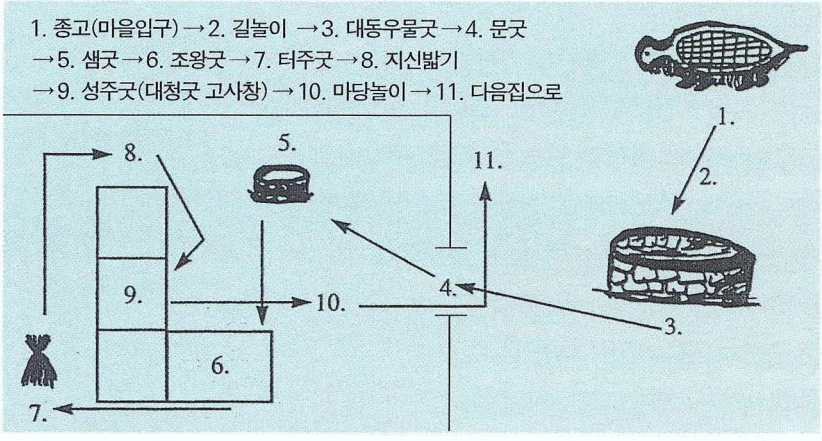
대청굿이 끝나고 나면 굿거리와 잦은 삼채 장단에 맞추어 마당풀이를 펼치는데 한참을 흥이 나게 뛰놀던 거북이와 演戱隊 一 行은 거북이가 쓰

러지면 한참을 들여다보던 질라래비가 주인에게 "여보시오 주인 이 거북이가 압록강을 건너 장안평을 거쳐서 漢江을 헤엄쳐 여기까지 오느라고 배가 고파서 쓰러졌으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하고 말하면 집주인은 秋夕음식으로 준비한 떡과 과일 등을 내어 주고 말에 담긴 쌀과 약간의 돈도 준다. 배가 부르게 먹고 난 演戱隊는 거북을 앞세우고 다음 집으로 향하는데 거북이 뒤뚱대고 가면 뒤를 따르면서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東海거북아 놀아라 西海거북아 놀아라 南海거북아 놀아라"하고 소리친다.

〈굿거리〉



※ 〈거북놀이의 演戱 過程〉




### (2) 人員編成

어느 民俗이나 그러하듯 거북놀이도 定해진 人員이 있는 것은 아니다.

洞里의 與件이나 聚落의 構造 혹은 地理的인 特徵에 의해서 自然的인 人員의 編成이 되는 것으로서 地域에 따라 農旗의 有無와 뒷잽이들의 構成은 편의에 依할 뿐이다. 다만 共通的으로 구성되는 것은 거북과 거북몰이인 질라래비이며 이천군의 再現된 民俗놀이의 경우에는 극적인 效果를 위해서 남생이도 편성시키고 있다. 거북의 編成人員도 地方마다 다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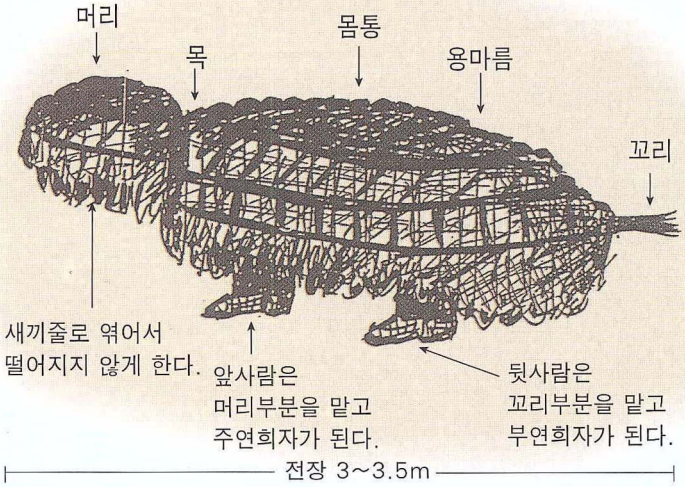
나타나고 있으며 四物(釗.鉦.鼓.杖鼓)외에 벅구와 舞童,廣大까지도 包含시키고 있는 곳이 있어 같은 거북놀이라 하여도 그 地域에 따라 각기 特徵的인 人的 構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河南市에서는 거북놀이의 演戱隊는 旗와 거북과 거물몰이인 질라래비 그리고 洞里의 農樂隊가 함께 다녔으며 다음과 같은 인원을 설정할 수 있다.

- 農旗(1명) : 고깔,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
- 上釗(1명) : 부포상모,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
- 副釗(1명) : 부포상모,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
- 終釗(1명) : 부포상모,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
- 鼓 · 鉦 · 杖鼓(각2~3명) : 고깔,등걸잠방이,삼색띠,짚신
- 小鼓(4~6명) : 나비상, 등걸잠방이, 삼색띠, 짚신
- 兩班 廣大(1명) : 정자관, 도포, 부채나장죽
- 男廣大(2명) : 패랭이, 들걸잠방이, 개나리봇짐
- 女廣大(2명) : 고깔, 치마저고리, 삼색띠
- 거북이(2명) : 탈을 쓰고 앞사람은 주연희자 뒷사람은 부연희자가 된다
- 질라래비(1명) : 수수로 머리 끝서부터 뒤집어 감싸고 수수비를 들고 다닌다.
- 洞里主民들(다수) : 일반적인 바지저고리와 처마저고리를 입고 자연스럽게 연희대에 편성된다.

### (3) 거북이의 形態

흔히 民俗의 속성을 "百里不同風"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서로 이웃한 고장에서도 特徵있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거북의 製作方法과 形態는 地域마다 서로 달라서 京畿道 여주와 忠北 음성 등의 거북은 몸체가 길게생겨 그안에 4 - 6명의 演戱者가 들



어가 거북을 놀리는가 하면 이천에서는 지게위에 멧방석을 얹고 밤송이를 머리라고 들고 다니거나 맨드라미꽃을 뭉쳐서 짚으로 감아서 머리로 대신하였으며 忠南 천원에서는 목부분에 ×자로 나무를 매서 받치기도 해서 地域마다 거북의 形態가 特異한데 河南. 廣州地方에서는 멧방석위에 용마름을 틀고 용마름에서 수수잎을 느린다음 떨어지지 않도록 새끼줄로 엮어매고 머리는 소쿠리에 수수잎을 꽂고 용마름으로 머리와 목을 連結한후에 목부분을 묶어 가늘게 하고 꼬리는 수수비를 뒷사람이 잡고 흔들며 앞사람은 머리 부분을 맡아 演戱한다.

## 4. 고증 및 지도 연출

- 고증 : 하주성(청주방송국 지도위원)
- 지도 : 김종규(하남문화원 이사)
  경 훈 (하남 정보산업고등학교 교사)
- 출연
  - 농기 : 권기웅
  - 상쇠 : 지영민
  - 부쇠 : 김준태
  - 종쇠 : 이상진
  - 큰북 : 권종수, 김주경, 김재복
  - 꽹과리 : 손경수, 류성우, 박명옥, 안자민, 박영문
  - 장구 : 김수현, 황영옥
  - 작은북 : 강홍신, 김은화, 이미경, 조은영, 김정은, 박현정, 김은지, 전우리, 이기원, 박순희
  - 양반광대 : 송명주
  - 광대 : 최윤실, 최민규, 김혜란, 김미희
  - 거북이 : 석창숙, 양현미
  - 질라래비 : 김은하
  - 기타 : 안상희, 곽해연, 문은경, 박목희, 김홍순, 조은수, 김자혜, 유효정, 이진미, 최태옥, 유미란, 석지영, 배아영, 박성준, 최광수, 박수덕, 이영두, 박영철, 김성훈, 조봉진, 최정옥, 김준광, 전용수, 윤승재, 황두환

민속놀이

# 장치기

## 1. 전승지

경기도 하남시 산곡동

## 2. 유래 및 해설

짱치기, 장치기, 얼레공치기, 장채놀이 등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고르게 演戱 되었던 장치기는 장과 채를 갖고 部落이나 樵童들이 하는 勝負性 民俗으로서 오늘날의 『필드하키』와 비슷한 놀이이다.

이 장치기는 여러사람이 편을 갈라서 나무토막이나 짚을 뭉쳐서 만든 얼레공을 장(긴막대)으로 쳐서 자신의 部落쪽으로 몰고 가서 돌로 만든 문이나 줄을 친 위로 넘겨서 먼저 집어 넣는 部落이 이기는 것으로서(일부 지역이나 民俗놀이를 紹介한 冊子에서는 相對方의 門으로 넣는 것으로 적고 있으나 京畿道의 村老들은 얼레공은 穀食의 낱알을 뜻하는 것으로 자신의 門에 넣어야 豊年을 차지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원래 이 장치기는 지금과 같은 民俗놀이가 되기 전에는 주로 궁정이나 大家의 士大夫들이 즐기던 놀이로서 이것을 『격구』라고 하여서 말을 타고 달리며 하던 놀이이다. 이 장치기의 起源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척 오래전부터 시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헌상의 最初의 記錄은 高麗史에서 보이는데 『尙州의 敵의 우두머리 阿子盖(아자개)가 使者를 보내어 귀순할 뜻을 전하니 왕이 命하여 그를 맞이하는 儀式을 毬庭(구정)에서 하였다.』고 記錄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이 장치기는 이미 三國時代부터 傳來한 것임을 알 수 있다.

記錄에 보면 高麗때는 이 擊毬가 上流社會의 高級遊戱로 端午節에 演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사치와 호화를 지나치게 부려 충숙왕 元年(A.D1374年) 五月에도 禁止시켰으나 오랫동안 貴族들의 몸에 밴 習俗

이라 사라지지 않다가 朝鮮朝에 들어서 잠시 中斷되었으나 世宗에 들어서 다시 盛行하였는데 世宗實錄에는 記錄하기를 『王이 大臣들에게 이르기를 擊毬는 高麗의 弊(폐)가 있다고 하여 延臣들 중에 이를 없애기를 바라는 이가 많으나 擊毬는 본시 무를 익히는 것이지 놀이가 아니다』라고 하여서 世宗때는 擊毬를 놀이 方法과 채점방식이 確立되어 武官을 등용함에 있어 擊毬를 하나의 과목으로 채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兩班社會의 擊毬가 高麗末과 朝鮮初에 걸쳐서 점차로 民間의 놀이로 定着한 것으로 推定하는데 1930年代에는 全國에서 演戱되었으며 1931年 2月 5日字 동아일보에는 『우리경기 부흥의 烽火(봉화)-杖球(장구 : 얼레공) 大會』라는 題目으로 수원청년, 소년동맹 양감지부 두 團體의 主催로 『第1回 全朝鮮 얼레공 大會』를 2月 1日 수원군 양감면 용소리앞 냇가에서 全國의 32個 男女팀이 接戰하여 두능야학팀이 優勝하였다는 記事를 보아도 이 장치기가 民俗놀이로써 命脈이 이어져 왔으며 더욱 女子들도 이 장치기의 시합에 參度했다는 記錄은 高麗때도 婦女子들은 의상을 호화롭게 차려입고 이 擊毬를 즐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男女의 共通的인 놀이였던 것이 워낙 過激하고 장채를 휘두르며 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있어 차츰 衰退하고 男子만의 놀이로 남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兩班社會의 말을 타고 달리며 하던 擊毬가 민속화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장치기는 全國的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며 盛行하다가 最近에는 少年들의 遊戱로 그 命脈을 이어온 것을 알 수 있는데 河南市에서는 全域에서 十數年前만 하여도 樵童이나 나뭇꾼들 사이에서 여흥으로 이놀이가 성행하였으며 最近까지도 山俗洞 일대에서는 겨울철에 少年들이 얼어 붙은 논에서 편을 갈라 이 장치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서 지난날 이 지역에서 이 장치기가 매우 盛行했음을 알 수 있다.

한창 盛行할 당시의 장치기는 年初에는 部落과 部落間에 場所와 일정을 정해서 양 부락이 風物을 앞세우고 競技에 임해서 이긴 部落에 豊年이 들고 洞里가 安寧하다는 巫俗的 思考를 지니고 있으며 또는 나뭇꾼이나 樵童들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거나 풀을 벨 때 짚이나 풀을 뭉쳐서 공을 삼고 지겟작대기로 채를 삼아서 문을 한군데 정해 놓고 한쪽은 막기만하고 한편은 넣기만하여 정해진 시간에 攻守의 轉換을 하여서 많이넣는 편이 이기는 것으로 나무나 풀을 한짐 주던가 洞里까지 날라다 주는 내기를 하였다.

## 3. 구성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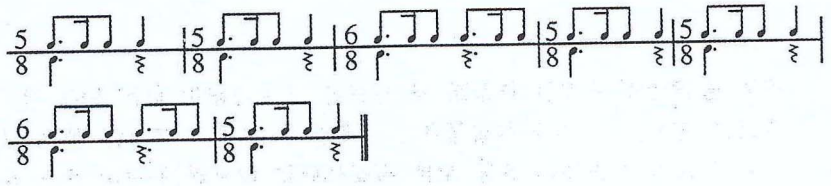
### (1) 演戱方法

장치기는 나뭇꾼이나 樵童들이 내기를 할 경우에는 문을 한 곳에 정해놓고 그곳에 집어 넣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단순한 내기의 勝負性 民俗으로 演戱가 되고 있으나 部落과 部落間에 年初에 날을 정해서 할 경우에는 洞里에 있는 넓은 空地를 球場으로 정하거나 넓은 논을 이용하기도 한다. 일정한 規格이 定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논에서 할 경우에는 논둑을 자연스럽게 境界를 삼아서 競技에 임하는 것이 通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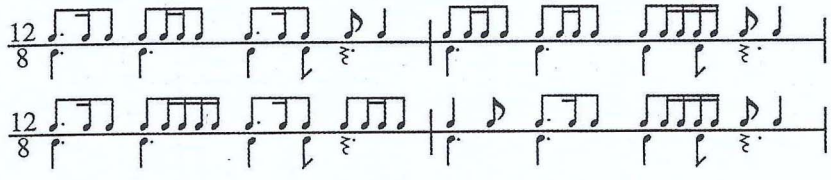
정해진 날이 되면 양 部落에서는 아침 일찍 住民들이 한곳에 모여서 風物을 치며 장치기를 하러가기 전에 흥을 돋우어서 勝利를 다짐한다. 시간이 되면 洞里의 農旗를 앞세우고 風物과 廣大 그리고 장채꾼들과 住民들이 각자 길군악칠채에 맞추어서 허튼춤을 추면서 競技場으로 向하게 되며 이때는 特異한 춤사위는 필요치 않으며 本人이 스스로 興에 겨워서 춤을 추는 것이다.

競技場에 到着한 양 部落의 演戱隊는 農旗를 中心을 삼아서 그 周圍를 한바탕 흥겨운 마당놀이를 펼치며 이때는 양부락에서 서로 相對部落의 氣를 누르기 위해서 最先을 다해 기량을 뽐내는데 廣大들의 해학적인 律動과 舞童을 태워서 競技가 시작되기 전에 相對部落을 制壓하기 爲해 애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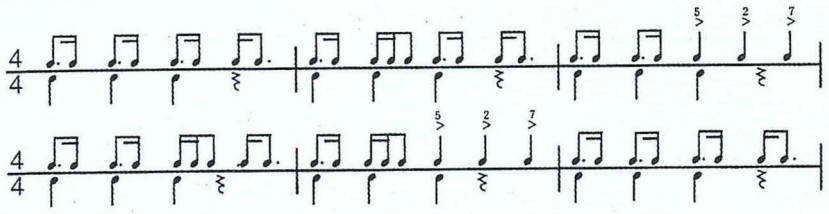
〈길군악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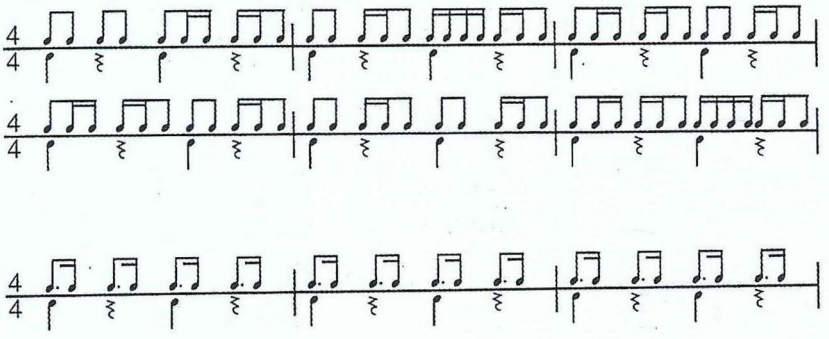
〈굿거리〉



〈잦은삼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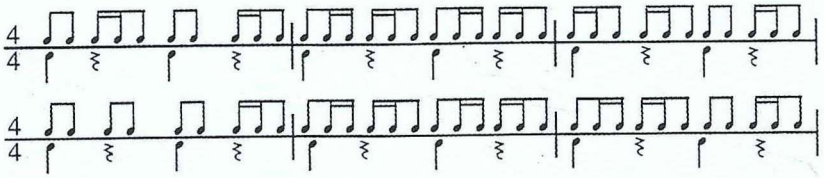
〈잦은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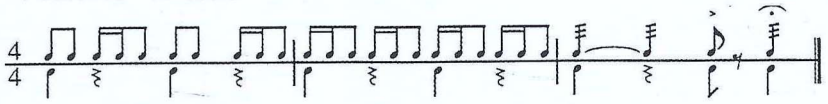
한참을 흥에 겨워 마당놀이를 펼치던 양 部落의 行衆은 길군악을 치면서 競技場의 밖으로 나가고 場內에는 장채꾼들과 競技를 主管한 村長이 남아서 공을 中央에 놓으면 장채꾼들은 서로 공을 자신의 門쪽으로 치고 가서 정해진 문안으로 집어넣게 된다. 이러한 競技 方法은 西洋의 球技種目과는 달리 얼레공이 穀食의 낱알을 뜻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部落쪽으로 집어 넣어야 豊年이 든다는 巫俗的 思考때문이다.

정해진 시간에 많이 넣는다던가 아니면 먼저 한편이 집어 넣으면 이기는 것으로 정해서 벌어지는 이 장치기는 공을 몰고 갈때에는 "얼럴러리" 하고 소리치면서 가는데 장은 어깨위로 치켜들지 못하며 相對方의 몸을 건드려서는 안된다. 勝負가 決定되고 나면 양부락의 演戱隊는 한데 어우러져 和合의 한마당인 뒷풀이를 펼친다.

〈잦은가락〉



〈마당돌림 허튼장단〉



**(2)人員編成**

- 農 旗(1명) : 고깔,삼색띠,등걸잠방이,짚신
- 部落旗(1명) : 고깔,삼색띠,등걸잠방이,짚신
- 上釗(1명) : 부포상,삼색띠,등걸잠방이,짚신
- 副釗(1명) : 부포상,삼색띠,등걸잠방이,짚신
- 鼓(2명) : 고깔,삼색띠,등걸잠방이,짚신
- 杖鼓(2명) : 고깔,삼색띠,등걸잠방이,짚신
- 鉦(2명) : 고깔,삼색띠,등걸잠방이,짚신
- 小鼓(4~6명) : 나비상, 삼색띠, 등걸잠방이, 짚신
- 舞童(5~8명) : 중춤애(새미) ; 가사장삼, 남춘애 ; 도장복
  여춤애 ; 치마저고리, 쾌자
- 村長(1명) : 정자관, 두루마기, 부채나장죽
- 장채꾼(10~15명) : 머리띠, 바지저고리, 행전, 짚신
- 兩班廣大(1명) : 정자간, 두루마기, 장죽
- 男廣大(2명) : 패랭이, 봇짐, 바지저고리, 짚신
- 女廣大(2명) : 머리수건, 치마저고리, 고무신, 삼색띠
- 洞里住民들(다수) : 남자는 바지저고리, 여자는 치마저고리

※ : 東部는 靑色머리띠 靑色바탕의 農旗와 部落旗이고
西部는 白色머리띠 白色바탕의 農旗와 部落旗이다

장치기의 演戱 人員도 洞里내의 住民들로 自然스럽게 이루어 지던 構成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양부락을 설정해서 再現을 하기 위해서는 양 부락의 人員을 같게 編成해야 한다. 위의 인원편성은 한 부락의 편성으로 실질적인 演戱人員은 2培가 된다.

## 4. 장채와 얼레공의 形態

장치기에서 使用하는 채는 대개 물푸레나무나 오리나무를 使用하는데 理由는 이런 種類의 나무들이 대개는 탄력이 强하기 때문이다. 대개 그 길이는 1.5m정도의 한끝이 45° 정도 굽은 것을 골라서 채의 밑면을 깍아내어 使用하며 공은 소나무의 옹이가 여러겹 박힌 것을 깍아서 사용하거나 짚을 단단하게 뭉쳐서 使用하며 그 지름이 15-20cm 정도가 되게 만들어서 채로 쳐서 굴려 문안에 집어 넣게 된다.

민속놀이

# 동리 농악

## 1. 전승지

경기도 하남시 일대

## 2. 유래 및 해설

農樂에 대한 始源이나 그 由來에 관한 記錄은 古代의 어느 文獻에도 正確히 記述한 것이 없어 어느 時代부터 傳해졌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그 原初的인 形態의 모습은 先史以前의 祭天儀式에서 부터라고 推定할 뿐이다. 一部의 學者들은 『禮記』〈明黨傳(명당전)〉의 "昧(매)는 東夷樂이다" 『周禮』의 "東夷之樂中 東方은 昧(매)라 한다" 『白虎通(백호통)』의 "東夷之樂은 離(리)라 한다" 『通典』의 "東夷之樂(동이지악)은 侏離(주리)라 한다"나 혹은 『孝經』의 "東夷之樂은 侏라 한다"등에서 이 東夷之樂을 지칭하는 昧, 매, 離, 侏離, 侏 등은 모두 매굿(現在의 農樂)을 가르키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東夷之樂에 관한 정설이 없으며 이 音樂을 표현하는 句節이 없어 農樂으로 斷案을 내릴 수는 없으나 毛詩傳(모시전), 史記, 樂元語, 海王, 樂書등에도 동일한 名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先史 以前의 音樂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시대에는 祭天儀式이 이루어 졌고 祭天儀式은 農樂에 대한 感謝儀式으로 볼 때 농악으로 推定할 수 있다는 점이다.

『東國歲時記』에는 "態用谷 態山神堂上人每四月 迎神下山 陣鍾鼓雜戲遠近爭來祭之 十月又如爲常"이라고 記錄되어 있어서 態川의 習俗에 四月과 十月에 態山神堂에서 神을 맞아서 산아래 모셔놓고 鍾鼓雜戲하며 告祀를 받들었음을 알 수있는데 이 儀式은 各處의 도당굿과 같은 유풍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각처에서 거행되는 도당굿은 馬韓朝에서 보이던 祭天儀式의 遺風으로 신을 맞이하는 것으로 迎鼓는 일종의 神맞이 굿으

로 볼 수 있다. 馬韓의 習俗은 굿이고 이 굿은 農作에 관한 것으로써 五月과 十月에 農作의 始終을 神에게 感謝했는데 (馬韓常似 五月下種訖 祭鬼神 群聚歌舞飮酒 晝夜無休 其舞數十人 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節奏有以鐸舞 十月農功畢 赤復如之(마한상사 오월하종흘 제귀신 군취가무음주 주야무휴 기무수십인 구기상수 답지저앙 수족상응 절주유이탁무 십월농공필 적복여지)) 이러한 態山神祭의 鍾鼓雜戱나 馬韓의 習俗의 鐸舞가 現在의 農樂의 原初的인 形態로 推定한다. 즉 鉦鼓란 現在의 農樂에서 나타나는 鉦鼓나 鐘鼓 등의 原初的 뜻으로 풀이 할 수 있는데 演戱의 시작함을 알리는 것으로 북이나 정을 울리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流浪集團이나 風物牌의 行衆이 洞里에 進入하기 전에는 洞里의 입구에서 먼저 북을 쳐서 行衆이 洞里에 進入함을 알리는 것을 "鐘鼓" "鍾告" 혹은 鉦鼓"라 하는 것을 볼 때 態川의 習俗의 鍾鼓雜戱는 祭儀式을 시작함을 알리는 鐘鼓와 그 以前에 마당의 演戱 種目인 雜戱가 한데어우러진 形態로서 流浪集團의 洞里에 行衆이 들어가기 전에 進入함을 알리는 儀式인 鐘鼓와 마당놀이로 나타나는 各種 演戱의 形態로도 볼 수 있다. 또한 馬韓時代의 鐸舞라하는 것은 鐸이라는 樂器를 利用하여 춤을 추는 것으로써 이 鐸을 들고 추는 形態가 節奏에 맞추어서 팔과 다리를 서로 맞추어서 앉았다 일어섰다하여 땅을 밟는다고 表現하고 있어서 (其舞數十人 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以鐸舞(기무수십인 구기상수 답지저앙 수족상응 절주유이탁무) 現在에 農樂에서 보이는 舞의 技法과 同一하며 洞里에 農樂隊에 의해서 擧行되는 年初의 地神밟기에서 보이는 形態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農樂은 굿. 매굿등으로 불리워 지며 祭儀式에서 使用된 것으로 보이는데 三韓時代 夫餘의 〈迎鼓〉를 보면 『正月祭天國中大會連日飮食歌舞 名日迎鼓行道晝夜無老幼皆者連日聲不絶(정월제천국중대회련일음식가무 명일영고행도주야무노유개자연일성불절』이라고 記錄하고 있어서 正月에 나라에서 하늘에 祭祀지내는 것을 迎鼓라 했는데 連日 飮食을 먹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으며 길에는 낮과 밤으로 쉬지 않고 아이들과 노인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음을 적고 있다. 또한 後漢書 東夷傳 夫餘條에는 『以臘月祭天大會連日歌舞名日迎鼓(이납월제천대회련일가무명일영고)』라고 적어서 臘月(음력12월)에 행하는 祭天大會때 날마다 노래하고 춤추니 이것을 『迎鼓』라 한다고 하였으며 梁柱東은 『古歌研究』에서 迎鼓

를 "마지굿"이라 하여서 神을 맞이하는 祭儀式임을 表現하고 있다. 이렇듯 過去의 祭天儀式에서 使用한 祭樂은 現在의 農樂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農樂이 祭天儀式에서 綠由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壬辰倭亂(朝鮮 宣祖25年(1492年 4月)때 김해, 남원 등지의 陶工 23성 數十名이 拉致되어 가서 그들은 日本의 九州(쿠우슈우)의 西南端에 있는 鹿兒島縣(녹아도현 ; 카고시마현), 日還郡(일환군 ; 히모기군), 下伊集院(하이집원 ; 시모이슈인), 苗代川(묘대천 ; 나에시로가와)을 中心으로 자리잡고 陶磁器의 製造에 成功하여 薩摩燒(살마소 ; 샤쓰마야기)의 本家를 이루었다. 이 苗代川에는 山舞樂(산부라구)이라는 언덕이 있어 이 곳의 산봉우리에 큰바위가 밤마다 광채를 내고 우는 소리가 나는 까닭에 여기에 箕子(或은 檀君이 라고도 한다)를 모시고 每年 봄, 가을로 산의 頂上에서 祭를 지냈다고 하는데 鹿兒島 苗代川 王山神社 神舞圖를 보면 불을 피운 주위로 劍舞를 추는 武人과 그 주위로 둘러앉은 樂士들이 지니고 있는 樂器가 鉦, 小釗, 鼓, 杖鼓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이 農樂은 朝鮮朝때도 民間의 風習인 祭儀式(先史以前에는 祭天儀式)에서 使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先史時代의 祭天儀式에서 비롯한 農樂은 軍에서 使用하는 軍樂의 形態로 變化하였는데 屯田制度가 생기면서 屯田兵들의 平素 陣法研究와 戰鬪力의 增進에 使用되면서 軍樂으로서의 形態로 變化하였다. 이 農樂이 軍에서 使用하는 吹軍(취군)으로 使用되었음은 記錄에서 상당수 보이고 있는데 百濟時代에는 軍의 閱兵과 戰鬪時에 農樂을 使用했으며 中國 수양제의 高句麗 侵略時(A.D613年)에는 高句麗軍이 굿치고 함성을 질러 戰鬪에서 大勝을 거두어 勝戰굿으로 使用하였으며 新羅의 名將 金庾信(김유신)도 전쟁터에서 굿(군악)을 利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에 굿에서 보이던 樂器의 編成이 現在의 四物과 同一한가는 確實히 알 수 없지만 農樂에서 使用하는 旋律樂器인 太平簫는 처음 만들어진 해가 朝鮮朝 世宗8年(1462年) 4月 乙丑日(2日) 兵曹에서 전지하기를 使臣이 가지고 온 太平簫(胡笛)를 악기감에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 傳習하라고 한 記錄으로 보아서 그 以前의 軍樂의 形態인 굿은 朝鮮朝와 같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現在의 農樂이 過去 軍에서 使用하던 軍樂이었음을 立證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過去 寺黨牌들이 즐겨입던 더거리(겉옷)는 바로 兵士들의 겉옷이며 軍에서 使用하는 吹奏樂器인 나팔이나 나각

太平簫도 現在의 農樂에서 使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現在 나타나는 각 地方의 農樂을 보면 地域마다 그 판굿이 特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더라도 그 地域의 地理的인 여건에 맞게 판제(陳法)가 變化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山間地域의 農樂과 平野의 農樂은 그 陳法이나 進退가 同一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그곳의 地形에 맞게 特徵있는 모습으로 定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山間地域을 사이로 발달한 全羅左道 農樂과 西海岸을 끼고 形成된 右道農樂, 京畿道의 大平原에서 發達한 웃다리 農樂과 太白山脈을 끼고 形成된 嶺東. 嶺南農樂은 다 그 地域에 맞게 構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軍에서 使用되던 軍樂으로서의 農樂은 각기 特徵있게 나타나던 것이 훗일에 洞里의 農樂으로 定着되는 과정에서 技藝人의 力量에 따라서 더욱 細技가 다듬어 졌다.

이 屯田兵들의 군악이 農業에 從事하는 農夫들과 自然的으로 同化되면서 후에 屯田制度의 廢止와 함께 자연스럽게 洞里農樂으로 定着되어 純粹한 豊農의 추구를 위한 作業場에서의 農事樂으로 變化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에도 先史時代부터 전해진 祭祀樂으로서의 機能은 그 內面에 지니고 있는 狀態에서 農樂(農作의 作業場에서의 音樂)으로서 나타나면서 그 內面의 巫俗的 思考인 祭儀的 性格과 함께 複合的으로 構成되는 놀이인 地神밟기나 農旗 싸움, 거북놀이 등 巫俗性을 띄우고 있는 놀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처음 祭天儀式에서 祭祀樂으로서의 技能을 갖고 있던 매굿은 軍樂으로 또 屯田兵들의 音樂에서 洞里의 農樂(勞作形態의)으로 順次的인 變化를 해왔으며 朝鮮朝 後期에 접어들면서 政局이 混亂期에 접어들고 庶民들의 生計가 어려워지자 技藝人들이 集團을 이뤄 全國을 流浪하며 技藝를 선보이는 寺黨牌(사당패), 걸립패(乞粒牌), 중매구, 굿중패, 솟대쟁이패 등의 行衆의 그 演戱過程에서 이 農樂을 技藝를 선보였으며 이 時期의 細技는 어느때보다도 越等했을 것이다.

이러한 全國을 流浪하던 流浪集團과 洞里의 農樂은 1920年代 日帝의 文化抹殺政策으로 因해서 中斷되었으며 光復後에 再現된 農樂은 그 內面이 지니고 있던 祭儀的 性格은 消滅되고 單純 娛樂的인 性格만 남게 되었다.

이 農樂을 그 變化過程에 따라서 區分하면

◉ 祭儀期(매굿의 創出로 天神을 위하는 祭祀樂의 機能)

⇩

◉ 軍刻期(軍士들의 閱兵과 勝戰굿으로 利用)

⇩

◉ 屯田期(屯田兵들의 體力增進과 陣法研究에 必要)

⇩

◉ 農作期(屯田制度의 廢止와 함께 洞里農樂으로 定着)

⇩

◉ 流浪期(朝鮮朝 後期의 流浪集團의 판굿으로 이용)

⇩

◉ 中斷期(1920年代 日帝의 文化抹殺政策으로 因해)

⇩

◉ 祭儀性消滅期(光復後에 西歌文物의 導入으로 因해)

⇩

◉ 娛樂期(1960年代부터 現在까지)

위와 같이 區分할 수 있는 農樂의 變化는 現在에 와서는 地理的인 特徵마저도 점차 衰退하고 있으며 地域的 特性도 없어지고 거의가 混合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傳承民俗의 保存的 次元에서 볼 때 매우 위태로움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農樂의 脈은 많은 形態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豊農과 招福逐厄(초복축액)의 內面世界의 脈絡은 維持하면서 그때 그때 周圍環境(時代的 背景, 地理的條件, 技藝人의 力量등)에 따른 形態를 보이며 變化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農樂을 지칭하는 명칭을 보더라도 그 形態의 變化에 따라서 特異하게 나타나는데 처음 祭天儀式때의 祭祀樂이 있을때는 "굿" "매굿(맞이굿)"으로 불리우던 것이 軍樂으로서 "吹軍"이라 불리고 洞里 農樂으로 定着하면서 "두레굿"이라 했으며 流浪集團이 使用하면서 "風物" "풍장"으로 後日에는 "農樂"으로 함께 그 名稱도 變化했다는 점이다. 一部의 植民史觀에 찌든 사람들이 農樂이 日帝의 歌舞劇인 "노가꾸(能樂)"에서 그 名稱이 由來했다고 하나 農樂은 단순히 農作에서 綠由하는 것으로 日帝의 앞잡이 노릇을 한 一部 몰지각한 자들에게서 나온 學說로 전혀 關係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河南市는 過去 廣州郡때서부터 洞里 農樂이 그 어느 곳보다도 活潑하게 演戱되었던 곳으로 광활한 屯田地와 穀倉이 있었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洞里의 農樂이 盛行했으며 특히 朝鮮朝 末期부터 全國을 돌며 技藝를 선보인 演戱 集團中에 마지막 乞粒牌인 남은영패와 南寺黨牌인 이원보牌가 광주, 이천, 여주 등에서 演戱가 많았던 점을 보아도 이 地域이 딴곳과 달리 傳承民俗 藝術인 農樂에 대한 愛着이 강했던 곳이다.

河南市는 現在까지도 下山谷洞(泉峴洞), 項洞, 春宮洞, 善山洞(春宮洞管轄), 망월동, 선동(풍산동관할) 감이동, 감일동(감북동 관할) 초일동, 초이동(초이동관할)등에서 洞里 農樂이 脈을 잇고 있으며 아직도 京畿의 傳統쇠가락인 웃다리 農樂의 長短을 치는 技藝人이 상당수 있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흔히 洞里 農樂을 두레 農樂 혹은 두레라 칭하고 있는데 두레와 農樂은 별개의 것으로 洞里 農樂이나 두레농악이라 해야 하며 두레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河南市의 洞里農樂의 대부분의 技藝人들도 農樂을 두레라 稱하고 있었는데 두레는 農村에서 農事를 짓는데 있어서 共同으로 같은 년배의 成員이 모여서 서로 協同으로 作業을 하는 組織이다. 이 두레는 『농사꾼들이 農繁期에 共同으로 協力하기 爲하여 이룬 部落이나 里 單位의 모임』이라고 했으며, 두레일이란 『여러사람이 두레를 짜가지고 協力하여 하는 농사일』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普遍的으로 이 두레에는 農樂隊가 編成되어 있게 마련이어서 農樂과 두레가 같은 것으로 보는 수 있으나 두레조직이 없는 부락에 農樂隊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農樂隊가 없는곳에 두레가 있는 부락이 있어서 農樂과 두레는 別個의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農村에는 두레와 農樂이 共存하고 있으며 두레성원이 남는 時間을 利用하여서 남의 일을 도와 주고 삯을 받아서 農樂隊를 組織하기 때문에 그 農樂隊를 두레농악대라 稱하는데서 두레=農樂이라는 說이 나왔으나 두레와 農樂은 別個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 最近에는 두레와 農樂이 區別이 되지 않고 있지만 두레의 뜻은 "드리(納入)" "드레(納聚)"에서 나온 것으로 結社나 從黨(종당)을 意味하는 것으로 社를 訓讀하여 두레라 하는데 이것은 다만 共同體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지 農樂과는 別個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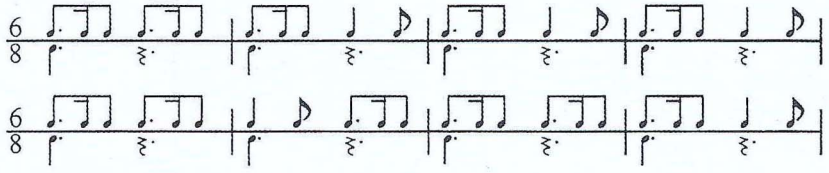
## 3. 구성 및 내용

지난 歷史 속에서 民衆과 함께 呼吸하며 民衆의 健全한 놀이마당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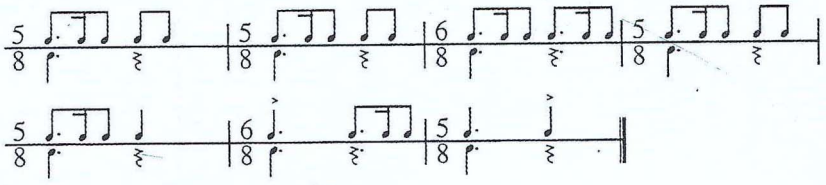
서 그 媒介體의 役割을 하던 農樂은 그 變化過程 속에서 地理的인 特性과 時代的, 歷史的인 周圍環境에 따라서 地域的 特性이 强한 판굿과 쇠가락을 形成하였는데 河南市의 全域에서 演戱되는 洞里農樂의 경우에는 특별한 판굿이 없이 다만 農作에 필요한 農事樂으로 演戱되었기 때문에 傳門的인 寺黨牌와 乞粒牌와 같은 多樣한 가락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고 길군악칠채, 굿거리(광고가락), 잦은삼채, 삼채, 잦은가락과 무동장단, 마당일채쩍쩌기 등만을 치는 것이 一般的인 例이다. 河南市에서 發掘된 農樂의 가락은 다음과 같다.

### ◉ 農樂長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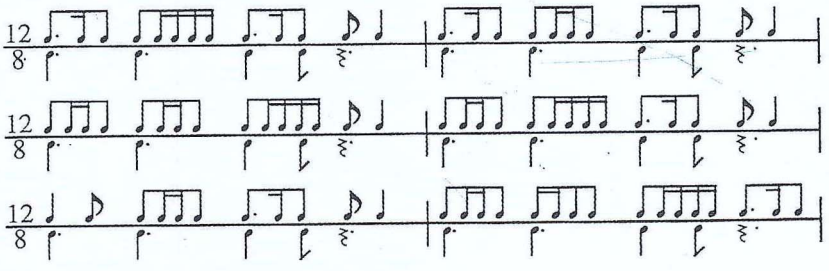
(1)길군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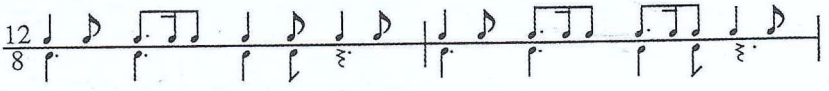
(2)길군악칠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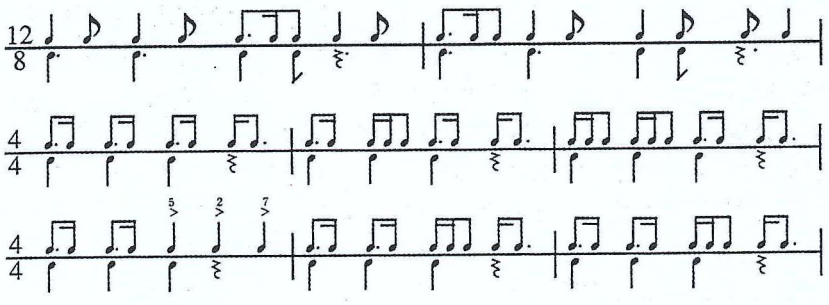
(3)굿거리



(4)삼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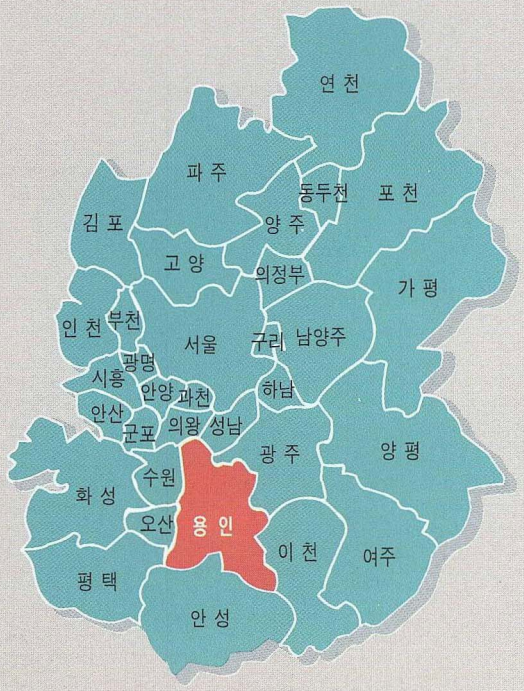


(5)잦은삼채



# 용 인 시

- 웃다리 풍물
- 할미성 대동굿



# 여 백

민속놀이

# 윗다리 풍물

## 1. 전승지

경기도 용인시 일대

## 2. 유래 및 해설

### (1) 해설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에 걸친 문헌에 보면, 방울 · 북 · 피리 · 거문고 등 네가지 악기가 주로 종교상의 소용으로 쓰였다고 한다. 1700여년 전의 중국사적 '삼국지'에 보면, 마한의 여러 나라에서는 삼신님을 위하는 고을을 따로 두고 그 처소에는 솟대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아 올리면서 굿을 한다고 하였다. 북은 신비스러운 위력을 가진 악기이다. 신사에 두리둥둥 울림은 예나 이제나 마찬가지 이다. 고구려 시조가 비류국과 더불어 나라힘을 자랑할 새북과 나팔을 주재료로 썼다고 하며 고구려 대무신왕 때 낙랑의 자명고가 유명하였다 함은 그 때에 북이 중요한 악기였다는



증거이다.

농악이란 농부들이 두렛일을 할 때 일을 돋우며 수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벌이는 풍류를 이름이니 옛날 동리마다 늘 두고 있는 악기, 즉 장고 · 북 · 소고 · 날라리 · 꽹과리 · 징 등을 이용하여 모내기나 김매기 때에 농기를 들판 한가운데 내세우고 몇사람이 앞장서서 쾌지나칭칭 두렛일 노래를 메기고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일이 끝난 때에는 막 두드리고 춤추면서 돌아오는 것이다. 앞선자의 메기는 소리에는 해학과 풍자와 생활고의 호소가 혼합된 소리로 나와서 간단한 웃음이 새기운을 자아내고 나를 잊어 버리려는 무리가 어울려 신명나게 춤추는 것은 고달픈 신경을 흠씬 풀어 주기에 넉넉하였다.

조선조 세조는 농사장려에 열심하실새 일부러 농가(農歌)를 짓고 노래 잘하는 기생 중에서 농가단 아홉 사람을 선정하여서 오로지 농가만을 부르게 하여 백성의 어려움을 덜게 해주었으니 이것은 나라에서 정한 농악이라 할 것이다.

놀이판은 길놀이와 판놀이로 나눠볼 수 있다. 어둑하여지면 풍물잽이들은 복색을 차려입고 사물을 울리며 마을을 돌기 시작한다. 이것은 놀이판에 많은 구경꾼들을 모여들게 하기 위한 길놀이로 간단한 벅구놀이와 풍물과 새미놀이 등을 간략히 보여주는 것이다. 집집마다의 울타리 안에 들어갔을 때는 돌림벅구와 마당씻이를 해준다. 모든 민중놀이에서 길놀이가 되는 이 대목은 온 마을사람들을 다 나와보게 하여 노는 자와 보는 자의 동질성을 꾀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평등사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한마당이라고 볼 수 있다.

### (2) 유래

마을에서 주는 저녁밥을 먹고 어두워지면 놀이판으로 잡은 넓은 마당에 먼저 횃불을 밝힌다.

풍물을 울리며 풍물잽이들이 주로 '단악가락'으로 마을의 크고 작은길을 고루돌며 마을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 큰 행렬을 이루면서 '길놀이'를 하게 된다.

그리고는 큰 마당가로는 '두레기'와 '영기(令旗)'를 있는 대로 많이 세우니 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면서 잔치 분위기를 이루는 것이다.

풍물은 중부지방에 전승되고 있는 '웃다리가락'을 바탕으로 짜임새 있

는 '진풀이'와 '채상' 등의 체기(體技) 및 묘기를 보임으로써 연희적 기능을 더해 주고 있다. 역동성(力動性)과 기민성(機敏性)을 함께 하는 풍물은 한민족의 숨은 기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 3. 특징

(1) 자진 김매기의 소리굿이 구성지다.
(2) 가락은 힘차고 섬세하며 느리고 빠른 가락을 혼용하고 있다.
(3) 사물놀이와 상모놀이가 골고루 혼합되어 조화를 이룬다.
(4) 모방진 · 사통박이 · 절구벅구 등의 진풀이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 4. 구성 및 내용

### (1)굿의 짜임

(1) 인사굿 (2) 돌림벅구 (3) 오방진 (4) 마당놀이 (5) 당산벌림 (6) 절구벅구 (7) 사통박이 (8) 옆치기 (9) 대대옆치기 (10) 가새백이 (11) 쩍쩍이 (12) 소리굿 (13) 개인놀이 (14) 12발상모 돌리기 (15) 인사굿

### (2) 놀이내용

- 인사굿 : 놀이판에 입장하면 칠재가락을 치면서 농기 · 영기 · 날라리는 앞으로 나와 나란히 서고 중벅구 첫째줄, 상벅구 둘째줄, 꽹과리 · 징 · 장구 셋째줄, 북 · 잡색이 넷째줄에 서서 구경꾼에게 인사한다.
- 돌림벅구는 외상과 양상이 있으며 외상은 한쪽으로만 상모를 돌리는 형태이고 양상은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돌리는 형태이다.
  특히 둥글음을 이루는 것은 외구의 침략에 맞서는 단결력과 패들사이의 인화를 다지는 것을 뜻한다.
- 오방진 길가락은 칠채와 같다.
  칠채는 먼곳을 가기 위한 길을 걸어가며 치는 가락이라고 한다.
- 마당놀이는 큰원을 그리고 상쇠가 나와 연풍대를 돌면서 놀면 장고들이 나와서 흥겹게 논다.
- 당산벌림은 상쇠가 가운데 들어가 쇠놀음을 한다. 벅구들은 흥겹게 놀이를 한다.
- 절구벅구는 절구댕이 벅구라고도 한다. 절구에 곡식을 찧는 형상을 뜻한다고 한다.

사통백이는 교차행진 할 때 힘이 있어 보여서 전투적인 진군을 보인다. 이는 논일할때 한줄로 서서 김매기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 옆치기는 군대의 제식훈련을 연상케 한다. 일사불란한 행동이 돋보인다.
- 가색백이는 가위를 나타내는 진풀이로 옷을 만드는 형상을 보인다. 영기로 만든 문을 통과하는 것은 군대의 점호와 흡사하다.
- 쩍쩍이 가락에 맞추어 사물 사이에 벅구와 잡색이 섞여 있는 큰원을 이루는 가운데 벅구와 잡색이 원의 안쪽으로 들어와 작은 원을 이룬다.
- 소리굿은 리더의 선소리에 따라 나머지 치배들이 '어흠차 찍엄네야' 라고 뒷소리로 따라 부른다. 자진 김매기는 용인 지방에서 모를 심고 김매기를 할때 부르는 농요로서 이 소리굿은 농사에서 김매기를 나타낸 것이다.
- 열두밭 상모 돌리기는 열두달의 안녕과 평화를 바라는 뜻이기도 하며 채상모놀이는 적으로 부터의 방어를 위한 무술적 행위의 표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열두발 상모의 긴 종이로 마당의 액을 쓸어낸다는 뜻도 있다.

## 5. 의의

웃다리 가락을 주축으로 하여 진풀이, 벅구놀이, 채상놀이, 선소리등의 몸재주와 묘기에 소리까지 곁들이니 훌륭한 풍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특유의 장단이 이루어진 뒤에 떠돌이 판굿 모임의 놀이중 하나로 다시 엮어지고 편곡 되면서 형성 되었다고 본다.

웃다리 가락의 문체로 그 순수성을 지켜온 것은 안성 남사당패가 최근까지 정통성을 지켜왔다고 본다. 용인과 안성은 같은 지역권으로 거의 같은 맥락의 가락과 소리굿으로 웃다리 가락을 계승 발전 시키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

자진 김매기 소리굿의 뒷소리는 안성지방에서는 '얼얼얼 상사리야' 이지만 용인 지방에서는 '어흠차 찍엄네야' 만 다르고 선소리는 같다.

앞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농악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고장의 민속을 계속 발굴 해나가려는 자세가 우리 모두 필요하다.

## 6. 고증 및 지도 연출

- 고증 : 송재권(용인문화원장)
  김기복(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단장)
  이응준(용인 향토문화 연구소장)
  홍종우(용인시 남사노인회장)
- 발굴 및 조사정리 : 송장섭
- 장소 :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 연출 및 구성
  남사중학교교사 송장섭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단장 김기복
- 출연 인원
  - 종목 : 농악놀이
  - 명칭 : 경기(웃다리)농악놀이
  - 소요시간 : 30분
  - 출연팀 및 인원 : 용인 남사중학교 농악단, 58명

# 할미성 대동굿

## 1. 전승지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마성리

## 2. 유래 및 해설



석성산의 설화는 동편 서편지역에 따라 이야기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중 한 가지를 소개하면, 옛날에 슬하에 남매를 둔 노부부가 살았는데 아홉 해 가뭄이 들어 모두 굶어 죽게되었는데, 슬하의 자손중 한 명을 죽여야 비가 온다고하여 노부부는 전전긍긍하다가 아들과 딸을 불러놓고 내기를 시켜 지는 자의 목을 베기로 약속을 하였다. 아들은 성을 쌓게 하고, 딸은 나막신을 신고 한 양을 하룻밤 사이에 다녀오는 내기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어머니는 아들보다는 딸이 지기를 바랬고, 아들은 남쪽부터 성을 쌓게 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돕고자 성을 북쪽에서 부터 쌓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딸을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흙을 한 줌씩 쥐었다 놓은 것이 산 봉우리가 되었고, 아흔 아홉 봉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해는 솟아 오르고 딸이 돌아왔다. 그 무렵에 어머니는 북쪽에 성을 다 쌓았으나 아들은 남쪽에서 성을 미처 다 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 이때, 하늘에서 천둥번

개가 치고 큰 비가 내려서 가뭄은 해소가 되었으나, 이일로 인하여 아버지와 딸은 벼락을 맞아 죽고, 어머니만 홀로 남아 이를 애통해 하였다. 결국 어머니는 할망구가 되도록 성을 쌓으며 살다가 후일 죽어 용인의 진산인 석성산 수호신인 성산 신령이 되었다고 한다.

## 3. 구성 및 내용

### (1) 길놀이

제일 앞에 대를 든 사람이 앞서고 신장기, 영기, 칙기 등을 앞세우고 두레가 뒤를 따르며 그 뒤를 만신이 따르는 굿이 되어 가가호호마다 걸립을 하고 화주 · 당주를 가려 굿이 있음을 알리는 과정을 길놀이 형태로 구성하였다.

### (2) 타동풍물맞이

이웃동네 대동에 알리어 당일 적게는 3대동 많게는 12대동이 모여 받아 모시는 풍물 굿이다.

### (3) 주당물림 · 부정풀이

첫장구를 울리어 주당을 물리며 선거리로 부정을 푼다. 장단은 막장단, 도두리, 막장단으로 이어지며 사용재료로는 흐린 잿물, 소금, 통고추, 황토흙, 오방기 등을 사용한다. 또한 옛날부터 이사, 회갑, 혼인, 장사 등에서 주당을 꺼리며 굿맞이에도 주당이 있어 모든 사람을 굿청 인줄 밖으로(가택일경우 추녀밖)내보내 장구, 징, 제금등을 울리어 당울림으로 주당을 물린다.

### (4) 산제

간단한 제물과 소머리를 놓고 술잔을 올린 후 축문을 읽은 다음 소지를 올린다.

초헌, 아헌, 종헌, 축관순으로 진행된다.

(약식으로 초헌만하고 축원과 소지를 올린다.)

### (5) 산신바래기(산도당 할미 모시는 굿)

대잡이가 굿청에 할미를 모셔다 놓으면 산신바래기를 하여 각성받아 가중마다 꽃반축원과 소지올림공수를 내려 주고 사슬받음을 한 후 노래를

한다.

(석성산 할미는 마귀신이라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굿의 성격을 구분한다면 서낭제이다.)

### (6) 상제및 승전 맞이 굿

큰 굿에서만 모시는 국조인 단군 성조를 모시며 중국신으로 관운장을 포함한 오관천자를 받드는 굿이다. (최고로 높은(上)신을 받드는 굿)

### (7) 장군거리

마노라의 칭호를 사용하며 용장군 물마노라, 덕물산 최일장군, 임경업장군, 신립장군, 삼마노라 삼장군을 최고 상신으로 받들고 한라산 여장군등의 신이 등장하며 윤씨대왕, 사도세자, 감악산 삐뚤대왕 등의 신을 받든다.

### (8) 대방위굿(신장굿)

귀신의 장난으로 몸수에 고통을 받거나 사업하는 이가 사업운이 없을 때 산사람을 죽은것 처럼 저승사자를 속이기 위해 북어에다 속옷을 입혀 일곱메끼 육장포로 묶어내어 대수대명 헛장을 하며 산사람을 염하여 자손에게 곡을 시켜 헛장을 치룬다.

### (9) 청궁맞이 제석거리(불사, 칠성거리)

천상청궁 물마노라(용왕을 의미하는) 물동이를 놓고 불사전을 늘이고 제석님, 칠성님, 불사님, 불사신령을 모셔놓고 누린것, 비린것, 부정한 것 등을 삼가 해야하는 가정굿으로는 제일 중요한 굿이기도하다. 쌀과 밤, 대추로 명산 복산을 주며 중생타령, 떡타령 등이 매우 중요한 굿이다.

### (10) 호구거리

문명의 발달로 현시대에는 마마를 앓는 아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과거에는 마마를 앓아 누운 동네 아이들이 열명중 여덟아홉이 죽게 될 만큼 무섭고 두려운 신이며, 마마가 다녀간 후 용케 살아나도 얼굴에 흠(곰보)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죽은 아이는 별상동자가 된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던 신인데 현대에는 굿이 약식으로 명맥만 유지를 할 뿐이다. (별성이라함은 임금의 명을 받은 봉명대신을 별성이라한다. 별

성신은 마마별성이라 하니 그 이유는 중국강남에서 호구별성신이 조선국을 나와서 그 시절에 아이들에게 유행되는 열병의 일종인 홍역과 마마를 관할하였다.)

### (11) 대신거리(만신들의 몸주를 놀리는 굿)

열두신령 열두대신이라하여 신의 제자 몸에 항상 접신되는 신으로 신의 글과 신의 말을 준다하여 만신에게는 꼭 놀려야 되는 몸주며 일반가택에서는 직성 신기가 있는 사람을 재워주는 신이다.

### (12) 대감놀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택, 산, 물 어디를 가도 존재한다하여 기계와 같은 사물에도 존재한다고 믿고 받드는 신이며 가무를 겸비하여 익살과 풍자를 묘사하는 일반인도 무감이라 하여 같이 신의 놀이를 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굿이다.

### (13) 작도별성거리

작도 당반위에 비수잡이 2명, 공수받이 1명이 입에는 재갈을 물리어 말을 못하게하며 주무(主巫)가 명다리를 들고 공수를 내린후 복수건을 던져준다. 작도굿은 강신무만이 할 수 있는 굿으로 과거에 대동굿을 할시 굿의 규모나 형편에 따라 쌀가마니 위에 여러개의 작도를 놓고 타던 것이 현재는 계단형태로 발전하여 맨 상단을 일월이라 하며 12달을 의미하는 작도이므로 하나씩 나누며는 24절기가 된다고 한다.

### (14) 창부거리

판소리의 본고장인 전라도 남원이 본이라 한다. 옛날에 선보름은 여자, 후보름은 남자가 되는 기구한 자가 궁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인물은 미색이나 별스러운 신체구조 때문에 죽음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소원이 있다하여 "네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쌍줄, 외줄을 매주면 춤을 추겠다"

하여 줄타기로 죽음을 면하였고 그로인해 광대가 생겼으며 광대놀이로써 일년 열두달 홍수를 막고 삼재발란, 우환질고 등을 막아준다.

### (15) 무감, 뒷풀이, 뒷전거리

굿청에 모신 신령님을 배송하고 주민은 무감을 서며 울고 웃고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간다.

뒷전시 특이한 점은 지신밟기, 맹인타령, 영산풀이, 수비치기 등 다양한 거리로 구성이 되어있다.

## 4. 특성

할미성대동굿은 현재 포곡면 마성 톨게이트지점 터어키참전비 자리가 서낭당 자리이며 마을은 에버랜드(구자연농원)내에 있던고로 영동고속도로와 에버랜드(구자연농원)가 생기며 마을과 당이 자연스레 사라지고 파괴된 것이다.

용인지역의 고유한 굿으로 포곡과 구성을 경계로 하여 다른지방과 달리 당제, 산제시 풍물이 동원되고 규모 또한 큰것이 대동굿놀이 형태를 갖추었다. 해안지방의 대동굿은 규모도 크고 잘 알려져 있으나 경기 내륙지방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굿이 용인의 할미성 대동굿이다.

또한 굿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열두거리인데 비해 할미성 대동굿은 스물네거리 모두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는 당제이다. 타지역의 당제는 서낭목이나 할미성 대동굿은 주저리, 돌무지, 서낭목 등 종합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경기제가 갖고 있는 화려함과 진설제물도 풍족하며 춤사위는 소당, 육당, 중당, 평당 감고 풀고의 다채로운 춤사위를 볼 수 있으며 무복자의 사설은 주로 명령조이며 위협적인 강신무가 원형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가락은 상산가락(반염불), 도두리가락(평가락), 별성장단(타령), 허튼가락(막장단), 노래가락등이 사용되며, 무구는 외재비를 사용하지 않고 장구, 해금, 피리, 대금을 사용한 삼재비를 동원하였다. 특히, 작도 굿에서는 열두계단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수영자(신도)의 명다리 수건을 들고 춤을 추며 수명장수, 부귀영화를 기원하고 주무가(무복자) 상단 작도를 매고 남은 소창을 끊어서 복수건, 명수건을 던져주어 그것을 받아서 품속에 품었다가 이불 속, 속옷, 베개에 소중히 간직하면 부적의 효험을 얻었다 한다.

## 5. 고증 및 지도 연출

- 고증 : 최종호 (한국민속촌 박물관장)
  박양금(무속인)
- 지도교사 : 노승식
- 출연
  - 무속인 : 유성관외 30명
  - 풍물 : 김문향외 60명
  - 주민 : 박소자 외 60명
  - 악사 : 양영근



# 파 주 시

- 술이홀 태평12지놀이
- 회다지 소리



# 여 백

민속놀이

# 술이홀 태평12지놀이

## 1. 전승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 2. 유래및 해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십이지간(十二支干)을 중히 여겨 왔으며 현재도 천간(天干)과 지간(地干)을 토대로 삼아 생명이 태어나면 그 해 지간으로 띠를 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십이지에 대한 유래나 고증은 문헌과 십이지 신상(神像)에서 볼 수 있다. 환인(桓人)시대에 십이지국을 두고 다스렸다는 기록 『환단고기(桓檀古記) 임승국 著』이 있어 이때부터 십이지란 것이 전승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물에 근거를 둔 십이지에 대한 고증으로 통일 신라 시대에 능묘의 호석(護石)에 조각된 십이지상과 경주의 왕능이나 괘등(掛燈), 김유신 장군묘 봉분(封墳)둘레에 있는 석제 십이지상



이 최초의 것으로 추정되며 국립 중앙박물관에 납석제(蠟石製)십이지상도 2점이 있다.

십이지상의 형태는 능묘(陵墓)의 면석(面石)이나 왕능, 탑 등에 평복 또는 무복(武服)을 입고 춤추는 모습으로 양각 또는 음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고려시대에는 입상과 좌상이 있으며 조선시대에도 거의 같은 양식이다. 호석뿐만아니라 현실(玄室)내부의 벽화(수호신 역할), 절에서 제작되는 불화(佛畵)나 민화(民畵)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십이지동물의 탈을 쓰고 가면무를 추는 형상으로 민화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증들은 우리 파주의 술이홀 태평십이지놀이와 많은 관련이 있으며 이와 직접 관련된 고증으로 고려사절요, 조선시대 태조실록, 파주군 진동면 서곡리 민통선 내에서 공개된 고려 고분의 십이지신상 벽화가 있다.

고려사절요권지 이십삼 충의왕(高麗史節要卷之二十三忠宜王)-신해(辛亥) 3년 이전

『제감악산(祭嶽山), 시속상귀 공경서(時俗尙鬼 公卿庶), 개친제감악산(皆親祭嶽山)… … 중략』

윗 글에서 현재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경기 5악(五嶽)중 하나인 감악산에서 제(祭)를 지냈다는 것과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감악산에서 호국백(護國伯)이라는 벼슬을 내려주고 산에서 제를 지냈으며 제사후에는 십이지신놀이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우리 고장 파주에서 발굴된 고려고분 벽화의 십이지신상은 인물입상(立像)머리위 두건에 그려져 있으며 이는 당시 우리 고장의 민속신앙 및 민속놀이에 있어 십이지신이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중요한 고증이다.

## 3. 구성 및 내용

- 하얀색의 한복을 입고 계란처럼 타원형으로 된 하얀 탈을 쓴 한 사람이 나와 조물주(창조주)가 우아하며 자연스럽게 세상을 두루 살펴보며 하늘, 땅 및 사람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는 동작을 탈춤으로 품위있고 엄숙하게 추고 사라진다.

  (음악-조용하고 엄숙한 장단)
- 청색 한복을 입고 탈을 쓴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과 빨강색 한복을

입고 탈을 쓴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이 고전무용을 하며 나타나

· 견우와 직녀가 처음 만나는 장면
· 서로 사랑을 구애하고 화합하는 장면
·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장면(남자-농사와 사냥, 여자-아기 돌보기)을 보여주고 춤을 추며 나간다.
(음악 - 춘향전 '사랑가')

• 각각 십이지 동물의 탈을 쓰고 빠른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춘다. 서로 잘났다고 으시대며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어우러진다. 신호인 느린 가락이 나오면 상극인 동물끼리 다투다가 편을 갈라 조직적으로 싸움을 한다.
(음악 - 약간 빠른 장단)




• 이때 천둥 번개와 함께 삼신(三神)이 나타나서 십이지 동물에게 호통을 친다. 놀라 자빠지며 달아나는 동물들을 대화로써 교화하여 다스리고, 화합하는 대열로 질서있게 정리한다.
(음악 - 징과 북으로 천둥 번개 표현)

• 십이지 동물 모두가 하늘에 삼배(三拜)씩 세번 절(九拜)하며 삼신(三神)에게 충성을 약속하고 동물들끼리 서로 악수한 다음 공존하는 모습의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간다. 손에 손잡고 시계 방향으로 고리환을 그리며 산실을 걸어가듯 구불구불 퇴장한다.

### (1) 등장인물

(가) 삼신(三神)

◦ 바람 - 빨강색의 장군복을 입고 파초선의 부채를 흔들며 풍백의 위엄으로 탈춤을 춘다.
◦ 비 - 파랑색의 장군복을 입고 번개표시나 삼지창을 들고 우사의 위엄으로 탈춤을 춘다.
◦ 구름 - 황색의 복장과 도사 지팡이를 들고 도사의 위엄으로 탈춤을 춘다.

(나) 십이지 동물

| 동물 | 몸집 | 인원수 | 복장색 | 동작의 특징 |
|---|---|---|---|---|
| 쥐 | 작은 | 1 | 회색 | 두손을 턱밑에서 앞으로 향하고 좌우로 두리번거리며 종종걸음 한다. |
| 소 | 큰 | 2 | 황색 | 어슬렁 어슬렁 느린 동작으로 걸으며 가끔 시선을 한 곳에 멈춘다. |
| 호랑이 | 큰 | 2 | 줄무늬 | 크고 힘있는 동작으로 걷거나 뛰고 갑자기 휙 돌아보거나 할퀸다. |
| 토끼 | 작은 | 여자1 | 흰색 | 무엇인가 계속 먹으며 두리번거리고 토끼뜀으로 뛰다가 멈추어 먹곤한다. |
| 용 | 큰 | 3~5 | 홍색 | 앞-두 팔을 벌려 머리위로 어깨로 움직이며 몸은 구불구불 움직인다. |
| 뱀 | 작은 | 2 | 뱀무늬 | 살살 기어다니며 몸을 꼬거나 구불거리며 움직인다. |
| 말 | 보통 | 1 | 갈색 | 앞발을 높이 쳐들고 번갈아 흔들며 고개를 위 아래 좌우로 흔들고 경중거린다. |
| 양 | 보통 | 1 | 흰색 | 폭이 작으며 느리게 움직이고 가끔 머리로 받거나 뛰기도 한다. |
| 원숭이 | 보통 | 1 | 검정색 | 얼굴과 겨드랑이 등 몸을 긁으며 손뼉을 치거나 제자리 뛰기를 한다. |
| 닭 | 작은 | 1 | 흰색 | 발로 땅을 긁고 두팔 벌려 엉덩이를 치며 푸드덕거리는 동작 |
| 개 | 보통 | 1 | 황색 | 바닥에 엎드리거나 편히 모로 눕고 코로 냄새 맡으며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
| 돼지 | 보통 | 1 | 검정색 |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며 바닥에 코를 대고 빙글빙글 바삐 돌아다닌다. |

(다) 상극이 되는 동물

| | |
|---|---|
| 쥐 ⇔ 뱀 | 소 ⇔ 말 |
| 호랑이 ⇔ 용 | 원숭이 ⇔ 개 |
| 토끼 ⇔ 닭 | 양 ⇔ 돼지 |

### (2) 줄거리

수억만년 천지개벽 일월성신중 우주간에 산수로 뭉친 땅덩어리가 있어 음양으로 오행이 윤전 만물이 풍화작용을 일으켜 소생하고 있으니 이는 곳 천지조화이리라. 이러한 가운데 각종 동물과 조류, 어류, 초목이 번성하고 멸망 또는 신생하는 등 세월의 변천에 따라 죽음과 삶의 즐거움과 슬픔이 서로 엇갈리어 다투며 서로 잡아 먹고 먹히며 하나의 생명체를 유지하는 것이 천리인 것이다.

이세상은 나 혼자는 못사는 법 이웃끼리 상부상조로 슬기롭게 삶을 찾으라,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 흥겹게 춤추며 살다가 슬픔을 안고 억울하게 잡혀 제명도 못살고 죽으며 사라지는 애처롭고 처절한 현실인 것이다.

요순시절 성리학자는 10간 십이지를 만들어 흘러가는 세월을 상징케 하였으며 육십갑자를 저술하여 인생의 운명을 점치게 하고 전후를 알리는 역학을 교시한 것이다.

**• 子(자) : 쥐모양(악기 : 태징)**

아-신난다. 얼씨구 좋다. 이 세상에 나같이 의식주에 걱정이 없는 팔자도 없도다. 세상 사람들은 쥐띠 가진 사람만을 최고라고 하며 나만 찾지 않는가. 아- 기쁘도다. 그런데 얄미운 고양이가 보기싫어. 또, 사람들도 좋아하면서도 박대하다니 아-"찍찍쭉쭉" (슬피운다)

(도사) 이놈아 너는 사람들이 피땀흘려 거둔 곡식을 마구 먹어 1년에 수십만섬을 탕진하지? 안그러냐? 정신 좀 차려 너의 노력으로 살도록 하고, 새끼들은 왜 많이 낳느냐? 가족 계획을 빨리 하도록 하여라 알았느냐? 어여쁜 쥐새끼 같은 놈! "예-찍쭉쭉"

**• 丑(축) : 소모양(악기 : 깡깡이)**

"어-맹"내가 인간의 조상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무서울게 없도

다. 먹을것도 많아 이리저리 덩실덩실 춤추며 자고먹고 마음대로 뛰고 놀지 않는가. 이 세상 나같은 운명도 없도다. 그런데 손자 새끼들아 나를 괴롭히고 죽을 나이도 못되서 마구잡아 맛이 있다고 먹으니 한탄이 저절로, 한숨만 푹푹(눈물흘리며)-"맹-잉"

(도사) 아 슬프도다. 너는 전세에서 죄를 많이 짓고 이 세상에 나왔느니라. 너는 인내심이 가장 강하니 꾹 참고 지내도록 하여라. 또한 우황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지? 이것이 후세에 지름길이니라 알았느냐? 어 ~ 맹

**• 寅(인) : 호랑이 모양 (악기 : 긴장죽)**

나는 산중의 호걸 용맹의 왕자 아-기쁘도다. 온 세상의 모든 동물이 나를 우러러 보고 숭배하지 않는가. 마음대로 이산 저산을 건너 뛰며 아름다운 금수강산 기묘한 봉우리와 폭포 수목이 우거진 벼랑 아-참말로 절경이로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 부러울 것이 없도다. 그러나 자손들이 번창하지 않아 큰 걱정이며 앞으로 멸종할까봐 밤낮으로 근심이 태산 같도다.

(도사) 너는 내가 책임을 지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밤 다닐적에 훤하게 밝혀주어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말고 이 세상에 너의 가죽이 제일이니 아무쪼록 너의 가죽을 소중히 여기어라. 알겠느냐?

"어-흥 어-흥"

**• 卯(묘) : 산토끼 모양(악기 : 목탁)**

산토끼 노래 동요는 전국적으로 확산 아동들의 흥미를 느끼게 하였으니 나를 무척 사랑스럽고 귀여웁게 생각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어 기쁨을 한아름 안고 있는 듯하다. 참으로 즐겁도다. 청춘남녀들은 토끼띠다 하면 사죽을 못쓰고 좋아하지 않는가. 그러나 나의 수명이 다만 짧은것이 한이로다.

(도사) 너의 운명은 조물주가 만들어 놓았으니 어찌하겠느냐. 그대신 자식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한평생 아름답고 깨끗하게 살다가는 것이 얼마나 가상한 일이냐. 아무쪼록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랑 받고 멋있게 살거라. "욱 - 욱 - 욱"

• 辰(진) : 용모양 (입으로 연기를 뿜음)

이 땅에 제일 높은 용상 왕이 아닌가, 세상만사 나의 마음대로 죽일수도 있고 살릴수도 있는 어머어머한 권한이 주루룩 참말로 삼천갑자 동방석이로다. 이 세상에 친구는 바다왕 거북, 하늘왕 백조, 땅에는 나뿐인가 하노라. 그러나 너무나 쓸쓸하도다. "삐-삐-삐"

(도사) 너는 만물들에게 골고루 적당하게 비를 주어 잘 자라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가지고도 주책없이 폭우로 못살게 하는가 하면 가물어서 타죽게 하니 그런 처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네가 죄를 받는 것이니 정신 좀 차려 적절히 연구분석해서 안배하도록 하여라 알았느냐? "삐-삐-삐"

• 巳(사) : 뱀모양 (악기 : 피리)

1년은 365일 동기간 하나도 먹지 않고 수면이 1/3, 굴속에서 1/3, 사회활동이 1/3 짧은 세월이지만 세상만사 부러울게 무엇인가. 이산저산 또는 나무꼭대기와 뜰, 물위를 자유롭게 춤을 추며 다녀도 두려울게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한테 보약이 된다고 해서 무참히 잡아 먹혀 멸종이 되다시피 하니 겁만나고 한스럽고 눈물만 나오는구나.

"삐-(낼름), 삐-(낼름)"

(도사) 눈물을 거두어라 앞으로는 그렇게 마구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였으며 보호할 것이니 사람이 너를 짓밟아도 물지 말아라 알았느냐? "삐-삐"

• 午(오) : 말모양 (악기 : 호적)

경둥경둥 신난다고 경둥경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잘못했어요. 끄덕끄덕 절만하고 다니니까 세상에 누구하고도 원수질 것은 하나도 없도다. 천리마다 용마다하여 나를 어여삐 사랑하고 귀엽게들 알아주니 기쁘기 한량 없구나. 참으로 내가 이세상 제일 행복하도다. 그러나 다들 누워서 뒹굴며 자고 놀고 하는데 유독 나만 서서 놀고 자는지 또한 사람들은 말띠를 싫어하지 않는가? 이것 참 짜증이 죽끓듯 하네 아-참

"에힛두루루-에 에힝"

(도사) 너는 이 세상 제일가는 소중한 몸 청결을 갖게 하였느니라. 그

래서 더러운데 앉지말고 드러눕지 않도록 특별히 너만을 택하였으니 다리가 좀 아파도 참고 너의 몸을 더욱 더욱 깨끗하게 보존토록 하여라. 말띠가 나쁘다고 하는 소리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니 걱정말고 너의 고상한 기풍과 늠름하며 청렴결백하고 쾌활한 마음씨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거라 알았느냐? "예 ~ 에힝"

**• 未(미) : 양모양 (악기 : 복구)**

나는 일상 좋기만 하군 어허-"엥, 에헹" 그래서 나를 다들 양반이 다하여 양, 양하는 모양이로다. 아무렴 그렇구 말구 언제나 즐겁고 기쁘도다. 그리고 나는 먹는것도 아무거나 못먹는 것 없이 맛있게 먹지 않는가 참으로 희귀한 동물로 나를 누가 만들었는지, 또한 나의 젖은 만병통치약이 되며 나의 털은 폭신폭신한 감촉이 깃들인 최고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이리가라 저리가라 끌려만 다녀야하니 마음이 너무 약하여 남이 괴로운 것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 죽을 지경이니 말이다. 그래서 늘 걱정이 태산이라 한숨만 푹푹- "에-멩, 에-멩"

(도사) 너의 인자하고도 숭고한 마음씨 깊이 찬양하노라. 너는 천성이 그러하니 누구를 탓하리 아무쪼록 성심성의를 다하여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하면 극락으로 갱생하리다. 알았느냐?

**• 申(신) : 원숭이 모양 (악기 : 장구)**

나는 재주꾼 익살망태기, 이나무 저나무 오르내리며 뛰어 가는데 귀신, 남의 흉내 잘내고 싹싹한 마음과 의리가 좋은 갸륵한 성격, 또한 의식주에는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도다. 모두 나를 귀여워 하여 사랑을 받고, 나의 재롱에는 다들 정신이 혼비백산 되고 깜짝 놀라는 동물이 수천, 참으로 신이 나도다. 한 세상을 장기와 재롱으로 즐기며 웃고 웃으며 살아가는 동물도 없으리라. 그러나 병들고 나약하여 죽을때는 눈물이 글썽글썽 꾀-"꾀 끼-끼"

(도사) 너는 무엇이 슬프다고 하는고? 이 세상 너같은 팔자도 없지 않느냐. 한세상 태어나 웃고 즐기다가 한명에 사라지는것 이것은 오직 천륜이요, 진리인 것이다. 이 세상엔 굶주리며 잡아 먹고 잡아 먹히어 쓸쓸히 사라지는 것 허다하지 않느냐 너는 정말 호의 호식 호강

으로 지낸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알았느냐?

**• 酉(유) : 닭모양(악기 : 북)**

잠꾸러기 게으름뱅이 온천지가 밝아오도다.
여러 중생 만물이여 눈을 비벼 활짝 눈을 뜨라. 꼭곡고 꼬겨-꼬, 나는 일상 시간을 맞춰 알리어 자고 일하는 것 전부 보살피며 분주한 세월을 보내니 남을 위해 태어난 모양이다. 그러나 내 목소리가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다우냐고 야단법석하며 박수갈채. 참으로 기묘한 세상에 태어나 죽도록 남을 위해 봉사하건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잡놈들이 많이 있어 밤낮 마음이 조마조마-꼬꾸댁 꼬꾸댁
(도사) 참으로 나역시 안타까운 심정 금할바 없도다. 너는 남을 위해 조물주가 만들었으니 어찌하랴, 그러나 일생동안 어여삐 사랑하고 귀엽게 여기니 만족으로 생각하라 알았느냐?
눈물 흘리며-"꼬꾸댁 꼬꼬"

**• 戌(술) : 개모양(악기 : 꽹과리)**

꼬리 흔들며 반갑다고 멍멍멍, 기쁘다고 멍멍
모두들 나를 영리하다고 칭송이 자자, 이리뛰고 저리뛰고 한세상 호화롭게 지내다보니 날더러 팔자가 늘어졌다고들 하지 않는가. 나를 아무데다 갖다 놓아도 오줌냄새로 바로 찾아 올 수 있고 도둑을 알아보며, 귀신을 볼 수 있어 쫓아버리니 아마도 내가 천재인것 같다. 사람들은 나를 귀엽다고 칭찬하고, 예쁘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학대를 한다. 또한 호랑이는 나만 보면 신났다고 사족을 못쓰니 마음이 조마조마 하다. 한숨쉬고 눈물 흘리며-"멍멍멍"
(도사) 그동안 네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여 미안하다. 일부 몰상식한 녀석들이 보신이 된다고 하여 괴롭힌 것이니 너무 비열한 짓이라고 야단법석을 떨지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네가 죽으면 극진히 산소를 써 주겠다하니 안심하여도 좋을 줄 안다. 또한 호랑이는 멸종되다 시피되어 더욱 찾아볼 수 없으니 마음 든든히 가져라.

**• 亥(해) : 돼지모양(악기:제금)**

나는 업혀가는 돼지 눈깔이라고 하니 무척이나 유순하고 무던한 성격

인것 같다. 밥 달라고 꿀꿀, 배고프다고 꿀꿀, 배 부르다고 꿀꿀꿀. 하인들이 밥심부름 하느라 나를 위해 무척 애쓰지 않는가. 배 부르면 "씩씩" 밤이나 낮이나 잠이나 자고 걱정 근심없이 태평한 세월을 보내니 참으로 팔자는 최고인 모양이다. 그러나 내가 좁은 우리 안에서 뛰고 노니 갑갑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나를 밖으로 나가 신나게 뛰고 놀도록 하여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제명도 안되서 잡아 먹으니 인정머리가 없는 것이 사람들. 좀 아량을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다.

"꿀꿀꿀"

**• 도사 도사탈**

(도사) 너 같이 팔자 좋은 녀석을 밖에다 풀어 놓으면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땀흘려 가꾸어 놓은 곡식을 마구 짓밟으니 할 수 없지 않느냐 앞으로는 너를 조금 더 오래살도록 노력할 것이니 너무 걱정말아라.

◦ 긴 지팡이를 짚고 연막속에서 나타난 선인이 지도

◦ 십이지 일렬로 내빈에게 큰절하고 연기 시작

◦ 각기 자기 자랑을 하며 원망을 털어 놓는다. 지도자는 이를 칭찬하고 꾸짖으며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상부상조 봉사하는 마음을 일깨워 단결로서 예절에 기풍을 진작 시킨다.

### (3) 술이홀 태평십이지놀이 대본

등장인물

• 조물주

• 십이지동물 :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 피창조물 : 하늘, 땅, 사람, 나무, 꽃, 나비, 물고기, 강아지, 등

• 삼신 : 바람 신, 구름 신, 비 신

• 견우, 직녀, 아들, 딸

**《첫째 마당》**

원형의 놀이 마당을 중심으로 관객들이 빙 둘러 앉아있고 맨 앞줄에 징, 장구, 북, 꽹과리를 치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 관객들 사이에 등장 인물의 모습이 보인다.

징소리가 크게 한 번 울리고 여음이 점차 사라진다. 이어 북소리가 세



번 울리고 징의 잔결 소리가 계속 울리는 가운데 조물주가 나타난다.

조물주 : (천천히 걸어 나와 마당을 한바퀴 돌고 마당 가운데 선다.)

◦ 징의 잔결 소리 멈춘다.

조물주 : (위, 아래, 사방을 한참씩 둘러 보고 나서 두팔을 앞으로 크게 휘돌리며 제자리에서 돈다.)

◦ 북의 잔결 소리 점점 커졌다 작아진다.

피창조물들 : (마당으로 재빨리 나와 조물주 둘레에 머리 숙여 앉는다.)

◦ 꽹과리 잔결 소리 점점 빨라졌다가 점차 사라진다.

조물주 : (기(氣)를 모으듯이 두팔을 벌렸다 모으고 나서 지팡이로 피창조물들을 하나씩 건드린다.)

피창조물들 : (차례 대로 일어나 제자리에서 특색있게 몸을 움직인다.)

◦ 사물의 특징이나 움직임을 표현한다.

만물이 창조되면 장단에 맞추어 각자 느린 동작으로 춤을 춘다. 장단이 바뀌면 함께 어울려 신나게 춤추다가 조물주를 따라 퇴장한다.

◦ 굿거리 장단을 치거나 녹음 자료 사용. (세마치 장단)

### 《둘째 마당》

조물주와 피조물들이 퇴장하여 놀이 마당이 정리되면 둘째 마당을 알리는 징소리가 크게 한번 울리며 견우와 직녀가 등장한다.



◦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 민요 '사랑가'가 흐른다.

◦ '사랑가' 멈춘다.

◦ '풍년가' 등 흥겨운 장단

견우 · 직녀 : (오른쪽에서 견우, 직녀가 나와 시계 방향으로 마당을 한바퀴 돌며 두리번 거리다가 서로 발견하고 우뚝 선다.)

견우 : (춤추듯이 직녀 주위를 두바퀴 돈다음 가까이 다가간다.)

직녀 : (부끄러운듯 몸을 약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난다.)

견우 : (다시 직녀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손을 내밀며 다가간다.)

직녀 : (다시 뒤로 물러난다.)

견우 : (실망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돌아선다.)

직녀 : (안타까운 모습으로 두어 걸음 가다가 견우에게 손을 내민다.)

견우 : (뒤를 돌아 보고 반갑게 다가가 두손을 마주잡고 천천히 돈다.)

견우 · 직녀 : (마주 보며 각자 덩실덩실 춤을 춘다.)

흥겨운 장단이 흐르면 견우와 직녀가 활, 괭이, 반짓고리, 빗 등을 가져다 놓는다. 아들과 딸이 등장하여 마당 한쪽에 앉아 놀고 있다.

견우 : (활을 들고 사냥하는 시늉을 하다가 괭이로 땅파는 시늉을 한다.)

직녀 : (바느질 하는 시늉을 하다가 아이들의 머리를 빗기고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시늉을 한다.)

장단이 바뀌면 온가족이 둘러 앉아 즐겁게 식사하는 시늉을 하다가 모두 일어나 즐겁게 춤추며 한바퀴 돌아 퇴장한다.

**《세째 마당》**



견우와 직녀 아들, 딸이 퇴장하고 마당이 정리되면 셋째마당을 알리는 징소리가 크게 한번 울린다. 십이지 동물차례로 등장한다.

◦ 쥐, 소, … …, 돼지 순으로 나온다.

십이지 동물 : (각자 특색있는 동작으로 걷다가 뛰어나온다.)

◦ 빠른 장단

(특징에 맞게 춤을 춘다.)

◦ 느린 장단

(서로 몸을 부딪고 으르렁대며)

(상극끼리 싸운다.)

(양편으로 나뉘어 집단으로 싸운다.)

◦ 빠른 장단

### 《넷째 마당》



빠른 장단의 음악이 그치고 천둥 번개와 함께 연막이 피어 오르면 바람 · 구름 · 비 신이 나타난다.

◦ 징과 북으로 효과

편을 갈라 다투던 십이지 동물들 깜짝 놀라 달아나 놀이마당 둘레에 몸을 숨긴다.

◦ 관객 사이로 들어간다.

구름신 : (손을 내저어 음악을 멈춘후) 모두들 가까이 오도록 하라.(십이지 동물들 삼신 둘레에 선다.)

구름신 : 요즈음 나라안이 '농산물 개방'으로 어지러운 이때 인간들과 더불어 서로 돕고 슬기롭게 살라고 하였거늘 어찌하여 싸움질만 하고 있느냐?

◦ ' ' 안은 시대 사정에 맞게 조정

바람신 :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 십이지 동물을 가리키며)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모양인데 어디 한번 들어 보자꾸나.

(관객들을 둘러보며) 우선 여기 모인 내빈 여러분께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여라.

◦ 관객들을 천천히 가리킨다.

(십이지 동물들 큰 절을 올리고 나서 걸어나가 마당을 향해 앉는다.)

◦ 징, 북, 꽹과리 난타

빠른 장단의 음악이 나오면 제일 먼저 쥐가 등장하여 음악에 맞추어 한바탕 춤을 춘다.

쥐 : 아-신난다. 이 세상에 나같이 팔자 좋은 사람(입을 가리며) 아니 동물이 또 있을까? 의식주 걱정없고 자손많아 다복하고, 미국으로 이민간 내친구 미키 마우스는 세계인들의 귀염둥이가 되었다지 뭡니까?

(갑자기 슬퍼져 훌쩍거리며) 그런데 얄미운 고양이들 때문에…… 또 인간들은 다람쥐는 좋아하면서도 왜 우리는 박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찍찍 쭉쭉.

◦ 고양이를 흘낏 노려본다.

◦ 서글피 운다.

비신 : (삼지창을 들었다 놓으며) 예끼 이놈아! 너는 사람들이 피땀 흘려 거둔 곡식을 일년에도 수십만섬씩 거져 먹지 않느냐? 앞으로는 너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살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그리고 가족계획을 잘하여 인간처럼 주택문제, 식량문제, 교통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라.

음-귀여운 것.

쥐 : 예. 찍찍.(쥐가 인사를 하고 물러 가면, 소가 의기 양양하게 마당을 한바퀴 돌며 느린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 관객을 향해 동조를 구한다.

소 : 여러분! 체격 좋고 말수 적으며 열심히 일하는 제모습 정말 믿음직 하지요?

이런 성품때문에 인디아에 사는 내 친구는 신처럼 존경받고 있어요. 물론 저도 사람들이 잘 보살펴 주고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어서 여러 동물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우울해지며) 하지만, 장난심한 아이들이 막대기로 나를 괴롭히고 죽을 나이도 안되었는데 마구 잡아먹으니 한숨이 절로 나온답니다.

(음매)

◦ 크게 한숨지으며 하늘을 쳐다 본다.

구름신 : 아 슬프도다. 너는 전세에서 죄를 많이 짓고 이 세상에 나왔느니라. 그래서 힘들여 일을 해야 하고 너의 몸을 모두 인간에게 바쳐야 하느니라. 그러나 너는 인내심이 강하니 꾹 참고 지내면 후세에 큰 복을 받을 것이니라.

소 :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간다.)

호랑이 등장하여 마당을 돌며 한바탕 느린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 크고 힘있는 동작으로 춤춘다.

호랑이 : 어흥 - 나는 산중의 호걸, 용맹의 왕자 호랑이다.
(경중경중 뛰어다니다 이마에 손을 올려 사방을 둘러본다.)
아, 참으로 경치가 좋구나. 기묘한 저 봉우리며 폭포와 나무들, 마음대로 금수 강산을 돌아 다닐 수 있느니 어찌 나를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깊은 탄식을 하며) 그러나, 자손들이 번창하지 않아 동물원에나 가야 우리를 볼 수 있으니 앞으로 멸종될까봐 큰 걱정이구나. 어 흥 -

바람신 : 너는 내가 책임지리라. 너는 이 나라의 기상을 상징하노니 내 어찌 돌보지 않겠느냐?
아무 걱정말고 네 몸과 자식들을 소중히 여기거라. 알겠느냐?

호랑이 : (고맙다는 듯 절을 하며) 어흥, 어흥 -

호랑이 물러가고 토끼가 경쾌한 걸음으로 뛰어 들어온다.

토끼 :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순이예요. 저를 항상 귀여워 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제 주제가 다 아시죠? 같이 불러 볼까요? ◦ 귀엽게 인사한다.
◦ 관객의 동조를 구하며 시작을 알려 준다.

관객들 손뼉을 치며 '산토끼' 노래를 합창하고 토끼는 흥겹게 춤을 춘다.

토끼 : (삼신을 쳐다보며)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데 왜 거북처럼 오래 살지 못하나요? ◦ 매우 불만스럽게 묻는다.

구름신 : 너의 운명은 조물주가 만들어 놓았으니 어찌 하겠느냐?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 대신 귀엽고 예쁜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지 않느냐? 한평생 아름답고 깨끗하게 살다 간다면 몇 년이면 어떻겠느냐?
아무쪼록 살아있는 동안 사랑받고 멋있게 살거라.

토끼 :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예.

토끼가 제자리로 깡총깡총 뛰어 들어가면 용이 연막을 피우며 천 ◦ 입에 미숫가루를 머

금었다 뽐는다.

천히 나온다.

◦ 두팔을 벌려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가며 말한다.

용 : (느린 장단에 맞추어 마당을 돌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용상 왕이올시다. 세상의 만물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주먹을 움켜 쥐어 올리며) 이 손 안에 있으니 나야말로(엄지손가락을 내 보이며) 최고가 아니겠소?

(멈추어 삼신을 향해 앉는다.)

◦ 힘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내겐 친구가 없어서 늘 쓸쓸하고 외롭다구요. 바다왕 거북, 하늘왕 백조가 있긴 하지만, 땅에는……(한숨을 내쉰다.)

◦ 매우 분노한 목소리로 호통친다.

비신 : (삼지창으로 용을 가리키며) 너는 만물에게 비를 나누어 주어 잘 자라도록 할 책임이 있거늘 일을 잘못하여 폭우로 못 살게 하고 가물어서 타 죽게 하였느니라.

네게 친구가 없는 것은 그 죄를 받는 것이니 앞으로는 정신 차려 연구해서 비를 적당히 나누어 주도록 하라. 그러면 만물이 모두 네 친구가 될 것이니라. 알겠느냐?

◦ '네-' 하고 대답해도 좋다.

용이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물러나면 뱀이 등장하여 빠른 장단에 맞춰 마당을 돌며 한바탕 춤을 춘다.

◦ 손수건이나 팔소매로

뱀 : (땀을 닦으며) 어휴! 덥다. 이산 저산 나뭇가지와 바위, 물위를 자유롭게 춤추며 다닐 수 있는 뱀이어요. 부럽지요?

◦ 자랑하듯 말한다.

내 일년 생활을 들어 보면 더욱 부러울 걸요? 365일 중 1/3은 먹지 않고 잠만 자고 또 1/3은 따뜻한 굴 속에서 휴식, 나머지 1/3은 사회 활동인데 이것도 대자연을 탐험하는 거지요.

◦ 무거운 표정

하지만 요즈음은 외출하기가 겁나요.(눈물을 흘리며) 내가 사람들한테 보약이 된다고 마구 잡아먹으니, 한스럽고 눈물만 나오지 뭐예요.

◦ 더욱 슬피울며

(혀를 낼름거린다.)

◦ 파초선을 위아래로 흔들며

바람신 : 눈물을 거두어라. 인간들이 보신에 눈이 어두워 너희들을 괴롭혀 왔으나 앞으로는 잘 보호하도록 할 것이니 혹시 실수로 너를 밟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뱀이 삼신께 인사를 하고 몸을 구불 거리며 퇴장하면 말이 경둥경

둥 뛰어나와 빠른 장단에 맞추어 마당을 돌며 한바탕 춤을 춘다.

말 : (관객을 향해 연신 고개를 끄덕여 절을하고)
여러분! 제가 너무 이리 저리 뛰어 다녀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천리마니 용마니 하면서 저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시니 기뻐서 그래요. 아마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거예요. 히히히 힝(삼신을 바라보며) 그런데 삼신님, 모두들 누워서 자고 놀고 하는데 왜 저만 서서 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띠를 싫어해서 화가 많이 나요. 뭐, 말띠 아가씨와는 결혼도 하지 말라던가요.(뒷발을 차며) 에힛 두루루룩

◦ 퉁명스럽게 불평한다.

구름신 : 너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소중한 몸을 갖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더러운데 앉거나 눕지 못하도록 한 것이니 다리가 좀 아파도 참고 너의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여라.
그리고 말띠가 나쁘다고 하는 소리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의 늠름한 모습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 부드럽게 타이른다.

말 : (고개를 끄덕이며) 예이-힝

말이 퇴장하면 이어서 양이 등장하는데 느린 장단에 맞춰 천천히 마당을 돌며 춤을 춘다.

양 : (꾸벅 절하고)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한 양입니다. 먹성 좋고 튼튼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여워 해 준답니다. 게다가(뿔을 가리키며) 내 뿔은 만병 통치약이고(털을 쓰다듬으며) 푹신푹신한 감촉의 털은 최고의 옷감 원료 아니겠어요? 제 가죽 또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 저야말로 얼마나 가치있는 동물입니까?
(한숨을 쉬며) 그러나 저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끌려 다녀야 하고, 마음이 너무 약해 괴로운 것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서 늘 걱정이랍니다.

◦ 푹신푹신한 감촉을 손짓으로 표현한다.

비신 : 너의 인자하고도 착한 마음씨 참으로 갸륵하구나. 너의 타고난 성품이 그러니 누구를 탓하겠느냐? 아무쪼록 성심성의껏 자비를 베풀면 극락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로다.

양 : (절을 하며) 고맙습니다. 삼신님. 매애 -

양이 물러나고 원숭이 등장한다. 두 발로 뛰며 손뼉을 치거나 얼굴을 긁기도 한다. 빠른 장단에 맞춰 한바탕 춤을 춘다.

원숭이 : (관객을 향해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 원숭이처럼 익살스럽게 큰절을 한다.
◦ 쇼 프로의 사회자처럼 소개한다.

동물 최고의 재주꾼. 남의 흉내 잘 내는 익살 망태기. 싹싹한 마음에 의리까지 갖춘 원숭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걱정 없고 잡아 먹힐 염려 또한 없으니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 세상을 장기와 재롱으로 즐기며 웃음 속에 살아가는 동물이 저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하늘을 쳐다보다 고개를 떨구고) 이 좋은 세상에서 병들고 힘이 빠져 죽을 생각을 하니…

◦ 소리내어 운다.

꾀 끼끼끼

◦ 호통친다.

바람신 : 너는 무엇이 슬프다고 하느냐? 한세상 태어나 웃고 즐기다가 제 명에 사라지는 것은 하늘의 뜻인 것이다. 저 소말리아나 이디오피아를 보아라. 이 세상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인간도 있고 저희들끼리 잡아 먹고 먹혀 사라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너는 더 이상의 호강을 바라지 말고 더욱 열심히 살도록 하여라.

◦ 겸연쩍어 쩔쩔매는 동작을 하며

원숭이 : 꾀 끼끼끼(삼신께 인사한다.)

원숭이 관객들 사이로 들어가면 닭이 엉덩이를 치며 푸득푸득 달려 나온다. 마당을 돌며 흥겨운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 새벽 닭 울 때처럼 우렁차게

닭 : (사방을 두리번 거린 후) 꼬끼오. 꼬끼오.

꼬꼬댁은 어쩌면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우냐구요?

(관객을 향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가다듬을 때도 제 알을 먹는다지요?

◦ 관객의 말을 들었다는 듯 쳐다보며

네? 제가 시간을 맞춰 알려드려 기특하다구요?

(머리를 저으며) 하지만 요즘은 너무 서글퍼져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데도 밤낮없이 나를 해치려고 닭장을 기웃거리는 못된 동물들이 많아 늘 마음이 조마조마 하답니다. 꼬꼬, 꼬꼬.

◦ 처량한 듯한 목소리

구름신 : (수염을 쓸어내리며) 음, 나 역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너는 조물주가 남을 위해 만들었으니

어찌하겠느냐? 일생 동안 너의 봉사와 희생으로 인간들이 흡족해하고 또한 너와 네 자식인 병아리를 사랑하고 귀엽게 여기고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닭 :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꼬꾸댁 꼬꼬.

닭이 퇴장하면 개가 뛰어 나와 빠른 장단에 맞추어 마당을 돌며 한바탕 춤을 춘다.

개 : (관객을 향해) 여러분, 여러 동물 중에서 저와 가장 친하지요? 모두들 저를 영리하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호화롭게 지내는 것 모두 조상님 덕으로 생각해요.

◦ 십이지동물을 주욱 가리키며

주인을 살린 '오수의 개' 하며 '플란더스의 개' 모두 유명하잖아요? 사람보다 만배나 되는 능력을 갖춘 귀, 이 예민한 코, 그리고 성실하게 복종하는 태도,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저를 칭찬하고 귀엽다고 하면서도 영양탕이다, 보신탕이다, 사철탕이다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가면서 너무 학대해요.

◦ 각 부위를 가리킴
◦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약간 숙이며

그리고 왜 저속한 말에는 꼭 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구요? 에이 참! 왜 있잖아요. 개판이니, 개망신, 개소리, 개죽음, 그런데 그 보다 심한 말들도 많단 말이예요. 멍멍!

◦ 말하기 싫은 듯 망설인다.
◦ 소리내어 운다.

바람신 : 그동안 마음 고생이 많았겠구나. 일부 인간들이 네 몸이 보신이 된다고 하여 괴롭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또한 너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잘 알고, 네 이름을 붙인 저속한 말들을 쓰지 않겠다 하니 안심하거라.

개 :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멍 멍 -

개가 퇴장하여 자리로 들어가면 돼지가 바삐 나와 마당을 돌며 장단에 맞춰 춤을 춘다.

돼지 : (배를 쓸며) 아이고 배고파!

먹을 것 좀 없나요?

이렇게 배가 뚱뚱한데 뭐가 그리 배고프냐구요?

◦ 관객들에게 손을 내밀기도 한다.

모르시는 말씀, 이건 나의 돈격입니다. 왜 있잖아요, 사람에겐 인격, 돼지에겐 돈격, 그동안 제 밥 심부름을 하시느라 애쓰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배 부르면 밤낮 잠이나 자고 걱정 근심은 단 한가지 먹느냐, 못 먹느냐 참 좋은 팔자 아

◦ 관객을 가리키고 자신을 가리킨다.

니겠어요?

(근심스런 표정으로) 하지만 인간들은 어린 돼지가 맛있다고 제 수명도 안되어서 잡아 먹으니 너무 슬퍼요.(훌쩍거리며) 꿀꿀, 꿀꿀

그리고 좁은 우리 안에서 뛰어 놀자니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비신 : 그래. 네가 팔자 좋은 줄은 아는 모양이구나.

그런 너를 밖에 풀어 놓으면 이리 저리 뛰어 다니며 땀 흘려 가꾼 곡식을 마구 짓밟을 테니 하는 수 없지 않느냐.(어깨를 도닥거리며.) 앞으로 너를 조금 더 오래 살도록 노력할 테니 너무 걱정말아라.

돼지 : (고개를 끄덕이며) 예. 삼신님.

돼지 꿀꿀거리며 퇴장한다.

### 《다섯째 마당》



삼신이 십이지 동물을 교화하고 놀이 마당이 정리되면 다섯째 마당을 알리는 징소리가 크게 한번 울린다. 조물주와 삼신이 가운데 서고 십이지동물들은 마당 한 쪽에 서 있는다.

비신 : 열두 동물은 모두 모이거라.

십이지동물 : (재빨리 걸어나와 삼신을 향해 선다.)

구름신 : (두 손으로 조물주를 가리키며) 너희를 창조하신 조물주께 삼배하라.

◦ 조물주 고개를 끄덕인다.

십이지동물 : (조물주를 향해 큰 절을 세 번하고 삼신을 향해 꿇어앉는다.)

바람신 : 만물의 운명은 조물주의 뜻이로다. 너희는 우리 삼신들의 가르침에 따라 오직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서로 도와가며 바르게 살아가겠느냐?

십이지동물 : (고개를 숙이며) 예-

십이지동물 : (모두 일어나 두 줄로 마주보고 서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두 손을 마주 잡는다. 상극인 동물끼리 만나면 서로 얼싸안고 등을 두드린다.)

동물들끼리 한 차례씩 악수를 하고 나면 등장 인물 모두 나와 탈을 벗고 관객과 어울려 신명나게 춤을 춘다.

◦ 대답과 함께 흥겨운 장단이 울린다.

◦ 반가운 표정과 몸짓

◦ 출연진 모두

## 4. 특색

이 십이지 놀이는 가지각색으로 동물의 탈을 쓰고 각자 기량을 발휘하여 흥겹게 춤추며, 조화를 이루어 왔다 갔다 엇갈려 돌며 주악에 맞추어 노는 마당놀이다. 또한 각기 놀이를 하는 가운데 도사의 말을 듣고 불안과 슬픔, 억울함과 한을 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순리대로 살기를 약속하며 관객과 호흡을 함께 하는 대동놀이다.

# 회다지 소리

## 1. 전승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 4리, 탄현면 금산리

## 2. 유래및 해설

경기도 파주 방면에 전승되고 있는 회방아소리는 그 다양하기가 전국에서 제일이다.

아직도 파주시내엔 마을마다 선소리꾼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고을에 선소리꾼이 여럿 있는 곳도 적지 않다. 70세전후의 어른도 계시고 30대의 젊은이들도 있다. 이들 젊은이들은 지금도 옛 장례풍속을 지키는 동네에 태어나 사는 동안 자연스러이 보고 듣고 익혀 선소리꾼으로서의 실력을 쌓은 것이니 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승계가 풍성히 이루어진 셈이다.




광탄면 용미4리 청년회는 분가하여 도시에 나가 살고있는 회원들이 다수지만 동리에 상이 나면 직장에 연가를 내고서라도 참석하여 상여를 메고 회방아를 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창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금산2리는 32가구중 농가가 29호이며 금산1리는 58가구정도 된다. 총 90가구중 48가구가 창녕 조씨이다.

고려시대엔 황해도에 거주하던 창녕조씨가 탄현면 대동리로 이주한 것이 17대조 때이며 다시 금산리로 들어온 것은 조선조 숙종때인 10대조(조원봉 ; 이조 참판을 지내셨음)부터이다.

금산리 주민들은 산신제를 격년으로 동짓달에 지내고 있으며, 용미4리에서는 진대굿을 음력 10월 3일에 해마다 지낸다.

금산리 사람들은 일제시대에도 마을 공연단을 조직하여 고양군에까지 가서 공연한 바가 있으며 예로부터 금산리에 가서는 소리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도 좋은 소리꾼들과 쇄납제작자 및 마을 농악단이 건재한다.

## 3. 특색 및 의의

(1) 회방아소리의 종류가 다양하다.

전국에서는 회다질 때 긴달고와 잦은달고를 부르는 것이 보통이며, 전남의 여러 지역에서 처럼 별로 회를 다지지않거나 발로만 몇걸음 밟는 정도라 회방아소리가 없거나 발달하지 못한 곳도 있다.

회다질 때 부르는 노래의 가지수가 많은 것은 경기도만의 특색이며 파주시는 그러한 특색의 중심지대에 속한다.

파주시에서 회방아때 부르는 노래에는 ① 긴달고, ② 잦은달고, ③ 방아 타령, ④ 회방아타령, ⑤ 에허리, ⑥ 넬넬넬 상사도야 및 ⑦우야훨훨이 있다.

③⑤⑥⑦은 논맬 때도 불리운다.

(2) 회방아타령 내지 방아타령과 에허리소리 및 우야훨훨은 경기도의 얼굴이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태어났고 주로 경기도에서만 일할 때 불렀던 것으로 수집된다. 파주시는 이들 노래전파의 중심권에 위치한다.

이들은 모두 멕받형식의 경쾌한 곡이며, 대개 무반음 온음계(Diatonic Scale)의 솔선법(솔라도레미) 또는 라선법(라도레미솔)에 속한다.

회방아타령의 메김소리는 논맬때의 방아타령(즉, 경기민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방아타령)과 같으며, 받음소리는 서로 다르다. 회방아타령의

받음소리가 전해오는 지역은 더욱 좁다.

금산리의 방아타령은 받음소리가 논맬때의 방아타령 받음소리와 같다. 추교전 창은 메김구의 앞부분에서 받음구의 전반인 "에헤이 오호야/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를 반복하는 점이 "엣다 좋구나"로 시작하는 논맬 때의 방아타령 메김구와 구별된다.

에허리소리는 서산나무꾼소리, 또는 먼산타령으로도 일컬어진다.

서산은 고양시에서 송추가는 길에 있는 양주군 장흥면 소재지 산으로 '서산 가마꿀' 하면 산이 깊고 소도둑이 많았던 곳으로 알려졌으며, 서산에는 내시들만 사는 마을이 있었다고 전한다.

받음구가 '에' '헤'와 같은 별로 뜻이 없는 입말로 구성되어 있고 메김소리와 받음소리가 각각 3분박4박 4마디씩이다. 메김소리의 전반은 받음소리의 전반을 반복한다.

우야훨훨은 새가 죽은이의 영혼을 저세상으로 인도한다는 사상에서 경기도 회방아의 맨 끝곡으로 불리운다. 메김소리와 받음소리가 각각 3분박 4박 1마디(즉, 8분의 6박 두마디)씩이다.

4박 1마디 중 첫 박은 달굿대를 두손으로 내리치고 제2박에선 왼손과 왼발을 밖으로 향하며 제3박에선 다시 두손으로 달굿대를 잡고 내리친다. 제4박에선 오른팔과 오른발을 밖으로 향한다. 매박의 소요시간은 1초 정도 된다. 긴달고를 제외한 위의 다른 곡들도 그러하다.

(3) 회를 다지더라도 ①광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평토에서만 다지는 형, ②봉분을 반쯤 쌓은 후에 달굿대 없이 한쪽 발을 치켜 올려 봉분에 대고 다지는 형, ③달굿대 없이 발로만 다지는 형, ④각자 달굿대를 들고 광안에 들어가는 형, ⑤각자 달굿대를 가지고 광안에 들어가나 시신을 담은 곽 위로는 달굿대만 허리굽히고 넣는 형 등으로 나누인다.

파주 방면은 일반적으로 ④에 속한다. 용미4리의 합장묘 달구질은 ⑤에 속했다. 세번 다질 경우는 두번까진 광안에서, 세번째는 평토에서 다진다.

회를 다질 때 3회, 5회, 7회 등 홀수번을 다짐은 전국 공통이다.

(4) 용미4리나 금산리의 평토다지기에서 죽은이의 사위를 달굿대사이에 다는 모습은 보기 드문 풍습이다.

용미4리에서는 호상일 때 선소리꾼의 요령뿐만 아니라 북, 장구, 바라, 호적잽이가 앞을 서서 행상(行喪)소리에 반주를 하며 회방아때에도 선소리꾼의 북리듬에 맞추어 북, 장구, 바라, 호적잽이가 이를 따르는데, 회다지면서 북 이외의 악기들을 동반하는 예는 글히 드물다.

(5) 의의 : 다양한 회방아소리는 경기도가 자랑스러이 국내 국외에 내세울 만한 무형의 문화유산인고로 시대가 변하더라도 회방아문화가 보존 전승될 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 상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겠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4. 구성 및 내용

### (1) 입장

"파주 회방아 평토 다지기"라고 쓴 대회기와 명정, 공포, 만장(2개) 뒤를 쇄납, 북, 장고, 바라수가 따르고 그 다음엔 요령을 흔드는 선소리꾼을 따라 회방아꾼들이 한발 세뼘 달굿대를 각자 들고 수건을 머리에 동여매거나 어깨에 걸치고 등장한다. 끝으로 대나무 지팡이 또는 버드나무지팡이를 짚은 상주 및 그 일행(고인의 며느리, 사위와 딸, 손자 등)과 동네친지 몇이 따른다.



※ 상여없이 달굿대만 들고 나감이 이런류의 작품출연에 참신한 인상을 줄 수 있음.

※※ 운동장에서 공연하는 것이라면 상여도 없이 나오니, 중앙에 도착하여 인사하기까지는 행상소리(어허 어헤)를 부르지 말고(중앙도착까지의 시간이 길어 좀 지루하게 느껴질때는 도중에 행상소리를 넣을 수 있음), 그냥 쇄납과 장고, 북, 바라, 요령에 맞추어 행진해 나오고, 무대공연이라면 행상 소리를 곁들인다.

**(2) 인사 후 묘소로 향함.**

인사후에는 달구꾼들이 상여매듯 달굿대를 어깨에 매고 행상소리(어허 어헤)를 부르며 묘소로 향한다. 요령에 맞추어 쇄납, 북, 장구, 바라를 울리면서 간다.

묘소가 가까워오면 소리는 더 잦아져서 반마디 행상소리(어허)로 바뀐다.

묘소에 도착하면 악대는 돈을 거는 새끼줄 반대편에 자리를 잡고 서서 연주를 계속하며 달구꾼들은 상여매듯 했던 달굿대를 어깨에서 내려 손에 잡으며 달구꾼들만 행상소리(어허 어헤)를 부르며 묘소 주변을 1회 돈다.

달구꾼들이 한바퀴 도는 동안, 상주는 청단 홍단 예물을 올리고 돈도 놓으며, 역군들은 가래질로 흙을 덮는다.

※ 반마디 행상소리에 대하여는 파주 문화원에서 제작한 '파주만가' 테잎 참조〈9②〉

※※ 돈을 거는 새끼줄은 두개의 삽자루에 매어 미리 세워둔다.

**(3) 회방아 장면**

1)긴달고

달구꾼 10여명이 각자 달굿대를 손에 쥐고 둘러서서 긴달고를 부르며 평토다지기를 한다.

상주측은 새끼줄이나 북 모서리에 돈을 꽂는다.

북을 제외한 다른 악기들은 멈춘다.

긴달고를 부르기 위해 선소리꾼이 처음에 "군방님네-"하고 외쳐보지만 대답이 없다. "이쪽저쪽 좌우쪽 군방님네-"하고 다시 불러보지만 역시 아무 대답이 없다. 세번째로 "옛날옛법 버리지말고 새로 새법 내지말고 옛부터 허던 소리나 한번 불러봅시다-"하고서야 비로소 달구꾼들이 "예-"하고 응답한다. 이어서 긴달고소리가 시작된다.

※ 선소리꾼이 받음구로 멕이는데도 대답이 없는 형태로 하지말고 위와 같이 말로 외치는 것이 좋음.

2) 잦은달고

8분의 6박(즉, 3분박2박) 한장단에 왼발과 왼손을 왼쪽 밖을 향하여 내밀고 그 다음 한장단엔 오른발과 오른손을 오른쪽 밖을 향하여 내민다.

받음구로 예를 들면 '에이여라' 에선 왼발을, '달고' 에선 오른발을 내민다.

그 한장단의 소요시간은 2초정도 된다.

3분박2박중 첫박에선 달굿대를 두손으로 움켜잡고 내려치며 제2박에선 발과 손을 바깥을 향하여 내민다. 선소리꾼은 북을 첫박은 강하게, 둘째박은 약하게 친다.

3) 사위 달구기(잦은달고, 방아타령, 회 방아타령)

잦은달고가 시작되자 사위가 달구꾼들에게 막걸리로 입추김 해주러 나왔다가 빼 둘러선 달구꾼들 안으로 붙들려 들어간다.

붙들린 사위는 안에서 발로 밟으며 달구질을 하기도하고 덩실 춤도 추다가 틈사이로 빠져나갈려고 하지만 달구꾼들이 그냥 보내줄리가 없다.

사위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주기도 하지만 달구꾼들은 아랑곳않고 사위에게로 점점 좁혀들어가다가 갑자기 달굿대들을 서로 깍지끼우듯하여 탁 멈춘다. 사위는 꼼짝없이 달굿대 사이에 달렸다.

사위의 아내(고인의 딸)가 뛰어나와 달구꾼들을 밀치고 남편을 구출하려 하지만 어림도 없다. 상당한 돈이 나오자 사위를 풀어준다. 노래는 방아타령으로 바뀌고 풀려난 사위는 안에서 덩실 춤추며 발로 달구질하다가 노래를 회방아타령으로 돌리자 원 밖으로 나온다.

달굿돈은 동네기금으로 쓰인다.

※ 회방아타령의 받음소리는 '파주만가' 테잎 참조〈4〉

※※ 사위를 달굿대에 깍지끼우듯하여 탁 멈출때는 선소리꾼은 소리를 멈추고 쇄납만 불것.

4) 에허리 소리, 넬넬넬 상사도야, 우야소리 .

선소리꾼의 북반주에 맞추어 에허리와, 상사 및 우야소리를 계속 불러나간다. 소요시간, 북의 리듬, 손과 발의 움직임 등은 잦은 달고 때와 같다.

마지막에 "우야-"하고 두팔 올려 외치곤 끝낸다.

(4) 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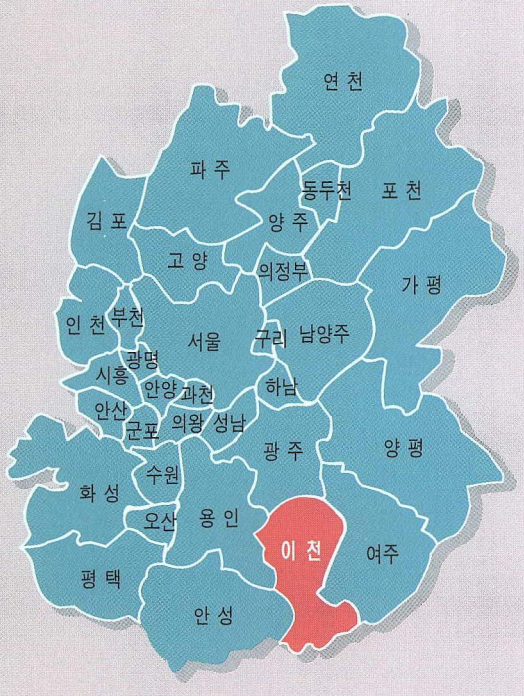
대회기만 앞세우고 쇄납, 장고, 북가락에 맞추어 발을 움직이며, 노래 없이 퇴장한다.

## 5. 출연

- 선소리:추교전
- 북 : 이수환
- 쇄납 : 조병주
- 상여 : 조도환, 조규순, 조선환, 김성백, 조원환, 조진승, 조홍승, 조재현, 인원주, 정태원
- 달구 : 인병문, 임종석, 조둥승, 조병관, 노재덕, 황두락, 김영렬, 안병일, 정원식
- 친지 : 조윤희, 김미숙, 김연순, 이숙희, 조연옥, 박정숙,

# 이 천 시

## 단드래 줄다리기


연 천
파 주
동두천
포 천
김 포
양 주
고 양
의정부
가 평
인 천
부천
서울
구리
남양주
광명
시흥
안양
과천
하남
안산
군포
의왕
성남
광 주
양 평
수원
화 성
오산
용 인
이 천
여주
평 택
안 성

# 여 백

민속놀이

# 단드래 줄다리기

## 1. 전승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단월리

## 2. 유래 및 해설

예로부터 전래 되어온 이천의 주된 산업인 농업은 일종의 집단적,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파종을 하거나 모를 내야 하는 봄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혼자서는 거의 할 수 없는-지금은 기계화로 어느정도 가능해졌지만-농업의 대표적 특성 때문에, 자연스레 협동이나 단결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됐으며, 그것이 곧 민족성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실질적인 협동이나 단결의 의미를, 우리 조상들은 현명하게도 놀이문화로 승화시켜 왔는데, 그러한 예로 차전놀이라든가 줄다리기, 고싸움 등을 꼽을 수가 있다.




특히 줄다리기는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집단 놀이로써, 예전에는 우리나라 전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보편적 민속놀이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줄다리기란게 고작 학교 운동회나, 지역 체육대회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외줄다리기이고 보면, 옛 문헌에 나타난 전통적인 줄다리기의 역사나, 줄을 만드는 준비과정 및 줄의 모습, 놀이방법 등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의의가 있다 하겠다. 줄다리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라 제46대 문성왕(文聖王)때 장위(張暐)가 당(唐)나라에 갔다가 그곳에서 줄다리기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 처음으로 보급시켰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원래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9세기 중엽에 가서 우리나라에 전래된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문견록(聞見錄)〉에 의하면 옛부터 줄다리기는 〈기(奇)·불(不)·선(選)·탁(卓)·해(海)〉라 했으니 기(奇)는 길(吉)함이며, 명절에 한다는 좋은 뜻이고, 불(不)은 아무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선(選)은 선택된 날, 선택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탁(卓)은 얕은 고개나 언덕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잡아당긴다는 뜻이고, 해(海)는 물가에서 한다는 뜻이다.

줄다리기의 전날 저녁에는 성대한 전야제가 벌어졌으며 이때까지 정성을 다해 만든 줄을 마을의 장정들이 둘러메고 각각 자기편의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맨 앞에 농악대가 서고 그 뒤를 대장기를 든 대장의 위엄있는 모습이 나아가면 영기(令旗)가 뒤따르고 줄을 멘 사람들이 함께 행진한다. 일행이 어느집앞에 머물러 농악대가 놀이판을 벌이게 되면 그 집에서는 술이나 돈과 곡식 등을 내에 놓는다. 이렇게 마을을 돌며 축제분위기로 이끌어 단합을 과시하고, 거두어진 돈과 곡식들은 놀이비용과 마을의 공익사업을 위해 쓰여졌다.

마침내 줄다리기의 날이 되면, 양편이 서로 줄을 어깨에 메고 대장기와 영기, 승전기 등 깃발을 펄럭이며, 농악을 앞세운 행진으로 기세를 올린다. 행진이 끝나면 양편은 경기장 복판에 서로 대치하여 줄머리를 서로 결합하는데, 이때 동쪽은 숫줄, 서쪽은 암줄이 되어 줄의 머리를 결합하면 경기의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된다. 이어서 줄머리에 각각〈청룡장군(靑龍將軍)〉과 〈황룡장군(黃龍將軍)〉으로 불리우는 양편 대장이 올라서고 응전고(應戰鼓)가 울리면 줄다리기의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승부가 끝나면, 이긴 편의 대장과 부하들은 기뻐하며 대장기와 영기를 높이들고 정립하여 위의(威儀)를 갖춘다. 진 편의 대장과 부하들은 맞으 편에 정립하며, 이 때 진편의 모든 기는 세우지 못한다. 그리고 진편의 대장이 열걸음을 걸어나와 이긴 편 대장에게 절을 하는데 그 부하들도 따라서 절을 하게 되고 이긴 편에서는 정중하게 받는다.

절을 마치고 진 편 대장은 뒷걸음으로 물러나 부하들과 퇴장하고, 이긴 편에서는 승전을 축하하는 농악으로 흥을 돋우며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는데, 시기와 방법에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암 · 수로 구분하여 결합하게 되는 줄의 형태나 청룡장군과 황룡장군이 각자의 편을 지휘하는 것 등은 거의가 같다.

이천 지방에서도 과거에는 줄다리기가 매우 성행했었고, 그 중에도 1920년을 전후한 이천의 줄다리기는, 인근지역의 주민들까지 가세하여 경기인원만도 수천여명이 동원되었던 줄다리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천에서 열렸던 1921년 3월 18일(음역2월 9일)의 줄다리기를 "6천명의 대해희(大蟹戱)"란 제목으로 보도한 동아일보(1921년 3월 20일자)의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이천의 줄다리기는 타 지방에서 예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성대 하였다.

당시의 기사내용을 보면, 줄의 길이가 800여 미터에 굵기가 직경 60㎝라 했다. 더구나 사상자가 12명이나 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얼마나 거대하고 극렬했던가를 짐작케 하는데, 이러한 규모의 줄다리기가 가능했던 장소는 지금의 이천시 관고 3리, 속칭 마전터 일대였다. 현재 설봉호수 아래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메워져 주택가로 변해버린 중리천(中里川)에 이르는 지역이, 설봉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를 끼고 길게 모래언덕으로 이어진 넓은 벌판이라 수만명의 운집이 가능했다.

작고한 전 이천시유도회장 여동수(余東秀)옹의 회고담에 의하면 당시 편을 가르는 데는 넓고개(廣峴)를 경계로 하여 남쪽은 이천을 중심으로 여주, 용인 등지와 북쪽은 광주, 양평 등의 지역 주민들이 각각 편을 이루었다고 하며, 심지어는 서울에서까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또한 수일간에 걸친 준비과정과 경기 당일 인산인해를 이룬 관중들로 인해 주변에 있던 보리밭들이 모두 못쓰게 되어 보리농사를 망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해에는 더욱 풍작을 이루었다는 일화도 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이천의 줄다리기가 1921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된 이유는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일제의 가혹한 식민정책에 의해서 였다. 더구나 그때가 3 · 1운동이 일어난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으므로, 수만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당연히 위험시하여 줄다리기 도중 발생한 사상자를 핑계삼아 금지시켰던 것이다.



이천은 한말 의병항쟁이 매우 격렬하였던 지역으로 손꼽히는 바, 일본군이 그 보복으로 총화(銃火)로 초토화 시켰음에도 시민들이 굴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와같은 시민들의 민족의식이, 격렬하면서도 향토색이 강한 줄다리기로 관심이 모아져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행사로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민속놀이가 그러한 것처럼 줄다리기도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곳이 대월면 단월리의 '단드래 줄다리기'와 모가면 진가리의 '갈매울 줄다리기' 정도로 보여진다. 특히 단월리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초만 되면, 마을의 남녀노소는 물론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사람들도 함께 어우러져, 줄다리기의 흥겨움이 해를 보탤수록 더해가는 곳이기도 하다.

'단드래'란 들·평야를 뜻하는 단월리의 고유한 이름으로, 이일대가 모두 평야인데서 유래된 지역명칭이다. 그러므로 지역명칭을 딴 단드래 줄다리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전래되어 왔다.

## 3. 의의

줄다리기는 그 놀이 자체가 해박하지 아니하고 경건(敬虔)함을 알 수 있는 놀이인데, 이는 경사가 있을때 하는 축제적인 의미도 있고 풍년을 축원하기 위한 신앙적인 의미도 있으며, 또한 일종의 군사(軍事)놀이로서 협동·단결로 총화를 이루어 국방호국정신(國防護國精神)을 길러주는데 보다 큰 목적이 있었다.

줄다리기에는 또한 한 해의 길흉을 점치기 위한 무속적인 측면도 있어 대개 이기는 편은 앞으로 1년 동안 전염병 따위의 질병에 걸리지 않고 농사가 잘된다고 믿었으며, 사정이 있어 줄다리기를 걸르는 해에는 반대로 동네 전체에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믿었다. 따라서 줄다리기를 하는 시기는 대개가 음력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실시되고 늦어도 2월을 넘기지는 않았다.

## 4. 구성 및 내용

먼저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줄은, 동네 아이들이 헌 농악을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짚단을 걷는다. 한 집에서 5단 정도씩 걷는데, 대략 100호 잡아서 500단 정도를 걷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추렴한 짚으로 새끼줄을 꼬아, 그 줄을 합하여 굵기가 한아름 이상이 되고 길이가 80m되는 줄을 만든다. 이때, 옆에서 짚을 집어주는 일을 '다시마 집어준다' 라고 하는데, 이렇듯 다시마를 집어주는 사람과 꼬는 사람이 한조가 되어 처음의 줄을 40~50m가 되게 반으로 접어 머리 · 배 · 꼬리 부분으로 나눈다. 예전에는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칡넝쿨과 같은 것을 섞어서 꼬았지만, 요즘은 짚으로만 만든다.

줄은 암줄과 숫줄 둘로 나누어 만든다. 암줄의 모양은 머리부분이 크고 둥그런 고리를 짓도록 만들고, 숫줄은 머리부분이 암줄의 고리에 들어가게끔 작고 뭉툭하게 만든다. 만들어진 줄은, 숫줄의 머리를 암줄의 고리부분에 끼워서 결합시키는데, 옛 여성들이 머리에 비녀를 꽂듯 굵은 통나무를 숫줄의 고리부분에 빗장을 질러 고정시키게 되어 있다. 또 몸통에는 여러갈래의 가짓줄을 양쪽으로 늘여놓아 마치 지네의 다리와 같은 형상이 되는데, 줄을 다릴 때는 이 가짓줄을 당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운동회 등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외줄다리기와는 줄의 모양과 당기는 방법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렇듯 우리 조상들은 줄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음양의 조화를 생각했던 것이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단드래 줄다리기의 풍습이 60년대 이후의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단월리도 이촌향도(離村向都)현상을 보여 67년에는 맥이 끊기게 되었다. 그러다가 줄다리기를 계승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80년부터 다시 줄다리기를 시작 할 수 있게 되었다. 줄다리기를 재개한 후는, 단드래 줄다리기의 특징인 암줄은 여자가 숫줄은 남자가 잡아당기는 여자대 남자의 시합형태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단드래 줄다리기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데, 옛날에는 단월1,2리를 각각 앞말과 넘말이라고 불러, 앞말 대 넘말의 부락대결로 줄다리기를 하였다. 그렇게 하다보니 그것은 단합이 아니라 승부욕이 지나친 나머지 감정대립이 되고, 급기야는 싸움으로 까지 번지게 되었다. 그래서 앞말은 앞말끼리, 넘말은 넘말끼리 분리해서 별개의 행사로 줄다리기를 하게 되었지만, 마을 청년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게 되자 줄다리기를 하지 못하다가 80

년에 다시 시작을 할 때, 이번에는 부락구분이 없이 하나의 행사로 갖되 한쪽은 여자들과 18세 이하의 아이들이 한편이 되고 다른 한쪽은 성년남자들이 편이 되어 줄다리기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남녀로 편을 갈라서 하니, 자연스레 감정대립이나 싸움이 없어지고 또, 동네의 인원이 거의 참여하는 효과도 얻게 되었다.

한가지 재미나는 사실은, 승리는 매년 여자편이 된다는 것이다. 속설에 의하면 여자편이 이기면 그해에는 풍년이 든다고 하고, 남자들로서는 양보하는 미덕도 보일겸 해서 그런 결과가 온다고 했다. 또, 실제로 줄다리기를 하다보면 남자들은 대부분 술에 취해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끌려가고 만다는 것이다.

줄다리기를 하는 시기는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게 정월대보름에 하는 곳이 많다. 단드래 줄다리기도 마찬가지였다. 대보름날 밤에 자기 나이에 맞게 짚을 매듭져 둥그렇게 떠오르는 달을 보며 소원성취를 비는 '달맞이'를 하는데, 이렇게 달맞이를 한 밤에 줄을 다리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단드래 줄다리기는 정월 초이튿날 실시하는데, 대보름날 달맞이 후 줄다리기에 참여하기 보다는 흩어져서 끼리끼리 노는 인원이 많아 참여의식이 저조하였고, 또, 외지에 나가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설날 차례를 지내기 위해 고향을 방문하는데, 명절이라야 흥겨운 놀이 하나 없이 썰렁한 느낌만 들고 옛 방식대로 대보름날 하자니 직장 등의 이유로 많은 참여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해서 설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고향의 정감이 오래도록 기억되게 만들자는 의도로 시기를 옮기게 되었다.

줄다리기 전날인 설날 오후에는 전야제로 흥겨운 농악놀이가 펼쳐진다. 농악은 경기농악의 구성대로 편성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꽹과리 3 · 북3 · 장고3 · 징3 · 법고 · 무동 등으로 인원을 많이 늘렸다. 다시 말해 그전에는 사람은 많았지만 농악놀이하는 '잽이'가 적은데 비해, 지금은 전체적인 인원은 줄었지만 잽이를 많이 넣어 상대적으로 줄을 메는 사람이 적어졌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마을 의 청장년들이 스스로 농악패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만큼 참여의식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런면에선 경기농악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무동도 마찬가지다. 지금이야 남여 구분없이 참여해 춤도 추고 노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지만, 옛날엔 내외가 있어 여자의 참여를 금지시켰다. 그러니 남자들만의 놀이가 되기

마련인데, 당연히 재미가 덜하게 되어 남자아이를 분장시켜 춤을 추게 한 것이 무동을 태운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놀이패들은, 줄을 멘 청년들을 이끌고 마을을 한바퀴 돌며 흥을 복돋운다.

정월 초이튿날, 모든 준비가 끝나 줄다리기의 결전을 벌이는데, 마을의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대동놀이가 되는 것이다. 암줄을 나타내는 대형 황룡기 · 숫줄의 청룡기를 비롯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황룡장군기 · 청룡장군기 · 영기 · 농기 등 여러가지 깃발이 오르고, 구경나온 타동네 사람들의 함성이 가세해 열기가 더해진다. 이렇게 해서 승부가 판가름나면 이긴쪽은 승리의 함성과 축하음악이 울리고, 진쪽은 패자의 예를 갖춘다. 또, 줄을 다린 후 줄은 마을의 연장자나 놀이가 끝날 때까지 고생을 한 사람에게 주어 썰어서 거름으로 사용케 한다.



이렇게 매년 행해지는 줄다리기에서 일체감이 생기고 그것이 결집되어 단월리의 저력이 됐다고 믿고있다. 실제로 동네의 경조사가 있을 때 동네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심해서 일처리하는 것을 보면 타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이다. 단드래 줄다리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이어나가 마을의 대동놀이로서 단결과 협동의 구심점이 되도록 발전시키고, 더나아가 인근 대포리나 고담리와도 연합해 규모를 늘려갈 것이다.

## 5. 6천명의 대해희(大蟹戱)

여기에 당시 "6천명의 대해희(大蟹戱)"란 제목으로 이천의 줄다리기를 보도한 동아일보(1921년 3월 20일자)의 기사내용을 그대로 옮겨본다.

六千名의 大蟹戱

관객이 삼만명 사망자가 삼명

줄의 길이는 실로 이천 오백척

"경기도 이천읍내(利川邑內)에서는 지난 십팔일에 근년에 처음 보는 큰 줄다리기를 하였는데 부근에 여섯 고을이 연합하여 편을 짜 가지고 다리었으며, 당일 회장에는 관람자가 삼만여명에 달하였고 줄다리는 사람이 육천여명에 달하여 실로 공전절후의 대장관을 이루었으며, 원래 대규모의 운동임으로 중상자가 구명이요 즉사자가 삼명에 달하여 일시는 대소동까지도 일어났는데, 어찌하였던지 줄다리기는 우리 조선의 고유한 운동으로 석전(石戰)에 다음 가는 것이라 각편에서는 용기가 충천할 듯하였다. 그런데 이번 줄다리기에 사용한 줄은 놀라지 말지어다 길이가 이천오백척이요 굵기가 직경(直徑) 두 자나 되어 참으로 큰 줄이었으며, 며칠전부터 회장에서는 수십명 준비위원이 잠도 못자고 줄을 꼬며 모든 설비를 한 것이라더라." (이천)

## 6. 고증 및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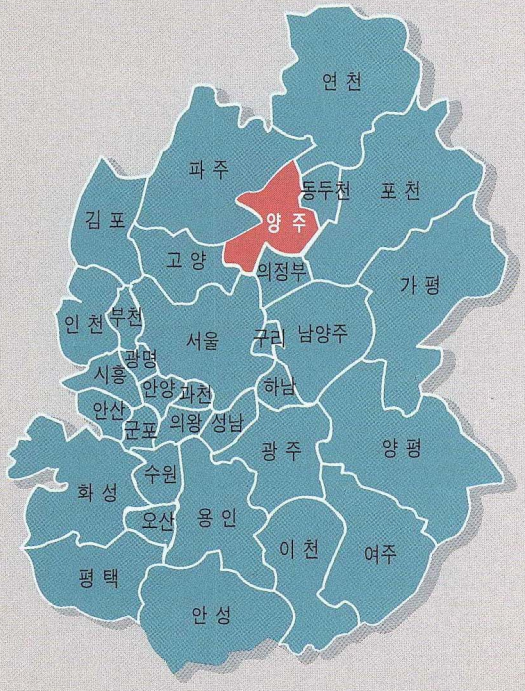
• 재현 · 고증 : 이덕수(58세 대월면 단월리)

• 참고문헌

이천 양정여자종합고등학교〈利川의 鄕土民俗 - 줄다리기와 그 由來〉 보고서 참조

# 양 주 군

- 소놀이굿
- 고전농악



# 여 백

민속놀이

# 소놀이굿

## 1. 전승지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 2. 유래 및 해설

楊州 소놀이굿은 경기도 양주 일대에서 전승되어 왔다. 농사나 사업 등이 잘 되고 자손이 번창하기를 비는 경사굿의 일종인 양주 소놀이굿의 역사적 유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인류가 牛馬를 가축으로 쓰기 시작한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정착 농경이 일찍 시작되었던 고대 오리엔트에서는 기원전 6,500년 경에 이미 보리 재배와 우마의 사육이 시작되었고, 이라크의 자르모(Jarmo)에서 발견된 가축화된 소의 뼈는 약 5천년 전의 것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도 인류 문명의 여명기로 보는 기원전 5천년 경에 속하는 하남 · 甘肅 방면의 仰韶期 문화 유물 속에서 가축화된 소의 뼈가 발견되었다. 고대 오리엔트와 인도, 그리고 중국의 고대 문명권에서 소는 말보다 앞서 중심적인 가축으로서 농경 및 農耕儀禮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왔다. 고대 중국에서의 말은 주로 王侯 귀족의 교통 및 수렵 · 전투용 동물이었으나, 소는 大地의 동물로서



농업용으로 쓰여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소의 飼育과 이용에 대해서는 이미 2천여 년 전에 소가 사육되었고 농경과 식용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나, 아직은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3세기 경 한반도 내의 여러 부족 생활을 기록한 《三國志》〈魏志東夷傳〉을 비롯한 기타의 중국 문헌을 보면, 夫餘에서는 제천 의식에 소를 희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新羅에서는 502년(智證王 3)에 牛耕法을 장려했다는 기록이 《三國史記》에 보인다. 高麗에서는 牧牛陽을 설치한 바 있고, 朝鮮初에는 정부가 種牛를 소유한 바도 있었다.

소와 더불어 이루어진 농경 의례는 998년(고려 成宗 7)에 중국의 土牛儀禮를 받아들인 기록이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土牛가 木牛로 바뀐 예도 《東國歲時記》 立春條에 보인다. 중국의 농민들이 입춘에 행하는 풍습으로 토우를 때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깨뜨려서 홍수와 가뭄의 재해를 점치고 술과 안주로 土神을 제사지내는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打春·鞭春·鞭牛라한다. 이것은 봄의 부활을 맞이하고 풍요한 힘의 상징인 토우를 잡는 주술, 즉 종교적 성질을 가진 행사이며 널리 동아시아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고대 그리이스 아테네에서 해마다 열리던 디오니소스(Dionysos)제전에도 바우포니아(Bauphonia)라 불리던 수소희생(Ox- murder)이 있었다. 이 소는 장중한 의식 속에서 도살되고 참여자 전부에게 고기를 먹이지만, 죽은 소의 가죽 속에 짚이 넣어져 다시 꿰매지고 경작할 때처럼 쟁기에 매어진다. 이것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의 번식력을 구현하여 도살되어도 다시 부활하는 생명력의 표시이다. 또한 그 고기를 먹는 행위는 그 힘과 생명력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그의 혜택으로 살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풍습에는 제주도에서 약 50여 년 전까지 행해졌다는 입춘굿이 있는데 역시 목우를 썼고, 慶南 昌寧郡 靈山의 木牛戱도 음력 정월 보름에 행해져 왔다. 특히 海西와 畿湖지방에 많았던 소멕이놀이는 정월 보름과 8월 추석에 행해졌는데, 장정 두 사람이 멍석을 뒤집어 쓰고 소가 되어 여러 가지 동작과 춤을 보이며 농악대와 함께 동리를 돌아다니며 음식과 술을 얻어먹는 놀이이다. 이 놀이를 하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것에 기호지방의 거북놀이가 있는데, 이 역시 풍년을 비는 행사라

생각한다.

이러한 농경 의례 중 경기도 安城郡 西井里의 거북놀이가 있는데, 이는 명칭과는 달리 실제는 소와 송아지가 등장했다. 40여 년 전까지 행해졌다는 이 놀이는 양주 소놀이굿과 유사한 면이 많다. 따라서 소놀이굿은 이러한 원시적인 소멕놀이와 거북놀이에서 발생하여 오늘의 형태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에서 소놀이굿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농경 의례에서 살펴보았는데, 소놀이굿 발생에 대해서 현지 연희자들이 구전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양주지방에서 神山으로 여기는 紺岳山 · 紺岳祠에서 나왔다. (禹龍辰 談)

② 농경 의례의 하나로 풍년을 비는 데서 나왔다. (禹龍辰 · 高寬成 · 金春成 · 金錫烈 談)

③ 소장수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다. (禹龍辰 · 金淑子 談)

④ 궁중 의례에서 흘러 나왔다. (禹龍辰 談)

⑤ 굿의 餘興으로 이루어졌다. (高寬成 談)

이러한 이야기들은 소놀이굿 기원설의 전반적인 배경은 되지만, 그 어느 하나에서 직접 발생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소놀이굿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는 마마拜送굿이 있다. 李惠求 박사가 소개한 청수골 손님굿과 往十里 安靜寺에서 본 배송굿의 간략한 설명에서도, 소놀이굿과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① 손님굿이나 소놀이굿이 男巫 아니면 마부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은 같고,

② 다 같이 무당과 마부와의 대화로 진행되며, 먼저 마부 찾는 소리로 시작하고 路程記가 있으며,

③ 손님굿이 六甲과 眞言을 외고 잡귀를 보냄으로써 끝나는데, 소놀이굿에서도 무당 대신 마부의 祝願 · 德談에 이어 살풀이로써 놀이를 끝맺는다.

④ 손님굿에서 배 모양의 옹고에다 오쟁이를 싣고 싸리말에 日傘과 旗를 꽂는 데 비하여, 소놀이굿에서는 그 규모가 커서 장정 5~6명이 소로 가장하여 등장하고,

⑤ 소놀이굿에서는 공과 斗에 담아 바치는 데, 배송굿에서는 소반에 물을 얹어 놓고 절할 뿐으로 그 규모가 작았음을 알 수 있다.

⑥ 그러나 이 두 놀이가 모두 연극적인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며 놀이(연희)로서의 효과를 내고 있음은 공통적이나, 배송굿이 보다 巫儀的이고 원초적인 형태라면 소놀이굿은 보다 규모가 크고 발전된 연희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것을 종합해 본다면 소놀이굿의 발생과 형성에 대해서는 농경 의례인 소멕이놀이와 같은 '前소놀이굿' 형태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마마배송굿'과 같은 巫儀形式의 도입을 계기로 삼아, 현존하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소놀이굿 연희로 이룩된 것이 아닌가 상정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소놀이굿이 실제로 행해졌던 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양주군의 은현면, 백석면,주내면, 회천면, 남면, 의정부시, 파주시의 조리면, 와석면, 탄현면, 적성면, 백학면, 입진면. 연천군의 양원면, 왕등면, 영근면. 고양시의 신도면. 장단군의 고랑포. 포천군의 일동면. 황해도 연백군의 연백, 봉산군의 문정면, 사리원, 신계군의 신계, 곡산군의 곡산, 신금천 · 평안남도 평양, 강원도 원주군, 서울의 왕십리, 노량진, 시흥.

이상은 소놀이굿의 마부를 지냈거나 과거에 구경한 일이 있는 관람자들이 소놀이굿이 행해진 고장이라고 증언한 지명들이다. 이 분포 지역을 보면 소놀이굿이 대체로 기호와 해서 지방에서 주고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양주 소놀이굿은 경기도 양주군 일대에 전승되는 소놀이굿이다. 재래의 이 놀이 분포를 보면 주로 기호와 해서 지방에서 연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오늘날 해서지방의 사정은 알길이 없고, 기호지방에서도 양주군 일대에서만 전승되고 있다. 蘆海面 출신으로 巫夫 彭壽天(1901~1937)에 의하여 이 놀이가 양주 일대에 퍼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지방에서 배워온 것인지, 또는 양주지방 무속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팽수천은 어려서부터 무당인 작은어머니의 굿에 따라다녀 巫歌도 잘 알았고, 나중에는 작은 어머니의 神 딸인 李氏와 재혼하여 무당 서방이 되었는데, 폐결핵으로 항상 몸이 약한 才士型으로 염불 · 타령 · 소놀이굿

외에도 많은 무가 · 잡가를 잘 했다고 한다. 그에게서 소놀이굿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는 歌詞를 보면 대단히 세련된 것이어서, 양주 공립보통학교 3년을 중퇴했다는 그의 학력에 비추어 전적으로 그의 창작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디서 또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이제는 알 수 없으므로, 그 작자와 구체적인 전승 과정 및 연대는 알 수가 없다.

## 3. 구성 및 내용

### 1) 내용과 대사

소놀이굿은 경사굿의 巫儀 열입곱 거리 중 열세번째 거리인 제석거리와 열네번째 거리인 호구거리의 사이에 행해진다. 참고로 열일곱 거리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거리 : '행추물림' 은 대문 바깥마당에서 행하고 이 때 사용한 서낭기(삼거리에서 만들어 온다)는 동 헛간이나 마당가에 꽂아 놓는다.
- 둘째 거리 : '부정' 은 집안으로 옮겨 마루에서 행한다. 마루 위 北 · 東 · 南 삼면에 시렁을 매어 '사위삼당' 이라고 하는 열두 신을 위한 당을 설치하고 마루 안쪽(北向)으로 主床인 산신상(산대감상)을 마련하였고 각 거리마다의 제상은 그 때마다 바꾸어 내 놓는다.



- 셋째 거리 : '불사맞이' 는 안마당에서 행하고 이 때 불사신과 함께 따라 들어오는 신을 호구 · 말명 · 신장 · 대감 · 창부 · 걸립신이라 하는데, 이 신들의 거리도 간단하게 진행한다.
- 넷째 거리 : '본향' 부터는 다시 마루로 옮긴다.
- 다섯째 거리 : '초가망'
- 여섯째 거리 : '조상' 으로 진행하는데 조상 거리에서는 그 집 죽은 조상의 亡靈들이 차례로 들어와 넋두리를 한다.
- 일곱째 거리 : '대감놀이' 인데 이 거리 끝에 창부타령을 한다.
- 여덟째 거리 : '성주받이' 에서 신이 내린다는 성주받이라 하여 뒷곁 등 집터를 둘러보고 다시 마루로 들어와 굿이 끝날 때까지 안치해 둔다.

- 아홉째 거리 : '상산'
- 열째 거리 : '별상' 으로 별상거리에서 신 마누라 노랫가락을 座巫와 함께 창한다.
- 열한번째 거리 : '신장' 으로 五色旗로써 占卜한다.
- 열두번째 거리 : '산대감' 인데 '대감거리' 와 같다.
- 열세번째 거리 : '제석' 으로 마루에서 帝釋請拜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立巫만 제석상 앞에 白米一斗를 놓고 그 변죽을 밟고 제금을 치면서 공수를 내린다. 다시 마루로 나와 중타령 및 바라타령을 하고 제석노랫 가락도 한다.
- 열네번째 거리 : '호구거리' 로 콩 한 사발과 팥 한 사발을 제물로 놓는다.
- 열다섯번째 거리 : '성주' 로 이 때는 '만수받이' 와 성주노래 가락을 창한다.
- 열여섯번째 거리 : '산거리' 로 이것은 아홉째거리인 '상산' 과 같다.
- 열일곱번째 거리 : '창부' 로 성주거리와 같고 끝으로 '뒷전' 은 안마당에서 '계면각시' '터주건립' 을 놀고 대문 밖 바깥마당에서 '구능' '구능대감' '서낭' '영산' '산문' 등의 거리가 진행된다.

양주 소놀이굿은 제석거리와 호구거리의 사이에 놀게 된다. 즉 제석거리의 계속으로 소놀이굿을 한다. 불사맞이 床을 帝釋床으로 사용하되, 장고 앞의 木斗에 콩을 수북이 담고 북어 한 마리를 꼬리를 밑으로 하여 꽂아 놓는다. 마당을 향하여 樂士와 助巫(장고를 맡음)가 앉고 소가 들어오기 전에 서주(장고, 피리, 해금)가 굿거리 장단으로 울리면 흰 고깔을 쓰고 흰장삼을 입은 主巫가 오른손에 흰 제석부채를 들고 마루 끝에 나와 선다.

### (1) 소와 馬夫의 登場

먼저 송아지가 춤추며 들어와서 이리저리 고개를 옆으로 갸웃거리며 마당을 돌다가, 굿청에 뛰어들어 무녀의 입을 맞추면서 장난을 하고 뛰어나간다. 나갔던 송아지가 다시 들어와서 먼저 보다 빠른 동작으로 기웃거리며 마당을 돌다가 나가면 무당이 마부를 부른다.

무당 : 마부우, 소장수우, 소장수우.(송아지가 대문을 향해 돌아서서 마부와 소를 인도해 들이는 시늉으로 뒷걸음질 쳐 들어 온다. 원마

부가 전립과 전복에 홍띠를 매고 오른손에 삼신부채를 들고 왼손에는 소의 고삐를 잡고 천천히 들어온다. 소의 고삐는 명주나 무명으로 만들었고 곁마부는 보통 복색을 갖추지 않고 원마부를 따르며 채찍을 든다)

마부 : 야, 소장수가 뭐냐? 소장수 서방님이라고 해라. (소와 송아지가 서로 맞비비다가 송아지가 뒤로 돌아서 앞으로 나와 선다. 소와 송아지가 꿈틀꿈틀 한다)

무당 : 소장수 서방님.

마부 : (왼손에 고삐를 잡은 채 타령조로) 箕山 穎水 別乾坤 巢父 許由가 나를 찾나? 천하문장 김생원이 풍월을 하자 나를 찾나? 수양산의 伯夷叔齊 採薇차로 나를 찾나? 商山四皓 네 노인이 바둑 두자 나를 찾나? 晋代 風流 자랑코자 竹林七賢 나를 찾나?

보충가사 : 當春山, 嚴子陵 諫議大夫를 마다하고 七里桐江 일사중 함께 가자 나를 찾나? 설중의 기렴 맹호연이.

보충가사 : 상마(매차) 허자 나를 찾나? 일월호우 파군신이 모금을 가자 나를 찾나? 南陽草堂 臥龍先生 병서를 읽자 나를 찾나? 楚漢詩 적 張子房이 퉁소 불자 나를 찾나? 唐明皇 楊貴妃가 구벼 화전(후면화개) 너른 꽃 밭 물을 주자 나를 찾나? 원통하다 서러운 정, 옥황님이 알으시고 구원코자 나를 찾나?

보충가사 : 진나라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싸신 후에 아방궁에 높이 앉아 육국제후를 전공받고 삼천궁녀 시위할 제 함께 놀자 나를 찾나? 진양 초당 백낙천이 비파 듣자 나를 찾소?

보충가사 : 서여군사(서역원사) 백마호우 견우직녀 찾으려고 황포로 지나면서 함께 가자 나를 찾나? 風風雨 옛 천지에 날 찾을 이 없건마는 어떤 정든 님 나를 찾나?

보충가사 : 어느 아가씨가 나를 찾나?

보충가사 : 무당의 잡년이 나를 찾나?

무당 : 소장수 서방님, 으쩐 잔소리가 그렇게 많소?

마부 : 여자는 맹추라 듣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기도 잘 하니 똑똑히 알라고 여러 말 한거요.

무당 : 그러면 소장수 서방님 이름이 뭐요?

마부 : 내 이름을 알랴거든 똑똑히 들어라.

무당 : 그럼 한마디 해 보시오.

마부 : (타령조로) (禹龍辰의 경우) 황성(산상)폐하의 임금 우자는 성자가 되어 있고, 동해 수궁에 용룡자는 가운데 자 되어 있고, 천상옥경에 병진자는 우룡진이 분명하니 자세히 똑똑히 알겠느냐?

무당 : 그 소가 어디서 온 소요?

마부 : 저 하늘 끝단 데서 왔어요.

무당 : 하늘 끝단 데가 어디란 말이요?

마부 : 충청도 지방이요.

무당 : 게기가 하늘 끝 닿았에요?

마부 : 그럼요.

무당 : 그 으째 하늘이 그렇게 끝이 닿은 거 그리 가깝소?

마부 : 거 한 두 십린 줄 아우? 거기두 멀우. 그 산 넘어 가면 또 하늘 있고 또 하늘 있어.

무당 : 그건 남의 하늘이지 우리 하늘 아녜요.

마부 : 아 그럽니까? 그럼 얘길 들어 보오.

(타령조로) 충청도 內浦로 소를 사가지고 三南에 三道를 다 구경해 경기도루 치치달아, 정월보름 달맞이요, 꽃이 피면 꽃맞이요, 잎이 지면 잎맞이, 칠월 칠석에 칠석맞이, 시월상달에 新穀맞이, 온갖 정성을 다 드린다지만 장단대루 나려서서 일년 허구 열두달 과년은 열석달 사월 삼백 육십일에 일년농사를 잘 지었다구 소놀이 정성을 드린다기에 구경차로 가는 길에 그저께 어저께 의정부 장을 들고 소산의 동명 돌아드니 五營門 수억수에 각영문 吹打 벌여놓고 덩기덩기 덩덩더꿍 잽이 소리에 命타자니 명 못타고, 복을 타자니 복 못타고 웬수같은 時를 타서 이댁 가중에 들어올제 이운지고 시년져서 놀고가자 들어왔네.

보충가사 : 내포에서 소를 사가지고 올라 오는데 꿈틀 꿈틀 뱀내장은 징그러서 소 못팔고, 어깨너머 뒷길장을 돌아섰다 소 못팔고, 코 풀었다 흥내장은 코 풀다가 소 못팔고, 방귀 꼈다 구린내장은 구린내 나서 소 못팔고, 왔다 갔다 가래비장은 왕래하다 소 못팔고, 의관철파 갓바위장은 갓이 없어 소 못팔고, 이댁 가중 문턱을 마침 지나려 오영문 취태소리가 청천에 떠서

들리는 바람에, 이 소에다가 은산에게 은을 뜨고 수물 천냥을 잔뜩 싣고 들어 왔으니 이 소는 이운지고 시운진 소니 이댁 가중에서 사슈.

무당 : 그 소가 이년지고 시년져서 들어 왔다니까 거저 들어 올리는 만무고 보물을 많이 싣고 들어 왔으니까 인자 보물을 타령으로 잘 올려주우.

마부 : 남의 집 재산을 수탐하지 말우. 만약 없어지는 경우에는 재물쇠챈 방으로 갈 사람은 당신 밖에 업소.

무당 : 그런 거 아니예요. 난 괜찮으니 잘 타령으로 하우.

마부 : (타령조로) 단군천년 기자천년 이천년 이룩허니 삼각산에 起峰하여 봉학이 넘짖 되었구나. 봉의 머리에 터를 닦아 학의 등에 대궐 짓구 대궐 앞에는 六曹로다. 여기저기 오영문십이대장 결진하고 아랫대궐을 이룩허니 웃대궐 없을소냐? 각도 각읍을 마련하니 각 동넨들 없을소냐? 존이에 집간을 마련허니 병자 소임이 없을소냐? 이 댁 가중 진연에서 瓦家 성주도 이룩을 허고 대가 성주도 이룩헐제, 千金山의 금을 뜨고 萬金山의 은을 뜨고 命山에 가명을 뜨고 福山에 가선 복을 뜨고 재수산에 가 사망 뜨고 삼신산에 재수를 받아 은자보물은 수물천냥 한쪽엔 달이 돋고 또 한 쪽에는 해가 돋아 일광이면은 월광이요, 월광이면은 일광일데 일광월광 단월광에 아무댁 가중에 진연이요.

무당 : 그렇게 많이씩 들여왔으니 그 소가 어여쁘고 얌전하구 똑똑허구 소두 좋으니까 원마 부두 待令하구 곁마부두 대령했소?

마부 : 예, 마부 대령했소.

무당 : 그럼 타령으로 한번 들려주우.

마부 : (타령조로)원마부도 대령을 허고 곁마부도 대령했소. 각도 각읍 각마부 어떤 마부를 섬기리까? 外事部에 대령마부, 內事部 앞엔 마부 좌편 우편에 평마마부, 주유 대유에 竹散마부, 官公 앞에는 駐車馬夫 신랑 앞에는 말마분데 어느 마부를 섬기리까? 원마부 곁마부 대령했소.

### (2) 소 마모색 打命

무당 : 그러면 그 소가(와) 그렇게 원마부 곁마부가 잘 들어왔으니 그 소

마모색을 한 번 물어봅시다.

**마부** : 소 마모색이라니요?

**무당** : 소가 어떻게 생겼나 말이예요?

**마부** : 소가 소같이 생겼지 어떻게 생겨요?

**무당** : 아 그 머리를 타령으로 옮겨 주오.

**마부** : 그럼 들어 보시겠소?

(타령조로) 龍大旗 우에는 용두머리 남사당패 꼭두머리 남산으로 누군머리 용산 삼개(麻浦)는 돌머리요 양근 지평에 용머리, 인력거여에는 상고머리요, 꼬불꼬불은 곱수머리.

**보충가사** : 아이 머리는 더벅머리 서양 사람은 노랑머리.

**마부** : 너울너울은 조바머리, 구시월이 돌아오니 울긋불긋 단풍머리, 칠십노인의 흰머리냐, 늙은 마누라 쳇머리냐, 낭자쪽도리 큰머리냐, 만신 마누라 엉덩머리냐, 釋迦世尊의 공덕머리냐.

**보충가사** : 동삼 석달이 다 지나고 돌아간 봄이 다시오니 파릇파릇은 잔풀머리, 이십안 처녀는 누에머리.

**마부** : 어떤 머리를 섬기리까?

**보충가사** : 잎이 피면 잎머리, 꽃이 피면 꽃머리요, 이마가 벗겨져서 대머리, 더벙추 도가머리.

**무당** : 그 중 한머리를 셈기면 셈겼지, 왜 만신마누라 응덩머리를 왜 섬기오?

**마부** : 응덩머리를 아니 넣을 수가 없소.

**무당** : 왜요?

**마부** : 제일 소중한 게 그 응덩머리요.

**무당** : 그 으째 응덩머리가 소중해요?

**마부** : 그 응덩머리는 원두 나구 사또두 나구 대통령두 생기구 국회의원두 생기구 시체 병장두 생기구 깡패두 생기구 여러가지가 생기는데, 그 용둥머리 아래 위를 툭 잘라 버리고 응덩머리만 해도 값이 쇠머리 값보단 많소.

**무당** : 아 잘라 버리면 사람이 사나요?

**마부** : 발을 두면 도망을 가고 대가리를 두면 밥을 먹으니까 아래 위를 잘라버리고 가운데 만을 두지요.

**무당** : 그럼 썩어 빠져서 어떻게 해요?

마부 : 아 그런가요?

무당 : 이 집이 이년지고 시년져서 들어 왔으니까 대청 성주허구 서로 사귀여서 인사를 드려야겠으니 들이 숙배 내 숙배 삼숙배 절을 섬기오.

마부 : 절의 내력을 한 번 들어 보시려오?

(타령조로) 고령으로는 보광사 절이요. 佛谷山으로는 白華庵寺, 수락산으로는 石林寺, 도봉 망월사 天竺寺 백운대 너머는 圓通寺요, 경성 시내는 覺皇寺, 협(합)천하고도 海印寺 절, 금강산의 楡岾寺, 묘향산의 普賢寺요, 과천 관악산 三幕寺요, 경상도 양산의 통도사 절인데, 어느 숙배를 섬기리까?

보충가사 : 염불암도 절인데 어느 절을 물으시오?

보충가사 : 창동 위에는 각심절이요, 장안사절도 절이요, 경태사절도 절이요, 장단으로는 화장사요, 감박산은 鳳岩寺요, 전안청에는 큰 절인데, 어떤 숙배를 섬기리까. (절타령을 부른 다음에 성주에게 인사를 시키기 위하여 봉당에 서있는 구경꾼을 비껴서게 하고 마루 대청을 향해 소가 절을 세 번 하게 한다)

무당 : 대가리가 그렇게 찬란하고 좋을 때는 뿔도 좋을 테니, 그 뿔의 타령을 한 번 잘 올려주우.

마부 : 그럼 들어 보겠소?

(타령조로) 우각뿔이면 작박뿔이냐? 쌍쌍 을러라 사족뿔(발), 별백인 노구 거리 黑角 비나는 물소뿔이요, 대천 바다의 새우뿔 인삼 녹용은 사슴의 뿔이요, 정월 보름 횃불인데 만신마나님 쥐뿔이나 아느냐? 무슨 뿔을 섬기라오?

보충가사 : 뚤뚤 말아라 방석뿔, 천지조화는 번갯불, 여울여울이 해태뿔, 떡가루치는 쳇불이며 오여름 염천 모깃불, 만신 아주머니 고뿔인데, 어떤 뿔을 섬기리까?

보충가사 : 건방진놈 중뿔, 못된 송아지 응덩이뿔이고, 우슨것은 노우뿔, 천지조화 번개뿔, 인간조화 전기뿔.

무당 : 뿔이 참 좋군요. 그렇게 좋은 뿔을 얼른 아르켜주지 않아서 갑갑하오.

마부 : 뿔 좋다고 빼가지 마오.

무당 : 그건 빼다 뭘해요?

마부 : 등잔 밑에다가 매달지요.

무당 : 아 참 그런가요? 그럼 뿔도 찬란하고 좋은데 귀도 좋겠지요.

마부 : 귀야 좋구 말구가 있에요? 넙적한 게 참 좋습니다.

무당 : 타령으로 한번 들려주오.

마부 : 그리시요.

(타령조로) 열귀냐, 떨어진 귀냐, 나무로 올라 잎사귀, 잎사귀 밑에는 가장귀. 가장귀 밑에는 토막(木枕)귀, 토막귀 밑에는 뿌렁귀, 나뭇군의 수건귀냐? 총각되령님 唐只귀, 아주먼네는 초마귀요, 상제님네는 頭巾귀, 외발가지는 돌쩌귀냐? 두발 가지는 까마귀, 세발 가지는 풍농귀, 네발 가진건 당나귀요.

보충가사 : 세발가진 삼발귀, 네발가진 당나귀.

보충가사 : 목화밭의 씀바귀, 포전밭의 사라귀, 선비님의 유건귀.

마부 : 앵무 공작이 지저귈 때 듣던 토끼의 귄데, 무슨 귀를 섬기리까? 만신 아주머니의 걸래귀는 알고도 아니하오.

무당 : 걸래귀란 무슨 말이오?

마부 : 종로 한 마루턱에서 신사 양복을 입구서 왔다 갔다하는 양복쟁이 넥타이귀같이 축 늘어진 걸래 있지 않아요?

무당 : 여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다 듣기 싫소. 그만두오.

마부 : 그럼 다른거나 합시다.

무당 : 뿔도 그렇게 좋고 귀도 그렇게 좋고 다 좋으니까 그 눈도 좋겠죠? 소 눈이 무슨 눈인지 한 마디 들려 주시오.

마부 : 그럽시다.

(타령조로) 산중의 영웅 범의 눈 모들띠기는 가재미 눈이요, 발샅에는 티눈이요.

보충가사 : 발사이에는 티눈이요.

마부 : 꽁무니 백힌 꼴뚜기 눈 뜨고도 못보는 해태눈이요, 천하 명산승지간에 경개 보던 토끼의 눈 赤兎馬를 제껴 타고 조승상을 좇아갈 때 부릅뜨던 범의 눈인데, 어느 눈을 섬기리까?

보충가사 : 관운장의 봉의 눈, 휘휘 둘러 물레눈, 내려 닫힌 것은 거적눈, 꽁무니에 박힌건 오징어눈, 옆댕이에 박힌 것은 가자미눈, 슬금슬금 겟눈, 정이 깊어 속눈, 그믐칠야에 잘 보는 것은 올빼미눈.

무당 : 그 소 눈도 그렇게 좋고하니 입은 어떤 입인지 들어 봅시다. 타령으로 잘 한번 해주시오.

마부 : 그럼 들어 보시오.

(타령조로) 楊柳 청천의 버들입이냐? 사시장춘의 솔입이냐? 들락날락은 들입이냐? 주엉같은 용마의 입이냐? 우수 경첩이 돌아오니 떨어졌다 개구리입, 넙적허다고 미여기입이요, 키가 크다 난초입이요.

보충가사 : 키 큰것은 파초입이요.

보충가사 : 들락날락은 출입이요, 벙긋 벙긋 웃는 입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고, 생글생글 웃는 입은 노총각을 희롱하고, 벙글벙글 웃는 입은 꽃같은 시약시를 연애하고, 노기 등등 성난입은 대자 두치나 나와 있고, 희색이 만면 웃는 입은 얼굴이 메꽃같고, 두 입을 한데 모면 새입도 생긴다네 허연 갖은 백입이요. 상제님의 방 입이요 검정 갓은 양입, 산초 芝草 모란화 꽃 따 먹던 토끼의 입인데 어느 입을 섬기리까? 입 맞추지 말오, 범중 여자되오.

무당 : 입이 그렇게 좋으니 이는 어떻게 됐소? 이의 내력을 한번 들어 봅시다.

마부 : 그러시요.

(타령조로) 흙을 이뤄 지어낸 이 土金으로 지은 이냐? 돌을 때려 뽑아낸 이 石金으로 지는일까? 동서양의 나온 금은 합성금으로 지은 이냐? 제삼시 점지하니 만복없는 옥니로구나, 이이 저이 다 저쳐놓고 천하명산 승지간에 꽃 따먹던 토끼의 이인데, 어느 이를 섬기리까?

보충가사 : 변적 떠는 앞니고나, 앞니 곁에 어금니, 어금니 곁에 송곳니, 송곳니 곁에 붙은 건 덧니구요, 안으로 수굿한건 옥니구요, 장사꾼의 大利, 본전 합해 곱장이, 쇠불알에 진드기, 개불알에 도앵이, 누습한 방 베룩이.

마부 : 이가 좋다고 玉齒라고 있소. 빼다가 치과에 팔아먹지 말우.

무당 : 그것 왜 빼가요?

마부 : 그렇다면 모르지.

(타령조로) 여보 만신 들어를 보려오? 쇠(舌)의 내력을 들어를 보오. 경

상도(황해도?) 載寧쇠냐? 전라도 우비철 상철 토찰애에 유기방짜(당철?) 그런 쇠가 아니오며 수풀 밑에는 배암의 쇠요, 산지고 앉은 거북의 쇠요, 비륵연에는 미륵쇠요, 인도 옥연엔 난간쇠요, 절궁수에는 나사쇠요, 각 대장간의 기인 쇤데 우리 소 쇠는 짚신짝 쇠니 이 쇠 저 쇠를 다 버리고 육쇠(肉舌)라고 지으리오.

보충가사 : 잠근 문엔 열쇠구요. 열린 문엔 자물쇠, 안성유기 놋쇠구요, 누른것은 주석쇠, 검붉은건 황철쇠고 기차엔 장철쇠요 다리 난간 虹霓쇠요, 금은동철이 전부 쇤데 어떤 쇠를 섬기리까?

무당 : 꼬리는 어떤 꼬리인지 타령으로 섬겨보오.

마부 : (타령조로)앉은 고리는 동고리요, 선고리는 문꼬리. 조화 많은 용의 꼬리냐? 나는 꼬리는 꾀꼬리, 나뭇군의 지겟고리, 총각 되련님 당기꼬리, 아주먼네는 초마꼬리, 석가래祖宗은 가재미 꼬리, 神農氏의 백초약 이슬 떨던 토끼의 꼬리인데, 어느 꼬리를 섬기리까?

보충가사 : 있고도 없는 노루꼬리.

무당 : 거 꼬리 참 좋습니다.

마부 : 그 꼬리가 그렇게 좋으니 잘라다 총채 만들지 말우.

무당 : 여보 산 소 꼬리를 누가 자른단 말이요? 그런 말씀 허지두 말우.

마부 : 아 그럼 안심하겠소.

무당 : 그 소가 그렇게 찬란하고 좋으니 다리와 굽이나 이런 것 들을 골고루 좀 빼놓지 말고 섬겨주오. 이번엔 다리가 그 무슨 다린지 다리를 좀 타령으로 올려 봅시다.

마부 : 그럽시다. 만신 들어보시오. 다리 타령을 할 것이니 잘 똑똑히 들어 보시오.

(타령조로) 동대문 밖으로 북차다리냐? 동대문 안으로 두다리, 종로로 올라 방충교 다리냐? 육조앞으로 추정다리, 무화관으로 석다리요, 무학고개로 칭칭다리, 남대문 밖으로 썩 나서서 염충교도 다리요, 한강으로 내달아서 철물교 인도교 다리요.

보충가사 : 남문 밖으로 썩 나서서 굴레방다리도 다리요.

마부 : 남문안으로 도로 들어 오줌을 누었다 수표다리냐? 빨래를 헌다 마전다리 앞을 못보아서 소경다리에 깨끗치 못헌 五間水다리. 네

다리 내다리 사다리인데 어느 다리를 섬기리까?

보충가사 : 다리를 볼작시면 건너 뛰어 징검다리, 옹기종기 돌다리, 가로 누운 외나무다리, 허공에 떠서 구름다리, 경성시내의 염충교 다리, 청계천 다리도 다리요.

보충가사 : 목을 매여 톡 떨어졌다 자수궁다리도 다리요, 새문 밖으로 정구다리, 무학고개를 썩 넘어서서 금바위다리도 다리요, 남대문을 돌아들어 둥글둥글 수박다리, 일락서산의 대다리요, 장작골다리도 다리인데 만신 아주머니두 다리요.

보충가사 : 동수문안 들어가서 백토산을 모아다가 놓은 흙다리도 다리구나. 사해 용왕이 놓은 구름다리도 다리구 오좀을 누는 수표다리도 다리구요, 각 댁하님 모여설랑 빨래허다 놓은 麻田다리도 다리구요, 만신 집에 가서보면 귀헌 아들 명다리요 좁은 돌창(도랑창)에 외나무 다리. 큰개천에 공굴다리(콘크리트), 용산 삼개 노들다리, 팔도 장님이 놓은 소경다리도 다리요, 만신 다리는 두다리, 소장수 다리도 두다리요, 우리 소 다리는 두다린데 송아지 다리는 여덟다리.

무당 : 다리가 그렇게 좋으니 굽도 좋겠군요, 굽의 타령을 한번 들려주시오.

마부 : 한번 들어보오.

(타령조로) 북두칠성은 일굽이요, 당명황의 양구비요, 관창서기의 월굽이냐? 신랑신의 나막신굽.

보충가사 : 적벽대전 난분 중 분주하다 말굽, 광주 분원의 사발굽, 칠십노인의 눈굽이냐? 만신 마나님 배꿉이냐? 어느 굽을 섬기리까?

보충가사 : 정갱이 우에 종지굽이요, 한가운데 배굽이요, 한달월굽이 봉굽이요 날마다 받는건 일굽이요, 잘허면 상굽이요, 못하면 벌굽이요, 경마장 말굽이요, 군인병사 계굽이요, 진날 신는 나막신굽, 팔년풍진 초한시에 분분허든 말굽인데 어떤 굽을 섬기리까?

무당 : 아 참 굽 좋소이다. 만신마누라 배꿉을 왜 게다 넣소?

마부 : 그게 웃음거리로 한 마디 하는 거라오, 노여하지 말우.

무당 : 다리와 굽이 그렇게 다 좋으나 색은 무슨 색인가? 대관절 색을 한

번 좀 들어봅시다.

마부 : 그러시오.

(타령조로) 옥동도화 滿四春에 가지 가지 봄빛이요, 녹음방초 다지나가고 구시월이 돌아오니 울긋불긋은 단풍빛, 사월남풍 大麥黃 동서사방의 누른빛, 청산의 보은 대추빛이요, 구년지수 비올 적에 원수같은 햇빛이냐? 칠년대한 가므는데 보기 싫은 볕이로구나. 어느 빛을 섬기리까? 우리 소의 빛은 황색이요, 황색을 모르건 누렁소란 말 똑똑히 들어 두시오.

보충가사 : 꽃이 피면 꽃빛이요, 동지섣달 설한풍에 천지가 눈빛이요, 메빛 참빛 얼네빛 구년지수 비 오는 날의 반갑구나 햇빛, 오동추야 긴긴 밤의 동창의 달빛, 유상앵비편편금에 날라드는 황금빛, 앞내 버들은 유록빛, 뒷내 버들은 초록빛, 앞뒤동산 도라지꽃에 초록빛이 찬란한데 어떤 빛을 섬기리까?

무당 : 소가 말귀가 그렇게 밝다니 글도 잘 배우?

마부 : 잘 배죠. 가르쳐 주는 대로는 다 알오.

무당 : 그럼 어디 한 마디 가르쳐 보시오.

마부 : 들어 보시오.

(타령조로) 子時에 생천을 하니 구후청청의 하날 天.

(소에게 대사로) 번쩍 들어라. 옳지.(소가 머리를 든다)

(타령조로) 축시에 생지하니 만물장성은 따 地.

(대사로) 내려 수그려. 옳지.(소가 머리를 수그린다)

(타령조로) 춘풍세우 호시절에 연주 남낭 감을 玄.

(대사로) 누은단 말이야.

(타령조로) 동서사방의 몇 만리냐, 중앙황토는 누루 黃.

(대사로) 소 입맞추라는 격이야.

(타령조로) 법중 律 법중 呂자, 춘향아 술부어라 넘쳐간다 기울 측.

(대사로) 자꾸 하니깐 고만 하라구.

무당 : 여보 소장수 서방님 소도 그렇게 똑똑한 걸 가지고 댕길 적에는 의복도 똑똑히 입었을게구 외양도 똑똑허니까 잘 채렸을 터이니, 채림채림을 타령으로 한번 들려 주시우. 들어봅시다.

마부 : 예 어렵겠소. 죽어서 무당의 입도 빌어 허는데 살아서 내 입으로 허는거야 못하겠소? 들어보시요.

(타령조로) 백공단 바지냐, 법단 저고리 왜단 조끼 떨쳐 입고 법수화주 마고자에 거영나니 속버선에 몽고 삼승 텃버선을 모양있게 신었구나. 찬포단 댄님을 하나 일자로 제껴매고 남대단 허리띠는 무릎아래 느즈매고 허리 불쑥 염랑에는 쪽 삼끈이 제격이오. 홍공단 주머니에 북두칠성에 수를 놓아 주홍방단의 열매듭은 모양있게 졸라매고, 백수화주 두루매기에 남갑사 전복을 떨쳐입고 남전댕이 띠를 띠어 타꼴치 미투리에 나 꼬리들메 제격이요, 의열낭금은 쥐꼬리당줄, 개미상투는 산호 동곳 호박 풍잠 달았구나. 안올림 벙거지 밀화파양에 籃日光緞으로 안을 받쳐 수문갑사 너른 끈을 양귀 밑으로 졸라매고 소상반죽 육렬채찍 오른손에 넌짓들어 미러 툭쳐 놀아가니 구군복이 제격이라.

무당 : 참 잘 채리셨습니다. 뉘집 서방님인지 남의 속 많이 쎄였겠소.

마부 : 그런줄 알고 당신도 반하지 마시오.

무당 : 그렇게 좋고 찬란할 제는 굴래도 잘 짰을 테고 관자도 좋을 테고 허니 타령을 한마디 잘 들려 주시오.

마부 : 그럽시다.

(타령조로) 외령 미명 전폭에다 삼색 물감을 갖추 들여 보기 좋게 어울려서 양산겹 당모겹에 양귀밑에 쌍열베며 느름나무 꼬뚜레에 관자 치장을 볼적이면 명주 팔사 십이겹을 보기 좋은 은장식은 술象毛 물렸구나. 듣기 좋은 풍경소래 양귀밑에 달았구나.

무당 : 굴레를 잘 짜서 보기가 좋습니다.

마부 : 여보 훔쳐가지 말우. 애들 색동저고리 해 입힐려고 끌러가지 말오.

무당 :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남의 소 굴레를 끌러가요?

마부 : 그러기 말이오.

(타령조로) 느름나무 길마가지에 물푸레나무 송이가지에 버드나무 둥우리에 왕굴숙배 작은 치며 반목삼에 제격이요 삼장 언폭 길마를 지고 함경 쇠나무 껑거리에 양머리 당모차가 숙배때를 매여노니 수만석시 끌어 들여도 마사 비룡이 천리행이라.

보충가사 : 길마로 볼작시면 산골길마는 곱창길마 대체길마는 손길마 직업으로 들어서서 학생으로 책보길마, 장돌림뱅이 잠보길마,

장님으로는 북길마, 무당으로는 장고길마, 농사군에는 괭이 호미가 길마다. 풍경으로 볼작시면 금풍경이면 고대광실 높은 집에 네귀에 풍경 달고 광풍이 넌짓 부니 왱그렁 쟁그렁 풍경이요. 전라도 소로 호사 풍경, 경기도 소는 중쇠 풍경, 평안도 소는 죽빛 풍경, 황해도 소는 대자풍경.

무당 : 소가 그렇게 좋은데 말도 잘 듣겠지마는 농사를 좀 잘 지어봐야 할텐데, 무신 곡식을 심었나 잡곡 농사 씨타령을 한번 들려주오.

마부 : (타령조로)

여주 이천은 자채베냐
김포 통진의 밀다리베냐
청산 보은의 대초베냐
드메 양반의 양화베냐
허연 백발 노인베냐
일락서산에 저문베냐
마당 쓰레기 검불베냐
우물 앞에는 새암베
의전 앞에는 상모찰이요
삼수 갑산의 수머조
삼에 용강의 모래조
천군 만병 오조냐
짝짝 발아진 괭이월 차조냐
익어도 퍼런 건 청차조
꽁치가 몽뜩 박달차조
천군 만병에 오조냐
만리 타국의 왜강낭콩
이팔 청춘의 푸르대콩
초감 포수의 깜장콩이냐
무안을 보았다 불구대 콩이냐
참깨냐 들깨 드들깨
영창 같은 아주까리
흑두 작두는 개파리 동부
잔뜩 싣고 들어왔네

보충가사 : 미력(련?)하다고 들충벼, 어진일에 쌍토찰, 꺽떡 프드득 쟁기찰, 알뜰살뜰은 까투리찰, 시집못간 각시찰, 안성유기는 양푼찰, 알록달록은 피마자콩, 체수가 적다고 쥐눈이콩.

보충가사 : 양원분원의 사발벼, 많이 먹어라 등터지기, 목이 짧아서 석베기며, 목이 길은 이른 일출, 떨어지지 않아서 외찰 벼, 톡톡 뛰어라 벼룩조며, 뭉게뭉게는 개똥차조, 짝짝 벌어져 외발차조, 어떤 두태를 심으실까. 혼자 됐다고 호래비콩이요, 내숭스런 겉푸르대, 쌀쌀한 거는 과부콩이요, 빛이 좋아 적두팥이냐, 맛이 좋은 가래팥, 장에 못가는 양반팥이요, 각도 각읍 온골동부며, 앞을 못봐서 소경수수, 무안을 봤다 붉은수수, 몽창몽창은 목딱수수, 포도군사에는 육모보리, 육조판서는 녹보리, 심이 좋은 청보리며, 덧부치기는 귀리리오, 맨숭맨숭은 밀이로다. 떴다 보아라 갱피로다. 허잘 것 없는 것 귀리로다.

### (3) 소 흥정

무당 : 그 소가 그렇게 찬란하고 좋으니 이집 성주에서 소를 받겠다고 하니 흥정을 해서 사고 팔읍시다.

마부 : 그럽시다. 데리고 대니기도 구찮고 멕일 수도 없구 들어보시오 (타령조로) 소주천이 몇 천냥에 이룩천 여기로다. 소주천 몇 백냥에 진주천 몇 천금 이천냥 남으시고 저리 천냥 남으시고 수 십 천냥의 떼리 미어.

보충가사 : 큰 소 값은 오천냥이고 송아지 값은 칠백 이른 네 냥, 두바리 값에 한테 합쳐 오천칠백이른네냥이요. 우리가 없어도 아니 팔고 귀가 떨어져도 아니 파니 부르는 대로 내놓으시오.

마부 : 억수 장마에 비 퍼붓듯 대천 바다에 물밀듯이 무럭 무럭 늘으는 재산 수 십 백석 되었구나. (무녀가 그 집 주인을 내세워 콩을 담은 木斗에 꽂은 북어에 명주끈으로 된 고삐를 걸어주게 하고 소 값으로 돈을 馬夫에게 주게한다)

마부

여보 만신 들어를 보오
말뚝의 내력을 아뢰리다
십리 밖에는 시므나무
십리 안에는 오리나무

한 다리 절뚝 전나무냐
마주 섰다 은행나무
입을 맞치여 쪽나무냐
아흔아홉에는 백자나무
열아홉에 시므나무
낮에 보아도 밤나무냐
동에 가서두 북나무냐
앞뒤 없는 대나무
그런 말뚝은 다 제쳐놓고
원산 말뚝을 대령하오

(진행하는 동안에 술을 먹게되면 이 때 '뜸물타령' 을 부른다)

보충가사 : 좁쌀뜸물에 입쌀뜸물 그런 뜸물은 다 싫고 막걸리도 싫고요 이바지 약주만을 잡수시오. 무슨 안주를 찾으시나. 꺽꺽 푸드득 꿩도 싫고 돼지육만 주면 잘 먹소이다.

무당 : 소장수 서방님의 부인이 몇이나 되우?

마부 : 넷이요.

무당 : 넷이면 이름 성명이 무어까요?

마부 : 일러 줄께 들어보오.

(타령조로) 도화만발 점점흥 보기좋구나 화선이냐. 환국방토 돌아오니 떨어졌다 목엽이냐. 동지섣달 설한풍에 변치 않을 손 송죽이며, 네째 부인은 당신인데 고깔 장삼 제격이라.

무당 : 이름을 들어보니 그렇게 좋은데 입히기는 뭘 입혔는지 의복치장이나 해주구려.

마부 : 그럼 들어보우. 나는 경제세상이 돼서 겨울살이를 뜯어가지고 여름에 두벌을 쓰는 목적으로 겨울엔 여름살이요 여름엔 겨울살이요 이렇게 입혀 길르오.

무당 : 마누라를 넷씩 두고 설라믄 그렇게 입힐 게 없드란 말이오.

마부 : 살자구 그러니깐 살지 내가 억지로 붙들어온 거 아니오.

무당 : 그럼 의복치장이나 해 보오.

마부 : 그럼 들어보오.

(타령조로) 한산 세모시 백의 고쟁이 안주 당황나 너른 바지주 불란사 덧초마에 봉모사 어깨걸이 뒷판조끼 속적삼에 견화양산 덧

적삼은 비추연풍 달았으니 맵씨있게 입었구나, 유두분면에 풀머리단장 비추비녀 석류자매 서북장계 화장 꽂았으니 모양만 질질 깔기구나. 곧은 목 버선에 비단 마른 신에 보기좋게 신었구나. 중등푸리를 볼 양이면은 남수인 허리띠에 홍공단 주머니에 술상끈 넌짓달아 금북 은북 연통귀불 타레 안경집 채집까지 갖추갖추 달아차고 오른손에는 영미소며 왼손에는 양산을 들고 구명(후면?) 화초 구경가니 춘흥 적적 난만 개요 봉학 펄펄 날아 드는데 부부(보보?) 향풍 긋는 바람 홍도화 낙화진다.

### (4) 성주풀이 및 祝願

무당 : 그럼 이집 치장이나 해 보오.

마부 : (타령조로) 성주 본향 어드메냐,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이 본일레라. 제비원에 솔씨를 받아 소평 대평 던졌더니 그 솔이 점점 자라 소부동 되었구나. 소부동이 점점 자라 대부동이 되었구나. 대부동 점점 자라 청장목이 되었구나. 청장목 점점 자라 황장목이 되었구나.

황장목이 일취월장 도리기둥 되었구나. 그 재목을 내려 할 제 서른 세명의 역군을 들여 소산 대산을 찾아갈 제 소산 대산 올라가면 고사 정성이 없을소냐. 왼소머리 받쳐놓고 통돼지 잡아드린 정성 지성으로 축원하니 고사 정성을 마친 후에 금도체 은도체로 동을 을러 서를 찍고 서를 을러 북을 비어 어지끈 뚝딱 베어넹겨 궁글 뚤너 떼를 몰제 원근 산천에 칡을 끊어 양구 양천 흐르는 물에 어리 둥실 띠여다가 이치모 하올 적에 갖은 편수가 모였는데, 김편수냐 이편수냐 두 편수의 거동을 보소. 목자 먹통 손에 들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대단히 바쁘게 시키누나. 이 집을 이룩할 제 집터 한번을 닦아보자.

좌자오향쇠를 놓아 사방으로 둘러보니 뒷 산천을 바라보니 필봉산 솟았는데 오봉산 오형제요 필봉산은 장원급제 열일이 날 자리라. 좌자오향의 주추를 놓고 인의예지 기둥 세고 삼강오륜 대들보를 얹고 外천지 무궁무궁에다 옹천상지 마룻대여 선하자손은 서까래요 우애지심은 평부대며 암기와 숫기와는 아귀로 물렸구

나. 용두머리 막새집에 은자추녀 되었구나. 소로벽부 분명하니 문치장이 없을소냐. 영창 가창에 열미닫이 완자(卍字)창에 가로닫이 국화물림 좋을시고 내우분합 물린 후에 외우 황토 초적하고 시토 시새 새벽후에 황분지 초배하고 백능화 정배후에 쳐다보니 소라반자 내려다보니, 각장장판 소란병풍 둘렀는데 천하명화 좋은 그림 여기 저기 붙었구나. 우편을 바라보니 위수의 강태공은 무왕을 보려하고 곧은 낚시를 물어 넣고 어련히 앉은 모양 역력히 그려있고, 좌편을 바라보니 酒中天子 이태백이 포도주를 취케먹고 물밑에 비친 달을 건지랴하는 양을 역력히 그려있고, 또 한편을 바라보니 商山四皓 네 노인이 바둑판을 앞에 놓고 黑棋 白棋 두는 양을 역력히 그려있고, 또 한편을 바라보니 한종실 유황숙은 남양초당 와룡선상 찾아 가느라고 걸음 좋은 적토마를 뚜벅뚜벅 빗겨 몰아 앞에는 장비 관우 남양초당 풍선중에 지향없이 가는 모양 역력히 그려 있다.

안방 치장을 볼 양이면 육간대청에 너른 마루 뒤주 쌍쌍 찬장 쌍쌍 탁자까지 놓였구나. 마루 선반을 바라보니 전라도 죽반이며 저장반이 쌔여있고 네귀백이 잔목판에 두리목판 쌓였구나. 부엌으로 잡아드니 器血이 분명허다. 은반상에 금반상 광주분원에 사기반상 가득 소복히 쌔여 있다. 솥치장을 볼 양이면 전라도 곱돌솥 구리솥에 북창으로 무쇠가마 여기저기 걸려 있다. 부엌치장도 그만허니 노적이나 돌아보자. 뒤로 돌아 뒷노적, 앞으로 돌아 앞노적 멍애 노적 쌓였는데, 윗노적에는 싹이나고 아랫노적엔 꽃이 피니 춘화작작 난만개 봉황이 펄펄 날아든다. 업족제비가 뉘였느니 이런 경사 또 있느냐? 이 집 이같이 지였으니 입춘인들 없을 소냐? 대문전을 바라보니 "龍水保虎逐災" 뚜렷이 붙였구나. 사랑기둥을 바라보니 "願得三山不老草 排獻高堂白髮親"이 뚜렷이 붙였는데, 마루기둥을 바라보니 우여맹호는 만인수며, 마사이령이 현리행 완연히 붙였구나. 광문기둥 바라보니 錦衣玉食이 倉庫滿이요 仙風道骨이 우상직 광문전 바라보니 掃地허니 黃金出 開門허니 萬福來라 뚜렷이 붙였구나. 마루 대청기둥을 보니 碧桃春桃는 백성대, 家和 人和는 萬事成 뚜렷이 붙였는데 마루대청을 바라보니 應天上之三光이여 備人間之五福이

라 완연히 붙였구나. 빵문기둥을 빠라보니 堂上 학발이 천년수요 슬하자손만세榮이라 완연히 붙여있고, 부엌문전을 빠라보니 삼일은 입국하여 시수는 작강탕 완연히 붙었다. 이만 허구서 사는 집에 사랑 앞에다 연못 파고 연못 가운데다 섬을 모아 섬가운데 육모정 짓고 이댁가중에 주인대주 사방 네귀에 풍경달아 풍경소리를 운을 맞차 五絃琴 벳겨안고 남풍시를 화답하니 그런 경사 또 있느냐. 이만 허고 사는 집에 명과 복을 발원인데 石崇에 복을 빌고 강태공의 나이를 빌어 상팔십 후팔십에 발원이로다.

무당 : 집도 잘 짓구 부귀공명으로 사는데 자손두 많이 낳았을 테니 그 과거풀이나 한번 해보오. 이만하고 사는 집에 아들 자손이 나면 공부도 잘 시켰을 텐데 공부에 따라서 그집 아들이 잘 되어 과거하고 벼슬하여 잘살다 죽었다는 과거풀이를 해보오.

마부 : 그럼 들어보려오?

(타령조로) 이집 가중에 어린아기 한 두살 세살 네살 삼사인 자랄적에 오이 붓듯 가지 붓듯 일취월장 잘 자라니 글이나 한번 읽어보자. 천자 한권 읽은 후에 시전 서전에 논어 맹자 사서삼경을 다 배우니, 필법은 왕희지요 풍채는 杜牧之요 이태백의 문장이라. 이때하면 어느때냐. 국태가 민안하고 時和가 年豊하니 나라에서 태평과 뵈인단 말 풍년에 넌짓 듣고 科場기구를 차릴 적에 장장 창 머리채를 반달얼레로 설설 가려 보기 좋게 엎어따서 갑사당기를 끝 물렸다. 오복수 저고리에 백공단 빠지에 법단 조끼 떨쳐입고 백수화주 마고자 고양난이 속버선에 몽고삼승 덧버선은 모양있게 신었구나. 한포단 댄님은 고무레 丁자로 제겨 매고 도리볼수 행전에다 오복수 두루매기 남갑사 전복이며 술띠를 눌러 띠고 머리에는 검은 갑사 복건에다 준주 눌림 얹었구나. 서산 나귀 솔질하여 송구안장 지어타고 앞에는 설동자 뒤에는 밀동자 주야빼로 올라가 한양성내 도달허니 의성문이 여기로구나. 백포 채일은 구름같고 팔도 선비 다 뫼였다. 글씨를 강론한다. 시지를 펼쳐놓고 黃毛無心筆 덤뿍 풀어 龍硯에 먹을 갈아 백능설화 간지상에 일필휘지 선장하니 서시관 보시고 高聲大讀으로 호명한다. 호명소리 반겨듣고 어전에 복지하니 실내를 재촉헌다. 머리에는

어성화 몸에는 금복대청동 쌍개를 앞세우고 허리에는 이병요호 손에는 옥홀을 쥐고 금안백마에 높이 앉아 청동 쌍개를 앞세우고 장안하고 대도상에 완완히 실내하니, 골목 골목 모인사람 인산인해 허였구나. 三日遊街를 마친 후 본택(댁)으로 돌아와서 선산에 소분하고 부모님 전에 배앙(알)하니 이런 경사 또 있는가? 원근지족 모아다가 대연을 배설허고 삼사일 쉰 후에 다시 상경을 허였구나. 한림학사 다지내고 승지 참판 되었다가 내직으로 계셨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 또 있느냐?

무당 : 소장수 서방님 여태 헌 일도 많지마는 이 집 축원이나 한번 잘 들이시우.

마부 : 그래 봅시다.

(타령조로) 국태민안 법률전 세화년풍 돌아든다. 왕씨 낭군 이후로구나. 이씨가 한양에 등극하니 삼각산 기봉하야 봉학이 되었구나. 봉의 머리에 터를 닦아 학의 등에다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여기 저기 오영문 십이대장이 결진하고 삼신산 왕심이는 무학천(청)룡이 되었구 동구재 만리재 백호로다.

보충가사 : 은하는 걸립자 사바는 서교로다. 남서를 부주잡고 양주같은 대모관 연천같은 소읍이며 근구근명 양위부처 근시일시 동락으로 한 오백년 늘어갈 제 백대천손 하옵시고 아나 검사 부인마마 상남에는 서방님

마부 : 한강이 수궁마다 동적강이 되었으니 조옹남산의 중앙대, 해동유명의 조선국은 정기 요진의 한양외다. 삼십육중의 대모관 면례도 대면례며 동중도 대동중에 이댁 동중 들었구나. 서주를 바라보니 큰 명자 서방님 곤명에도 부인마마 근군근명의 양위부처 근시일시 동락으로 태조백년 늙어갈 제 한 두살이라. 금년생 열 스물의 중남자손 이삼십이라 상남대주 근구근명 여자 애기 수명장수를 축수로다.

무당 : 월액따라 삼재팔난 살풀이나 해서 살이나 막어주구 그만둡시다.

마부 : 한마디 들어보시오.

(타령조로) 지나 갔던 행운년은 꿈결같이도 갔건 마는, 올갈이 험한 시절에 이 집의 살을 풀어 보자. 산으로 올라 산신살, 들로 나려

적용살, 용마루에는 용충살이요, 안마당의 벼락살이요, 마루 대청의 성주살, 안방으로는 삼신살, 거름방으로는 공방살이냐? 부엌으로 주앙살, 부뚜막에는 주앙각씨, 아궁이에는 검덥귀신, 사릉에는 댕그렁각씨, 굴뚝에는 굴대장군, 물독에는 龍女婦人, 자루속에는 부녀각씨, 쌀독에는 제석 만명, 이살저살 휘몰아다가 방맹이 맞은 북어 한개 탁주 일귀 안동하여 의주 월강 소멸하니, 만조옹노 여귀에 부귀영화를 누리노라 살을 풀어보자.

보충가사 : 시년 해를 접어들어 몽수대살이 시다하니 몽수대살 풀고가자. 입다 굴러라 청궁살 디리 굴러라 지둥살, 오르내려라 요신살, 거리노전에 흥(횡)액살, 썰물에도 서낭살, 내색조색 서낭살, 이머퉁 저머퉁 서낭살 은하는 그일차 사바를 서교로다. 온갖 액을 다 풀어서 금일 고사 원강천리에 소멸하니 그런 경사가 또 있느냐?

### 2) 材料와 服飾

#### (1) 소(큰소)

① 재로는 고무래 · 종이 · 명주 · 광목 · 짚신 · 고무신 · 짚 · 멍석 등을 사용한다.

② 쇠머리는 고무래에 짚을 싸서 윤곽을 잡고, 소얼굴 모양을 백지에 그려 붙인다. 귀와 혀는 짚신이나 고무신 바닥으로 하며, 고삐는 명주 또는 광목으로 한다. 소 몸뚱이는 큰 멍석을 반으로 접고 그 안에 5~6명이 들어간다. 뿔은 짚을 꼬아 만든다.

③ 얼굴 길이 50cm, 얼굴 너비 20cm, 뿔 세로 20cm, 혀 가로 8cm, 혀 길이 15cm, 귀 가로 10cm, 귀 길이 25cm, 고무래 자루 80cm, 멍석(두 장으로 전체 길이) 320cm, 꼬리 길이 115cm.

#### (2) 송아지

① 재료는 소와 같다.

② 제작 방법도 큰 소와 같으나, 크기가 다를 뿐이다. 한 사람이 짚멍석을 뒤집어 쓰고 고무래로 만든 쇠머리를 든다.

③ 얼굴 길이 25cm, 얼굴 너비 21cm, 혀 가로 8cm, 혀길이 13cm, 고무래 자루 42cm, 귀길이 19cm, 귀 가로 9cm, 꼬리는 없다.

**(3) 원馬夫**

검은 전립을 쓰고 남색 전복을 입고 홍띠를 띠고, 오른손에 삼신부채 왼손에 소의 고삐를 잡는다.

**(4) 결馬夫**

원마부와 같은 복색이다. 보통은 약식으로 복식을 갖추지 않고 원마부를 따르며, 원마부와 교대하여 소놀이를 하게 되면 원마부의 복색을 갈아입는다. 손에 채찍을 든다.

**(5) 무당**

제석거리에 입은 복색대로 흰 고깔을 쓰고 흰 장삼을 입으며, 오른손에 흰 제석부채를 든다.

**(6) 助巫 · 樂士**

보통 巫儀의 복색과 같다. 반주 악기로는 장고 · 피리 · 해금을 사용한다.

## 4.특징

한국 무속의 기능을 司祭 · 占卜豫言 · 巫醫 · 娛樂藝能의 넷으로 나눈다면, 소놀이굿은 그 중보다 더 오락 예능적 기능에 비중이 놓이는 것이며, 의례(ritual)에서 연희로 발전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놀이라 하겠다. 양주 소놀이굿은 소놀이굿 · 소놀음굿 · 소굿 · 쇠굿 · 마부타령굿 등으로 불리며, 慶事굿의 일부로 제석거리에 이어 하나의 새로운 절차로 행해진다. 즉 이 굿은 환자가 생겨 惡鬼를 쫓거나 달래는 憂患굿과는 달리 '잘되라' 고 하는 경사굿이며, 농사나 사업이나 장사 등이 잘되고 자손이 번창하기를 빌어 행하는 굿이다. 이른바 서울 지방굿의 기본이 되는 열두거리굿 절차는 소놀이굿이 낌으로써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규모나 비용이 커질 뿐이다. 혹자는 이 소놀이굿을 가리켜 '돈 써 버리는 굿' 이라고도 한다.

먼저 연희의 과정을 보면, 소놀이굿은 제석거리에 이어서 놀이를 시작한다. 그리하여 무당은 제석거리 복색 그대로 마루에서 안마당을 향해서 서고, 재비(악사)들은 巫樂연주를 위하여 역시 안마당을 향해 마루에 앉고, 이 놀이의 주인공인 원마부는 마루 앞 봉당에 선다. 앞마당에는 멍석을 뒤집어 쓰고 고무래를 짚으로 싸서 머리를 만든 소가 송아지를 데리고 선다. 이와 같이 무대가 마루에서 봉당과 앞마당으로, 주역이 무당에서

마부로 바뀐다. 소놀이 굿의 진행은 무당과 마부와의 대화, 반주장단에 맞춰 부르는 마부의 타령과 덕담, 마부의 동작과 춤, 그리고 소의 동작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연희로서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

굿이나 판소리가 형식상 거의 무당이나 광대의 獨演 형태인 데 비하여 소놀이굿은 마부와 무당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며, 무당과 악사 · 원마부와 곁마부 · 假裝한 소의 주요 배역과 많은 구경꾼의 참가로서 이루어진다. 마부가 부르는 소리는 雜歌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극히 세련된 평민가사 풍의 노래이다. 소놀이굿의 소리 대목은 '누가 나를 찾나'를 비롯해서 20여 가지나 되는데, 주로 소의 모습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그 다양성이 돋보인다.

그 소리 대목을 대략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누가 나를 찾나
② 馬夫 路程記
③ 寶物 타령
④ 마부 대령 인사
⑤ 소의 머리 치레
⑥ 절타령
⑦ 소뿔 치레
⑧ 소귀 치레
⑨ 소눈 치레
⑩ 소입 치레
⑪ 소이 치레
⑫ 소혀 치레
⑬ 소꼬리 치레
⑭ 소다리 치레
⑮ 소굽 치레
⑯ 소모색 치레
⑰ 소 글 가르치기
⑱ 마부 복식 치레
⑲ 소의 굴레 치레
⑳ 雜穀 타령
㉑ 소 흥정하는 대목
㉒ 말뚝 타령
㉓ 소장수 마누라 타령
㉔ 성주풀이
㉕ 祝願과 德談
㉖ 살풀이

이 소놀이굿은 제석거리에 이어서 소놀이굿을 노는 것인 만큼, 巫歌와의 밀접한 관계와 그 영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소리 내용과 진행 형식은 巫儀, 특히 제석거리에 종속된 일부가 아니고 독립된 하나의 연희이다. 그러므로 제석거리의 연장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독자의 형식을 가진 소놀이굿이라는 놀이가 경사굿의 제석거리와 결합되어 지금과 같은 연희 형태를 갖춘 것 같다. 무의 12거리 중에서 제석거리와 결합하게 된 이유로는, 제석거리가 자손의 창성과 長壽를 빌고 또 제석항아리의 穀神 성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풍년을 비는 농경 의례적인 요소와 불교적 요소

가 융합되어 있어, 소놀이굿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 ※ 양주 소놀이굿 보존회

楊州 소놀이굿 保存會는 백석면 방성리 446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민족 고유의 민속예술이면서 세련된 장편의 敍事歌詞도 담고 있어 연극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양주 소놀이굿은 原形保存과 繼承發展을 위하여 1980년 11월 17일 창립되었다. 이 때에 양주 소놀이굿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되었다. 양주 소놀이굿은 1976년 12월과 1975년 12월에 지정을 위한 심의가 있었으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 원마부 金仁起, 악사 高熙貞이 인간문화재로 인정되었다.

양주 소놀이굿 보존회는 매년 1회의 정기공연과 그 외 많은 국내 공연을 통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인 양주의 소놀이굿을 널리 소개하고 있으며, 군내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의 강습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향토문화예술의 傳承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식 사무실이나 연습 공간이 없는 불편함 속에서도 매달 2회의 정기적인 연습을 통하여 회원들의 기량연마에 힘쓰면서 대중 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 傳統藝術로서 양주 소놀이굿을 발전시켜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존회장은 金仁起(1980. 11. 17~ 1992. 2. 현재)이며, 회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1991년 7월 10일 현재)

| 성 명 | 생년월일 | 특기 | 비 고 | 선정일 |
|---|---|---|---|---|
| 김인기 | 1914. 11. 5 | 원마부 | 인간문화재 | 1980.11.17 |
| 고희정 | 1921. 6. 13 | 악사 | 인간문화재 | 1980.11.17 |
| 김봉순 | 1936. 3. 6. | 만신 | 예능보유자후보 | 1990.10.10 |
| 김병옥 | 1931. 4. 7. | 악사 | 전수조교 | 1984.4.1 |
| 김남강 | 1957. 11. 25. | 송아지 | 전수조교 | 1988.8.1 |
| 김명기 | 1917. 10. 3. | · | 예능이수자 | 1987.7.1 |
| 정남훈 | 1930. 11. 19. | · | 예능이수자 | 1987.7.1 |
| 김확익 | 1932. 9. 28 | 곁마부 | 예능이수자 | 1987.7.1 |

| 성 명 | 생년월일 | 특기 | 비 고 | 선정일 |
|---|---|---|---|---|
| 정조훈 | 1934. 11. 23. | · | 예능이수자 | 1987.7.1 |
| 어윤관 | 1943. 12. 28. | 곁마부 | 예능이수자 | 1988.7.31 |
| 오혜양 | 1955. 12. 12. | 만신 | 예능이수자 | 1989.6.15 |
| 신성남 | 1956.7.17. | 큰소 | 예능이수자 | 1987.8.31 |
| 정지광 | 1960.5.3. | 송아지 | 예능이수자 | 1989.6.15 |
| 박형배 | 1946.12. 13. | · | 예능전수자 | 1988.7.1 |
| 한애옥 | 1954.1. 10. | · | 예능전수자 | 1987.7.1 |
| 양길석 | 1954.10.8. | · | 예능전수자 | 1987.7.1 |
| 김광희 | 1969.6.7. | · | 예능전수자 | 1987.7.1 |
| 김천배 | 1970.1.11. | · | 예능전수자 | 1987.7.1 |

(全 令 熙)

# 고전농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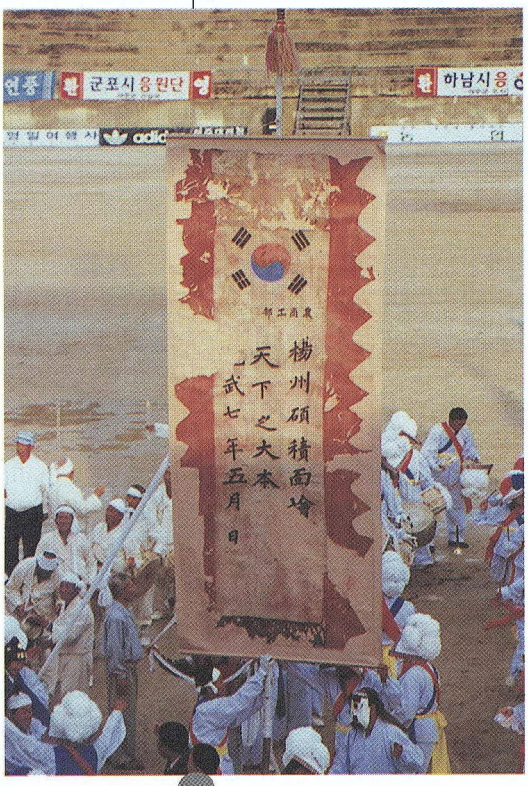
## 1. 전승지

양주군 석적면(陽州郡 碩積面) 회촌동(檜村洞)

- 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 2. 유래 및 해설

양주 고전 농악은 예전부터 회촌동에 전해 내려오는 두레패 놀이로서 농촌에서 모심기 및 밭 붙임 등 김을 맬때 두레패를 중심으로 등걸, 잠뱅이 차림에 우장, 호미 등을 갖추고 농기를 앞세우면서 농악에 맞추어 일터로 나가 하는 한마당 놀이이다.




원래 석적면 회촌동(현 광적면 효촌리)은 옛부터 전나무가 많아 회촌동이라 칭하여 오고 있는데 130여 농가로 형성된 마을에서 농사의 품앗이와 마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두레패를 결성하고 농사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두레농악을 전승시켜 오던 중 광무7년(1903)에 농상공부로부터 농기를 하사 받으면서부터 본격적인 농악놀이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양주고전농악은 두레패놀이의 특징을 잘 살려 농사짓는 전과정을 노랫가락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농사절기에 맞추어 보리밭 밟기부터 추수때까지의 과정을 상쇠가 선도하는 울림과 소리에 따라 소고잡이가 춤과 율동으로 이어가는 농악놀이로 발전시켜 전

승되어 왔다.

**※ 농기에 대한 유래(정부로부터 하사받은 회촌동 농기)**

이 농기는 광무(光武) 7년(1903)에 농상공부(農商工部)로부터 하사받은 것으로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 쓰고 농사공부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일찌기 구한말 정부에서도 회촌동 두레 농악패의 짜임새와 농사짓는 풍물가락의 뛰어남에 감탄하여 이 농기를 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회촌동 두레가 농기를 들고 나가다가 다른 마을 농기와 마주치면 다른 마을 두레는 농기를 흔들며 기를 뉘어 큰절을 세 번하였고, 이에 본 회촌동 두레는 농기를 흔들지 않고 반절로 답례하였다고 한다. 또한 농기를 앞세운 우리 두레패가 다 지나갈 때까지 다른 두레패는 모두 길을 비켜야만 하는 아주 권위있는 깃발이었다.

이때부터 마을 주민들은 농기를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여겼으며 일제 강점과 6 · 25동란 등 민족의 수난시기에도 소중히 간직하여 현재까지 회촌동마을에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 3. 구성 및 내용

인원은 제한 없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농악놀이에 가담할 수 있으나 보통 한가구당 1명씩 가담하여 양주고전농악 두레패가 구성되었다.

쇄 가락과 판굿은 다른 지역 풍물과 크게 다르다. 놀이마당에 입장하여 인사굿후 돌림 벅구로 하여 멍석마리(1채)로 하였다가 풀어서 농사법을 법구잡이 율동으로 시작한다.

농사법 풀이는 상쇄와 상벅구가 재담으로 주고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상쇄가 "천하지대본은 농사가 아니더냐"하면서 농사를 시작하여 상쇄가 "보리밭 밟기부터 시작해 보렸다" 하면 상벅구가 "그래 보렸다"하는 재담으로 농사를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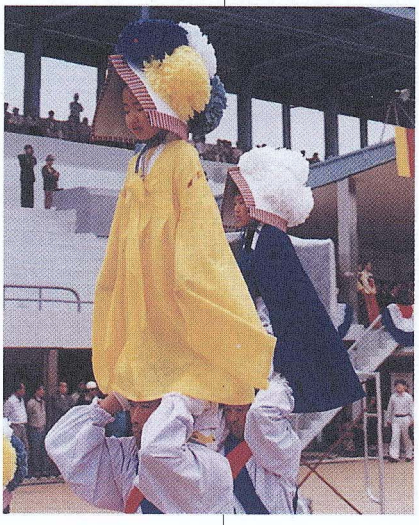
1. 보리밭 밟기(입춘)5채가락
2. 보리밭거름주기 느린3채
3. 못자리 가래질(청명한식) 느린3채
4. 못자리 논가리 느린3채

5. 못자리 써래질 자진3채
6. 모판만들기 자진3채
7. 벼씨뿌리기(곡우) 자진3채
8. 수수부룩치기 자진3채 1반에 조랭이 1번
9. 콩심기 느린3채
10. 갈꺽기(소반) 자진3채 2번 조랭이 1번
11. 모찌기(망종) 자진3채에 조랭이 1번
12. 모내기 자진3채
13. 애조밭매기 자진3채
14. 애논파기 2채
15. 두벌논매기 자진3채 2번에 조랭이 1번
16. 호미씨세(보궁) 벌벅구로 판굿을 하고 있다.
17. 퇴비깎기(입추) 자진3채 2번에 조랭이 1번
18. 가마니짜기(백노) 자진 3채
19. 추경(한로) 느린3채
20. 추경 느린3채
21. 벼베기(상강) 느린3채
22. 벼 실어드리기 자진3채
23. 탈곡 자진3채
24. 노적가리 자진3채 가락으로 벅구잡이 율동은 모두 끝을 맺고 국지가락으로 돌려가지고 원을 만들어 1채로 맨마지막 징소리에 인사를 하고 퇴장한다.

## 4. 고증 및 지도 연출

- 고증 : 이보형(서울대 음대 강사, 문화재 전문위원)
- 증인 : 고희정(양주소놀이굿 보존회장, 예능보유자)
- 회장 : 김병옥(양주고전농악 회장)
- 총지휘 : 김환익(양주소놀이굿 조교(원 마부))
- 총무 : 홍재관(양주고전농악 회원)
- 출연
    - 상쇄 : 황상복
    - 부쇄 : 이원세, 이근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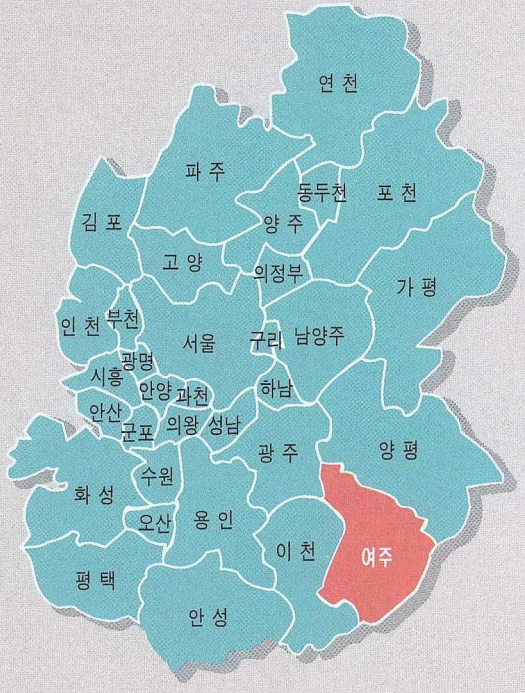
• 제금 : 주흥진, 이근관
• 장고 : 배구완, 지경석
• 북 : 홍병욱, 채기호
• 징 : 최용문, 지시택
• 호적 : 김병옥, 신재범
• 기잡이 : 박형배, 홍재관
• 보나줄 : 김일성, 홍영남, 홍승운, 어윤관, 이우섭
• 벅구 : 박영옥, 이혜민, 서명희, 김이례, 지옥순, 이문기, 남궁민정, 이건원, 장주란, 신은지, 이영서, 심재원, 박수영, 이석노, 이슬
• 무동 : 이황기, 김명환, 진성수, 편강은





# 여 주 군

- 마래리 거북놀이
- 장채놀이
- 여주농악



# 여 백

민속놀이

# 마래리 거북놀이

## 1. 전승지

경기도 여주군 마래리

## 2. 유래및 해설

### (1) 해설

정교하게 돌로 조각된 거북이는 비석 받침만이 아니라 특색있는 예술품으로 문화재, 공예품 등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거북은 용왕의 아들로서 소원과 만복을 풀어준다고 믿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주고 그의 무궁한 영면을 위해서도 거북이는 동참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왕의 옥새에서부터 병풍의 십장생 화폭과 심지어 길흉을 점치는 데까지 동원된다는 사실 등은 우리민족의 토속적인 삶 속에 거북은 짙은 색깔로 토속적인 바탕을 이뤄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우리민족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어 친근감을 갖고 있는 거북이 민속 신앙으로서 기능도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한국명절 중 풍요에 감사하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감사하는 뜻의 토착의례로서 수수잎을 엮어 하는 거북놀이는 집단놀이로서 안녕과 태평성세를 기원하는 축제의 민속으로 여강 유역권인 여주지방에서 곳곳에 거북놀이가 동해의 용왕의 아들인 거북이가 뭇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 헌신한다는 뜻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한가위를 전후해서



거북놀이를 하며 치성을 드리고 또한 흥에 겨운 거북놀이를 했다.

아직도 여주지방에는 어느 마을을 가나 60세를 전후한 사람들은 거북놀이를 한 추억을 갖고 있다.

### 2) 유래

우리나라의 민속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거북놀이의 유래(由來) 역시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나 민속무용(民俗舞踊)의 특징이 ①작자(作者)와 창출년대(創出年代)의 미상(未祥)이라고 설정(設定)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거북놀이라는 민속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다만 "설고총서"라는 문헌(文獻)에 보면 신라 문무왕때 15세의 공주가 병이들어 영추대사가 15세의 少年들로 하여금 거북이의 탈을 만들어 쓰고 수수비로 집 안팎을 깨끗이 쓸라고 하였던 바 공주의 병이 씻은듯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여 이것이 거북놀이의 기원(起源)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렇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전연 없다.

고려 8대 현종(AD 1009~1031)왕은 가뭄이 심해서 곡식이 메말라 죽어가고 도둑이 들끓어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때에 여러 고을을 돌아보던 중 천안부 직산현(지금의 입장면을 포함한 직산지방)에 다시 유하게 되었는데 이때 꿈속에서 신라 문무왕이 나타나 하는 말이 "한가위날 거북이를 보낼테니 거북이를 닮은 마을에서 옥수수 잎사귀로 옷을 해입고 거북과 더불어 뛰어 놀아라"하는 계시를 받았다. 현종은 이튿날 지형을 살펴보니 바로 입장면 신덕리1구(지금의 행정구역)마을이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추석날 조정 대신들을 이 마을에 보내 옥수수 잎을 엮어 옷을 입히고 마을사람과 함께 거북놀이를 하였는데 이듬해에 벼알이 마치 옥수수 알처럼 풍성하게 여물어 대풍을 이루워 이 놀이가 각 마을로 파생되었다고 하고 있지만 고려때의 수도는 개경이고 임금이 천안부까지 거동한다고 볼 수가 없으며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전설이기에 확실한 증거는 없다. 단지 거북놀이의 진행과정(進行過程)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제의성(祭儀性)이 짙은 무속신앙의 "굿"—문굿, 우물굿, 터주굿, 조왕굿, 대청굿 등 —으로 나타나고 있어 거북놀이의 처음 형태는 아주 오랜 옛부터 연희되어 왔으리라는 점이다. "굿"은 선사시대의 제례의식(祭禮意識)에서 비롯 되었는데 마한(馬韓)의 경우를 보면 5월 하종(下種)과 10월 추수가 끝나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밤낮을 쉬

지 않고 음주가무(飮酒歌舞)하고 여러사람이 일제히 장단(長短)에 맞추워 답지저앙(踏地低昻)하며 춤을 추었다(馬韓常以 五月下種說 祭鬼神 君緊 歌舞飮酒 晝夜無休 其舞數十人 俱起相隨 踏地低昻 手足相應 節奏有以鐸舞 十月農功畢亦復如之一)는 기록이 있어, 현재의 터주굿이나 조왕굿에서 나타나는 답지저앙의 의식과 같이 나타나며 또한 "마한(馬韓)의 습속(習俗)은 굿이고, 이굿은 농작(農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각처의 도당굿은 그 유풍일 것이다 라고 李惠求博士는 그의 저서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렇듯이 지방의 농작과 "굿"과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거북놀이의 유래는 아주 오래인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역(全域)에 산재(散在)해 있는 가면무(假面舞)를 보더라도 신라때부터 전해온 금환(金丸), 사자무(獅子舞)등의 신라오기(新羅五技)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 점차 서민(庶民)들의 민속인 탈춤으로 변형된 것을 보더라도 거북놀이 역시 제의성이 짙은 "굿"의 유파가 어느 시기에 와서 집단 민속놀이로 변했을 가능성(可能性)이 있다는 점이다. 한편 거북놀이의 진행과정(進行過程)에서 나타나는 대사중에 "압록강을 건너왔다"는 이야기로 미루워보아 中國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見解)도 있다. 중국에서 전래된 무속중에 "거북점"이라는 것이 있다. 육효점(六爻占)이라고도 하며 거북이의 등을 보고 음양오행(陰陽五行)에 따라서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점치는 것으로써 옛날 복희씨(伏羲氏)때 황하(黃河)에서 나타나는 하도락서(河圖洛書)에서 유래된 점법이라고 전해진다. 의자왕 20년 (AD 660년)땅속에서 거북이가 나와 그 등을 보고 점을 쳐본 즉 "신라는 흥하고 백제는 망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신라때의 발생설(發生說)이나 중국에서의 전래설(傳來說)이나 확실한 근거는 찾을 수는 없지만 수긍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一部에서는 "압록강을 건너온 것"이 아니고 "동해바다"를 건너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지리적(地理的)인 조건을 볼 때 압록강을 건너면 한수이남(漢水以南)의 기호지방(畿湖地方)에 머물 수 있지만 동해바다를 건너오면 태백준령을 넘어 기호지방에 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차라리 동해쪽이나 남해안의 근해지역(近海地域)의 고장에 거북놀이가 더 활발히 연희되었을 것이다.

이렇듯이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연희된 거북놀이는 처음에는 거북숭배의 제의적인 무속신앙에서 유래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부락의 집단

민속(集團民俗)놀이로 성격이 변형되어 현재에 이르러서는 부락의 안녕과 대동단결(大同團結)을 목적으로 연희가 되고 있다.

## 3. 구성 및 내용

여주 거북놀이의 발생근원(發生根源)은 지역적 특색이 두드러진 무속신앙(巫俗信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전부터 우리의 습속(習俗)에는 驪州와 利川을 따로 떼어부르지 않고 "여주이천"이라는 흡사 복합명사(複合名詞)로 이루워지듯 불러왔던 것은 여주와 이천은 같은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질의 풍습, 기후와 토질 등 같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여주의 거북놀이와 이천의 거북놀이는 같은 형태가 아니겠느냐고 하는이도 있겠으나 옛말에 「百里不同風」이란 말이 있듯이 동리의 지역적 (地域的)인 특성이나 기예인(技藝人)의 창작력(創作力) 등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특징을 갖고 나름대로 특색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여주의 거북놀이도 제의성이 짙은 무속신앙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작금(昨今)에 이르러 중단된지 50여년이 지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그나마 몇몇 技藝人)(—당시의 거북놀이에 참석해 연희를 했던이들)들의 생존시에 발굴 · 정리된 후에 재연해야 할 필요를 절감케 한다.

**(1) 演戱時期**

여주의 거북놀이는 음력(陰曆) 8월 15일 추석날 밤에 달빛아래서 연희되었다. 거북놀이의 연희시기가 전부 추석때를 맞이하여 이루워진 것은 음력 8월 추석이 되면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걷우는 시기로써 우리민족에게는 1년중 가장 으뜸가는 명절(名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날은 햇곡식으로 떡과 술을 빗고 햇과일을 거두워 조상(祖上)앞에 감사드리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하루를 즐기는 날이다.

거북놀이가 8월 한가위에 연희되어온 이유는 나름대로의 뜻이 있다.

첫째, 八月 한가위가 되면 조상께 제를 드리기 위해 모든 식솔이 모여 함께 어우러져 대동단결(大同團結)의 힘을 돋울 수 있다는 점.

둘째, 8월 한가위에는 모든 곡물이 수확기에 접어들어 어느집이나 공평하게 거북이에게 치성을 드려 평등하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평(公平)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

셋째, 8월이 되어야 수수잎이 제대로의 색깔이 나와 거북을 치장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또한 곡물이 여물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

상기와 같은 이유에서 거북놀이는 한창 풍성한 시기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연희되어 수확의 포만감과 거북을 위함으로써 받는 안도감이 한데 어우러져 맘껏 즐길 수 있는 서민사회(庶民社會)가 창출(創出)해낸 민속문화였다.

### (2) 人員編成

여주 거북놀이의 놀이대의 편성(編成)은 비교적 타지의 인원구성(人員構成)보다는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우선 2~6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북이가 있으며, 거북몰이인 "길아비"가 있고 양반을 위시한 각종 어릿광대로 편성된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 민속놀이의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풍물(風物)—상쇠, 부쇠, 징, 북, 장고, 법고, 태평소—이 뒤따르며 거북놀이를 보는 관객(觀客)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관객이 현재는 인원편성(人員編成)에 나타나고 있지만 중단되기 전까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북놀이 그 자체의 구경꾼이었다는 점이다.

일설(一說)에는 거북놀이의 편성이 "지신밟기굿"이나 "걸립"과 동일한 형태라고 보는 설도 있으나 화주(花主), 나리, 보살, 잽이(樂士), 산이와 15명 정도의 탁발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립대와는 본질적(本質的)인 구성이 다르며 지방(地方)의 모든 민속음악(民俗音樂)의 대부분은 물론 민속놀이의 반주음악(伴奏音樂)이 농악(農樂)을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할때 거북놀이의 편성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단지 걸립과 같은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주굿, 조왕굿등 일부의 놀이내용이 동일하는 것 뿐이다.

거북놀이의 구성을 쉽게 표시하자면 ①거북이와 거북몰이인 길아비, ②양반을 위시한 각종 어릿광대, ③농악대, ④기타관객들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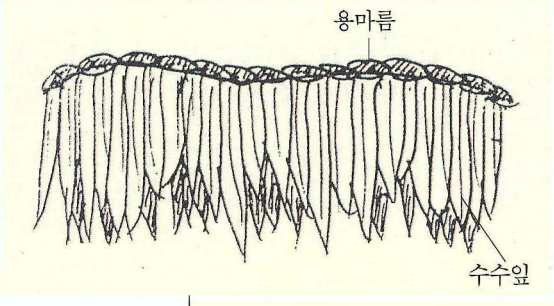
- 거북이(2~6명) : 수수잎과 짚으로 꼬아만든 줄로 엮어 만든다
- 길아비(1명) : 등걸잠방이, 수수잎으로 만든 우장
- 양반(1명) : 옥색도포, 정자관, 부채, 담뱃대
- 여종(2명) : 노랑저고리, 빨강치마
- 남종(2~3명) : 등걸잠방이, 짚신, 초립
- 꼽추(1명) : 등걸잠방이, 짚신, 수건(머리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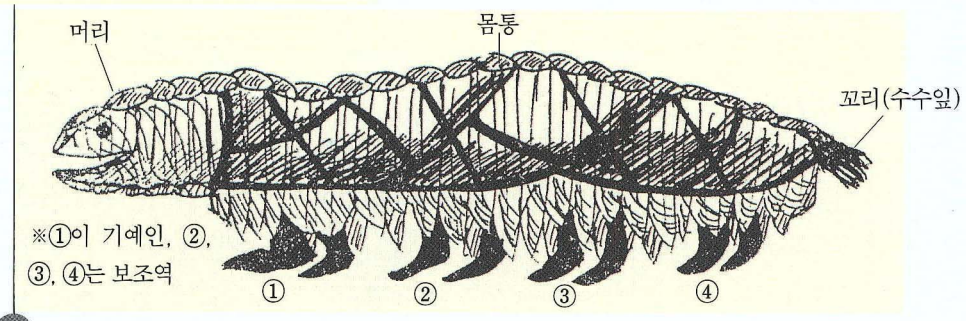
- 상쇠(1명) : 부포상모, 등걸잠방이, 삼색띠, 짚신
- 부쇠(1명) : 〃
- 징(2명) : 고깔, 등걸잠방이, 삼색띠, 짚신
- 장고(2명) : 〃
- 북(2명) : 패랭이, 등걸잠방이, 삼색띠, 짚신
- 소고(6명) : 나비상모, 등걸잠방이, 삼색띠, 짚신
- 호적(1명) : 바지저고리, 2색띠, 머리수건, 짚신
- 관객(다수) : 보통바지저고리(남) 치마저고리(여))

### (3) 놀이의 進行方法 및 內容

※ 註 : 驪州 거북놀이의 進行過程 및 거북이의 制作, 또는 人員編成等 거북이에 관한 全般的인 面을 驪州君 가남면, 능서면, 흥천면 全域과 점동면, 북내면 일반지역 등을 해본 결과 거북놀이의 進行過程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연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으나 家屋의 구조나 취락의 형성에 따라서 진행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본 란에서는 편의상 整理 구분한 것을 일러두고자 한다.

음력(陰曆) 8월 15일의 낮이 되면 동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수수잎을 따다가 짚으로 짠 줄로 용마름을 틀어서 연결해 2~6명이 들어갈 수 있을만한 크기로 엮어서 거북이의 덮개를 만들고, 머리를 연결해 입을 만들고 꼬리까지 연이어 놓은 다음 끈으로 등을 엮어서 등의 무늬를 만든다. 이렇게 제작된 거북이를 동리입구(洞里入口)의 단위에 모셔놓고 밤이 이슥해지면 놀이대 일행은 떡과 과일 햇곡식으로 빚은 술로 정성껏 치성을 드린다음 동리로 향하여 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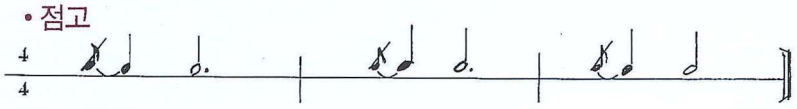



이를 떠난다. 이렇게 시작한 거북놀이는 이슥하도록 동리의 집집마다 다니며 복을 빌어주고 술과 음식을 받아 즐기는 부락공동(部落共同)의 민속놀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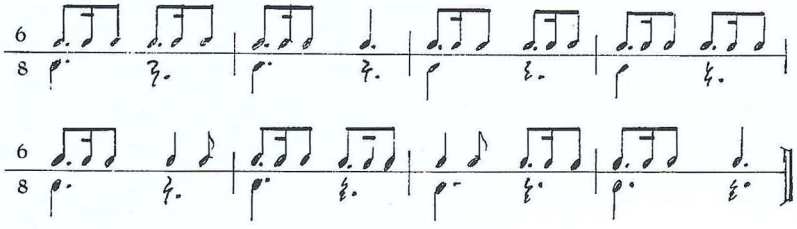
① 길놀이

거북이를 모셔놓고 치성을 정성껏 드리고 난 놀이대 일동은 길놀이를 떠난다. 마을에 들어서기전 놀이대 일행은 부락을 향하여 점고(북을 쳐서 마을에 진입함을 알리는 의식)를 한 후에 마을을 향해 길놀이를 시작한다. 이 길놀이는 특별한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길을 가기 위한 방법으로 "길군악"의 가락에 맞추어서 거북을 앞세우고 동리의 집으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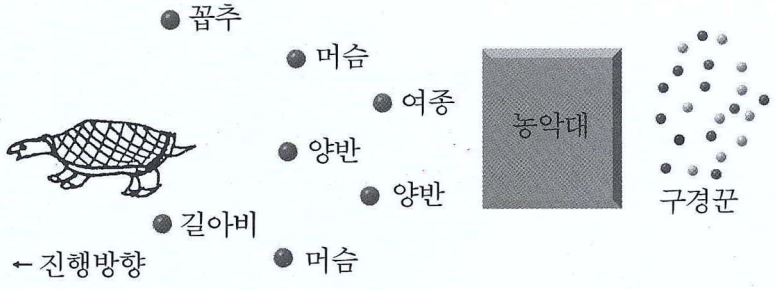
• 점고



• 길군악



길놀이의 배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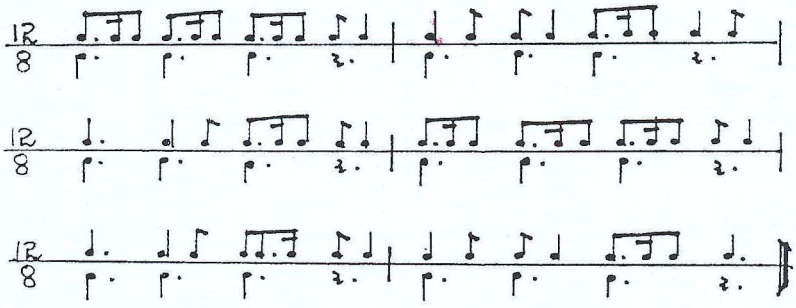



② 우물굿

동리를 향하던 놀이대 일행은 마을의 중앙에 있는 우물앞에서 상쇠의 신호를 따라서 멈춰선다. 우물에 둘러선 놀이대 일행은 상쇠의 고사담을

든는다. "오방위(五方圍)용왕님네 가뭄에도 물이나 철철 내주고 홍수에도 물이나 맑게 해주오. 이물을 먹는 만인간(萬人間) 수명장수(壽命長壽)비나이다"하고 고사담을 한후 상쇠의 신호에 맞추워 흥(興)을 돋우다가 우물에 세번 절을 한후 동리의 집으로 향한다. 이 우물굿은 生命을 영위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삶의 젖줄이자 부녀자들의 대화(對話)의 장소이기에 이 우물굿은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길군악이나 동리 삼채의 가락에 맞추워 길을 간다. 이때는 일정한 순서가 없이 서로 어우러져 거북을 중심으로 행진한다.

• 동리삼채



③ 문굿

우물굿을 끝내고 마을에 들어선 놀이대 일행은 마을의 정해진 집문앞에 도착하면 상쇠의 신호에 따라 멈춘 후 문굿풀이를 시작한다. "문여시오 문여시오. 수명장수 들어갑니다"하고 고사담을 끝낸후에 거북을 앞세우고 집안으로 들어간다.

이 문굿은 문을 지나 들어가는 간단한 절차(節次)이긴 하지만 우리민족은 옛부터 이 문이란 건축물에 대해서 무척이나 세심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이 문으로 해서 모든 길흉화복이 드나든다고 믿어 새봄이 되면 "立春大吉"이란 글자를 써서 문에 붙인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홍살문" "열녀문"등의 문을 세워 공덕(公德)을 기리고자 함을 보더라도 이 문굿은 상당한 뜻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④ 터주굿

집안에 들어선 놀이대 일행은 집뒤의 장독대 옆에 있는 터주가리 주위에 모여선다. 옛부터 우리의 무속신앙(巫俗信仰)에는 집뒤의 터주가리에

는 터주신이 있다고 믿어 항상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습속이 있었다. 터주가리 주위에 모여선 놀이대 일행은 상쇠의 신호에 따라 "누릅세 누릅세 터주지신 누릅세!"를 외우며 땅을 꼭꼭 밟는다. 이러한 모습은 "지신밟기"나 "걸립"의 답지저앙(踏地低昂)의 형태와 같이 이루워지며 잡신이 나오지 못하게해 가내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⑤ 조왕굿

터주굿을 마친 놀이대는 뒤뜰에서 부엌을 통하는 문으로 상쇠를 포함한 풍물잽이와 어릿광대등이 조왕으로 들어선다. 옛부터 우리 무속에는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다고 믿어서 모든 제의식(祭儀式) 이루워지면 부뚜막 위에 떡도 괴어놓고 술도 부어 잡귀(雜鬼)를 물리치는 습속이 성행되어 왔으며 이 부엌이란 우리의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귀중(貴重)한 곳이며, 또한 가옥(家屋)의 구조상 난방역할의 구심점이 되는 곳이기에 더욱 중요한 곳이다. 상쇠의 신호에 따라서 놀이대 일행은 "누릅세 누릅세 조왕지신 누릅세"를 외우며 부엌바닥을 꼭꼭 밟다가 절을 세 번한 후 밖으로 나온다.

⑥ 대청굿

옛부터 대청의 대들보위에는 커다란 "업"이란 영물(靈物)이 있어 집안의 모든 길흉화복(吉凶禍福)을 관장하고 있다고 믿는 우리민족은 이 대청굿에 남다른 신경을 써온 것을 알 수 있다. 거북은 마당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상쇠의 축원(祝願)이 계속되는 동안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치성을 드린다. 상쇠의 고사담은 액살풀이, 홍수풀이, 농사풀이, 달거리 등의 순으로 이어지며, 이 대청굿은 거북놀이의 전과정중 가장 중요한 뜻을 지니는 부분이다.

⑦ 마당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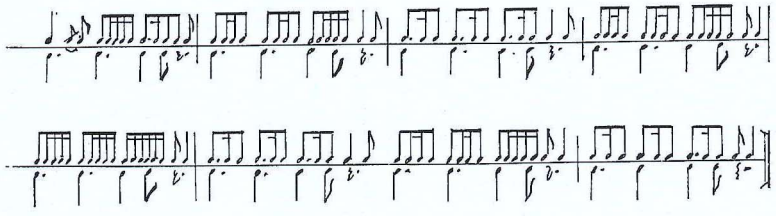
대청굿이 끝나고 나면 모든 거북놀이의 놀이대 일행은 전부 마당으로 내려와 본격적인 마당놀이를 펼친다. 이 마당놀이는 한해의 풍요한 수확을 걷우어 한껏 포만감(飽滿感)에 사로잡힌 충족감(充足感)과 거북을 위함으로써 모든 재액을 물리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安堵感)이 한데 어우러져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가장 흥에 겨운 과정이다. 한참을

굿거리장단과 다스래기장단에 맞추워 흥겹게 놀때 거북이가 쓰러지면 거북몰이인 길아비가 깜짝 놀라 "거북이가 쓰러졌다"고 외친다. 모든 놀이대 일행은 거북이 주위로 몰려들고 길아비는 거북이의 몸을 이리저리 살펴본 후 집주인에게 "이 거북이가 압록강을 건너 오느라 배가 고파서 쓰러졌으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하고 청원(請願)하면 주인이 떡과 과일등 음식을 내어놓고 "먹을 것은 많으니 많이 먹고 복이나 주고 가십시오"하고 답한다. 이렇게 해서 거북놀이 일행은 마음껏 즐기며 이때 특유(特有)의 경기장단인 쩍쩍이장단등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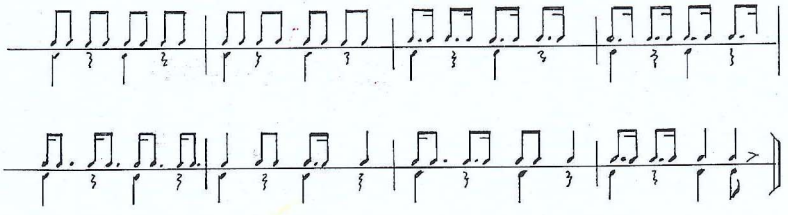
이렇게 집단민속놀이의 조화(調和)된 힘으로 우리민족은 대동단결(大同團結)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상부상조(相扶相助)의 협동심의 지표였다. 이러한 인정미 넘치는 훈훈한 정은 우리민족이 아니면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으며, 이러한 근본적(根本的)인 힘이 외세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이겨나온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한참을 흥에 겨워 즐기던 놀이대 일행은 거북을 앞세우고 다음 집으로 향하며 모든이들은 거북을 따라가며 "거북아 만세거북아 잘도 먹고 잘도 놀아라"를 외치고 밤이 이슥하도록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도 빌어주고 한데 어울려 즐기는 대동놀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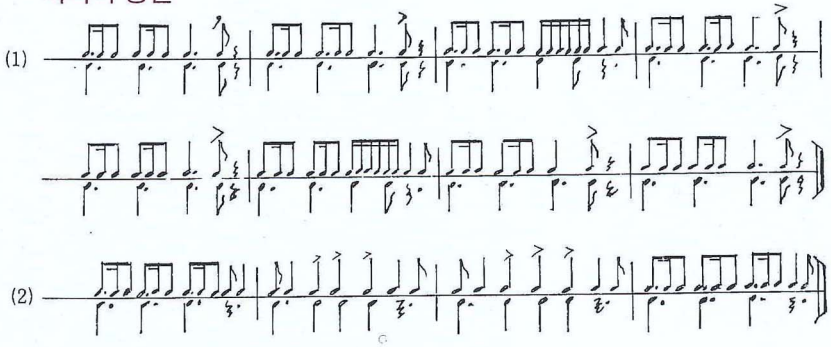
• 굿거리〈광고가락〉



• 다드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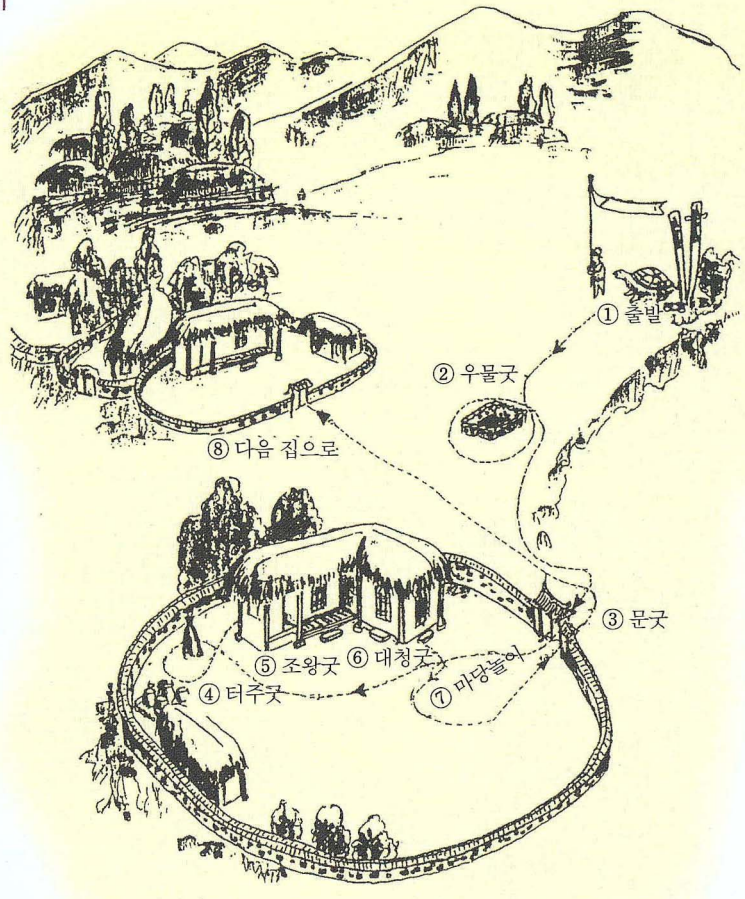


• 쩍쩍이 장단




〈1〉은 잦은 쩍쩍이 〈2〉는 늦은 쩍쩍이

거북놀이의 진행 순서



## 4. 거북이의 형태



여주의 거북놀이에 나타나는 거북이의 모습은 지역(地域) 나름의 특성이 있다. 이 거북놀이에 나타나는 거북의 형태는 각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나며 그들 나름대로 거북이와 비슷한 형상을 만들어 상징적인 거북을 만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여주지역의 거북이는 1930년대 놀이가 중단될 때까지도 비교적 변화없이 전해져 왔으며 그 형태는 수수잎을 엮어서 길게 만들어 연희자(演戱者)의 체위에 따라서 2~6명이 들어갈 수 있었으며 제작 방법은

(1) 수수잎을 따서 짚으로 꼬아만든 끈으로 엮어가면서 용마름을 틀고 수수잎을 늘려나간다.

(2) 굵은 용마름을 틀어 머리부분서부터 꼬리부분까지 연결한다.

(3) 거북이의 모양을 뜨며 수수잎을 늘여 끈으로 묶는다.

(4) 끈으로 등의 무늬를 만들며 고정시킨다. 이때 2~6명이 들어가게 되면 머리부분쪽의 사람이 기능인(技能人)이 되고 뒷쪽의 사람들은 보조역할을 하며 수수잎으로 온몸을 둘러싼 거북몰이인 "길아비"가 몰고다녔다.

## 5. 특성

한국의 민속은 그 지역나름의 특성을 보이며 창출되었다. 지역의 지리적 조건(地理的條件), 지역민의 성격(性格), 지역의 언어(言語), 생활습관(生活習慣), 기타 주위의 모든 영향을 받으며 창출(創出)된 것이 그 지역 특유의 민속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 그러기에 지역의 민속은 그 지역 나름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여주의 거북놀이도 그 조사(調査) 발굴(發屈)과정에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보이며 연희되었다. 전기의 놀이 방법은 필요에 따라서 설정해 놓은 순서지만 원래는 순서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며 소도구(小道具)의 사용 · 형태 등의 타지역과 비교(比較)할 때 나름대로의 특성을 찾자면,

(1) 거북이의 형태는 30여년전에 놀이가 중단될때까지 머리와 몸체,

꼬리가 세분(細分)되지 않고 연결해서 만들었으며 연희자(演戱者)도 2~6명이 들어갈 수 있게 제작되었다는 점.

(2) 타지역의 거북놀이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旗)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유를 조사한 결과 밤에 연희되는 거북놀이에 보이지도 않는(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됨) 농기(農旗), 영기(令旗)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

(4) 각 부락의 거북놀이의 연희장소(演戱場所)를 조사한 결과 거북놀이가 성행(盛行)했던 지역은 그 지역의 농악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 능서면, 가남면, 강천면.

상기에 나타나는 사실로 보아도 같은 명칭으로 나타는 거북놀이라는 민속이 지역의 특성이나 연희자의 기량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 6. 의의

거북놀이는 제의성(祭儀性)이 강한 부락 공동(共同)의 집단놀이로써 부락 전체의 공동안녕(共同安寧)과 공익사업(公益事業)을 위해 창출(創出)된 전통 민속놀이로 긴 세월을 거치는 동안 우리민족의 대동단결(大同團結)의 힘의 원천이 됐다고 보아야 한다.

거북놀이의 진행과정을 보면 우물굿, 문굿, 터주굿, 조왕굿, 대청굿 등 모두가 "굿"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거북놀이가 제의성이 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경기지방의 무속(巫俗)이 "집안굿"과 "도당굿"의 두종류(二種類)로 분류되고 있으며, 집안에서 이루워지는 집안굿의 과정중에는 터주굿, 조왕굿이 나타나고 도당굿의 과정에는 장승굿, 우물굿등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거북놀이도 일종의 무속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거북놀이의 진행중 나타나는 대청굿의 고사반의 순서인 태평성대(太平聖代) 홍수풀이, 농사풀이, 달거리 등이 굿에서 나타나는 고사담과 동질(同質)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거북놀이는 단순한 부락의 집단놀이가 아닌 무속신앙(巫俗信仰)의 한 유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거북놀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교적(宗敎的)인 박해와 주위 환경의 영향 — 한국의 민속은 주위의 지리적 조건, 생활습관, 기후지역의 언어, 지역민의 성격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에 따라서 반무속(半巫

俗)반놀이의 형태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의 거북놀이는 동리의 대동단결(大同團結)을 목적으로 하며, 마을 전체의 집단의식(集團意識)과 일년의 수확을 감사드리며, 집집마다 두루 안녕태평을 빌어주고 모든 재액(災厄)을 멀리 쫓는다는 무속적인 면에서 마을전체가 모여 함께 즐기는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역할까지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거북놀이와 같은 집단민속을 통해 우리민족은 스스로 자활의 터전을 일구웠으며 서로가 협동하는 공동체적(共同體的)인 의식으로 인정미 넘치는 마을을 일구웠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일이며 더욱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외세(外勢)의 끊임없는 침략(侵略)속에서나 일제하의 36년이란 긴 세월동안 전통문화의 맥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도 이와 같이 대동놀이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던 탓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거북놀이의 특징으로는 다른 민속놀이와는 달리 추석날의 달밝은 밤에 연희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7. 거북놀이의 고사반

거북놀이 걸립등에서 이루워지는 고사반의 내용은 각지역별로 특이한 언어(言語) 구사를 하고 있다. 또한, 이 고사반은 구술자(口述者)에 의해서 약간씩의 변화가 생겨 전하여 지기때문에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가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으로 볼때 고사반이란 그때의 상황에 따라 변해질 수가 있는 것이며 정하여진 것이 아니다. 여주지역의 고사반 역시 창자(唱者)마다 차이가 나 어느것이 정확한 것인가는 논하기 어렵다. 다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수록하고자 할 뿐이다.

### 농사풀이

농사한철을 지어보자
농사를 지을적에
앞뜰에는 보뜰이요
뒷뜰에는 견봉지기
물논이면 고래실이요
모자리를 하여보세
모자리를 하여놓고

머드래두 심궈보자
머드래를 심굴적에
수수적두 참깨들깨 머드래요
방정맞다 주더니콩
이팔청춘에 푸르대콩
만리타국에 강남콩을
여기저기 심어놓고
깽두깨깽 깨갱깨갱
모자리를 뽑아다가
이논 저논에 심궈보세
모자리를 뽑아다가 심굴적에
못다먹었다 홀쭉벼
바람불었다 풍옥이며
혼자먹었다 돼지찰
알송당송해 까투리찰
이모를 심궈설랑
세월이 야릇하야
금태를 두른듯이
황금같은 옷을 입어
낫을 들구나 베어보세
푸드득 푸드득 베어다가
길마지며 쇠바리로 실어드려
안에 안방 마님들두
똬리 바쳐서 여디리고
앞에는 앞노적에 뒤에는 뒷노적에
고대광실 높은집에
네귀에다 풍경을 달고
동남풍이 불어오면 뎅그렁 뎅그렁
풍경소리 그 골안에 쩡쩔 울리는고나
뒷노적에서 봉황이 한날갤치면
일이천석이 쏟아지고
앞노적에서 봉황이 한날갤치면

일이만석이 쏟아지고
하냥하냥 좋은 세월
농사한철을 짓고가자.

※註) 이 농사풀이는 북내면 지내리의 최간난여사의 농사풀이를 옮겼으나 최근에 나타난 유신벼, 통일벼등의 사설은 연희가 중단되 후의 사설이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췌하였음.

## 달 거 리

달거리가 이댁 가정에 세다하니 달거리를
풀고 가자
정월에 드는 액은 이월 영등 막아주고
이월에 드는 액은 삼월삼짓날 제비 멩멕이로 막아주고
삼월에 드는 액은 초파일 관등으로 막아주고
사월에 드는 액은 5월단오 그네줄로 막아주고
오월에 드는 액은 유월유두 밀점병으로 막아주고
유월에 드는 액은 칠월칠석 까치머리로 막아주고
칠월에 드는 액은 팔월추석 쟁반굽으로 막아주고
팔월에 드는 액은 구월구일 구구절 사당차리로 막아주고
구월에 드는 액은 시월상달 시루떡으로 막아주고
시월에 드는 액은 동지달이라 동지날 동지팔죽으로 막아주고
동지에 드는 액은 섣달의 그믐날 흰떡가래로 막아주고
섣달에 드는 액은 내년정월 열나흗날 방망이 맞은 북어대가리
섣달에 드는 액은 내년정월 열나흗날 방망이 맞은 북어대가리
백지한장에 둘둘말아 원강에 소멸하니
만사는 대길이요 백사가 여일하고
마음가짐 잡순대로 소원성취 발원이라.

※ 이 달거리는 흥천면 효지리거주 임춘수의 창부거리〈굿할때 부르는 巫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홍수"를 "액"으로 바꾸어 기재하였음.

### ※ 利川 · 陰城거북놀이와 驪州거북놀이의 比較

경기도의 이천 · 여주지역의 거북놀이와 충청북도 음성의 거북놀이을 비교하면 각기 저마다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진행과정이나 소품은 물론이려니와 인원의 편성(編成)이나 기타 고사반의 내용등 지역나름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음성의 거북놀이에는 농악에 바라가 사용되고 있는 등 근접한 기호지방(畿湖地方)내에서도 서로 다른점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의 이천, 여주와 충북의 음성거북놀이를 비교 한다.

| 구분 | 여주거북놀이 | 이천 거북놀이 | 음성거북놀이 |
|---|---|---|---|
| 인원편성 | 거북, 길아비, 양반, 머슴, 여종, 남종, 꼽추, 농악대, 기타관객 | 농기, 영기, 용기, 질라아비, 거북, 머슴, 양반, 남종, 여종, 쑥불잡이, 농악대 기타관객 | 농기, 영기, 용기, 농악대, 거북, 여장 질라아비, 진사, 꼽추, 의원, 포수, 놀이꾼, 노모 |
| 놀이순서 | 길놀이→우물굿→문굿→터주굿→터주굿→조왕굿→대청굿→마당놀이 | 길놀이→장승굿→우물굿→마을판굿→문굿→터주굿→조왕굿→대청굿→마당놀이 | 길놀이→용궁굿→조왕굿→터주굿→마당놀이 |
| 특기사항 | 각종깃대가 없음 부포상, 나비상 사용 | 부포상, 나비장 사용 | 농악대 자바라를 포수, 의원, 노모 등이 출연. |
| 연희시기 | 음력 8월 15일밤 | 음력 8월 15일밤 | 음력 8월 15일밤 |
| 재연과정 | 1930년대까지 연희→일제의 문화말살정책으로 중단→농악만 가남면을 중심으로 전수→1985년 발굴 작업 | 1940년대까지 연희→일제의 문화말살정책으로 중당→1976년 재현→1978년 제19회 전국민속경연대회문화공보부장관상수상→1985년 재정리작업 | 1940년대까지 연희→일제의 문화말살정책으로 중단→1982년 재현→1982년 제23회 전국민속경연대회문공부장관상수상 |
| 거북의 연희인원 | 2명 | 2명 | 2~6명 |
| 기타 | | | |

### ※거북이의 風物과 京畿農樂의 比較

거북놀이에 나타나는 음악(風物)은 나름대로의 정해진 음악의 틀을 지니고 있다.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손쉽게 거북이가 율동(律動)을 할 수 있도록 거북이의 느린 동작에 잘 조화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하기에 거북놀이에 나타나는 반주음악(伴奏音樂)과 경기농악(京畿農樂)의 가락과는 차이가 생긴다.

경기농악은 "두레"라 불리워서 영기, 서낭기(농기)쇠(꽹과리)징, 북, 호적, 벽구(소고), 무동, 광대로 편성되고 대표자인 「모갑이」외에도 기획을 맡는 「화주」를 두어 편성인원은 30여명으로 되어 있으며 농악의 12채라 불리는 쩍쩍이가락, 물채가락, 자진가락, 더더러기가락, 연풍대가락, 마당일채가락, 굿거리가락 등 다양한 가락이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길놀이에서 나타나는 길군악의 가락이 6/8으로 나타나는 일률적(一律的)인 가락이 아닌 6/8과 5/8의 혼합박자(混合拍子)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기농악의 길군악은  이라는 변형적(變型的)인 장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북놀이의 길군악은  의 일률적인 장단으로 나타나는 차이가 생긴다. 같은 명칭의 길군악이지만 농악의 길군악은 세기(細技)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보면 변박인 장단도 가능하지만 거북놀이에서 나타나는 길군악에서는 특별한 동작이 없이 길을 가기위한 수법으로 나타나는 반주음악(伴奏音樂)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듯이 거북놀이에 사용되는 음악은 길군악, 동리상채, 다드래기, 굿거리, 쩍쩍이장단의 다섯가지 가락만이 나타나고 있어 거북이가 연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 ※ 驪州 거북놀이의 技能保有者

○변장손(72세)고증 능서면 마래리
○박치관(73세)고증 가남면 오산리
○천일초(57세)상쇠 가남면 화평2리
○변장국(65세)거북의 제작 및 놀이방법. 능서면 마래리
○신성순(63세)농악 가남면 안금리

### ※ 驪州 거북놀이의 연혁

ㅇ1930년대까지 연희되다가 일제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해 중단.

① 유기그릇의 공출로 인해서 징, 꽹과리 등을 몰수당해 풍물이 없어짐.

② 대동단결을 이유로 하는 민속놀이이기에 대중이 모이는 것을 막기위한 방법.

③ 여주문화원에서 발굴재현코저 85년 조사에 착수.



# 장채놀이

## 1. 전승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 새미실부락, 점동면 일대

## 2. 유래 및 해설

장채놀이는 오래전부터 나뭇꾼이나 농군들 사이에 전해져오는 지금의 필드 하키 비슷한 놀이로 현재는 축구 등 구기가 보급됨에 따라 자연도태(自然倒態)된 상태에 있다.

나무로 깎아 만든 공을 쳐서 하는 이 장채놀이(장치기)는 비교적 남성적인 놀이로 위험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한바탕 뛰고 난 후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행해지던 놀이로써 우리나라의 민속놀이가 무속적(巫俗的)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이 장치기는 그냥 흥(興) 위주의 놀이이며 구태여 놀이의 승부를 가리고자 함이 아니고 단지 체력단련을 위해 행해지던 놀이이며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는 대부분 남녀 혼성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이 놀이는 남성으로만 짜여지는 놀이이다.

장치기의 놀이 방법은 넓은 들에서 할 때와 산에서 할 때의 두 가지로 하는 방법은 같으나 약간의 차이가 난다. 넓은 논이나 밭을 이용할 때는 대개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이 상례이며, 이때는 마을마다 농악대를 내세워서 편을 짜서 응원을 하며 놀았고, 산에서 할 때는 조금 넓은 장소만 있으면 2~3명이 편을 이루어 (이것을 편장치기라 한다) 지게작대기를 이용해 놀이를 한다. 방법은 양쪽에 금을 긋거나, 돌을 놓아서 자신의 쪽으로 먼저 갖고 가는 편이 이기는 방법을 썼으며, 지금의 축구나 하키처럼 상대방의 고울(goal)에 골을 넣어 이기는 것이 아니고 공을 자기 편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 장치기는 전국에서 고루 나타나며 넓은 곳이나 좁은 곳 어디서나 놀이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평택 지방에서는 "얼네공치기"

라고 해서 즐겼으며 경상도 지역에서는 "짱치기"라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간단한 기구를 갖고 행해지는 이 장채놀이는 때로는 나무대를 휘두르기 때문에 다칠 염려가 있고 위험도가 따르기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기풍을 진작시키며 단합을 꾀하던 고유 민속놀이다.

여주(驪州) 지방도 전에는 거의 전역(全域)에서 이 장치기가 행해졌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근까지 연희되던 곳은 능서면(陵西面) 신지리(新池里) 새미실부락과 점동면(모래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86년 여주 점동종고에서 오갑제를 기해 재현을 했다.

## 3. 구성 및 내용

### (1) 놀이 장소

여주군에서 능서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매류리로 빠져서 태평리로 가다 보면 능서면 신지리 새미실 부락에 다다른다. 신지리는 북성산(北城山)이 북서쪽에 있어 이곳에 성지(城址)가 있으며, 큰길에서 깊숙히 들어간 곳에 음지와 양지로 나뉘어 백여 호가 살고 있는 마을이다. 이 새미실 부락에서는 해마다 연중 행사로 이 놀이를 실시했다.

놀이가 행해지는 날이 되면 음지와 양지로 나누어 장정들 중에서 선수를 선발하고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마을 노인들을 모신가운데 이 놀이를 시작한다.

### (2) 놀이 방법

음지 선수는 머리에 파란띠를 두르고 양지 선수는 빨간띠를 둘러 표시하며, 이때의 색은 태극기의 색을 묘사해서 청홍으로 나누어 진다. 양쪽 양부락에서 농악대를 선두로 응원단이 나와 각자 자기편을 응원했으며 놀이 장소는 넓은 논이나 밭을 이용해 소나무 옹이가 여러겹 뭉친 것을 지름 7~8㎝ 정도로 둥굴게 깍아 공을 만들고 물푸레 나무로 1.5m 정도의 끝이 구부러진 작대기로 공을 쳐내어 경기의 승패(勝敗)를 가늠했다. 보통 정해진 넓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넓이의 규격을 정하고 골문에 새끼줄을 쳐서 표시해 놓은 다음 촌장의 신호에 의해서 나무공을 자기편 쪽으로 빼앗아 가서 먼저 선을 넘기는 편이 이기게 되며 시간을 정해놓고 많이 쳐내는 쪽이 승리하게 된다. 다른 경기는 상대방 쪽으로 많이 집어넣는 편이 이기는 것이고, 현재의 구기(球技)가 거의 다 그러하지만 이 장

치기는 자기편 쪽으로 가는 편이 이기게 되는 특이한 경기이다. 특히 장치기는 우리 나라의 민속이 무속(巫俗)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전연 그러한 점이 나타나지 않고 다만 마을 단위의 친선경기이며, 체력 단련을 위한 흥미 위주의 놀이였다는 점이다.

### (3) 놀이 시기

장치기의 놀이 시기는 겨울철의 놀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평택 지방) 음력 정월에서 대보름 사이에 행해지던 놀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여주군(驪州郡) 능서면(陵西面) 신지리(新池里)의 현장을 조사해 본 바로는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이 음력 정월에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년 중 아무때나 쉬운 놀이로써 즐겨 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뭇꾼들이 나무를 하다가 서로 내기를 하여 한짐씩 나무를 넘겨 주는 내기를 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즐기려는 뜻에서 이 장치기 놀이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장치기는 일년 중 춘하추동의 구별 없이 지방에서 즐기는 민속 놀이중의 하나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 여주 농악

## 1. 전승지

경기도 여주군 일대

## 2. 유래 및 해설

### (1) 여주농악

옛부터 여주지방은 남한강을 끼고 있어 비옥한 전통을 갖고 있는 고장이기에 상대적으로 동네마다 농악이 성행해 많은 민속놀이가 전래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거북놀이, 줄다리기, 답교놀이, 장채놀이, 두레싸움 등)

산 깊숙이 형성한 작은 부락이나 넓은 평지에 취락을 형성한 큰 마을이나 동리 마다 농악패가 있어 각종 놀이마당이 펼쳐질 때마다 이 농악대는 서로의 기예를 뽐내곤 했다.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때문에 농경사회인 여주는 각종 민속놀이가 전래된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 민속놀이에 빠질 수 없는 농악자체도 자연적으로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지금에 와서 농악의 맥이 끊기고 몇몇 사람의 예술인만이 남아 외롭게 민족의 전통을 잇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성행하던 전통음악인 농악이 외래문화의 범람으로 인해 부

락의 창고 깊숙이 먼지에 뒤범벅이된 채 찢기고 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찢기고 깨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더욱이 이땅의 청소년들에게 도외시된 채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다.

이제 그 몇명의 기예인마저 생존시에 정립이 되지 않으면 이 지역의 문화는 일제의 문화말살정책 때보다 더 극심한 상태에 이를 것이다. 완전히 단절되기 이전에 발전 정리되지 않는한 우리의 정신문화의 지주였던 동리농악은 이제 얼마 안있어 완전히 단절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는 모든 민속놀이까지 단절된다는 것이다.

### (2) 지역별 농악의 자취

① 여주읍

여주읍은 옛부터 여주군내의 중심지를 모든 민속놀이가 읍내에 모여 연회되었음인지 상리 하리 등 많은 부락에 농악대가 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엔 거의 그 자취를 찾을 수 없고 다만 읍내의 상리에서만 명맥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여주읍내의 기예인으로는 상리에 거주하던 김익공(작고)등과 김종하(작고)옹을 모든 사람이 대표적으로 꼽는다.

김익공옹은 고사반은 물론이려니와 민요에도 능통했으며 김종하 등은 상쇠의 가락이 경쾌하고 빨라 읍내의 대표적인 상쇠잽이로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여주관내의 내노라하는 잽이들이 모여 걸립을 할 때도 상쇠를 맡아서 연희해 당시 군내의 상쇠로는 가장 쇠가락을 으뜸으로 치는 기예인으로 인정하고 있었고(여주군 능서면 화평리 거주 천일초(57세)씨의 증언) 그외에 여주읍 하리 경노당의 주관으로 1980년대에 신진리 거주 상쇠 여한구(73세) 장고 최만영(작고) 하리 거주 김수한(80세) 북과 신진리 거주 서수천(75세)의 태평소와 징과 세납 각1인을 초청해 걸립을 한것이 읍내에서 거주하는 기예인들을 위주로 조직된 걸립의 최초의 연희이다.

이 뒤에는 큰 행사에나 연희때 읍내의 기예인이 참가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농악기로 하리 경노당의 四物과 농기는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엔 깨어지고 찢어진 채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고 상리에서는 농악기는 보유하고 있으나 전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여주읍내의 농악도 한때는 상리, 하리, 홍분리, 신지리 등 동리마다 농악대가 있었으나 지금엔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어 작금에 와서는 청병을 해와 필요시에 걸립을 할 정도로 쇠퇴하고 말았다.

②강천면

여주읍 강천면은 강원도와 여주읍의 경계에 있는 곳으로 전에는 남한강을 끼고 있는 梨湖里에서는 큰 줄다리기가 있어 강원도 문 등지에서까지 청병을 해왔으며 이러한 관계로 자연적으로 동리농악이 성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강천면의 농악은 나름대로 기예인으로 재질이 있다고 인정받아 강천의 걸립패는 강원도의 춘천, 의정부 등지에 걸립을 다닐 정도로 유명했으며 당시의 기예인으로는 상쇠 최상동(작고)옹 상법고 유을리(작고)옹 세납 신응동(작고) 등이 있었으나 지금엔 거의 전수되지 않은 관계로 이제는 거의 없어진 상태로 사물은 있으나 연희는 이루워지지 않는 실정이다.

③가남면

가남면은 이천에서 장호원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에 면 소재지인 태평리가 있어 교통로의 요지로 되어 있으며 이곳을 거쳐 충청북도 음성, 중원 등지와 강원도 제천등지까지 연결되어 중요한 상거래의 요지로 이 일대인 정단리, 화평리, 안금리 등 각부락마다 동리 농악이 여주군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도 군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 이 가남면에는 옛부터 거북놀이, 장치기, 두레싸움 등 같은 민속놀이가 연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로 이 가남면에는 지금껏 농악이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남면에 거주하는 기예인들도 지금껏 여주군내는 물론 이천, 장호원 등지와 심지어 충청도와 서울까지도 청원되어 낭걸립패의 상쇠로 기예를 인정받고 있는 터여서 이 부락의 동리농악이 자연히 성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남면의 기예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예인으로는 화평리 거주 천일초(57세)와 안금리거주 신성순(65세)옹을 제일로 치며 정단리에는 마경국(60세) 이금산(60세)옹 등이 생존해 계시다. 안금리는 지금도 동리안에서만 사물이 모일 수 있으며 소고까지도 같이 연희할 수 있어 더욱 돋보이고 있으며 천일초씨는 상쇠로 낭걸립은 물론 절 걸립의 상쇠도 했고,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는 20여세의 어린나이로 지원서

(작고) 길종하(작고)옹 등과 함께 여주군내의 제일의 기예인으로 손꼽힌다. 그의 쇠가락은 경쾌하고 활발해 지리하지 않으며 각종 연희에 참가해 타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이 시대의 기예인이다. 이렇듯이 가남면의 동리 농악이 군내에서 가장 성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예인이 다수 생존해 있으며 더욱 정단리에서는 일제의 유기그릇 공출때도 징, 꽹과리 등을 숨기고 빼앗기지 않아 해방과 함께 바로 동리 농악을 연희할 수 있었다는 데서 맥이 끊기지 않고 연이어져 내려와 지금에도 가장 성행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④ 북내면

북내면은 군내와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 예인의 분포는 심하게 나타나지 않고 거의 합동으로 걸립을 꾸민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내면 자체도 동리마다 풍물을 갖추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단절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엔 노령에 있는 이흥기(76세 : 징)옹과 이재규(73세 : 태평소)옹 두분만이 외롭게 전통을 지켜갈 뿐 특이하게 재질이 있는 기예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두분은 1980년대에 군내의 하리 노인정의 걸립에도 참가해 그의 재질은 모든이가 인정하고 있으나 그 뒤로는 아직 이렇다할 예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⑤ 占東面

점동면은 지리적으로 강원도의 일부와 접하고 있고 또한 남한강과 그의 支流인 淸渓川이 흐르고 있으며 그 청미천의 상류쪽에는 충청북도와 접경을 이루고 원부리는 경기도의 이천군과 접해있는 지역으로 나름대로의 특이한 형태의 민속놀이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흔암리의 「쌍룡 거줄다리기」와 원부리의 「답교놀이」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민속이 이 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다는 점은 그 지방에 그 만큼 특출한 예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한 점으로 볼 때 지원서(작고)옹을 점동을 대표할 만한 기예인이며 또한 그가 원부리에 處里로 거주를 옮겨 처리까지도 풍물의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그만큼 옹의 기예는 가히 入神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존시 옹을 面對했던 이들은 회상하고 있다. 지금엔 흔암리의 「쌍룡 거줄다리기」의 풍물대인 상쇠 탁준용(65세)징, 김종학(67세)북, 김은배(67세)등 몇명의 기예인이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장고의 이춘삼(64세)은 서울로 이주해, 사물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점동고등학교에서 농악기를 보유하고 있어 전수를 시키고자해도 주위의 여건이 허락치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⑥ 興川面

흥천면은 지역마다 동리농악이 한 때 매우 성행하던 적도 있었으나 지금엔 거의 단절된 상태이고 다만 상쇠의 신중태(80세)옹만이 유일하게 명성을 떨친 기예인으로 남아있다. 옹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몇년전만해도 타군까지 가서 상쇠를 맡아 놀이대를 이끌었으며 더욱 그의 쇠가락은 빠르고 몰아치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나타나 웬만한 잽이들은 그가 상쇠를 맡으면 따라치지 못할 정도였다한다. 하지만 그 역시 노령에 있어 그나마 그의 가락도 맥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으며 후계자가 없이 방관상태에 있는 현 실정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⑦ 陵西面

능서면의 농악은 군내에서는 비교적 약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능서면과 접해있는 가남면의 화평리나 정단리 등의 농악이 워낙 강세를 보인데 다가 특출한 기예인이 여주군내에서는 이 가남면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침체상태에 있게 됐다고 말한다. 능서면도 신지리의 샘실에 장채놀이가 마래리에는 거북놀이가 있었으며 지금엔 영릉의 소재지인 왕대리도 한 때는 농악이 성행했으나 주위의 가남의 농악이 워낙 강한데다 걸립이란 자기의 부락만이 아니고 타동네까지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가남면의 걸립으로 인해서 自然淘汰된 것으로 풀이된다. 능서면에서는 특출한 기예인은 나타나지 않고 상법고의 김만갑(작고)이 나은 편이었다고 하지만 그도 가남면의 잽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⑧ 大神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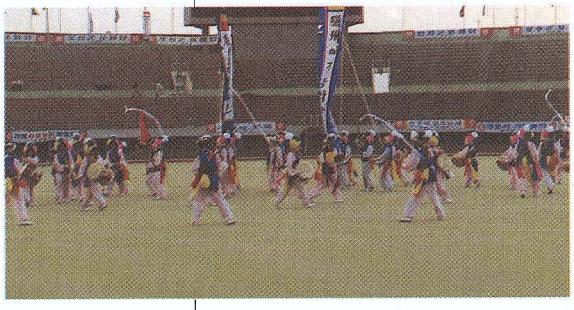
대신면의 농악은 크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 동리마다 사물을 준비하고 모내기나 기타 마을의 큰 행사에는 동리의 농악은 사용하곤 했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거의 명맥을 찾아보기 힘들고 더구나 농기구의 기계화로 인해서 더욱 농악의 침체현상이 나타나 이제는 거의 소멸되

다 싶이 되어 있다. 단지 천남리에 거주하는 이정분(73세)옹만이 외롭게 옛날의 흥성했던 농악의 전성기를 기억하며 요즈음의 젊은 세대가 우리 것을 잊어가고 있는 점을 한스러워 할 뿐이다. 대신면에서는 특별한 기예인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이옹의 법고 솜씨만이 아직 옛가락이 남아 있는 듯 하다.

⑨ 金沙面

금사면은 한 때는 농악이 무척 흥성했던 적도 있었으나 지금엔 거의 쇠가락 치는 기예인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옛날 동리 농악의 전성기를 회고하는 촌로들의 기억속에서 금사면의 농악이 얼마나 성했던 가를 이야기할 뿐이다. 특별히 출중한 기예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여주군 내에서는 능서와 함께 동리 농악이 가장 약했던 곳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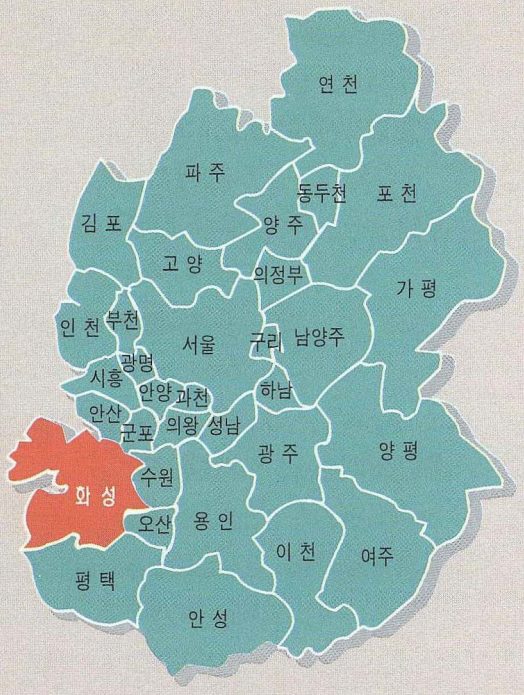
## ※ 여주 농악의 技藝人



- 상쇠 : 여한구(여주읍 신진리)
  신중태(흥천면)
  천장호(가남면 화평리)
  탁준용(점동면 흔암리)
  마경국(가남면 정단리)
- 북 : 김수한(여주읍 하리)
  김은태(점동면 흔암리)
- 상법고 : 이금산(가남면 정단리), 김은태(점동면 흔암리)
  이정분(대신면 천남리), 박광태(가남면 광대리)
- 장고 : 신재하(여주읍 하리)
- 징 : 이흥기(북내면), 김종학(점동면 흔암리)
- 태평소 : 서수천(여주읍 신진리), 이재규(북내면)
- 부쇠 : 정용태(점동면 혼암리) 295

# 화 성 군

- 구장터 면생이
- 원리 줄다리기



# 여 백

민속놀이

# 구장터 면생이

## 1. 전승지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구장리 동촌마을

## 2. 유래 및 해설

발안반도에 위치한 화성군 팔탄면의 농요 전승 마을인 구장리 동촌(서당골)은 84가구 중 농가가 78호이며, 논이 61.2헥타르, 밭은 18헥타르, 임야는 69헥타르 되는 벼농사 위주의 전형적인 농촌이다. 약 450년 전에 밀양박씨가 서울에서 이주하여 설촌한 이래 17대째 후손에 이르며, 아직 65가구 남짓 거주한다. 10여 가구가 되는 풍양 조씨는 15대째 살고 있다. 설촌 당시에 심었다는 괴목과 대대로 가꾸워 온 숲과 아름다운 풍경이 경개를 더하는 구장리 동촌(東村)은 마봉산 기슭에 위치하며 마을 앞엔 넓고 기름진 들판이 펼쳐져 있다.



일찍부터 학문을 숭상하여 인근 지역 한문학의 중심인 한편, 한학 훈장의 생계 부조용이던 전답을 팔아 지금은 씨족 육영사업을 하고 있으며,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더욱 권농(勸農)하였다. 마을 민속으론 줄다리기, 정제, 산신제 등이 있다. 음력 7월 1일에 소를 잡아 우물가에서 지내는 정제(井祭)와 시월 초하루 마봉산의 산신당에서 지내는 산신제를 지금까지 거행한다는 사실

은 팔탄 농요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단합을 잘하며 옛것을 잘 보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출연진의 연령은 79세를 비롯하여 60세 이상이 2/3를 차지하며 60대의 선소리꾼이 여러 명 있다는 것도 팔탄농요가 가지는 장점이다. 이 농요는 주로 농사철 오뉴월 모내기와 7,8월 김매기 때 부르던 농요이다.

## 3. 특징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농요 중의 하나인 화성군 팔탄농요는 전국의 농요 가운데서 「남부 경기도류」의 색채가 농후하며 바다를 통해 인접해 있는 당진군, 서산군과의 내왕도 엿보인다.

즉, 모심을 때는 「경기도 하나 류」를 부르며, 호미로 논맬 때엔 얼카 덩어리, 손으로 훔칠 때 ①두울레 ②면생이 ③긴방아(에헤이 이여 오오 아아 이이여헤) ④자진방아(속도는 느릿느릿함.) ⑤ 에넬넬 상사디야 ⑥먼들소리를 부른다. 별다른 타작소리가 없는 것은 경기도 농요의 공통된 현상이다.

### (1) 여기도 하나 류

화성군을 비롯하여 남부 경기도에 속하는 안성군,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와 안성군에 인접한 충북의 음성군 진천군에서 수집되는 모심는 소리이다.

화성군 내에서는 그 밖에 중부 경기도의 모심는 소리인 열소리 계통도 더러 있지만 여기도 하나 류가 훨씬 우세하다.

### (2) 얼카 덩어리

이는 당진군, 서산군, 홍성군을 중심한 충남이 본고장인 논매는 소리로 화성군을 비롯하여 남부 경기도에까지 전파되었다.

### (3) 두울레

이는 남부 경기도 지역의 이듬논매는 소리로서, 그 중에서도 화성군이 본고장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안성군, 용인시, 이천시로 가면 곯었네와 혼합형이 더 많기 때문이다. 멕이고 받는 방법으로 가창하며, 팔탄농요의 받음구는 「두울레 두울레 어기여차로만 둘러라」이다.

### (4) 면생이

논매는 소리로 긴 입타령을 복창하는 형태는 경상도에서도 접할 수 있지만, 곡명을 면생이라 지칭하는 곳은 드물다. 충남 서산군에서는 이와 연관되어 보이는 「문성이」가 수집된다. 팔탄농요에서는 「오~, 에에~, 우~, 오~, 아~ 에~, 에~, 아아아」란 긴 입타령을 두패로 나누어 교대로 일어서서 복창한다.

### (5) 먼들소리 기타

논맬 때의 먼들소리는 작업이 끝날 무렵 쌈사면서 부르기 마련인데, 평택시 일부지역에서 연천군 일부지역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서부쪽이 본고장인 논매는 소리이다.

화성군에서도 그 서부쪽에 보다 잘 전파되어 있다.

긴방아와 자진방아 및 에넬넬 상사디야는 비교적 전파범위가 넓은 논매는 소리에 속한다.

긴방아는 가창하기 어려운 곡에 속하여 제대로 전승하는 곳이 적은데 팔탄농요의 것은 보존상태가 아주 좋다.

받음구는 「에 헤 에, 이, 이이여~, 오오~ 오, 아아아~, 뒤이여헤에」이다.

처음엔 몇번 후렴을 복창하고 이어 3회를 메기고 받은후에 다음 곡으로 넘긴다.

팔탄농요의 자진방아는 속도가 느린편이며, 에넬넬 상사디야의 받음 선율을 한번은 낮추어 내고(에넬넬 상사디야) 한번은 질러낸다. (얼럴럴 상사디야)

## 4. 구성 및 내용

### 1) 구성

- 깃대 — 1명
- 상쇠 — 2명
- 북 — 2명
- 장구 — 2명
- 징 — 2명
- 선소리꾼 — 3명
- 모내기꾼, 김매기꾼 — 40명

## 2)내용

### (1)입장

농기, 두레기를 앞세우고 쇠가락에 맞추어 입장한다.

### (2)모심는 장면

소리하는 사람이 "여기도 하난데 여기 저기도 또 하나"하면서 "여기도 하나요"를 노래하면 일제히 모를 심기 시작한다. 구장리 동촌 마을에서는 모심을 때 다 같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신명있는 사람들이 엇바꾸어 가며 흥얼거리는 정도였다.

잘부르는 가사에는 다음의 것들도 있다.



여기도 하난데 여기서 저만큼 또 하나/
하나요 둘이요 여기서 저기서 또 하나/
여기도 하난데 어기여챠 또하나
여기는 양석자리 여기 저기는 삼배출 자리

### (3)논매는 장면

호미로 애벌매기를 하면서 얼카덩어리를 메기고 받는다.

논의 생김새에 따라 논매는 방법도 똑같지가 않다. 이번에 반달모양으로 논매는 형을 택했다.

맬 논이 조금 남았을 때 선소리꾼의 신호에 따라 동그랗게 에워싸게 되며 마지막엔 "우~"하고 함성을 지르고 나온다.

(메) (받)

천지가 개벽한 후에 얼카 덩어리

### (4)논 훔치는 장면

손으로 논을 훔칠 때는 처음에 두울레를 부르고, 이어서 면생이, 긴방아, 자진방아, 에넬넬 상사디야를 부르며 먼들소리로 쌈을 싸고 끝난다. 면생이를 두 패로 나누어 엇바꾸어 일어서서 복창하는 방법이 흥미롭다. 두울레 때는 뒤떨어지지 않을새라 쉴틈이 없다가 면생이 때에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 두울레 : 운문에 뒤로하니 수운이 장막하다, 두울레 두울레

초패왕은 초를 장차 역발산도 쓸데없고, 두을레 두을레

중 략

• 면생이 : "오~, 에에~, 우~, 오~, 아~,
에~, 아아아"를 두 패가 교대로 3회씩 복창한다.

• 긴방아 :
면생이에 이어 "에헤에, 이, 이이여~, 오오~오, 아아아~ 뒤이여헤에"를 두 패가 1회씩 복창한 다음에 멕이고 받았다. 메김구는 다음과 같다.

청명시절에 우분분 하니, 에헤에/
노중 행인이 버선 발로 뛰어든다. 에헤이/
옥동 묘지가 행화촌이라, 에헤에/

메김 소리가 끝날 때는 "에헤에"를 불러줘 받음소리가 준비를 하게 한다.

• 자진방아까지는 느릿느릿 부르다가
에넬넬 상사디야 부터 잦아진다.

자 진 방 아

| (메) | (받) |
|---|---|
| /여보소 농부님들 | / 에이여라 방호 |
| 이내말을 들어보소 | /에이여라 방호 |

• 에넬넬 상사디야

| (메) | (받) |
|---|---|
| 우리 부모 날 비실제 | (낮) 에넬넬 상사디야 |
| 백일정성이며 산천기도라 | (높) 얼럴럴 상사디야 |
| 명산대천을 다니시며 | (낮) 에넬넬 상사디야 |
| 온갖정성을 다드리니 | (높) 얼러러 상사디야 |

• 먼들 소리

| (메) | (받) |
|---|---|
| 모늘 다 냇 | 에이여라 먼들 |

## 5. 고증 및 지도 연출

- 총지휘 : 화성군 문화공보실장
- 고증 및 지도 : 문화재 전문위원 이소라
- 연출 : 팔탄면장
- 출연
    - 소리꾼 : 박조원
    - 상쇠 : 홍순봉, 전상강
    - 징 : 김경제, 이철우
    - 장구 : 박명원, 박상진
    - 북 : 조현재, 한상규
    - 호적수 : 김윤겸
    - 양반 : 오습환
    - 깃대 : 박상우
    - 농민 : 한상린, 이용식, 방영원, 박건원, 박상복, 조덕재, 박상무, 박염원, 박우원, 박상웅, 조돈석, 박상휴, 오병환, 나대균, 박상락, 박정원, 박붕준, 박상관, 박우준, 박학준, 노승하, 조여묵, 조돈선, 최종용, 최종경, 조성재, 최종수, 이만복, 정분예, 한선택, 최경순, 심진현, 정용순, 오의순, 손영자, 이순영, 김계례, 이상호, 박남준



민속놀이

# 원리 줄다리기

## 1. 전승지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원리마을

## 2. 유래 및 해설

화성군 매송면 원리 마을은 과천에서 반월로 가는 47번 국도와 이어지는 발안, 평택 방면 39번 국도의 도로변에 위치하며 이웃 송라1리와 함께 여주 이씨, 풍양 조씨의 유서 깊은 고장이다. 화성군 원리 줄다리기는 약 300여년전인 1660년경부터 전해 내려오는 음력 10월1일의 당제사, 7월 1일의 큰우물고사와 더불어 3대 민속놀이 풍습 중 하나로 정월대보름날 온 동네 마을 사람들과 이웃 약8개 마을사람들이 모여 즐기던 민속놀이다.

음력 정월 14일이면 명고서원터(풍양 조씨 조익(趙翼)을 제향하는 명고서원(明皐書院)은 1661년에 조고서원(朝皐書院)으로 건립되고 1669년에 사액받았다. 대원군 시절 서원철폐령에 따라 일괄 철거되어 지금은 주춧돌만 남아 있다.)에서 온 마을사람들이 모여 각 농가마다 5뭍에서 10뭍씩 거둔 볏짚으로 줄다리기 줄을 만든다.




줄은 양쪽 용으로 상징, 한쪽은 숫용, 한쪽은 암용으로 마을 위쪽으로 가는 줄에는 신랑이, 마을 아래쪽으로

가는 줄에는 신부가 줄 용머리를 타고 동네 한바퀴를 돌아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던 큰 우물앞에서 양쪽 줄이 만나 줄을 연결한 다음 줄을 다리게 된다. 줄은 3번 다리게 되는데 웃마을이 이기면 벼농사가 풍년이 들고 아랫마을이 이기면 보리풍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전해내려오고 있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그 줄을 끊어다 지붕에 올려 놓거나 그 줄을 삶아 먹거나 바르면 여러 재앙을 물리치고 질병을 고친다고 하여 주민들이나 구경온 사람들이 줄을 끊어가기도 하였다.

## 3. 특징

전래민속으로서의 줄다리기는 단순한 승부놀이가 아닌 제액 초복, 년점(年占)의 의식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화성군 원리 줄다리기 역시 묵은 해의 재앙을 물리치고 풍작을 기구해 온 점풍 농경의례로서 줄 만들기에서의 기(旗)제사, 부정굿, 개부심, 줄당기기 앞서 농악을 울리며 줄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점, 웃마을이 이기면 쌀 풍년이 든다는 년점, 곁줄을 자라내어 지붕위에 올리며 재수 있기를 비는 기복 신앙심, 뒷풀이에 이어 개별 쌀점(占)등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마을사람들의 협동(줄만들기, 당기기)과 친목(이웃 두레 초청)을 기리는 뜻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웃다리 농악지대인 관계로 길굿으로 칠채가락을 치고 줄멤소리가 없으며 영산줄의 장군 대신 어린 신랑과 각시(女裝男)를 줄머리 위에 태운다. 원리두레 농악은 경복궁 복원공사 때에 1등을 했다하며, 이 부근에서는 제일 먼저 생긴 영좌님 두레라고 한다.

## 4. 구성 및 내용

### 1) 줄 만들기

(1) 볏짚나르기, 기(旗)고사

각 농가마다 5-10물씩 볏짚을 거두고 술, 쌀, 김치 등도 분담하여 실어 나른다. 줄 드리는 날 먼저 농기를 세우고 엎어 놓은 징 위에 막걸리 한 잔을 제주로 올려 놓고는 고수가 북을 친 후 깃대 밑에 제주를 끼얹는 것으로 부정굿에 대신한다. 기고사에 이어 농악이 마당굿을 벌인 다음 줄 만드는 서원터로 길굿을 치며 가고 기고사를 지낸 농기를 줄 만드는 곳에 꽂아 신성한 장소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농악을 울림으로써 이 곳의 부정을 가셨다.

(2) 기초줄 드리기

기초줄을 드릴 때는 짧은 나무 손잡이에 나락을 묶은 다음 오른쪽으로만 돌려가고 나락을 끼우는 사람은 왼손의 나락줄 속을 비집고 오른손의 새 나락을 집어 넣는데 왼손을 고정하거나 또는 왼쪽으로 튼다. 나무손잡이 쪽의 사람은 계속 오른쪽으로만 돌린다. 완성된 기초줄의 나무손잡이 쪽은 고정목 기둥에다 묶어 두고 반대 쪽은 도르래에 건다.

(3) 3사(絲) 드리기



기초줄 세개의 한쪽 끝을 도르래 고리에 걸고 도르래 손잡이를 잡은 사람은 왼쪽으로 돌리고 줄 끝의 나무손잡이를 잡은 세사람은 줄과 줄 사이를 쫙 벌리고 서서는 기초줄 때처럼 계속 오른쪽으로 돌린다. 3개의 기초줄이 한목으로 감기는 어귀에 바짝 붙여 세 사람이 각각 한줄씩을 맡되 윗줄을 담당하는 사람은 막대기를 사이에 넣고 딴딴하게 감기도록 돕는다.

(4)몸줄만들기

3사 12개로 한 개의 몸줄을 만든다. 12줄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 새끼줄을 몸줄 묶기 좋게 뭉쳐 둔다. 새끼뭉치로 몸줄 몇 군데를 묶고 걸대목을 만들어 몸줄을 받친다. 여기까지의 작업은 암줄이나 숫줄이 같다.

(5) 용머리 만들기, 곁줄달기, 개부심(끝마무리) 굿

대개 숫줄부터 만드는데 용머리를 만들 부분엔 빗장을 두 개 끼워 받쳐 놓는다. 먼저 용머리의 목줄을 이룰만큼의 위치에서 시작하여 새끼를 가지런히 감는다. 용머리 둘레를 이룰 만큼 새끼줄이 감겼으면 이를 접어 묶는다. 줄이 겹쳐 잇는 목줄 부위는 줄 당길 때 풀어지기 쉬우므로 특히 튼튼히 감아야 한다. 암줄의 용머리는 숫줄 용머리가 빠듯하게 들어올 만큼 커야 한다.

곁줄은 중심에서 몸줄의 양옆으로 달아 한가닥에 짝을 맞춘다. 한 편에 14개씩 합 28개의 곁줄을 다는데 숫줄 용머리 둘레의 목줄 새끼가 감기

기 시작한데서부터 2m 50cm지점에 첫 곁줄(젖줄)을 단다.

암줄 숫줄이 완성되면 암줄 숫줄이 나갈 방향으로 용머리를 놓고 농악대가 줄만드는 작업이 끝난 서원터를 돌며 한바탕 농악을 울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

### 2) 줄 당기기

#### (1) 맞이굿

손님두레를 맞이하기 위해 주인두레는 원리농기를 앞세우고 반월川 다리께에 멈춰 서서 건너편 손님두레를 기다린다. 손님두레가 나타나 주인두레와의 거리를 100m 정도에 멈추어 서면 주인두레에서 북을 치켜 들고 정구를 친다. 손님두레도 정구를 쳐서 응답을 하고 양쪽 두레가 두레기를 앞세우고 서로 가까이 와 양쪽 상쇠가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서원터로 동행한다.

#### (2) 줄나감

마을 중간에 있는 아름드리 회나무를 기준으로 하여 웃마을 사람들은 숫줄을 메고 아랫마을 사람들은 암줄을 멘다. 웃말 농악은 주인두레가, 아랫말 농악은 손님두레가 맡는다. 암줄 용머리 위에 어린 각시가 올라서고 숫줄엔 어린 신랑이 서는데 신부역은 여장 남자아이가 맡아왔다. 줄이 나갈 때의 출발신호로 웃마을(숫줄)은 징을 쳤고 아랫마을(암줄)은 북을 때렸다.

#### (3) 줄 어루기와 교접

암줄과 숫줄이 각각 행로를 따라 큰 우물가에 도착하여 마주서면, 교접하기 전의 줄어루기가 진행된다. 암줄과 숫줄은 각기 머리 끝을 치켜들고 부딪치며 상대방을 제압하려 으르렁거린다. 어깨에 줄을 멘 양편 쪽 줄꾼들은 '와와' 함성을 지르며 몇번 다가섰다 물러났다하는 중에 신부나 신랑 어느 한 쪽이 줄에서 떨어지면 줄 어루기가 끝이난다. 암줄머리 안으로 숫줄을 끼우고 비네목으로 질러 놓는다.

#### (4) 줄 당김

한 줄이 된 암줄, 숫줄 주변을 농악대가 한바퀴 돈다. 심판은 첫 대결

신호로 징을 울리고 곁줄과 꼬리줄을 잡은 줄꾼들이 '위여차' 소리로 힘을 모아 당기는 데 첫박에 징을 치고 두번째 '위여차'에 센 북을 울리며 징과 북의 교차가 계속된다. 웃마을이 이기면 벼풍년, 아랫마을이 이기면 보리풍년이 든다고 전해오고 있다. 승부는 중심의 기준선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밀려 나갔는지로 결정한다. 줄은 보통 세번 당긴다.

(5) 기복, 뒷풀이

줄 당기기가 끝나고 끊어진 줄을 길섶에 길다랗게 뉘여 놓은 채 사람들은 농악대를 따라 서원터로 올라가기도 하고 곁줄을 떼어가기도 한다. 줄다리기 한줄을 떼어 지붕위에 던지면서 "매송면 원리 일년 열두달 삼백육십오일 곱게나게 해줍소사"빌기도 하는데 이것은 일년간 재수있다는 속신때문이다. 서원터에서는 각 두레패들이 농악을 울리며 못다푼 신명풀이를 하고 고사를 지낸다.

## 5. 고증 및 지도 연출

- 고증 : 이소라(문화재 전문위원)
- 출연
  - 명칭 : 원리 줄다리기
  - 인원 : 남 211명
  - 소요시간 : 30분



# 광 주 군

## 남한산성 위령제


연 천
파 주
동두천
포 천
김 포
양 주
고 양
의정부
가 평
인 천
부천
서울
구리
남양주
광명
시흥
안양
과천
하남
안산
군포
의왕
성남
광 주
양 평
수원
화 성
오산
용 인
이 천
여주
평 택
안 성

# 여 백

민속놀이

# 남한산성 위령제

## 1. 전승지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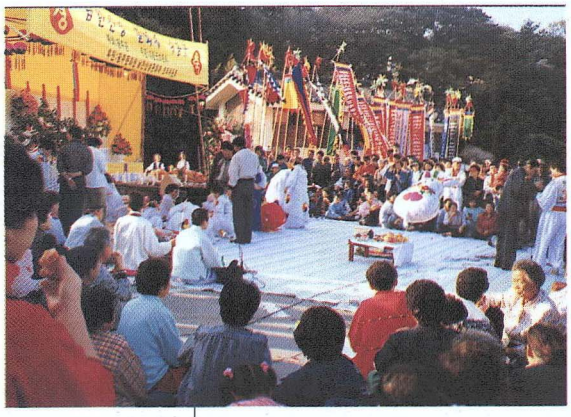
## 2. 유래 및 해설

남한산성(南漢山城)은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에 쌓은 산성인데, 이 성은 석성(石城)의 전 둘레가 6,277보(步)이고, 성가퀴가 1,700첩(堞)이며, 4문(門)과 8개의 암문(暗門)이 있고, 성 안에는 관아(官衙)와 창고, 행궁(行宮)이 있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4개의 장대(將臺)가 있었고, 전부터 있던 망월사(望月寺)·옥정사(玉井寺)외에 새로 창건한 국청(國淸)·천주(天柱)·개원(開元)·동림(東林)·남단(南壇)·한흥(漢興)·장경(長慶)의 7개 사찰이 있었다.



성안의 시설물의 확장은 인조때부터 순조때까지 계속 되었는데, 유사시 국왕이 거처할 행궁(行宮)은 상궐(上厥)이 73간(間), 하궐(下厥)이 154간 이었다. 숙종(肅宗)14년(1688)에 재덕당(在德堂)이, 숙종 37년(1711)에는 종묘(宗廟)를 봉안하기 위하여 세운 좌전(左殿)과 사직(社稷)을 옮길 남문안에 우실(右室)을 세웠었다.

정조(正祖) 22년(1798)에는 행궁(行宮) 바깥 삼문(三門)의 상루(上樓)인 남한루(南韓樓)를 세웠었다. 객관(客觀)인 인화관(人和館)은 인조 2년(1624)에 세운 것인데 순



조 29년(1829)에 수리되었다.

이상은 궁실(宮室)에 따른 시설들이고, 관아 건물로는 좌승당(左勝堂) · 일장각(日長閣) · 수어청(守禦廳) · 제승헌(制勝軒)을 비롯하여 군사 기관으로는 비장청(碑將廳) · 교련관청(敎鍊官廳) · 기패관청(旗牌官廳)등을 위시한 20여개의 건물과 종각(鐘閣) · 마랑(馬廊) · 뇌옥(牢獄 : 감옥), 백제의 시조 온조왕묘(溫祖王廟), 성황당(城隍堂) · 여단(慮壇)등이 들어섰고, 승도청(僧徒廳)을 두어 승군(僧軍)을 총괄하였다.

이 산성의 수비는 처음에는 총융청(摠戎廳)이 따로 설치되었고, 여기에는 전 · 좌 · 중 · 우 · 후(前左中右後)의 5영(營)이 소속되었는데, 전영장(前營將)은 서장내에 진을 치고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는 서장대(수어장대(守禦將臺)라고 함) · 현전사 · 연무관 · 지수당 · 침괘정 · 영월정(迎月亭) · 영준정 · 숭렬전 · 남문 · 동문 · 장경사 · 국청사등과 보(堡) · 누(壘)돈대(墩戴)따위 뿐이다.

이 산성은 병자호란때 치욕적인 항복을 한 곳으로 그 후 여러번 수축이 있었다. 그리고 이 성의 전체면적은 159,859평인데, 1939년 10월 18일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었다가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57호로 재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남한산성 청량당의 곡

청량당이라함은 이회장군(李悔將軍)과 그의 두부인 벽암대사, 백마신장, 오방신장, 대신할머니 위와같은 분을 모신 사당이다.

이 당에서는 매년 정월 초 이튿날 많은 만신들이 모여들어 정성껏 제를 올리고 치성을 드리니 이는 남한산성 축성시에 억울하게 참수된 이회와 그 처첩인 송씨의 넋을 진위키 위하여 드리는 치제이다.

이회는 충성스럽고 정직하여 축성을 빈틈없이 하느라 기일을 넘기도록 완공을 못하게 되자 국고금에 낭비라고 책임을 물어 그를 참수하게 하였다.

이 무렵 남편의 성축을 돕고자 모든 가재와 가산을 다하고도 모자라 멀

리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갖은 고초를 무릅쓰고, 성금과 쌀, 쇠붙이등을 거두어가지고 광주땅 무릉도까지 다달았으나 때마침 그의 남편이 참수됨을 듣고 물속에 투신 자살한 열부 송씨의 넋이 원혼이 되어 청량당에서 곡소리로 울려나왔다.

이 소리를 들은 고을에서는 그의 영혼을 달래고자 그가 투신한 날을 기하여 이때부터 여러 고을 무당과 박수들을 모아 징치고 제금울려 굿을 하게 되니 그의 원혼이 비로소 명부에 들어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또한 무당들의 영험이 있다하여 매해 제지내고 굿을 하였으나 일제치하 압박에 못이겨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 맥을 다시 이어 계승코자 남한산성 위령제 및 대동굿이 다시 이루어져 1991년 8월 28일 첫회로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남한산성 축성 당시에 비명에 간 영혼과 병자호란 때 죽은 혼령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 및 대동굿인 것이다.

## 3. 구성

• **놀이시기** : 매년 10월에 실시

• **구성** : ① 주무 : 3명
② 이회장군 : 1명
③ 백암대사 : 1명
④ 망나니 : 1명
⑤ 송씨부인(귀신) : 1명
⑥ 큰머리 단랑 : 15명
⑦길배 : 12명
⑧ 악사 : 6명
⑨ 풍물패 : 40명
⑩ 깃발 : 36명
⑪ 승병 : 20명
⑫ 병사 : 20명
⑬ 형장 : 10명

• **진행과정** : ① 풍물패 입장
② 무속인 입장
③ 축성재현
④ 형장재현(이회장군 처형)
⑤ 위령굿판

## 4. 고증 및 지도 연출

- 고증 : 전보삼(신구전문대학 교수)
- 지도 : 남근만(한국민속예술연구원 광주지부장)
- 출연
    - 주부 : 주옥선, 이춘자, 최춘옥
    - 이회장군 : 양해성
    - 벽암대사 : 안식
    - 망나니 : 조신영
    - 귀신송씨부인 : 오경잉
    - 큰머리 단랑 : 김지금, 송홍순, 박은자, 임옥순, 임점술, 최영자, 조영자, 황삼신, 김영숙, 한종연, 김숙희, 배분순, 최춘자, 김우자, 윤옥수
    - 길베 : 박말순, 양금순, 조옥희, 임광숙, 윤석자, 김보진

# 연 천 군

- 아미산 울어리
- 미산 성주걸이



# 여 백

민속놀이

# 아미산 울어리

## 1. 전승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 2. 유래 및 해설

울어리란 해마다 추수를 앞두고 산마을 주민들이 한데모여 겨우살이에 대비한 땐 나무를 하고 석양이 들 무렵에 잡목으로 가마를 만들어 연장자를 태우고 마을로 돌아와 농악과 농요소리에 맞춰 마당놀이를 벌여 마을 주민의 화평단합을 다지며 풍년에 감사하는 농민들의 놀이이다.

울어리에 대한 문헌상에 기록된 것은 없으나 영좌, 부사 등의 말을 쓴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 전승된 것으로 추정되며, 8 · 15 광복 전까지도 연천군 중면, 미산면, 신서면 등의 산악지대에서 세습적으로 연희되어 오다가 남북분단과 전쟁등의 역사적 격변기를 맞아 중단되었던 것을, 이재순옹과 유촌리 원로들의 노력에 의하여 그 원형을 찾아 지금의 아미산 울어리로 복원되어 전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전래되어 있는 많은 농요 가운데 겨우살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연료를 채취하면서 부르는 노래는 흔하지 않아 이러한

희귀성이 아미산 울어리의 특징이다.

## 3. 구성

### 1)음악적 구성

울어리놀이는 3개의 노래로 이뤄지는데 그 음계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울어리(나무 벨 때 부르는 노래)

앞소리는 4도 · 2도 · 2도의 4개음으로 되어 있으나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

뒷소리는 4도 · 2도의 3개 음으로 되어 있다.

② 등게타령(남여와 영좌의 춤에 맞춰 부르는 노래)

새타령의 음진행 배열과 비슷하나 리듬만이 다르다.

③ 방아타령(모두 함께 부르는 노래)

울어리와 같은 구성음으로 되어 있으나 종지음이 약간 다르다.

### 2) 놀이구성

① 풋나무베기

② 남여행차

③ 농기싸움

④ 마당놀이

## 4. 내용

이른 아침 농요소리에 맞추어 마을 일꾼들은 감발을 하고 낫과 숫돌 등의 연장을 들고 산에 오른다. 일꾼들이 모이면 상겨리, 중겨리, 하겨리 등의 두세파로 편을 갈라 나무베는 일을 시작하는데 이때 상, 중, 하겨리에서 번갈아 풋나무베기 소리를 메기고 받으며 일을 한다.

### 풋나무베기

메김 : 올라가네 상상봉 대마루턱으로 올라가네.

받음 : 오오오 ~ ~ ~ 오오오(이하 받음소리 같음)

메김 : 상겨리서 올라가면 하겨리로 올라가네.

메김 : 어기어차저 일심협력 울어리 소리되네.

메김 : 잡목은 무성하고 잡풀은 돌아가네.

메김 : 금년에도 풍년이니 농가마다 풍요하네.
메김 : 아들나면 효자되고 딸을 나면 열녀되네.
메김 : 일가대소 무고하고 만수무강 축원하네.
메김 : 일락서산 해떨어지고 월출 동녘 달이 솟네.
메김 : 어기어차저 또 다시 올라가네.
메김 : 서해용상 고래타고 우리 농부 남여타네.
메김 : 오늘은 여기서 놀고 내일은 들에서 일하세.

풋나무베기는 일이 끝나면 몇사람은 잡목과 칡을 베어 한사람이 탈 수 있는 남여(藍輿 가마)를 2개 만들고 일꾼 중에서 연장자(令坐)를 태워 남여부사라 칭하여 양반행세를 하면서 마을로 가는 길놀이를 벌이는데 맨앞에 길라잡이가 인도하고 한사람이 소리를 메기면서 남여행차를 한다.



## 남여행차

메김 : 에헤라 끼루끼루 남여부사 잘모셔라.
받음 : 에헤라 끼루끼루 (이하 받음소리 같음)
메김 : 에라이놈 물러가라 칠라가라 남여부사 행차시다.
메김 : 식전 팔십리를 왔으니 허탕중도 나는구나.
메김 : 한양이 몇 백린가 어서어서 아뢰어라.
메김 : 에라 그 들판 오곡이 풍성하다.
메김 : 일락 서산 해가 지고 저녁연기 자욱하다.

남여행차를 하면서 마을에 내려온 일행은 부농가를 골라서 그 집에 들어가 음식을 마련하고 남여부사는 일행에서 실컷 놀 것을 명한다.

농악대에는 반드시 농기가 있게 마련이며 이 농기는 마을의 명예를 대표하므로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 또한 농기에는 급이 있어 하급농기를 보면 절을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면 싸움이 벌어진다. 이것이 농기싸움인데 울어리놀이에서도 벌어진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진 패거리의 부사는

남여에서 내려 상대편 부사에게 큰절을 한다. 그러면 승자의 부사는 아향을 베풀어 남여에 오르기를 권하고 남여에 오른 두 부사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승자의 산주인 집으로 행진을 계속한다.

산주인 집에 오른 일행은 마당을 돌면서 일년 열두달을 엮어 '등게타령'을 메기고 받으면서 마당놀이를 한다. 북, 장고, 꽹과리 등의 악기로 구성된 농악과 소리에 맞추어 한바탕 놀이가 끝나면 주인집에서 마련한 음식을 먹고 일등이 술상을 장단맞춰 치며 잡가로 노래한다. 이 때 부르는 열두달의 메김대사는 다음과 같다.

### 마당놀이

메김 : 너도나도 서로 땀흘리며 짓는 농사.
메김 : 올가을 풍년정에 노적가리 쳐다보고.
메김 : 콩섬 묶어 장에 넣고 벼를 찧어 독에 붓네.
메김 : 사랑방에 지적메고 안방에서 베를 짜네.
메김 : 길쌈해서 옷을 짓고 지겟메어 배석허라.
메김 : 이댁 인심 풍부하니 만수무강 비나이다.

※ 수상력 : 1981년 제2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장려상)
1982년 제1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1983년 제2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공로상)
1997년 제 11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노력상)

## 5. 고증 및 지도 연출

- 고증 : 김순재(인천교육대학 교수)
- 지도 : 이재순(아미산 울어리 기능 보유자)
- 출연
  - 인솔자 : 최범태
  - 상쇄 : 이명식
  - 부쇄 : 김정미, 최성완
  - 징 : 박경남, 오미정, 박경미
  - 북 : 이공주, 정재란, 이지연, 권세언, 최미나
  - 장고 : 박영란, 김재연, 최명규

- 영기 : 송미정, 최선호
- 일꾼 : 정상미, 민경자, 김은래, 문성훈, 마은자, 이은선, 이일근, 계성국, 정경호, 최진순, 조대명, 조영복, 정미연, 한미경, 이현미, 안명자, 이재순, 최윤식, 이경자, 김여재, 류성애, 이숙자, 김명자, 정귀수, 이돈영, 장수연, 송순실
- 농기 : 유선일, 이주현, 이근호
- 아미산기 : 김용민, 원종대
- 선소리꾼 : 박종분, 이형숙
- 남여꾼 : 이명남, 하영애, 조융자, 김경자, 박혜숙

# 미산 성주걸이

## 1. 전승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 2. 유래 및 해설

성주걸이란 옛부터 새로 집을 짓거나 이사를 한 뒤에 집을 지킨다는 신령인 '성주'를 받아 들여 모시는 일종의 무속적인 안택(안택)신앙의 성격을 가진 놀이로써 집안의 부귀번영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유촌리 이재순옹에 의해 발굴된 미산 성주걸이는 전체 세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마당은, 지관에 의해 집터가 정해진 곳에 일꾼들이 풍물을 치며 모여 농악과 춤이 벌어지는 앞놀이.

둘째 마당은, 집터에 고사를 드린 후 일꾼들이 메기는 앞소리와 뒷소리에 맞춰 행해지는 집터닦기와 지경다지기.

셋째 마당은, 집을 짓는데 필요로 하는 각종 재료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 때 일꾼들이 힘을 덜고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노동요를 부르며 작업이 진행된다.

이어 상량을 하고 집이 완공되면 주인은 성주받이굿을 드린 후 온마을 사람들은 잡귀와 잡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마당 어울려 노는 놀이이다.

둘째 마당에서 일꾼들이 부르는 '가래질소리'와 '지경다지기소리'는 아래와 같다.

## 3. 소리

### 가래질소리

메김 : 당겼나 당겼지

받음 : 당겼나 당겼지(이하 받음소리 같음)

메김 : 두산리 나린줄기/학의 등에 집을 짓고
와가 지어 부자되니/아들을 낳으면 효자되고
딸을 낳으면 효녀로다.
노적가리 쌓여놓고/올 가을에 풍년일세
닭을 노면 봉황새 되고/말을 노면 용마로다.
멍석복은 말아들고/두꺼비 복은 뛰어 들고
절구통 복은 굴러 들고/학의 복은 날아든다.

### 지경다지기 소리

메김 : 에이어라 지경이요

받음 : 에이어라 지경이요 (이하 받음소리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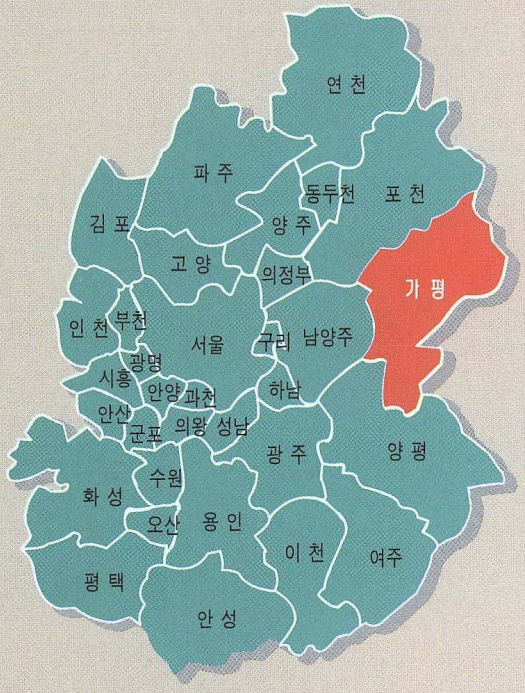
메김 : 지경소리가 웬소리인가
이댁 가중에 와가를 지으니/새 성주를 이룩하오
성주 본향이 어드맨고/경기도 마전땅에 제비원이
본이드라
재비원에 솔씨를 받아/대솔씨도 닷말이요
중솔씨도 닷말이요/소솔씨도 닷말이요
삼오십오 열닷말을/영평 대평에 쓱들어서
여기 저기 부렸더니 바늘솔이/되였구려 소보등이 되었구려
중보등이 되었구려/대보등이 되었구려
청장목이 되었구려/황장목이 되었구려
도리기등이 되었구려/그 재목을 내리려고
서른세명 연군들이/옥도끼로 갈아주고
영평 대편 들어가서/대산에 올라서 대목을 내고
소산에 올라 소목을 내고/원근산 칡을 끊어
얼기설기 떼를 모아/양기 양천 흐르는 물에
두등실 띄어놓고 이물을 이사봉아/고물에 고사봉아
허리간에 화장하여/물에 점점/늘어간다.

## 고사덕담

좌 청룡 좌 백호 성주/우 청룡 우 백호 성주
대주걸이 몸주 성주/기주걸이 직성 성주
자손에 도령 성주/흙 한 삽을 뜩떼내서
인 업일랑 다칠세라/또 한 삽을 뜩떠내니
김 업일랑 건드릴 세라/또 한 삽을 뜩떠내니
대지 업은 다칠세라/쪽재미 업이 건드릴세라
이리 저리 비껴놓고/동사 사방에 지추돌 마련해
성주본이 어드메냐/경기도 마전땅에
제비원이 본일레라/제비 한쌍 날아들게
솔씨 한되 물고 와서/구장목은 오신 성주
신장목은 오신 성주/사살받아 오신 성주
성주 구능 성주 강신/성주 마누리 성주 판관
보실라고 이 정성 대령입니다.
뒷동산에 뿌려 노니/밤이면 찬이슬 맞고
낮이면 볕이슬 맞아가며/점점자라 소복일랑
소두방이 되어 놓고/대목일랑 대수봉이 되어 놀제
소두방이 점점 자라/소장쪽이 되너 놓고
대수봉이 점점 자라/대장목이 되어 놀제
장찬톱은 옆에 차고/한 손에는 은도끼를 들러메고
또 한 손엔 금도끼를 들러메고/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장목은 비어내서/도피 안전을 마련하고
대장목은 베어내서/은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석가래 안전 마련할제
황장목 베어다가/대들보 안전을 마련하고

# 가 평 군

- 회다지 소리
- 황포 돛배놀이



# 여 백

민속놀이

# 회다지 소리

## 1. 전승지

경기도 가평군 상색리

## 2. 유래 및 해설

가평 회다지는 가평읍 상색리에 전승되어온 묘터회다지이다.

상색리는 조선11대 중종대왕의 태를 봉한 태봉(향토유적 제6호)이 있어 마을 이름이 현재도 태봉이다. 따라서 태봉 조정 당시(1507)의 예법이나 행사 절차의 근엄함이 연연이 전승되어 오늘날도 비교적 주민이 변동없이 대를이어 내려온 마을로서 옛 풍습이 많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가평군은 1507년까지 현감이 있었으나 1507년 중종대왕 어태를 봉안하고 그 해에 군으로 승격되었다.

회다지는 장례식때 묘를 다지는 과정으로서 좁은 공간에서 여러명이(8명)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고자 통일된 행동을 위하여 회다지 소리에 맞추어 작업을 하는 과정이다. 장례절차를 민속예술 측면에서 출연한다는 것이 망설임이 있으나 장례중에는 다복하고 장수한 사람이 죽었을 때 호상이라하여 슬픈 마음을 해학적으로 풀어 회다지 소리에 따라 점점 흥을 돋구어 슬픔을 달래며 묘역작업을 하는 것이다.



가평 회다지는 한 마

을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여러 민속중에서 옛날 방법이 거의 완벽하게 전하여 오고 있으나 근래들어 젊은 사람들에게 잘 전승이 되지 않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 타 지역에서 전입함에 따라 원형이 보존되기 어려워 마을 원로들의 지도를 받아 원형대로 재현하여 계승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3. 구성 및 내용 (상여행렬과 회다지 작업의 연출을 중심으로)

우선 상여를 메고 입장을 하는데 제일 먼저 가평군 대표기가 서고 다음은 명정(가칭 가평이공무송지구) 이 서며 다음은 요여로서 혼백을 모신 가마가 서게된다.

그런 다음 상여를 안내하는 공포가 따르고 그 뒤로 평소 그를 잘 아는 친구나 사돈들이 보내온 만장(현대 조화와 비슷함)이 서고 그 뒤 모든 잡귀와 액운을 쫓는 방상씨가 따르고 다음 상여가 따르며 뒤로 노약한 상제



를 태운 배가마가 따르게 된다. 그리고, 상제가 따르는데 옛날에는 안 상제(여자)는 행여를 따르지 않았으나 연출 효과를 위하여 안상제를 등장시켰다. 뒤로는 마을 촌장을 중심으로 문상객이 따르고 끝으로 심부름 하는 남 · 여가 따라 가게 된다. 이런 순서대로 입장하며 들을 지나 산을 넘고 냇가에 외나무다리에 당도하여 다시 못 올 길을 가는 과정이 연출된다.

장지에 도착하면 상여를 내려놓고 일부는 상여를 해체하며 일부는 산역을 시작한다. 순서대로 하면 입관을 하고 하관을 하는 절차가 있다.

회다지꾼 8명이 선소리에 맞추어 처음 6-7분간은 느린 동작으로 "2마치" 회다지를 하다 점점 흥이 나면 "3마치" 회다지로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하여 내광다지가 끝나면 광중을 제거하고 평토 다지기와 봉분 다지기를 하고 끝나게 된다. 봉분다지기가 끝나면 평토제를 지내고 오던 길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만장은 혼백 옆에 세워 두는 것이나 연출과정에서 색상 안배와 율동감을 위하여 주위를 돌게하였다.

## 4. 회다지 소리

### 1) 향두가

여보시요 동주님네/이내말씀 들어보소
인간하직 백운천리/황천길로 나는가요
이제가면 언제오나/명년삼월 봄이오면
싹이나면 돌아올까/잎이피면 돌아올까
인생한번 이길가면/다시오기 만무로다
여보시요 소년들아/또한말 들어보소
정월이라 십오일에/완월하는 소년들아
순풍도 보려니와/부모봉양 생각하소
신체발부 사대절은/부모님께 타났으니
태산같은 높은덕과/하해같이 깊은정을
어이하여 잊으리요/천세만세 믿었더니
우연히 득병하니/살길이 아득하다
삼신산에 불로초와/영주산에 불사약과
마고선에 자생초며/해도심산 청명주를
일무유화로 구해다가/속으로 약을쓰고
겉으로 침을준들/죽을병을 고칠손가
공산락목 일부토에/영결종천 되었으니
절통하고 통분하다/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이요/황천길이 멀다더니
앞산이 황천일세/일천년은 못사나마
일백을 살려던니/단팔십을 다 못살고
황천객이 왠말인가/여보시오 소년들아
젊었을때 선심하소/초로같은 우리인생
아차한번 죽어지면/인정사정 보지않고
저고린지 들걸인지/바지인지 잠뱅인지
쭝쭝화서 입히더니/칠성줄로 동여매니
여러군정 달려들어/대방산 대틀위에
잡아매여 끌려알제/굽이굽이 열두굽이를
천방지축 허둥지둥/심산험로 돌아갈제

높은데는 얕타지고/얕튼데는 높아진다
한모퉁일 돌아가니/궂은비는 세우솟고
또한모퉁일 돌아가니/함박으로 퍼붓는데
허덕지덕 허우단숨에/북망산에 당도하니
무주공산에 터를닥고/청송으로 울을하고
두견접동새 벗을 삼아/주야장차 누었으니
이것이 락이련가/이런일을 생각하니
청운시절 뉘우친다/태산같은 금은옥백
이지경에 쓸데없고/죽자살자 하던친구
이지경에 쓸데없네/않이쓰고 무엇하며
않이먹고 무엇하리/노자노자 젊어노자
늙어병들면 못노나니/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 기우나니/인생일장 춘몽인데
않이놀지 못하누나

## 2) 성토가

슬프고 슬프도다/어찌하여 슬프던가
백발이되니 슬프도다/이세월이 견고할줄
태산같이 바랬더니/백년광음 못다가서
백발이되니 슬프도다/어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덧없이 가는세월
넌들아니 늙을소며/난들아니 늙을소냐
저근듯 늙는것이/한심하고 슬프도다
소문없이 오는백발/귀밑에 의막하고
청좌없이 오는백발/털끝마다 점고하네
노여워서 아니올까/잘드는칼로 냅다치면
살기서려 아니올까/소진장의 구변으로
달래보면 아니올까/만반진수 차려놓고
빌어보면 아니올까/석승에 억만제로
인정쓰면 아니올까/할수없는 저백발은
사람마다 다겪는다/인생부득 소년들아
충월중에 명담이라/삼천갑자 동방삭은

천생후생 초문이요/팔백년을 사는팽소
고문금문 또있는가/부운같은 이세상에
이리저리 하여본들/오는백발 막을손가
휘장으로 막아노면/보지못해 아니올까
왈력으로 쫓아보면/무서워서 아니올까
위풍으로 제거하면/겁이나서 아니올까
욕을하여 거절하며/진시왕 분시서에
타지않고 남아있어/의미없고 사정없이
세상사람 늙는데/늙기도 설움중에
모양조차 늙어지네/꽃같이 곱든얼굴
검은기미 웬말이며/백옥같이 희든얼굴
검버섯이 웬말이며/볼타기에 있던살은
광대뼈만 붉어지고/초로같은 우리인생
물위에 거품이요/위수에는 부평이라
칠팔십을 살지라도/일장춘몽 꿈이로다
인생한번 늙어지면/다시젊지 못하나니
창힐이 글자낼제/가증하다 늙을로자
아래턱이 코를차고/지팡이를 집어쓰니
등짐장사 가려는가/떡가루를 치려는지
체머리는 웬말이며/추운병이 들렸는지
코물조차 흐르도다/묵묵무언 앉았으니
부처님이 되었는가/정신이 혼미하니
청명인들 있을소냐/남에말을 참여할제
삼단같이 길든머리/불안당이 저같으며
거울같이 밝든귀가/절벽강산 웬말이며
일행백리 것든걸음/상투끝이 먼저가고
살대같이 곧은허리/질마가지 방불하고
샛별같이 밝든눈이/반장님이 되어가고
양다리를 걷고보면/비수같이 날이스고
양팔을 걷고보면/수양버들 늙어졌네
밥먹을제 볼작시면/편작이를 데려다가
늙은병을 고쳐볼까/이리저리 하여본들

늙지아니 할수없고/억만번을 생각해도
문동담서 답답하고/예사말을 하것마는
얼뜻하면 서러워서/누가주어 늙었는지
홀로앉이 애만쓰고/그중에도 먹으려고
비육불포 노래하고/그중에도 입으려고
비백불난 말만하네/육십육갑 꼽아보니
덧없이 지나가고/사시절을 살펴보니
빠르게도 돌아간다/늙을수록 분한마음
정할수가 바이없어/패자자제 남봉측과
화류심방 무지배가/좋은일을 하는듯이
날마다 모이면서/경기파산 하여가며
늙지말게 할수없네/어화청춘 소년들아
또한말 들어보소/꽃이라도 낙화되면
오든나비 않이오고/나무라도 고목되면
오든새도 않이오고/비단옷도 해지면은
물걸래로 돌아가고/좋은음식 쉬어지면
수채구멍 차저가네/세상사를 굽어보니
만사일시 몽중이라/어제날 청춘쩍에
없든벗이 찾아와서/추란화각 높은집에
화초월설 모여앉아/술맛도 아름답고
안주도 찬란하다/백옥반 교자상에
차례로 늘어앉아/휘두잡처 오입하며
이럿듯이 세월보내/매일장취 오래는가
봉제사가 꿈밖이라/빈궁친척 구제하며
처자권속 생각할까/집안이라 돌아보니
저녁거리 간데없고/사당문을 열고보니
향로조차 간데없고/신주보를 볼작시면
삼년묵은 먼지로다/딴방이라 들어가니
늙은아내 몽당치마/어린자식 발을벗고
밥달라고 울어지니/금수가 않이어든
참아야지 모양보지/어화청춘 소년들아
또한말 들어보소/가련할사 세상사람

잔건네 춴하거니/몇순배나 돌아오나
풍우한시 열불하며/안비를 맑게하고
자고나면 하는일이/남속이기 일삼으니
천출생시 생긴성품/저절로 글러지네
농사는 근본이라/천하에 대지어만
놀고먹고 입으려고/광언말썽 자아내며
혹세무민 임삼는다/무슨탐심 이루다가
이육에만 골몰하여/오륜삼강 몰라보고
주야없이 제만지고/백발되어 뉘우치니
후회막급 어찌할까/이세월이 견고할줄
잠잘줄도 모르고서/유수같이 헤어져서
저절로 독부되니/후회탄식 뿐이로다
부럽도다 소년들아/젊었을제 덕을 쌓고
빈객삼천 맹장군도/죽어지면 자취없고
백자천손 곽분양도/죽어지면 허사로다
영웅인들 늙지않고/호걸인들 안죽으랴
영웅도 자랑말고/호걸도 말을마소
만고영웅 진시왕도/여산추소 잠들었고
글잘하는 이태백도/지경상천 하여있고
천하명장 초패왕도/오강월야 흔적없고
허랑방탕 노닐다가/늙는줄도 몰랐구나
안수정등 잠깐이니/젊었을제 고행하소
애고답답 섧은지고/늙기섧어 어찌할고
조석상대 하든춴속/부운같이 헤어지고
죽자사자 하든친구/선심공덕 많이하소
일사일행 공한것은/어찌하여 면할손가
가련하고 한심하다/오는일을 어찌하리
백발이 재촉하니/갈길을 생각하소
아마도 이세상에/선심하고 돌아가오
남에게도 안심쓰고/구선하든 한무제도
분수추풍 한탄이라/천하명의 편작이도
죽기를 못면하고/만고일부 석승이도

할수없이 돌아갔네/억조창생 만민들아
이내일신 젊었을제/이한몸이 돌아가면
다시오기 어렵도다/집을잃고 돌아간들
어디가서 의지하리/다시금 생각하니
청춘시절 뉘우친다/천만년을 살줄알고
속절없이 지내다가/오늘날 생각하니
세상일이 가소롭다/진세오욕 탐치말고
친척에게 화목하소/인간칠십 살지라도
지은공덕 바이없이/좋은일이 얼마인고
속절없이 지내다가/황천에천 돌아간들
무엇가저 저한하리/그럭저럭 지내다가
세월을 몰라주나/북창청풍 명월하에
다된백발 어이하리/어제날 청춘몸이
오늘날 수족없이/한구석에 앉았으니
누가그리 알아줄까/생각하고 생각하니
절통하고 원통하다/부귀공명 바라오며
자손영달 희망할까/금세부귀 하는이는
선심공덕 어서하소/이말저말 도시말고
후생노자 작만하여/극락세계 들어가서
구품연지 구경하세/이세월을 허송타가
서산락일 다된후에/무간옥이 나타나면
후회막급 쓸데없고/처자권속 쓸데없다
친구벗도 쓸데없고/태산같은 금은옥백
이지경에 쓸데없네/인생일대 탄생하여
지은공덕 바이없이/선세적덕 그안인가
약한자를 지지말고/마음닦아 선심하여
극락세계 들어가세/저세계를 들어가면
청춘백발 도시없고/생노병사 끊어지면
장생불사 하신다네/어서가세 어서가세
극락으로 어서가세/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민속놀이

# 황포돛배놀이

## 1. 전승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안반진

## 2. 유래 및 해설

고려6대 성종11년(992년)부터 나라의 세곡을 개평송도로 운송하는 해상(조운)과 강상(점운)제도가 시행되었고, 조선조에 들어와 그 제도가 정비되었다. (만기요람 재용편/한국사 근세전기편)

이에 춘천의 『소양강창』과 가평에는 『염창』이 있었으며 조선중기이래 경상선운상인들의 활동이 왕성하였고 일제말기 청평댐의 준공때까지(1942년) 9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본 황포 돛배놀이는 북한강 상류와 서울의 뚝섬, 서빙고, 마포사이를 운행하면서 물물교환을 위하여 넘나들었으며, 한강의 숫강인 북한강은 뱃길 300여리에 연이어진 억센 여울과 소용돌이치는 소(沼)가 많아 구비진 험난한 뱃길 이었다.



가평은 경강상인들의 통경무역의 중계기지로 포구는 번성하여 불야성을 이루었으며, 중세기 물물을 실어 날랐던 황포돛배(교역선)와 강상의 주인공들이 거세기만 했던 세월과 뱃길의 물결 따라 남겨놓고 간 삶과 애환이

서린 황포돛배를 소재로 민요를 곁들인 가평의 대표적 민속놀이이다.

## 3. 구성 및 내용

「가평 황포돛배놀이」는 북한강을 중심으로 한 뱃사람들의 삶과 애환, 노동적 놀이요소로서 자연을 극복해내는 인간의지를 가락과 춤 그리고 소리로서 회화적인 표현을 통한 가평의 강상문화로 재현하게 되었다.

**• 첫째마당 : 용왕제 및 상선작업**

1) 포구 고사터 앞에 차려놓은 제상과 멍석위에서
2) 용왕제 집행제주들의 독축과 더불어 뱃고사가 베풀어진다.
3) 동시에 잡곡섬, 땔감(숯, 다발장작, 솔광지)들이 실어지고 목도꾼들의 「명지산소리」가 불러진다.

### 명지산 목도소리

이 나무가 어디서 왔나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명지산 제일봉에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낮이면 일광을 타고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밤이면 이슬을 먹고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낙락장송 되었다가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만 인간의 힘을 빌어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가평천을 나왔도다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이 나무를 끌어다가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기억자로 집을 짓고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한오백년 살고지고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가자 가자 어서 가자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고향찾아 어서가자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나귀등을 손질하여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소고안장 지어타고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오작교 건너 광한루 가자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날아가는 원앙새야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너와 내가 짝을 지어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노세노세 젊어 노세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늙어지면 못노나니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마오마오 그리마오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사람괄세 그리마오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이팔청춘 소년들아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백발보고 웃지말아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먼데사람 듣기좋게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곁은 사람 보기 좋게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어화둥실 잘도 돈다.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창보밭에 봄나비 날듯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동실동실 잘도돈다 허정차 허저 허정차 허저

**• 둘째마당 : 출범 및 하강길**

1) 뱃사공들의 돛달기, 삿대질, 노젓기 시작과 함께 「가평황포돛배노래」가 불려지면서

2) 중간포구 가까이에서 빨래표모들과의 물튀기기. 그리고 주막여인네들과의 "술마시기" 장면이 보여진다. (종착포구 : 마포하선작업장면)

### 가평 뱃노래

1. 한잔술 먹다보니 달빛이 솟네요
   도사공 나오실라 호롱불 밝혀라
후렴 : 어야누 야누야 어기어차 뱃노리 가잔다.
2. 잠들은 사공들아 꿈에서 깨거라
   새벽닭이 재촉하니 돛대를 올려라
후렴 : 어야누 야누야 어기어차 뱃노리 가잔다.
3. 보납산 초연대를 이별을 하고서
   뱃고개 넘어로 다 넘어간다.
후렴 : 어야누 야누야 어기어차 뱃노리 가잔다.
4. 이렇꿍 저렇튼 우리집 낭군아
   오신다는 말 한마디 알려나 주지
후렴 : 어야누 야누야 어기어차 뱃노리 가잔다.
5. 안반지 만리성아 너 잘있거라
   소리 자잠 화랑게 무너미 걸친다.

후렴 : 어야누 야누야 어기어차 뱃노리 가잔다.

6. 돌땜이 남한강이 활짝도 피였네
뚝섬 마포 한양길로 구경을 가련다.

후렴 : 어야누 야누야 어기어차 뱃노리 가잔다.

7. 쇠목이에다 주막집 짓고요
우리낭군 오시기만 손꼽아 기다린다.

후렴 : 어야누 야누야 어기어차 뱃노리 가잔다.

8. 사기막 아주머님들 빨래만 빠나요
한양가신 도령님이 도라들올레요

후렴 : 어야누 야누야 어기어차 뱃노리 가잔다.

**• 셋째마당 : 귀향 및 한마당 놀이**

1) 종착포구에서 귀향길에 「가평아리랑」이 울려퍼지고 앗차 저승길로 유명한 거센 「전여울」 거슬러 올라갈때 힘겨워 애먹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어서

2) 원포구에 당도하자 하선 작업이 보여지면서 장작불빛 둘레에서 한마당 놀이가 신명나게 전개된다.

## 가평 아리랑

1. 명지산 중턱에 초가집 짓고
옥계수 기러다가 밥지여 먹세

후렴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2. 쪽두리 봉우리 울지를 마라
옥녀봉이 기다린다.

후렴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3. 용추폭포야 지찧기 마라
미력 장군이 목욕을 한다.

후렴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4. 한양길 갈적엔 큰 마음 먹고
열두구비 돌적엔 발발 떤다.

후렴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5. 섭지산 중턱에 실안개 돌면

곡가리 여울에 배올라가네

후렴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6. 자라목 술집네 술 걸너내게

술 한잔 먹고서 한양길 가네

후렴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7. 야월삼경 깊은 밤에 단잠이 오나

그리운임 내일 모래 기다려진다.

후렴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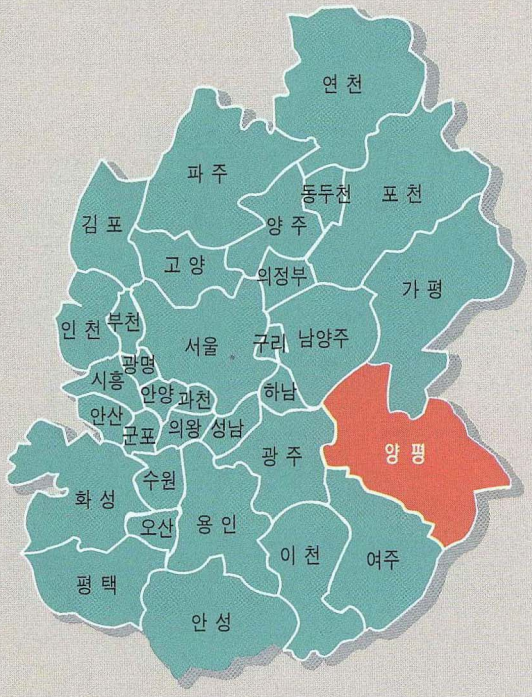
## 4. 고증 및 조사발굴(1993)

- 고증인 :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이태용(민요, 보유자)
  설악면 신천리 전규덕(선주, 도사공)
  설악면 신천리 김운식(배건조도목수)
  설악면 회곡리 강정용(선주, 도사공)
- 고증학자 : 김영기(강원일보사 논설위원. 소양강 뗏목놀이 발굴자)
  이원식(서울 · 원인고대선박연구소 선임연구원)
- 조사발굴 : 최인화(가평문화원 부원장, 향토사가)


한마당 축제
폐막식

# 양 평 군

- 풍년기원 놀이
- 쌍겨리 놀이
- 산신제 축원 굿



# 여 백

# 풍년기원 놀이

## 1. 전승지

경기도 양평군 일대

## 2. 유래 및 해설



농자 천하지 대본의 근본를 자랑으로 삼으며 일년동안 열심히 상부상조하여 지은 벼를 수확하여 연자방아로 벼를 찧고 떡방아 〈디딜방아〉로 쌀을 빻아 떡과 술을 빚어 풍년을 들게 해준 천지신명과 조상님께 감사의 축수를 드리기 위한 고사를 지내는 민속놀이이며 음력 10월에 행하여지는 행사로 연자방아와 디딜방아의 흥겨운 방아타령에 이어 고사반이 이어지는 전통농악을 겸한 민속놀이로서 첫째마당 연자방아노래 3절, 둘째마당 디딜방아노래 5절, 셋째마당 고사반과 농악에 맞추어, 넷째마당 줄타기 시연을 끝으로 풍년놀이 마당이 끝이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 3. 구성 및 내용

### 1) 첫째 마당 (연자방아 노래)

〈제1절〉

노자 좋구나 이십오년 반야월에/불승청원 저 기러기

갈수 한대를 입에 물고/부러진 죽지를 잘잘끌며

점점이 날아드니/청사낙엽이 엘화이 아닌가.

(후렴)

에헤이요 에에햐 에헤에야/엘화욱여라 방아로구나.

방아대 절구대 다걸머지고/여주 이천으로 자채 픔팔러 가자.

〈제2절〉
반넘어 늙었으니 다시 젊지 못하리라
노자 좋구나 강남서 나온 제비/박씨 하나를 입에 물고
허공중천에 높이떠서/이 집 저 집 다 제쳐 놓고
흥부집으로 곰 돌아온다.
〈후렴〉
에헤이요 에헤야 에헤에야/엘화욱여라 방아로구나
푸른 것은 버들이요/누른 것은 에헤라 꾀꼬리로다.

〈제3절〉
노자 좋구나 닭아 닭아 울지마라
네가 울면 날이샌다 날이새면 내가죽는다
나 죽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앞못보는 우리 부친
누구를 믿고서 에헤라 사신단말이냐
(후렴)
에헤이요 에헤야 에헤에야/엘화욱여라 방아로구나
노자 때려라 저리 젊어 노자/늙어지면 에헤못노리라

### 2) 둘째마당(디딜방아 노래)
〈제1절〉
덜커덩 덜커덩 찧는방아 정월달에 찧은 방아 달떡방아
(후렴)
덜커덩 덜커덩 찧는 방아 언제나 다 찧고 님보러 가나

〈제2절〉
덜커덩 덜커덩 찧는 방아 이월달에 찧는 방아 나이떡방아
(후렴)
덜커덩 덜커덩 찧는 방아 언제나 다 찧고 님보러 가나

〈제3절〉
덜커덩 덜커덩 찧는 방아 삼월달에 찧는 방아 쓱떡방아
(후렴)
덜커덩 덜커덩 찧는 방아 언제나 다 찧고 님보러 가나

〈제4절〉
덜커덩 덜커덩 찧는 방아 사월달에 찧는 방아 편떡방아
(후렴)
덜커덩 덜커덩 찧는 방아 언제나 다 찧고 님보러 가나

〈제5절〉
덜커덩 덜커덩 찧는 방아 오월에 찧는 방아 개떡방아
(후렴)
덜커덩 덜커덩 찧는 방아 언제나 다 찧고 님보러 가나

### 3) 셋째마당(고사반)
상봉 일경에 불공자라 관가 귀설로 명을 살고
축원이 갑니다. 덕담이 갑니다.
경기도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에
덕담을 여쭌 후에 낮이되면 물이 맑고
밤이되면 불이 밝고 어리석경에 명도화와 같이
옥쟁반에 춘추를 굴려 신의 못으로 점을 찍듯이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과 평온하시옵소서
(후렴)
아하~ 아하아아 ~ 아하에헤이 행이로다
아하~ 아하아아 ~ 아하에헤이 행이로다
열에 열 하시옵소서

축원덕담 여쭌 후에 경기도민 여러분들 댁에
거부장자될 때 무지개발로 후린듯이
서기발로 찍은 듯이 높은 산에 눈날리듯이
낮은산에 재뿌린듯이 억수장마 비퍼붓듯이

대천바다 물밀듯이 동해바다 파도치듯이
서해바다 물밀듯이 경기도민 여러분들 댁에
거부장자 되시 옵소서
(후렴)
아하~ 아하아아 ~ 아하에헤이 행이로다
아하~ 아하아아 ~ 아하에헤이 행이로다
열에 열 하시옵소서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경기도라 풍년이 왔네
삼천리 금수강산에 년년이 풍년이 왔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국통일 이루워져
우리민족의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후렴)
아하~ 아하아아 ~ 아하에헤이 행이로다
아하~ 아하아아 ~ 아하에헤이 행이로다
열에 열 하시옵소서

#### 4) 넷째마당(줄타기)

농악에 마추어 줄을 탄다.

# 쌍겨리 놀이

## 1. 전승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 2. 유래 및 해설

75%가 산악지대인 양평은 선조들이 논과 밭을 갈때 소 두마리를 사용하여 쌍겨리로 갈았다.

쌍겨리 놀이는 옛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전해오는 고장의 전통농요가락으로 상부상조하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생산하는 예지 · 추수감사제와 세세연풍을 기원하고 태평성세를 즐기는 선조들의 농경풍습을 엿볼 수 있다.

## 3. 구성 및 내용

### 1) 줄거리

- 1마당 : 우리고장 전통농요가락으로 두 마리 소를 몰며 논을 갈고 한 편에서 모찌기를 한다.
- 2마당 : 구성진 가락으로 3배출, 4배출, 5배출을 기원하는 노래를 주고 받으며 모를 심는다.
- 3마당 : 선소리를 주고 후렴을 받으며 애벌논과 두벌논을 맨다.
- 4마당 : 풍년을 노래하며 농요에 맞추어 벼를 비어 거둬



들이고 협동정신으로 땀흘리며 즐겁게 타작을 해서 노적을 쌓는다.

- 5마당 : 추수감사제를 지내고 세세년년 태평성세와 소원성취를 축원하며 풍년을 즐긴다.

### 2) 소리와 해설

#### ① 논갈이 노래

호호 안소는 물러서고 마라소야 우기고 돌아가거라
안소 마라소야 넘나들지 말고 제 골수로 가거라.
완야 완야 마라 마라 호호 안소야
비슾 끝에 발 다칠라 발조심 하거라
이러 이소야
세귀뱀이 얼른 갈고 장고뱀이로 넘어가자

#### ② 모심는 노래(미나리)

- 에헤 ~ ~
  심어주게 심어주게 오종종 줄모로 심어주게
- 에헤 ~ ~
  오늘의 날은 앞뜰에서 모심고 내일의 날은 뒤뜰로 가세
- 에헤 ~ ~
  심어주게 심어주게 오배출 짜리로 심어주게
- 에헤 ~ ~
  열두 마지기 백미는 무슨벼 심나 인간칠십 노인벼 심세
- 에헤 ~ ~
  닷마지기 배미는 무슨 벼 심나 양평 · 옥천 옥자강이 심세

#### ③ 논매기 노래(초벌매기)

많이 먹어 등데기벼 작게먹어 잔다리벼
(후렴) 너와 얼싸 단호리야
마당쓰레기 건불벼 이름좋아 호랑벼
(후렴) 너와 얼싸 단호리야
어떤찰벼 심었던가 인간칠십 노인찰벼

(후렴) 너와 얼싸 단호리야
두 메사람 산두찰벼 혼자먹어 도야지 찰벼
(후렴) 너와 얼싸 단호리야
걱어 푸드윽 장기찰벼 아루룩 까투리 찰벼
(후렴) 너와 얼싸 단호리야
두문 두문 느세 찰벼 넉살좋은 양픔찰벼
(후렴) 너와 얼싸 단호리야

### • 논매기 노래 (두벌 매기)

여보소 농부님네 이내한말 들어보소
(후렴)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 삼베출 짜리로 심어주게
농사는 천하지 대본일세 농사한철 지어보세
(후렴)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 삼베출 짜리로 심어주게
높은 데면 천동지기 낮은 데면 지동 지기
(후렴)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 삼베출 짜리로 심어주게
물이 좋으면 수답이요 물이 적으면 건답일세
(후렴)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 삼베출 짜리로 심어주게
어떤벼를 심었는가 인간칠십노인벼 두메사람 산두 벼
(후렴)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 삼베출 짜리로 심어주게
양평·용문 옥자강벼 양서·옥천 밀다리 벼
(후렴)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 삼베출 짜리로 심어주게
양동·지평 사발벼 우물앞에 쌈다리 벼
(후렴)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 삼베출 짜리로 심어주게

### ④ 벼베기 노래

외수 백가지 심었더니 사해용왕이 물을 주어
방망이 여름 홍두깨 여름 우쭐 우쭐 맺혔구나
칠·팔월이 당도하니 앵무같은 여한 님은
뚜아리 받혀 여들이고 남별감은 지게바쳐 져드리고
왁작발이 사족발이 별베기 녹이걸이 쌍쌍걸이
꽁지 없는 동경소 불알없는 내관소 나갈때는 빈발이
들어올때는 참발이 와각 지각 실어 들일때

여주금상 부인마마 들구경 나가 신다고

### ⑤ 노적가리 쌓기

앞에 가려 앞노적 쌓고 뒤에 가려 뒷노적 쌓고
앞뒤에 멍에 노적 쌓고 참깨 노적 들깨 노적 담불 담불
쌓았더니 날아가는 봉덕새가 중봉에다 자리보고
상봉에다 새끼쳐 한날개 둥당치면 일이 천만석
점지되고 또 한날개 둥당치면 절이 천만석 점지로다
무기개발로 흐린듯 서기발로 찝은 듯 높은산에 눈날리듯
얕은 산에 재날리듯 억수장마 비퍼붓듯 개천바다 물밀듯
동해바다 파도치듯 서해바다 물밀듯 거부장자 되옵소서

### ⑥ 감사제 축원 및 풍년놀이

## 4. 고증 및 조사발굴

- 발굴 : 양평 문화원
- 고증 : 김기창
- 기능 보유자 : 최원산

민속놀이

# 산신제 축원 굿

## 1. 전승지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백운봉

## 2. 유래 및 해설

산신제 축원굿은 고대로부터 양평군민의 정신적 통일과 화합단결로서 순리와 도덕을 부식케 하고 대대손손 번영의 정기를 내려주시기를 하례하는 제사로서 용문산 백운봉하에 삼정(三井)을 설하여 수도로서 제례하였다.

삼정은 상, 중, 하로 하에서는 목욕을 하고 중에서는 메를 짓고 상에서는 정수로서 복용하였으며 수도와 정성으로 삼칠일에 걸쳐 제례를 행하여 오다가 한일합병 이후로 지휘를 감추었다가 광복이후 이에 뜻을 지닌 이들이 개별예행하여 왔으며 지금도 그곳에 머물며 직접 행하고 있다.

이를 1983년 양평문화원이 창립되면서 문화제 행사의 백운문화제로서 군민이 대대로 복을 받고 집집마다 태평을 누리며 농사는 풍년을 기약하고 재앙을 막고 사람마다 환락하며 가축은 번식하고 질병을 막고, 도적을 막고, 옛것을 더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흉년과 재해를 막아 평화통일로서 의롭고 평화로운 집안이 되도록 산신령님께 축복하는 제례로서 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옛부터 행하여 오던 굿에 축원하는 축원굿을 더하여 옛조상들의 토속신앙을 보존토록 함에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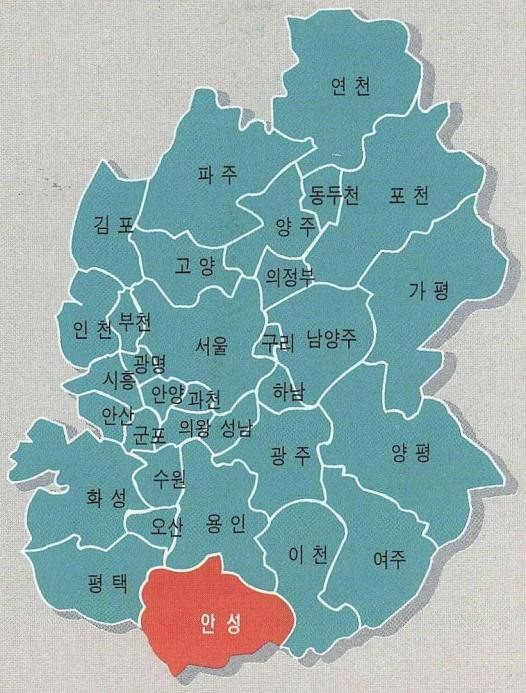
경기도의 명산인 용문산의 최고봉인 백운봉에서 고을의 전주민이 나라의 태평과 만백성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데 모여서 베풀어지던 축원제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였다는 전설이 있으며 조선중엽에서 부터 조선말까지 성대히 행사가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일제시대 서구문화 도입에의한 탄압으로 중지되었고 일부 만신에 의하여 행하여져 왔다.

산신제 축원굿의 역사적 기록은 알 수 없으며 다만 전설에 의하여 전해오고 있으며 남녀노소의 전고을민이 바쁜 일손을 멈추고 나라와 전고을의 태평성대를 기원하였다는데 의의가 깊으며 삼탕을 마련하여 놓고 세번에 걸쳐 목욕을하고 기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제단앞에서 나라와 고을 전체주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차례로 시행되던 양평군민의 토속신앙에서 기원하는 축원굿이다.

축원제를 통하여 어질고 소박한 촌노인의 주름진 얼굴에서 깊고 큰 전통의 뿌리를 느끼게 되며 또한 산신에게 심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고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던 우리옛조상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한다. 산신제가 끝나면 마을 주민들은 산신께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여 준다는 의미에서 한마당의 마당굿을 치르며 농악놀이를 곁들여 흥을 돋우고 하루를 즐긴다. 이 행사는 고을 주민의 화목과 단결을 촉진시켜오던 행사로서 풍년을 기약하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행사로서 옛조상의 토속적신앙 축제인 것이다.

# 안 성 군

## 극적루


연 천
파 주
동두천
포 천
김 포
양 주
고 양
의정부
가 평
인 천
부천
서울
구리
남양주
광명
시흥
안양
과천
하남
안산
군포
의왕
성남
광 주
양 평
수원
화 성
오산
용 인
이 천
여주
평 택
안 성

# 여 백

민속놀이

# 극적루

## 1. 전승지

경기도 안성군 비봉산 일대

## 2. 유래 및 해설

고려시대 유난히 외침이 많았을 때 공민왕 10년(1361년) 10월 2번째로 홍건적 20만이 하늘을 뒤업을 기세로 남침을 하자 북쪽고 30여주는 풍문만 듣고도 항복하고 말았다.

수도 개경은 물론 수원까지 모두 항복하고 당시 공민왕은 이천을 거쳐 복주(지금의 안동)로 파천하였다.

당시 안성현감 신인도(愼仁道)는 의기를 분발하여 지모를 써서 술을 담그고 관내 관기와 미희를 동원하고 또한 안성군민의 충의군 약 1만여 명을 비봉산쪽에 매복시켜 놓고 위장으로 항복하여 관기와 미희와 술로써, 호궤하여 잔치를 베풀어 홍건적을 대취하게 한다음 자정을 기하여 관기와 충의군이 합세하여 홍건적 장수 6명의 목을 베고 만취한 홍건적을 섬멸하여 안성남 이후에는 한발도 내려 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홍건적의 난은 안성에서 마치었다. 다음해 1362년 공민왕이 환궁하여 공적을 높이 치하하여 안성현을 군으로 승격시키고 수원부에서 양량, 감미탄, 마전, 신곡(지금 화성쪽)의 부곡을 주었으며 승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극적루를 짓도록 명하여(당시 육명루라 칭함.) 청풍

루와 같은 2층의 누각을 지었으나 지금은 소실되고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그 누각의 비문 내용은 건축 후 36년 뒤인 조선시대 초기의 학자인 권근에게 부탁하여 지은 내영이 인, 의, 예, 지, 충, 의를 모두 열거하여 정수홍 당시 군수가 건립하였으며 성인의 좌우명을 삼게 하였다. 이는 안성인만이 아닌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며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크나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안성의 자손심이자 선인들의 호국정신의 표상이다.

극적루는 고려말 홍건적의 침입에 대해서 의연히 싸워 나간 안성군민들의 드높은 기개와 절개를 표상하는 기념비적인 누각이었다. 그러나, 극적루는 이미 소실된지 오래이고, 오늘날에는 흔적 조차 남아 있지 않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세월이 흐르면서 극적루에 얽힌 정신적 가치까지 무관심 속에 점차 잊혀져 간다는 사실이다.

안성군민의 드높은 절개는 우리 역사상 국난이 있을 때마다 남달리 뛰어 났다. 고려말의 몽고족과 왜구의 침입은 심대한 것이었다. 이때는 박서 장군과 손문주 장군이 분연히 일어서서 커다란 공적을 세웠다. 홍건적의 난입때는 군민 전체가 항거하여 물리쳤다. 임진왜란 때도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인좌의 난을 토평한 오명항의 공적도 기념비적인 일이다. 한말에 이르러서는 기울어가는 국세를 안타까워하며 의병들이 분열히 일어나 국난 극복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3 · 1운동 당시에도 여러 지사(志士)가 나타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처럼 면면히 이어온 안성인의 호국정신은 극적루의 건립 배경에서부터 비롯한다. 「극적루」는 이름 그대로 적을 물리치고 우리의 것을 올바로 찾았다는 의미에서 명명된 누각이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복원되어 그 참된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극적루의 복원과 함께 안성인의 애국 애족의 정신이 새로운 의미로써 부각되어져야 할 것이다.

## ※ 극적루 기문(克敵樓 記文)

극적루(克敵樓) : 객관(客觀) 동쪽에 있다. ○ 권근이 지은 기문(記文)에, "나의 벗 정군(鄭君) 수홍(守弘)이 성의 낭관(省郎官)으로서 안성 수령이 되어 나왔다. 정사를 잘하니 백성이 의지하여 편하여졌다. 〈이에〉그 공관을 수리하고 고을 학장(學長) 정한(鄭翰)을 서울에 가게하여 양촌(陽村)의 집에 편지를 보냈는 데, 누(樓)는 본래, 거창(居昌) 인도(仁道)

가 이 고을 원이었을 때 설치한 것이다. 지정(至正 원(元)나라 순제(順帝)의 연호) 신축년에 홍건적에게 송도가 함락되고 승여(乘輿)는 파천(播遷)하였을 때 이 고을에서 북쪽으로 30여 주(州)는 풍문(風聞)만 듣고도 항복하였다. 심지어는 공복(公服)을 갖추고 나가서 맞이하기도 하였다. 하늘까지 뒤덮을 듯한 기세가 남으로 넘치니, 장차 온 나라가 같이 망해도 막을 수 없었는데 오직 이 고을이 남보다 의기를 분발(奮發)하여 항복하는 체하며 잔치를 벌여 적군을 호궤하였다. 적이 취한 다음 섬멸하니, 적은 이 때문에 다시 남으로 내려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국가는 흥복(興復)하는 공을 성취할 수 있었다. 이 고을의 의기와 공렬(功烈)을 표창하여 지관(知官)으로 승격시켰다. 다음 해 계묘년에 신군(愼君)이 원으로 와서 이 누를 지었다. 그런즉, 이 누는 적을 대항한 공과 지관으로 승격된 영광을 표한 것이니, 중한 뜻을 가졌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신군이 이 누를 짓기는 하였으나 누 이름은 짓지 못하였고, 또 그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지도 못하였다. 지금 벌써 3기(紀)라는 오랜 시일을 지나서 늙은 사람은 죽었고, 장성했던 사람은 늙었다. 또 오랜 시일을 지나게 되면, 이 고을이 국가에 공이 있었고 이 누가 고을에 중한 뜻이 있다는 것을 후세 사람은 장차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옛 규모대로 수리하여서 썩은 부분은 바꾸어서 견고하게 하고, 극적루(克敵樓)라 명명(命名)하였는 바, 자네 글을 받아서 후일 증거로 삼고, 고을 사람에게 전인(前人)의 공렬을 대대로 잊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이 누의 경치를 말하자면, 가깝게는 산이 동북쪽에 진좌(鎭座)하여 푸른 솔과 높은 나무가 울창하고 그윽하며, 남쪽에는 큰 냇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그 안쪽에 10여 채 소민(小民)의 집이 띄엄띄엄 있고, 바깥쪽에는 편평한 밭 수십 이랑이 펼쳐져 있다. 뽕나무 · 심이밭 경계에 잇닿았고, 벼농사가 논 배미에 가득하다. 봄에 갈아서 여름에 김매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온다. 무릇 고을 사람으로서 이 지역에 일이 있는 자는, 모두 고개만 숙이면 볼 수 있다. 멀리로는 천흥, 청룡의 여러 봉우리가 머리를 넌지시 내밀면서, 조회(朝會)하는 듯 읍(揖)하는 듯, 병풍처럼 옹위하고 고리처럼 벌여서, 시계(視界)가 끝이 없다. 옛날에 한문공(韓文公)이 등왕각에 올라보지 못했으나, 기문(記文)하였으니, 자네도 이 누를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써 사퇴(辭退)하지 말았으면 다행이겠다.' 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하기를 왕씨(王氏)가 고려를 건국(建國)한지 5백년 동안에 도

둑의 침해를 매우 받은 것이 충렬왕(忠烈王)경인년에 있은 합단(哈丹)의 침입과, 공민왕 신축년(辛丑年)에 있은 홍건적의 변(變)이었다. 철령(鐵嶺)을 지켜내지 못하니, 합단이 마구 들어와서 빈 고을에 나아가듯 하였다. 원주(原州)에 들어오자, 충갑(沖甲원 충갑)이 필부(匹夫)로서 팔을 뽐내며 호통쳐서 도둑을 죽이니 지금까지 아름답게 여긴다. 송도가 함락되니 홍건적이 더욱 성해져서, 군사를 갈라 남쪽으로 향할 적에 가는 곳마다 바람에 쓸리듯 하였고, 강물을 터 놓은 듯한 도도한 기세를 막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고을 사람이 충의를 다해 적군을 섬멸하였다. 우뚝한 제방이 되어 옆으로 뻗치는 적군의 기세를 막았으니, 그들의 거룩한 공은 충갑과 견주어서 손색이 없다. 그 사실을 특별히 적어서 만세에 충의를 권장하는 표본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 충의는 인도(人道)의 큰 대목이며 왕교(王敎)의 근본이다. 정군(鄭君)은 일찍부터 충효한 자질로써 인의(仁義)를 강명(講明)하였다. 고상한 뜻 가짐과 확고한 절조는 진실로 우뚝하여 짝할 사람이 없다.

이제 이 고을 정사에 임하게 되어서는, 첫째로, 이 사실을 높이 들어 이 누에 이름하여서 후인에게 무궁하도록 장려하였으니, 이점도 또한 적을 만하다. 후일, 이 누에 오르는 자가 전인의 공력을 추상(追想)하고 정군의 뜻을 생각하여. 타고난 덕을 좋아하는 양심에 감발(感發)하는 바 있으면, 충의와 절개 있는 선비가 성하게 나올 것이다. 그 왕화(王化)에 도움됨이 어떠하겠나, 어떤 사람은 '적을 이기는 공은 반드시 위란(危亂)을 겪은 다음이라야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은 오랜 세대에 드물게 있는 것이다. 절의(節義)있는 사람이 비록 감발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장차 어느 곳에 그 뜻을 나타내겠는가' 하여 나는 말하기를 '일에 크고 작음은 있으나 그 이치는 같다. 무릇 물욕이 내 마음의 의리를 해롭게 하는 것은 다 적이다. 탐심(貪心)은 염치를 해하고 모진 것은 인(仁)을 해하며, 아부(阿附)는 공(公)을 해하고, 편곡(偏曲)은 정의를 해하는데, 모두 마을을 유(類)에 따라서 커지게 하고 사물에 추급(推及)하면, 일상생활에 무릇 스스로 그 사심(私心)을 이겨서 천리(天理)를 회복하면, 어디를 가나 적을 극복하는 공이 아님이 없으며, 의(義)를 두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공자(孔子)가 안연(顔淵)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사심을 극복하여 천리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인(仁)이다.' 하였다. 〈이 누에 오르는 자

가〉 이것으로써 일삼는다면 정군의 뜻은 거의 이루어지는 것이다."하였다.

### ※ 극적루의 연혁

극적루에 관련한 최고의 기록은 권근이 지은 〈극적루기〉이다. 극적루는 소실되어 있지만 다행히 기문이 『양촌집』에 남아 있어 그 대강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은 이 기문을 바탕으로 기술된 것이다. 기문에 의하면, 극적루는 "홍건적을 대항한 공과 지관으로 승격된 영광을 표한 것"이다. 그러니 중한 뜻을 가졌다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숭고한 뜻은 이후 여러 사서(史書)와 지지(地誌)류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절요』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동국통감』 『대동지지』 『여지도서』 『여지비고』등의 지지(地誌)와 안성군의 읍지류가 대표적인 사료이다. 근래에 간행된 『안성기략』에서도 매우 중시되어 있다. 그만큼 극적루의 의미가 심대하기 때문이다.

여러 고문헌의 기록과 현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극적루 연혁에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극적루는 공민왕 10년(1361) 홍건적의 남침을 안성군민이 의롭게 저지한 의기와 공렬(功烈)을 표창하여 다음 해(1362년) 안성현에서 군으로 승격된 영광을 표한 기념비적 건물이다.
2) 극적루는 공민왕 12년(1363)에 군수 신인도(愼仁道)가 안성관아의 여러 건물과 함께 창건하였다. 이 당시는 단지 객사에 부속된 동루(東樓)에 지나지 않았다. 누를 짓기는 하였으나, 누 이름을 짓지 못하였고, 또 그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지도 못하였다.
3) 극적루는 조선 태조 9년(1398)에 군수 정수홍(鄭守弘)에 의해 여러 관아 건물과 함께 중수되었다. 이때 정수홍에 의해 「克敵樓」라는 이름이 비로소 지어졌다. 〈극적루기〉는 정수홍의 부탁으로 권근(勸近)이 같은 해 5월 보름에 지었다.
4) 극적루는 객사의 부속 건축물로 사신(使臣)의 휴식 공간이나 각종 연회 때 사용되었다.
5) 극적루는 객사의 동쪽에 있었다. 지금의 안성교육청과 안성초등학교 경계이며, 교육청사에 볼 때 정문 오른쪽 20 m 정도 떨어진 지점에

해당한다.

6) 극적루가 존치했던 기간은 자세하지 않으나, 고려 공민왕 12년(1363)에서 임진왜란(1592) 전후로 추정된다. 18세기에 간행된 지지류에는 이미 소실된지 오래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영조 4년(1728)에 건립된 오명항의 승첩비각을 당시 안성사람들이 극적루로 혼동하고 있다는 『대동지지』의 기록이 그같은 개연성을 시사한다.

## 3. 극적루 복원의 의의

극적루 복원의 의의는 바로 태조 9년(1398)에 권근이 지은 〈극적루기〉에서 찾아질 수 있다. 정수홍이 누각을 중수하여 그 의미를 되새긴 바 있으며, 권근 또한 그에 대한 감개를 피력하였다.

정수홍이 동루를 '극적루' 라고 명명한 것은 안성군민들이 충의를 다해 적군을 섬멸한 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같은 사실을 특별히 적어서 만세의 충의를 권장하는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권근의 생각이었다. 거듭 말하지만, 극적루는 안성군민의 자랑스러운 호국정신의 발로이자 안성인의 자랑인 전승기념누각이며, 길이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정신적 지주이다. 이러한 안성인의 정신은 다음의 오명항 토적송공비(吳命恒討賊頌功碑)에서도 계승되어 나타난다.

"이에 안성의 사민(士民)들이 서로 말하기를 '공의 안성 입성이 하루만 늦었어도 우리들이 남아 있었겠는가. 공의 공로는 사직과 팔도에 있지만 우리 안성 사람들이 공에게 덕을 입음이 가장 깊다' 고 하고 드디어 재물을 걷고 돌을 다듬어 공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면서 명시(銘詩)를 조현명(趙顯命)에게 부탁하였으니 이때는 공이 돌아가신지 이미 오랜 뒤였다."

(是安城之士相與語曰公之入吾安也差一日吾屬其有遺乎公之功在 社稷在八路然吾安之人德於公者尤深遂鳩財伐石爲紀功之碑以銘時屬顯命時公之歿已久矣)

그러므로 극적루의 건립 취지에 나타난 선조들의 충의정신을 우리가 앞장서서 널리 기리고 칭송해야 하며, 오늘에 알맞는 애국 · 애족의 정신

으로 승화하여 계승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안성인만의 정신으로 그칠 것이 아니요. 우리 민족 전체의 호국정신으로 가일층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권근은 〈극적루기〉에서 지적하였듯이 "일상생활에 무릇 스스로 사심(私心)을 이겨서 천리(天理)를 회복하면, 어디를 가나 적(敵)을 극복하는 공이 아님이 없으며, 의(義)를 두루 다 쏠 수 없을 것이다." 극적루에 오르는 자는 마땅히 이같은 뜻을 되새겨 일삼는다면 정수홍이 극적루를 중수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였다. 이것은 극적루의 중수가 단지 외형적인 표상을 보이기보다는 내적인 정신적 지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글이다.

오늘날 우리가 극적루를 복원하자는 뜻도 여기에 두어야 한다. 안성지역에 있었던 누각이기에 복원해서 관광자원을 하나 더 추가하자는 발상에 그친다면 오히려 옛 선조들의 뜻을 더럽히는 것이 될 것이다. 극적루의 복원은 정신적 가치의 제고에 더 집중하여야 한다. 서둘러 복원만 일삼지 말고, 극적루에 담긴 충의정신을 호국정신으로 승화하여 계승할 수 있는 계기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성인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극적루의 정신을 이해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극적루는 안성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후세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할 빛나는 문화유산인 것이다.

## 4. 구성

### (1) 진행과정

① 홍건적의 침입과 공민왕의 피난
② 안성 주민의 궁리
③ 홍건적의 안성침입
④ 홍건적 적장 격퇴
⑤ 극적루 설립과 축하공연
⑥ 안성 남사당패의 축하공연

### (2) 등장인물 및 배역

• 현감 : 조현희
• 스텝음악, 안성현 퐛말맨 : 김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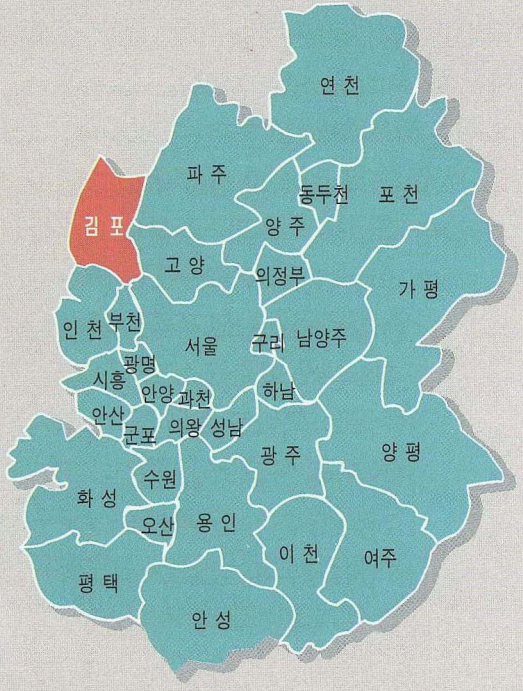
- 장수4(바람잡이) : 임성현
- 장정4, 감미탄 푯말맨 : 주현진
- 관속3, 홍건적부두목 : 자정길
- 아낙2, 관기 : 김경환
- 아낙1, 관기 : 곽용욱
- 사람4 : 조재웅
- 장정3, 양양 푯말맨 : 유성규
- 득배처, 피난민 애기엄마 : 권덕희
- 장수(바람잡이) : 최승철
- 득배, 카메라맨 : 김홍식
- 관속2 : 이인성
- 장수3(바람잡이) : 신호종
- 임금(공민왕), 안성군 푯말맨 : 최충식
- 홍건적두목 : 임용섭
- 장수1(바람잡이) : 정기수
- 홍건적부두목 : 김근섭
- 사람2 : 공진영
- 왕의 신하들
- 북소리 : 정요희
- 장정, 마전 푯말맨 : 최성수
- 홍건적부두목 : 최용기
- 장정1 : 김성수
- 관속1, 신곡 푯말맨 : 김광섭
- 피난민들
- 기타 남사당 단원

## 5. 고증 및 지도 연출

- 고증 : 최병찬 (문화원장)
- 지도위원 : 김태원(문화원사무국장)
- 감독 · 연출 : 정요희(안성공고교사)

# 김 포 군

- 농상패 논 김매기 노래
- 통진두레놀이



# 여 백

민속놀이

# 농상패 논 김매기 노래

## 1. 전승지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옹정리

## 2. 유래 및 해설

농상패 논 김매기 노래는 농사를 주로 하였던 우리에게는 전국 어디에서나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귀에 익은 우리의 가락으로써 한강과 임진강을 연하여 넓고 기름진 김포평야를 갖고 있는 이지방에서는 일찍부터 농사가 발달하였으며 농사에 따르는 농요도 다양하게 불려졌으나 일제의 한민족 말살정책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정통성을 갖고 전래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60년대 중반까지는 농사반을 조직하여 악기를 치면서 논김을 매던 풍습이 김포 곳곳에서 이어져 왔었는데 산업화물결에 모든 논이 경지정리가 되고 경제적 부흥에 따라 경운기, 트랙터등의 기계와 제초제 등의 농약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농사반이나 논김매기 등은 자취를 감춰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민속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 • 발굴

현재 김포군 통진면 옹정리 부락에 농상패가 남아있어 "정월 고사반"이나 "걸립"을 하는 일이 가끔 있기에 생존해 있는 고로들과 상공(상쇠), 선소리꾼 등을 찾아 김포지방에서 불려지던 민요(농요, 노동요등)의 가사를 채집하여 정리하면서 민속과 민요를 오늘에 재현하는데 주력하였다.

경기지방에 전해오는 대부분의 민요가 그러하듯 사이근하다는 점에서는 김포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특히, 황해도와 강화도를 통하여 전파

된 가락이나 가사내용이 김포에 들어와 새로운 양상을 띄고는 전라도지방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점에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다. 김포의 논김매기 노래는 처음에는 길고 구성진 가락인 긴방아에서 시작되어 힘든 것을 잊고자하는 흥겨운 가락 - 자진방아를 거쳐, 좀더 빨리 행동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중중모리인 상사디야로 해서 막모를 내었던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지는 모음돌 - 휘몰이 - 로 끝을 맺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 3. 구성

논김을 맬때는 농사반이 구성되어 등걸이 잠뱅이차림에 우장, 삿갓-혹은 밀짚모자-을 메고 호미를 허리춤에 차고는 7채 길군악을 치면서 일터로 나가는데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농상기를 앞세우고 나가 논두렁에서 한마당을 신나게 놀고난후, 논김을 매게 되는데, 막모를 내던 옛날에는 두렁을 따라 옆으로 늘어서서는 선소리꾼의 선창에 맞추어 왼쪽, 오른쪽으로 돔베를 딴후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둥글게 돌아들며 논김을 매었기에 가락도 긴가락을 시작으로 자진가락, 휘몰이가락으로 이어져 가게된다.

김매기가 끝나고나면 다시 우장, 삿갓등을 메고는 한마당 풍물을 치고난후 농상기를 앞세워 다른 벰이로 이동을 하게 된다.

## 4. 가사

### 에헤라 방아요

에헤라 농부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농자는 천하지대본 농사밖에 또 있느냐
올해도 풍년이요 내년에도 풍년이라
연년이 풍년들어 삼천리강산 풍년왔네
후렴) 에-헤라 방-아-요

### 닐릴리 상사디야

먼데 사람 듣기나 좋고 가까운데 사람 보기나 좋게
국태민안 시화연풍이 연년이 돌아들고
이씨한양 등극시에 동구재 만리재 백호더니

삼각산이 기봉하고 관악산이 안산되고
남산이 주산이 되고 한강수가 둘렀으니
경복궁에 사대궁이요 팔말장안에 억만가구라
노들다리를 썩건너서 김포땅에 들어섰네
후렴) 닐-릴리 상사디야 -

### 에이어라 모음돌

한섬지기 논벰이가　　일락서산에 해떨어지니
괴불만큼 남았구려　　월출동녁에 달이 솟네
논김내는 쥔마나님　　뺑뺑돌아라 똬리모음돌
술한동이 이고　　뚤뚤말아라 멍석모음돌
엉덩이춤이 절로나네　　후렴) 에이어라 모음돌-

## 5. 의의

논김매기에 노래를 불렀던것은 농삿일 중에서도 가장 힘이든 논김을 맬 때 노래를 함으로써 힘든 것을 잊을 수 있으며, 일을 잘하는 사람과 조금 뒤떨어지는 사람이 다같이 손을 맞춰 일할 수 있게 하였던 농촌 특유의 아름다운 풍습이라 하겠으며,

오늘에 재현코자 한것은 작은 명맥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김포군 옹정리 농상패를 보존, 발전시키고, 풍물놀이 등을 할 수 있게 뒷받침 해보고자 하는 뜻과 만시지탄의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거의 소멸되다시피한 구전민요-일부분이나마-를 이제라도 더찾고 정리하여 김포의 구비문학과 향토사연구에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뜻에서이다.

## 6. 발굴 · 채집 · 정리

• 발굴 · 채집 · 정리 : 김포문화원

# 통진두레놀이

## 1. 전승지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가현리

## 2. 유래 및 해설

### (1) 해설

우리민족의 젖줄인 한강 문화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경기 서북부지역의 특징중 하나는 북으로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황해로 흐르는 염화강과 접하고 있어 기름진 옥토를 형성함으로써 아주 오랜옛날부터 농경문화가 발달된 곳이다.

경기 서북부 농경문화권 지역이라 하면 김포군을 비롯하여 고양시, 성남시, 옹진군, 양주군, 남양주시, 파주시, 포천군, 연천군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김포군의 경우 황해와 접하고 있어 동아시아 황하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농경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다.



통진두레놀이의 농요를 살펴보면 경기 서북부지역 농요권의 '열소리'를 비롯하여 경기지역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모찌기 노래 "쩠네 쩠네 나도(또) 한 짐 쩠네"의 노래말도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으며, 김매기 노래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강화군의 노래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고양시

의 것에 가깝지만 간편하고 독특한 편이다.

또한 김포지방은 바다와 강이 접해있어 놀이가 거칠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오히려 후덕한 인심과 온화한 기후등의 영향으로 놀이자체가 매끄럽고 경쾌하게 이어지는데 1년농사의 전체를 놀이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우기 통진두레놀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벼농사가 시작되었던 김포군 통진면 지역의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존과 전승의 가치가 더욱 크다 하겠다.

### (2) 유래

농촌에서 농번기에 집단적으로 공동작업을 벌이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두레"라고 한다. 대개 모심기, 김매기, 나락베기 그리고 보(洑)막이등의 일이 두레감이었다.

두레에는 보통 한 집에 한사람씩 동원되었고 수총각(首總角)이라 불리는 사람에 의해 공동작업이 지휘 통제된다.

일은 농악을 갖추고 농부가를 합창하며 마을을 상징하는 농기는 논두렁에 꽂아놓고 한다.

이 농기는 여간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서 이것이 꽂혀있는 논두렁을 지날 때에 아무리 큰 벼슬아치라도 말에서 내려 걸어야만 했다.

한솥밥을 먹으며 공동작업을 하는 두레야말로 농민들에게 공동체의식을 일깨워준 것이었다.

조상대대로 이어온 농경문화의 집합체인 통진두레놀이는 한강과 임진강에 접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벼농사를 지었던 지역(김포군 통진면 가현리)으로 농업이 발달하였고 기름지고 광활한 김포평야와 자연을 벗하는 선인들의 심성 속에서 마음껏 자라나 해학과 풍자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불려져 왔으나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으로 전래되지 못하고 대부분이 잊혀졌으며 또한 광복이후 60년대 중반까지 두레(농사반)를 조직하여 농악을 울리면서 흥겹게 짓던 풍속이 곳곳에 되살아나는 듯 하였지만 60년대 후반부터 기계화 영농과 농약의 사용으로 점차 자취를 감춰 이제는 일부 마을에서 일부분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생존해 있는 고로(古老)들과 상공(상쇠)선소리꾼을 찾아 김포지방에서 불려지던 농요가사를 수집 정리하고 두레를 조직하여 농사짓던 옛모습을 탐문 조사 연구하여 고증을 통

하여 오늘에 재현하게 된것이다.

## 3. 특징

모심기와 논김을 맬 때 마을마다 두레가 구성되어 등걸이 잠뱅이 차림에 우장 · 호미등을 갖추고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농산기를 앞세우고 길군악에 맞추어 일터로 나가 논두렁에서 한마당 놀이를 하고 농사일을 하게 되는데 힘든 농사일을 잊고자 선소리꾼의 선창에 따라 농부들이 후렴을 받으며 일을 한다.

농요의 가락은 농사일의 성격에 따라 대개가 긴가락으로 흥을 돋구고 휘몰이 가락으로 끝을 맺는다.

농요가사는 두루 알려져 있는 것 이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중 속에서 그때 그때 만들어 불려진 것으로 해학과 풍자적인 요소가 많아 농민들이 흥겹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한 것 같다.

특히 통진두레놀이는 5천년역사의 우리나라 최초로 벼농사를 지었던 곳(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가현리)을 중심으로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2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자진해서 통진면부녀회원 120명이 특별출연하였다는 것이 이색적이다.

김포 통진두레놀이중 논김매기 소리의 노랫말은 방아타령과 몸돌을 제외하고는 대개 4구(句)씩으로 구성되었다.

부르는 방법은 선소리꾼의 앞소리를 농부들이 후렴으로 받아 넘기는 식으로 이어지는데 처음에는 길고 구성진 가락의 긴 방아에서 시작되어 힘든 것을 잊고자 하는 흥겨운 가락-자진방아-를 거쳐, 좀더 빨리 행동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중중모리인 상사디야오로 해서 막모를 내었던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지는 모음돌- 휘몰이-로 끝을 맺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농민들간에 불리우는 농요가 당시 농경사회상을 잘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름답고 흥겨운 가락에 농사를 천직으로 삼았던 농민의 마음을 노래했던 농요는 보존 계승 발전시켜야 할 값진 민속놀이중의 하나이다.

## 4. 구성 및 내용

### (1) 입장

맨앞에 영기2개, 동, 서, 남, 북 중앙의 다섯방위를 지키는 5방기 10개,(청룡기 2개, 백호2개, 현무2개, 주작2개, 등사2개)두레기 1개, 농산기1개 마을기26개등 40개의 기와 꽹과리, 제금, 징, 북, 장구, 소고, 소, 농군, 새참꾼, 각설이순으로 입장한다.

두레기는 본부석 앞에서고 나머지 행렬은 계속 진행하며 일렬로 서서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춘다.

### (2) 볍씨뿌리기

- 못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를 뿌리고 밀대질을 하여 못자리를 만들어 볍씨를 뿌리고 그 뒤에서는 소고놀이로 볍씨뿌리는 장면을 연출한다.
- 우리의 조상들은 마을사람끼리 품앗이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농사일을 시작할 때면 농악이 함께 나갔고 농사일이 끝나면 흥겹게 농악놀이를 함으로써 피로도 잊을 수 있었고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였다.

### (3) 논갈이 및 써래질

- 한쪽에서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해동이 되어 논으로 흘러내린 흙을 쳐 올리는 가래질을 하고 있으며, 소에 멍애를 얹어 쟁기질을 하고 한편에서는 써래질을 한다.
- 못자리에 물을 퍼올리기 위해 용두레질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요즘은 기계화로 인해 양수기가 있어 판내박이나, 용두레질은 찾아볼 수가 없다.

### (4) 고사지내기

- 풍년을 기원하는 못자리고사를 지낸다.
- 못자리 입종이 잘되어 풍년농사를 이루도록 기원하는 것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창호지를 불사르고 고사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풍년과 단합을 함께 하였다.

### (5) 모찌기

두레와 논갈이 소를 앞세우고 농악을 치면서 입장한 농부들이 농요를 부르면서 모찌기와 논갈이를 한다.

### (6) 모내기

- 못줄을 사용하지 않고 마름모(막모)간격으로 모내기를 한다.
- 과거에는 모두 인력으로 모를 쪄서 손으로 모내기를 하였으며 망종 이전에 모내기를 마쳐야 제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모판에 씨를 뿌려 이앙기로 모를 내기 때문에 손으로 모를 내는 농가는 거의 볼 수 없는 실정이다.
- 모내기를 마치고 나서도 모를 낸 농민들이 함께 모여 흥겨운 농악놀이를 하므로써 피로를 풀고 화합을 다졌다.

### (7) 새참먹기

- 모내기를 끝내고 논에서 나올 때 손, 발을 씻고 우장, 삿갓을 들고 나와 새참을 먹는다.
- 두레라는 공동작업은 고된 일이긴 했지만 막걸리 마시는 시간과 농악을 즐기는 시간도 틈틈이 있어 일과 놀이가 자연히 함께 어우러지게 마련이었다.
- 일은 새벽부터 시작하여 한시간 정도하면 아침 새참을 먹고 오전작업도중에 막걸리 참이 끼며 정오에는 역시 막걸리를 곁들인 점심이 있고 이때 농악을 즐기며 한판 놀이가 벌어진다.

### (8) 물고싸움이 두레싸움으로

- 물고싸움이 벌어진다.
- 이는 새참도중 땀흘려 애써서 물을 대어 놓은 남의 논물을 종가래꾼이 자기네 논에다 물을 대려고 논두렁을 끊다가 들켜서 종가래꾼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논주인 샌님이 쫓아와 역성을 하다가 논주인끼리 싸움을 하고 끝내는 마을간의 두레싸움이 벌어진다.
- 옛날에는 수리시설이 없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천수답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물은 생존이 걸린 무기였다. 냇물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논일 경우 서로 제논부터 물을 대려고 길죽하게 생긴 두레로 물을 퍼올리고 물고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 마을간의 두레팀은 서로 안질세라 힘겨루기를 하고 얼르다가 끝내는 한덩어리가 되어 싸움이 시작되어 두레기의 장목을 먼저 뽑는 팀이 이기는 것이다.
- 장목을 빼앗은 팀이 우리나라 최초로 벼농사를 시작했다는 가현마을 두레팀이다. 장목을 빼앗긴 들뫼마을에서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진 것을 한탄하며 장목을 빼앗은 가현마을에서는 신이 나서 좋을세라 춤을 춘다.
- 결국 들뫼마을에서는 항복을 하고 가현마을을 향해 두레기를 세번 돌리며 절을 하겠다고 신호를 보낸다.
- 가현마을에서는 들뫼마을의 항복을 인정하고 들뫼마을을 향해 두레기를 한번 돌리고 들어간다.
- 들뫼 두레패에서 절을 세번하고 나니 가현마을에서는 인사를 받는다.
- 인사를 받고 빼앗은 장목을 다시 들뫼 두레기에 꽂아준다. 그리고는 두마을 샌님끼리 화합하고 전체 두레패가 어우러져 화합을 다지는 놀이가 신나게 진행된다.

### (9) 김매기

- 두레간에 물고싸움이 끝나면 두 마을간 화합이 되어 다같이 김을 매기 시작한다.
- 마름모꼴(막모)로 심은 논의 김매기는 논두렁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김을 매나가다가 논이 좁아짐에 따라 반대방향으로 돌아 원의 형태를 이루며 빙빙 돌아가며 안으로 좁혀 마지막에는 동시에 김매기를 끝내는데 논김매는 대열은 기러기 날아가는 형상을 유지하며 협동과 단결을 다지게 된다.
- 호미로 3번의 김매기를 하였으며, 김매기를 하면서도 역시 삼삼오오 모여서 흥겨운 농악놀이를 하였다.
- 그러나 지금은 농약을 쓰기 때문에 김매기를 하지 않고 있다.
- 놀이판 끝에는 뜨거운 여름철이라 한두시간 정도 낮잠시간이 주어지며 오후 작업 도중에는 막걸리 참이 끼어 있어 일은 비록 고되지만 상당히 생산성 높게 일을 한 것이 드러난다.
  이것은 우리 조상의 슬기로운 지혜였음이 입증된다.

### (10) 벼베기

- 논에는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이고 허수아비가 꽂히며 새쫓는 소리가 들린다.
- 황금벌판에 농부들이 낫을 들고 들어가 벼를 벤다.
- 현재는 콤바인등 벼베기 작업이 기계화되었지만, 몇년전만해도 낫으로 품앗이를 해서 벼베기를 하였다.

### (11) 탈곡하기

- 벼를 벤후 태질로 볕를 털고 떨어진 낱알의 수염을 도리깨질로 다듬은 후 부뚜와 키를 이용하여 벼알을 고른다.
- 벼를 탈곡하는 작업도 지금은 모두 기계화되었지만, 60년대까지만 하여도 발로 움직이는 탈곡기를 사용하여 탈곡을 하여왔다.

### (12) 섬쌓기

- 섬쌓기를 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 현재는 벼가마니나 마대자루를 이용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벼가마니로 2가마가 들어가는 섬을 사용하였으며 농사가 많은 집은 노적가리를 만들어 벼를 보관하였다.
- 탈곡을 모두 마치고 볏가마니를 달구지로 끌고나와 어깨에 메고 본부석으로 가서 진상한다.

### (13) 마무리

- 이와같이 1년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농악과 농요를 항상 같이하며 피로를 풀었고 주민의 화합을 다져왔다.
- 우리나라 최초로 벼농사를 지었던 김포군에서는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유구하게 전래되어 내려오는 1년간의 농사짓는 풍습을 농악과 농요 그리고 소고놀이로 재현한 흥겨운 두레놀이다.
- 내년 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고사떡을 하여 동네집집마다 나누어 주고 짚가리와 노적가리에도 고사떡을 꽂아놓고 흥겨운 한마당 잔치로 1년 농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 5. 노랫말

### (1) 풍년기원고사덕담

천지 우주는 하늘이 되고 지구조차 땅생기니
삼강오륜이 으뜸이다
국태민안 봄윤전 시하연풍 년년이 도라든다
이씨한양 등극시에 삼각산이 기봉하여 봉황이 주춤 생겼구나
학을 불러 대궐짓고 대궐앞엔 육조로다
오용문 하각산 팔도 가음 마련할 때 서울시를 마련하고,
경기도를 마련하고, 통진을 마련할 때
벼라도 심어보세 무슨벼를 심어보나
통진김포에 밀달 여주이천에 자차벼
꼬리가 붉어라 다마금 찰벼라도 심어보세
무슨찰을 심어보나 쩍쩍푸드득 쟁기찰 을굿붉굿 대주찰을
여기저기다 심었으니 만사가 대길하고 소원성취가 발원이라
년년이 풍년되게 해 주십소사

### (2) 모찌기 노래

(받는소리) 쪘네 쪘네 나도 한침 쪘네

(메김소리) 여러분들 농부님들 모들이나 쪄보세
농자는 천하지대본 농사밖에 또있는가
일출동방에 해돋으니 한찜이라도 빨리 찌세

### (3) 모내기 노래

(받는소리) 허니 허니 하나 들이로다

(메김소리) 여보시오 농부님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세상에 태어난 농부 농사 안하고 무엇하나
농자는 천하지대본 엣노인이 하신 말씀
농자는 천하지대본 농사밖에 또 있는가
모를 내세 모를 내세 마늘모로 모를 내세
봄들었네 봄들었네 건너산천에 봄들었네
푸른 것은 버들이요 누른것은 꾀꼬리라

황금같은 저 꾀꼬리 임진란을 만났던지
황금갑옷 들춰입고 양유간을 왕래하네

### (4) 논김매기 노래

(받는소리) 에해 에해요 우겨라 방아로구나
나니나 난실 나리로구나 니나노 방아가 좋소
(메김소리) 좋구도 또 좋구나 금실금실 잉어들아 오염의 감바위
어디다 두고 너만 홀로서 에루하 여기 왔느냐
증추절에 적막하야 다자춘에 넋이로다
불란자리에 에루하 새속잎난다
좋구도 또 좋구나 모가지 길쑥 황새들아 논길밭길
어디다 두고 너만 홀로서 에루하 여기 걷느냐
좋구도 또 좋구나 실쯕실쯕 소구동아 소리의 명창은
어디다 두고 너만 홀로서 에루하 여기 왔느냐

### ※ 논김을 빠르게 매는 소리

(받는소리) 에넬넬 상사디오

(메김소리) 여보시오 농부님들 이내 말씀 들어보소
한소리는 높이 받고 또한 소리 가만히 살짝
일심전력 상사하면 곁에 사람 보기좋고
먼데사람 듣기좋아 엉덩춤이 절로 나네
이상사는 잘만하면 약주로 상금주고
이상사를 잘못하면 탁주로 벌주주네

### ※ 논김을 끝내는 소리

(받는소리) 에이헤라 모음돌(몸돌려)

(메김소리) 한섬지기 논배미가
괴불만큼 남았구료
논김매는 쥔 마나님
술한동이 머리에 이고
엉덩춤이 절로 나네

일락서산에 해떨어지니
월출 동녁에 달이 솟네
뱅뱅 돌아라 뙤리 모음돌
들들 말아라 멍석 모음돌
논밭전지에 새날리자 훠이

## 6. 고증 및 지도



- 고증 · 발굴 : 통지두레놀이 보존위원회
- 지도 : 소리지도 – 김현규
  진행지도 – 윤덕현
  소고지도 – 홍기발
  피리지도 – 김진환 · 안억섭
  기수지도 – 임명기
- 구성 : 김성호
- 회장 : 김재임
- 부회장 : 박은희
- 총무 : 심순애
- 출연담당 : 부쇠 – 송영덕　　제금 – 임명자
  북팀장 – 윤병선　　북반장 – 김문숙
  장구팀장 – 정연옥　장구반장 – 박명순
  소고팀장 – 박은희　소고반장 – 황미자

## 7. 출연

- 기수 : 조영수, 이창재, 허경무, 임명기, 정일찬, 이학구, 이길재, 김선호, 이범형, 이상준, 심찬섭, 조남섭, 안영길, 하우용, 유재원, 안수환, 이두재, 김경인, 조성인, 박영철, 김태성, 이창성, 이기재, 이종영, 서규원, 하룡, 박찬규, 이강규, 이선훈, 김원선, 이종호, 전요희, 유복순, 김차선, 도명금, 권이옥, 이명자, 임순기, 강명화, 윤창현, 김인국, 김성호, 이명자, 심학섭
- 호적 : 안억섭, 김진환
- 상쇠 : 윤덕현, 김현규

• 꽹과리 : 김재임, 이경훈, 송영덕, 홍종숙, 허근수, 김만봉
• 제금 : 유무자, 심순애, 임명자, 이순임
• 징 : 김정관, 김성배, 이추경, 백청운, 이충경, 이형경
• 장구 : 정연옥, 이순애, 한순근, 서정숙, 박영단, 조점례, 이선님, 조기희, 김경숙, 이명숙, 이분례, 박명순, 정한순, 신숙자, 고순임, 이상분, 이상례, 김금택
• 북 : 윤병선, 이계원, 김복순, 배형필, 홍경진, 강옥자, 박철규, 조명숙, 김순미, 조동임, 오덕심, 김경숙, 조문연, 김문숙, 유창란, 장완숙, 조숙휘, 박의순, 김보임, 김광선, 강정수
• 소고 : 홍기발, 박은희, 이영애, 이덕주, 이영란, 노성자, 윤수원, 황미자, 김순형, 심현숙, 고옥선, 홍금자, 심순남, 한순희, 전정숙, 유영자, 김이순, 송병분, 황정옥, 금창영, 박명자, 이기숙, 이순자, 김순희, 채경미, 문소영, 최금연, 박행순, 김은섭, 변영숙, 박경희
• 농군 : 홍기복, 유부연, 최정식, 박건준, 이기섭, 조남준, 권상남, 한일석, 오명환, 홍광호, 강신영, 황우판, 박태국, 김병연, 황건주, 박미영, 한흔지, 이순재, 민대근, 윤동호, 조영연, 이병수, 이용범, 조재연, 문일웅, 임기수, 김재섭, 안희욱, 신현풍, 신범균, 조춘수, 김낙관, 이준영, 김명재, 김진섭, 이성구, 조건연, 한규중, 권오수, 박희순, 서승수, 조희환, 황규만, 권영석, 김홍두, 윤용철, 이기춘, 정영현, 유현국, 홍용표, 박석주, 이주하, 이기복
• 새참꾼 : 이영희, 심정화, 김안순, 정봉금, 이영애, 이인순, 한영애, 김용화, 이명순, 고재임, 이경숙, 이응순, 고남홍, 이순임, 전화영, 김정연
• 어린이 : 이호면, 임해라, 박이슬, 백진석
• 각설이 : 윤병열, 왕이순
• 소 : 김금선, 이진민

#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경기도 수상현황

| 회수 | 연도 | 수상내용 | 작품명 | 비고 |
|---|---|---|---|---|
| 1회 | 1958 | 문화공보부장관상 | 양주 별산대놀이 | |
| 〃 | 〃 | 장려상(개인상) | | 김성태 |
| 2회 | 1961 | 장려상(개인상) | 양주 별산대놀이 | 김성태 |
| 3회 | 1962 | 국무총리상 | 경기 농악 | |
| 4회 | 1963 | 장려상 | 경기 농악 | |
| 5회 | 1964 | 문화공보부장관상 | 경기 농악 | |
| 〃 | 〃 | 공로상(개인상) | 양주 산대놀이 | 김성태 |
| 6회 | 1965 | 도지사상(개인상) | 양주 산대 | 고명달 |
| 7회 | 1966 | 문화공보부장관상 | 양주 산대놀이 | |
| 〃 | 〃 | 도지사상(개인상) | 양주 산대놀이 | 박상항 |
| 8회 | 1967 | 국무총리상 | 양주 산대놀이 | |
| 9회 | 1968 | 장려상 | 양주 산대놀이 | |
| 10회 | 1969 | 도지사상(개인상) | 양주 별산대가면극 | 유경성 |
| 〃 | 〃 | 공로상 | 〃 | |
| 11회 | 1970 | 문화공보부장관상 | 농 악 | |
| 12회 | 1971 | 장려상 | 농 악 | |
| 13회 | 1972 | 도지사상(개인상) | 어린이농악 | 이영숙 |
| 〃 | 〃 | 장려상 | 경기 어린이농악 | |
| 14회 | 1973 | 문화공보부장관상 | 양주 별산대놀이 | |
| 14회 | 1973 | 도지사상(개인상) | 양주 별산대놀이 | 박교웅 |
| 15회 | 1974 | 공로상 | 경기 어린이농악 | |
| 16회 | 1975 | 공로상(개인상) | | 유경성 |
| 〃 | 〃 | 장려상 | 양주 별산대놀이 | |
| 17회 | 1976 | 장려상 | 경기 농악 | |
| 18회 | 1977 | 문화공보부장관상 | 시선뱃노래 | |
| 19회 | 1978 | 문화공보부장관상 | 거북놀이 | |
| 20회 | 1979 | 장려상 | 연천 아미산 울어리 | |

| | | | | | |
|---|---|---|---|---|---|
| 21회 | 1980 | 도지사상(개인상) | 경기 농악 | 송 창 선 |
| 22회 | 1981 | 도지사상(개인상) | 강화 시선뱃노래 | 정 태 기 |
| 23회 | 1982 | 공로상 | 과천 무교동답교놀이 | |
| 24회 | 1983 | 공로상 | 연천 아미산 울어리 | |
| 26회 | 1985 | 문화공보부장관상 | 이천 거북놀이 | |
| 27회 | 1986 | 대통령상 | 강화 용두레질 노래 | |
| 28회 | 1987 | 대통령상 | 여주 쌍용 줄다리기 | |
| 〃 | 〃 | 도지사상(개인상) | 김포 두레농요 | 윤 덕 현 |
| 29회 | 1988 | 공로상 | 고양 송포호미걸이 | |
| 30회 | 1989 | 대통령상 | 안성 남사당풍물놀이 | |
| 〃 | 〃 | 도지사상(개인상) | 〃 | 김 기 복 |
| 31회 | 1990 | 공로상 | 김포 상두꾼소리 | |
| 32회 | 1991 | 장려상 | 안산 둔배미놀이 | |
| 33회 | 1992 | 문화공보부장관상 | 포천 메나리 | |
| 34회 | 1993 | 공로상 | 의왕 왕곡동제 | |
| 35회 | 1994 | 장려상 | 수원 장치기 | |
| 36회 | 1995 | 국무총리상 | 광명 농악 | |
| 37회 | 1996 | 공로상 | 수원 이의동 길마재 줄다리기 | |
| 38회 | 1997 | 대통령상 | 통진두레놀이 | |

#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수상현황

| 회수 | 일시 | 장소 | 출연팀 | 최우수상팀 |
|---|---|---|---|---|
| 제1회 | '82.10.16 | 수원종합운동장 | 20개팀 | 연천군 아미산울어리 |
| 제2회 | '83.10.28 | 수원종합운동장 | 21개팀 | 김포군 주사손돌공 진혼제 |
| 제3회 | '84.10.13 | 수원실내체육관 | 22개팀 | 이천군 거북놀이 |
| 제4회 | '85.10.4~5 | 수원실내체육관 | 26개팀 | 강화군 용두레질 노래 |
| 제5회 | '86.9.12~13 | 수원종합운동장 | 36개팀 | 김포군 두레농요 |
| 제6회 | '89.9.8~9 | 안양종합운동장 | 26개팀 | 김포군 상두꾼소리 |
| 제7회 | '91.9.12~13 | 수원종합운동장 | 33개팀 | 포천군 메나리 |
| 제8회 | '93.9.2~3 | 수원종합운동장 | 32개팀 | 수원시 장치기 |
| 제9회 | '94.9.8~9 | 안양종합운동장 | 31개팀 | 광명시 광명농악 |
| 제10회 | '95.9.14~16 | 성남종합운동장 | 31개팀 | 수원시 이의동길마제줄다리기 |
| 제11회 | '97.9.25~26 | 여주공설운동장 | 23개팀 | 고양시 싱아대(말장박는)소리 |

# 편 집 후 기

경기도는 우리나라 중심부에 위치하여 선사시대 이래 유구한 역사와 함께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유산들을 통하여 우리 선조들이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민족 특유의 훌륭한 향토문화와 아름다운 민속놀이 문화를 창출했으며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의식과 대동 화합으로 마을의 안녕과 태평을 도모하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지켜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언의 교훈과 미래에 대한 역사적 사명감마저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무분별한 개발과 서구문화의 수용으로 정신적 지주이며 민족혼이라 할 수 있는 전통민속문화를 천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들이 파괴되고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생활하여 왔으며 그 내면적 사고와 희로애락이 어떠한 한과 흥으로 표출되었고 시대에 따라 어떻게 계승 · 발전 · 승화시켜 왔는가를 이해하기 전에는 아무도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에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에서는 향토 문화의 정신적 뿌리를 다시 찾고 경기도민의 향토애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했던 자료들을 기초로 제1집에 이어 「경기도의 민속예술」 (제2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향토문화와 전통민속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한층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경기도 및 경기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과 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 · 군 문화원, 그리고 디자인 · 출력 · 인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동창프로세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97. 12월 김태훈 · 오복자

# 경기도의 민속예술

##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0년사(제2집)

**발행인** 송승영

**편집인** 김태훈

**발행처**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인 쇄** 1997년 12월 15일

**발 행** 1997년 12월 20일

**디자인 · 출력 · 인쇄** 동창프로세스

**편집위원** 오복자

이책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과 자체금으로 발행되었음.

비매품

